

# 가족과 커뮤니티

Family and Community



# 가족과 커뮤니티

## 목 차

### 기획특집 | 한국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이현주   한국 고대의 ‘가(家)’의 기원: 신라의 골(骨)과 족(族)에 대한 연구사를 중심으로	5
이정란   고려시대 여성사의 연구성과와 가족·친족제	27
박미선   조선 시대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2000~2022년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55
홍양희   ‘가족의 시대’에서 ‘포스트-가족’의 시대로: 한국 근대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101

### 일반논문

진서금   『신설서유기도상(新說西遊記圖像)』에 나타난 유가적 관점에 관한 고찰	143
정천구   <사복불언>에 나타난 모자(母子)의 수행과 성불	173
최희영   20세기 초 하와이 한인 가족과 커뮤니티 양상: 『두 이민의 꿈(The Dreams of Two Yi-min)』 분석을 중심으로	201
양소영   김윤성과 정한모 시에 나타난 ‘식물 이미지’ 연구: 초기시를 중심으로	227
이지연   어느 조산사의 구술사: 체험과 경험의 이야기	253
김덕삼 · 이경자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회와 학교의 역할 탐구	295

### 서평

정미선   가족의 약속으로부터 돌봄을 구하기	325
--------------------------	-----

▣ 발간 및 투고 규정(제출 양식)	333
▣ 논문 심사 규정	337
▣ 연구 윤리 규정	341
▣ 임원 명단	346



[기획특집]

## 한국 고대의 ‘가(家)’의 기원\* \*\*

- 신라의 골(骨)과 족(族)에 대한 연구사를 중심으로 -

이현주\*\*\*

### 목차

1. 머리말 : 한국 고대 ‘가족사’ 연구의 시작
2. 한국 고대의 ‘족(族)’을 찾아서
3. 한국 고대의 ‘가(家)’를 찾아서
4. 한국 고대의 ‘부(父)’를 찾아서
5. 맺음말 : 고대 가족의 이원적 운영 원리

### ■ 국문초록

한국 고대 가족사 연구의 핵심적인 쟁점은 ‘출계율’이다. 초기 연구에서 한국 고대사회는 여계·모권적 사회에서 남계·부권적 사회로 발전하였다고 이해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후대 연구자들에게 극복의대상이 되었고, 이후 한국 고대사회의 ‘부계적’ 요소와 원리를 찾기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6078031).

\*\* 2023년 5월 12일에 개최된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 가족커뮤니티사업단 주최 학술대회 <한국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에서 발표한 『고대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원고를 수정·보완하였음.

\*\*\* 아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 6 『가족과 커뮤니티』 8집

한국 고대사회의 가족 및 친족의 구조와 운영원리를 규명하기 위해 인류학 및 사회학 이론이 도입되었다. 특히 가계(Lineage)와 친속(kindred)에 관한 이론은 한국의 가족 및 친족의 구조를 규명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다만 한국 고대사회의 가족 및 친족에 대한 연구에서 이론과 실제, 인식과 실제 사이의 괴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 고대의 혼인·가족제의 운영 원리는 이원적이다. 그 하나는 부계적 가(家)의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비부계적 가(家)의 원리이다. 이처럼 한국 고대의 ‘가(家)’의 이원적 운영 원리는 한국 고대의 혼인·가족제가 중국과 다른 데서 기인한다. 한국 고대에 중국의 종법제에 근거한 제도가 수용되면서 부계적 가의 개념이 수용되었지만, 여전히 모계 및 처계가 ‘가(家)’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즉 한국 고대의 가족 및 친족의 이원적 운영 원리는 한국 고대의 가족 및 친족제도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제도를 수용하고, 운영하는 데서 오는 괴리를 극복하는 방안이었다.

주제어: 가족, 친족, 고대, 신라, 골제, 가계, 친속, 출계율

### 1. 머리말 : 한국 고대 ‘가족사’ 연구의 시작

가족사 연구에서 ‘고대’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모든 “특별”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여기서의 ‘특별’은 초기 한국의 가족 및 친족 연구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한국의 고대적 특징이 한국 전근대 전반을 규정한다고 보았던 것에서 기인한다.<sup>1)</sup>

한국의 가족에 관한 초기 연구는 1930년대에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

1) 井上和枝, 『朝鮮家族史研究の現状と課題』, 『歴史評論』 424, 1985; 盧明鎬, 『高麗時代 親族組織의 연구상황』, 『中央史論』 5, 1987; 崔在錫, 『韓國古代의 家族制度研究』, 『國史館論叢』 24, 1991; 이종서, 『고려시대 가족·친족 연구의 역사와 반성』, 『역사와 현실』 66, 2007. 한국 고대 가족사 관련 연구를 정리한 논고로 앞의 연구 참조.

학자로 후쿠다 도쿠조(福田徳三)와 시카다 히로시(四方博)가 있다. 이들은 한국 고대의 “족제(族制)”를 주목하였고, 고대의 족제가 조선 후기까지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를 찾고자 하였다.

우선 후쿠다 도쿠조(福田徳三)의 연구는 조선 후기가 봉건사회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정체성론을 기반으로 진행하였다.<sup>2)</sup> 시카다 히로시(四方博)의 가족 연구 역시 조선 호적에서 보이는 ‘동족부락’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로 진행되었다.<sup>3)</sup> 시카다 히로시(四方博)의 가족 연구의 한계로 국가적 파악대상으로의 ‘호(戶)’와 민간에서 인식하는 ‘가족(家族)’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sup>4)</sup> 후쿠다 도쿠조와 시카다 히로시의 연구 이후로 대체로 한국에서는 동족촌락이나 부계 종족집단이 이른 시기부터 발생하였고, 17세기 이후 일반화되었다고 이해하였다.<sup>5)</sup> 즉 고대부터 유지된 부계의 혈족단체가 조선까지 이어진 것을 전제로 한 가족사 연구가 이어졌다.<sup>6)</sup>

- 
- 2) 福田徳三, 「朝鮮の經濟組織と經濟單位」, 内外論叢, 1903; 『改訂増補 經濟學研究』, 同文館, 1909 재수록.
  - 3) 四方博, 「李朝人口に関する一研究」, 『朝鮮社会法制史研究』, 京城帝國大學法學會論集9, 1937; 「朝鮮に於ける大家族制と同族部落—その歴史的觀察の一試論」, 『朝鮮』270, 1937; 「李朝人口に関する身分階級的的觀察」, 『朝鮮經濟の研究』第三, 京城帝國大學法學會論集10, 1938; 「李朝時代の都市と農村とに関する一試論—大丘戶籍の觀察を基礎として」, 京城帝國大學法學會論集12, 1941; 「大丘戶口帳籍に就いて」, 『大丘府史』特別篇, 大丘府刊, 1939; 『朝鮮社會經濟史研究』(中), 國書刊行會, 1976 재수록.
  - 4) 시카다의 호적을 통한 인구구성과 혼인관계 분석 연구는 호적자료의 현실성을 과신하였을 뿐 만 아니라 식민지시대 인구에 대한 인식이 조선왕조 인구분석에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손병규, 「시카타 히로시(四方博)의 조선시대 ‘인구·가족’ 연구에 대한 재검토」, 『韓國史學報』52, 2013, 319~321면).
  - 5) 이들 연구에서는 가족의 축소경향과 부계친족집단으로의 확대경향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김경란, 「조선후기 가족제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2000, 376~406면; 손병규, 앞의 논문, 2013, 323면).

이와 같은 관점은 고려사 연구에도 이어졌다. 하타다 다카시(旗田 巍)는 ‘호족’을 신라 말의 혈연적 동성촌락(同姓村落)의 수장(首長)인 촌주(村主) 출신으로 파악하였다.<sup>7)</sup> 하타다 다카시(旗田 巍)를 비롯하여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 강진철 등은<sup>8)</sup> 고려 전기에 고대적 성격의 혈연 공동체가 존재했던 것으로 이해하였다.<sup>9)</sup> 이후 고려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 촌락의 구성이 성씨집단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가정한 연구들이 이어졌다. 후대의 연구에서 고대의 족적 기반이 고려에 잔존하였다는 설은 극복의 대상이었다.

- 
- 6) 이나바 이와키치(稲葉岩吉), 와다 이치로(和田一郎),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등의 일본인 연구자들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와다는 조선후기 문증재산이 삼한시대의 족제에서 기원하였다고 하였고(和田一郎, 土地制度地稅制度調査報告書, 朝鮮總督府, 1920), 젠쇼와 시카다는 조선의 취락은 ‘동족부락’인데, 이는 고대 이래 지속되어 온 현상이라고 하였다(善生永助, 『朝鮮の聚落』 後編, 朝鮮總督府調査資料, 1935; 四方博, 『李朝人口に關する一研究』, 『朝鮮社會法制史研究』, 京城帝大法學會論集 9, 1937). 이들 일본인 연구자들의 연구는 사회진화론에 기반하고 있으며, 후쿠다의 봉건제결여론을 전제로 한 연구이다(이종서, 앞의 논문, 2007, 225-226면).
- 7) 旗田 巍의 연구 이후, 호족은 신라의 골품제사회를 붕괴시키고, 후삼국시대를 거쳐 고려가 건국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인식되었다(한국역사연구회, 『나말여초 호족의 연구동향 —1960년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 1990). 이후 김철준과 이기백의 일련의 연구를 통해 골품제의 폐쇄성을 극복하는 지역호족과 육두품의 대두, 이들이 고려의 집권화 과정을 거치면서 문벌귀족 내지 향리로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고, 이는 고려 중세사회론으로 정리되었다(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金哲垓,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1975). 호족 관련 연구사는 蔡雄錫, 『高麗時代의 國家와 地方社會 -‘本貫制’의 施行과 地方支配秩序-』,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1~14면 참조).
- 8) 旗田 巍, 『高麗王朝成立期の土豪と族團』, 1957; 『高麗王朝成立期の『府』と豪族』, 『法制史研究』 10, 法制史学会, 1960; 『朝鮮中世社會史の研究』, 法政大學出版部, 1972; 武田幸男,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I) - 高麗顯宗朝における若木郡の構造-』, 『朝鮮學報』 25, 1962; 姜晋哲, 『高麗土地制度史研究』, 高麗大學校 出版部, 1980, 304, 433면.
- 9) 盧明鎬, 『高麗時代 親族組織의 研究상황』, 『中央史論』 5, 1987, 182면.

한국 고대의 가족은 친족에서 분화하였다. 따라서 한국 고대의 가족사 연구는 친족연구에서 시작한다.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는 친족, 그 중에도 '출계율'에 대한 연구가 다수였다. 초기 연구로는 김두헌,<sup>10)</sup> 김철준,<sup>11)</sup> 변태섭,<sup>12)</sup> 피영희,<sup>13)</sup> 김의규,<sup>14)</sup> 이기동,<sup>15)</sup> 이광규<sup>16)</sup> 등의 연구가 있다. 이와 같은 '출계율'과 관련 연구는 상숙,<sup>17)</sup> 성씨<sup>18)</sup>, 혼인<sup>19)</sup> 관한 연구로 이어졌다.

우선 김두헌은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 고대의 가족 및 친족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김두헌은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제도사적인 고찰을 시도하였는데,<sup>20)</sup> 조선의 가족제도가 주로 중국의 가

- 
- 10) 金斗憲, 『韓國家族制度 研究』,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0.
  - 11) 金哲垞, 「新羅時代의 親族集團」, 『韓國史研究』1, 1968; 金哲垞,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1975 재수록.
  - 12) 邊太燮, 「韓國 古代의 繼世思想과 祖上崇拜信仰」, 『歷史教育』3·4, 1958; 「廟制의 變遷을 통하여 본 新羅社會의 發展過程」, 『歷史教育』8, 1964.
  - 13) 皮瑛姬, 「Double Descent 理論 適用을 통해서 본 新羅王의 身分觀念」, 『韓國史論』5, 1979.
  - 14) 金毅圭, 「新羅 母系制 社會說에 대한 檢討- 新羅親族研究(其一) -」, 『韓國史研究』23, 1979.
  - 15) 李基東, 「新羅 奈勿王系의 血緣意識」, 『歷史學報』 53·54, 1972; 「新羅 中古時代 血族集團의 特質에 관한 諸問題」, 『震檀學報』40, 1975;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재수록.
  - 16) 李光奎, 『韓國家族의 史的研究』, 一志社, 1977.
  - 17) 李鍾旭, 「新羅時代의 血族集團과 相續」, 『韓國親族制度研究』, 一潮閣, 1992.
  - 18) 金哲垞, 「한국 고대사회의 성격과 羅末·麗初의 전환기에 대하여」, 『韓國史時代區分論』, 韓國經濟史學會, 1970; 崔在錫, 「新羅의 姓과 親族」, 『韓國古代社會史研究』, 一志社, 1987; 李純根, 「新羅時代 姓氏取得과 그 意味」, 『韓國史論』6, 1980; 李鍾書, 「羅末麗初 姓氏 사용의 擴大와 그 背景」, 『韓國史論』 37, 1997.
  - 19) 李光奎, 「新羅王室의 婚姻體系」, 『社會科學論文集』 1, 1976; 崔在錫, 「新羅王室의 婚姻制」, 『韓國史研究』 40, 1983; 沈喆俊, 「新羅王室의 婚姻 法則」, 『曉城趙明基博士華甲記念 佛教史學論叢』, 曉城趙明基博士華甲記念 佛教史學論叢 刊行委員會, 1965.
  - 20) 金斗憲, 『朝鮮家族制度研究』, 乙酉文化社, 1949; 『韓國家族制度研究』, 서울大學校 出版部, 1969.

족제도에서 비롯하였다고 파악하였다. 즉 한국의 동족집단의 특징은 동족지연공동체(同族地緣共同體)로, 지연(地緣) 또는 생활공동체(生活共同體)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sup>21)</sup> 또한 삼국시대에는 부권가족제(父權家族制)가 성립하였고, 이에 상속제도 원칙적으로 장자상속제(長子相續制)였다고 보았다.<sup>22)</sup>

역사학의 초기 친족 연구로는 김철준의 칠세친족집단론(七世親族集團論)과<sup>23)</sup> 변태섭의 오세동족론(五世同族論)이 대표적이다.<sup>24)</sup> 김철준은 고려 성종4년(985)에 제정된 오복제도(五服制度)가 동고조(同高祖) 8촌(5代)까지 범위의 동일 친족집단이었고, 그 이전인 신라는 칠세동일(七世同一) 친족집단이 존재하였다고 보았다. 금석문에 기록된 “칠세부모(七世父母),”<sup>25)</sup> 문헌사료에서 내물왕 이전의 박·석·김 삼성세계(三姓世系)가 모두 칠세(七世)라는 점과 박씨 왕비가 처음 등장하는 지증왕대부터 7대째가 진골의 첫 왕인 무열왕인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성골에서 진골로 왕계가 전환한 것도 무열왕이 친족집단의 말단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sup>26)</sup> 이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sup>27)</sup> 신라의 친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시작이라는 점에서는 여전

21) 金斗憲, 『同族集團의 組織과 機能』, 『民族文化研究』2, 1966; 『韓國家族制度研究』, 서울大學校 出版部, 1969.

22) 金斗憲, 앞의 책, 1969.

23) 金哲垓, 『新羅時代의 親族集團』, 『韓國史研究』1, 1968; 金哲垓, 앞의 책, 1975 재수록.

24) 邊太燮, 앞의 논문, 1958; 앞의 논문, 1964.

25) 癸酉銘三尊千佛碑像, “...記~~□~~~~□~~是者爲國王大臣及七世父母法界衆生故敬造之...”; 癸酉銘全氏阿彌陀佛碑像, “...共爲國王大臣及七世父母含靈等, 願敬造寺...”

26) 金哲垓, 『新羅時代의 親族集團』, 『韓國史研究』1, 1968; 金哲垓, 앞의 책, 1975 재수록.

27) 邊太燮은 신라의 七世同一 친족집단설이 圖式的이라고 비판하였고(1957년도 韓國史學界의 回顧와 展望—國史 古代—歷史學報 44 1969), 李佑成은 고려의 五代同—친족집단설이 하나의 픽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국정교과서—인문 계고교용—비판』創作과 批評, 1974년 여름호 및 檀國大學 東洋學研究所 주최강

히 유의미하다. 또한 변태섭은 한국 고대사회에 일찍부터 부가장(父家長)의 권한이 컸고, 가장의 권리는 제사의 주관자인 동시에 계승자이기 때문에 주어졌던 것이라고 보았다.<sup>28)</sup> 특히 변태섭은 신문왕대 성립한 오묘제를 근거로 진지대왕은 고조로 하는 오세동족(五世同族)의 존재를 상정하였다.<sup>29)</sup>

이처럼 초기의 친족연구에서 변태섭은 ‘골(骨) -> 족(族) -> 가(家)’의 변화,<sup>30)</sup> 김철준은 ‘7세대 공동체->5세대 공동체’의 변화,<sup>31)</sup> 이순근은 ‘3~4세대 공동체’의 출현을<sup>32)</sup> 상정하였다. 이들 친족 연구는 신라 하대에 4촌간에도 동일한 족단(族團)으로 묶여지지 않는 친족집단의 해체·소멸의 논의로 이어졌다.<sup>33)</sup> 즉 이들 신라 친족연구에서는 신라 하대, 적어도 신라 말에는 족단 규모가 소규모화 되었다고 이해하였다.<sup>34)</sup>

---

연 『高麗時代の 家族』, 1974). 李基東 역시 신라의 칠세동일 친족집단설에 대해 가설의 타당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비판하였다(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史論 1 - 古代篇』, 1978)

- 28) 변태섭은 재산의 계승자로서의 상속자는 재산도 상속받았는데, 재산의 상속은 제사상속에 부수되는 것인데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앞의 논문, 1958, 84면).
- 29) 邊太燮, 앞의 논문, 1964, 67면.
- 30) 邊太燮, 앞의 논문, 1964.
- 31) 金哲垓, 『新羅時代の 親族集團』, 『韓國史研究』 1, 1968; 『한국 고대사회의 성격과 羅末·麗初의 전환기에 대하여』, 『韓國史時代區分論』, 韓國經濟史學會, 1970; 앞의 책, 1975 재수록.
- 32) 李純根, 『新羅時代 姓氏取得과 그 意味』, 『韓國史論』 6, 1980.
- 33) 盧泰敦, 『羅代의 門客』, 『韓國史研究』 21·22, 1978; 盧明鎬, 『山陰帳籍을 통해 본 17世紀初 村落의 血緣樣相』, 『韓國史論』 5, 1979; 『高麗의 五服親과 親族關係 法制』, 『韓國史研究』 33, 1981; 『羅末麗初 親族組織의 변동』, 『又仁金龍德博士停年紀念 史學論叢』, 1988; 『羅末麗初의 社會變動과 親族制度』, 『韓國古代史研究』 8, 1995. 노태돈은 신라사회에는 부계출계집단이 있었으나 신라 말기에 접어들면서 소규모화 되거나 해체되었고, 그 이후로는 비부계적 속성이 자리잡게 되었고, 이를 ‘양측적 친속제’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후 출계집단 대신 개인의 친속(kindred)으로 친속관계의 확대 및 발달이 친족제도 원리의 주된 흐름이 되었다고 하였다(앞의 논문, 1995, 69~71면).

친족집단은 일정한 인원을 포함하는 사회적 집단이자 조상숭배의 의식을 행하는 종교적 집단이며, 경제적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경제적 집단이다.<sup>35)</sup> 친족집단의 일반적인 정의와 ‘고대적 성격의 족제(族制)’ 사이의 괴리를 이해하는 것이 고대의 친족 연구, 나아가 가족 연구의 과제일 것이다.

## 2. 한국 고대의 ‘족(族)’을 찾아서

### 1) 골(骨) -> 족(族) -> 가(家)

한국고대의 가(家)는 언제부터 등장했는가. 하타다 다카시(旗田 巍)에 의해 골(骨)에서 족(族), 족(族)에서 가(家)가 점차 중요해졌을 것이라는 점이 지적된 이래 ‘골(骨) -> 족(族) -> 가(家)’의 도식이 일반화되었다. 우선 하타다 다카시(旗田 巍)는 해공왕 이후 귀족 반란의 원인에 대해서 이전부터 나타나고 있던 골족(骨族) 내의 분립적(分立的) 경향이 강해졌고, 골(骨) 속의 족(族), 같은 족(族) 속의 가(家)가 독자적인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이해하였다<sup>36)</sup> 이기백 역시 신라통일 이후 내부

34) 李佑成은 고려에서는 戶籍에 대한 법규, 田丁相續,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단위 등의 근거로 보아 친족공동체와 같은 친족집단이 없었고, 형제가 分家하는 소가족이 기본적 형태였다고 하였다(李佑成, 「高麗時代의 家族: 親族集團 社會編制 문제와의 關聯에서」, 『東洋學學術會議講演』, 1974). 이들 연구에서는 나 말려초 이후 고려대에 이르면, 부계집단은 물론 어떠한 형태와 규모로도 출계집단의 기능을 뚜렷하게 반영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최재석의 연구에서도 고려대의 부계집단의 존재가 부정되었다(崔在錫, 「高麗時代의 親族組織」, 『歷史學報』 94-95, 1982). 노명호는 고려는 양측적 친족조직이었다는 일련의 연구들을 제출하였다(盧明鎬, 「高麗時代의 親族組織」, 『國史館論叢』 3, 1989).

35) 李光奎, 『韓國家族의 史的研究』, 一志社, 1977, 111면.

36) 旗田 巍, 『朝鮮史』, 岩波全書, 1951, 59면.

적인 사회 분화가 시작되어 그 결과 골(骨)의 내부에는 종족(宗族)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회적인 세력단위가 대두하였고, 나아가 종족을 형성하는 분자로서 대가족(大家族)이 나타났으며 이는 하대에 노골화되었던 것으로 보았다.<sup>37)</sup> 변태섭은 이와 같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신문왕 7년에 오묘제(五廟制)가 성립하였는데, 오묘제가 가묘제(家廟制)로 가조(家祖)적 성격이 농후하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즉 오묘제가 실시된 것은 신라가 골품, 왕족 중심 사회에서 가조(家祖)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전제한 것이라고 이해하였다.<sup>38)</sup> 또한 변태섭은 시조묘에서 신궁으로의 전환이 골(骨)에서 족(族=姓)으로의 분화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고, 신궁에서 오묘제로의 발전은 족(族)에서 가(家)로의 분화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시조묘는 골(骨)의 의식 위에 성립되어 국조(國祖)를 받든 것이고, 신궁은 족(族=姓)의 의식 위에 성립되어 가조(家祖)를 모신 것이며 오묘(五廟)는 가(家)의 관념 위에서 친조(親朝=直祖)를 봉사한 것으로 보았다.<sup>39)</sup> 이종항 역시 오묘제를 주목했는데, 신문왕대 오묘제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골품제 중심의 사회가 가(家)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였다고 보았다.<sup>40)</sup> 이들 연구에서 신라는 골품(骨品), 왕종(王種), 왕족

37) 李基白, 『新羅私兵考』, 『歷史學報』9, 1957;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재수록, 267~269면.

38) 邊太燮, 앞의 논문, 1964, 66~74면.

39) 邊太燮, 앞의 논문, 1964, 75면.

40) 李鍾恒은 신문왕대 家祖 五廟制를 주목하였고, 신문왕이 태조대왕과 선왕인 4명의 왕이 아닌 자신을 중심으로 직계 4조, 즉 父, 祖父, 曾祖父, 高祖父의 4조를 모신 것으로 보아 당의 가족제도를 완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사회의 세분화가 이룩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았다. 이종항은 骨品과 家의 관계에 대해서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즉 골품은 그가 속한 家系에 대하여 부여한 것으로, 골품 속에는 그의 血統이 가장 중시되고, 또 가문가족이 중시된다. 그러나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사회조직의 본질이 점차 세분화되어 가는 것이고, 이에 部->骨品->位階로 변화하는 동시에 氏族->家를 단위로 하는 작은 것으로 분화하였다고 보았다(『新羅의 身分制度에 관한 研究-부와 骨品과 位階를 中心으로-』).

(王族) 중심에서 점차 가(家)를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하였다고 이해하였다.

이후 ‘골(骨) -> 족(族) -> 가(家)’의 도식에서 ‘골(骨) = 족(族)’으로 이해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sup>41)</sup> 이노우에 히데오(井上秀雄),<sup>42)</sup> 이기백,<sup>43)</sup> 신동하는<sup>44)</sup> 골품제를 골제와 두품제의 두 계통으로 보았는데, 여기서 골제(骨制)는 왕족의 족제(族制)로, 두품제(頭品制)는 왕족 외의 일반인의 족제(族制)로 이해하였다.<sup>45)</sup>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와 이노우에 히데오(井上秀雄)는 족(族)을 동족(同族), 즉 Kin으로 보았고, 이를 정치사회적 단위인 기초집단으로 이해하였다.<sup>46)</sup> 다음은 골(骨)과 족(族)에 관한 사료이다.

A-1. (삼국사기) 국인은 시조 혁거세부터 진덕왕까지의 28명의 왕을 일컬어 성골이라 하고, 무열왕부터 마지막 왕까지를 진골이라고 하였다. 당나라 영호징의 『신라기(新羅記)』에는 “그 나라의 왕족은 제1골(第一骨)이라 하고, 나머지 귀족은 제2골(第二骨)이라고 한다.”라고 하였

『法史學研究』 創刊號, 1974, 51~53면).

- 41) 武田幸男, 「新羅の骨品体制社會」, 『歷史學研究』 299, 1965.  
 42) 井上秀雄, 「新羅の骨品制度」, 『歷史學研究』 304, 1965;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1974 재수록.  
 43) 李基白, 「新羅 六頭品 研究」, 『省谷論叢』 2;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재수록.  
 44) 申東河, 「新羅 骨品制의 形成過程」, 『韓國史論』 5, 1979.  
 45) 반면 후보돈은 品은 等級, 品級을 나타내는 어미로, ‘骨의 品’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즉 골품이란 용어는 원래는 骨이었으나 성골과 진골로 분화되면서 만들어진 용어가 骨品이었다는 것이다(朱甫墩, 「新羅骨品制社會とその變化」, 『朝鮮學報』 196, 2005; 「신라 骨品制 연구의 새로운 傾向과 課題」, 『韓國古代史研究』 54, 2009, 10~12면). 이처럼 신라의 특징적인 신분제인 골품제 연구는 친족제도에 대한 이해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46) 井上秀雄, 「新羅朴氏王系の成立-骨品制の再檢討-」, 『朝鮮學報』 47, 1968;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1974 재수록, 369면; 武田幸男, 「新羅骨品制の再檢討」, 『東洋文化研究所紀要』 67, 1975, 182~187면.

다.<sup>47)</sup>

A-2. (신당서) 그 나라의 관제(官制)는 [왕의] 친속(親屬)을 상위직에 임명한다. 그 족(族)을 제1골과 제2골이라고 이름 붙여 스스로 구별한다. 형제의 딸, 고모, 이모, 그리고 종자매(從姊妹)를 다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다. 왕족이 제1골이며, 아내 역시 그 족속으로서 자식을 낳으면 모두 제1골이 된다. [제1골은] 제2골의 여성과 혼인하지 않으며, 결혼하더라도 항상 첩으로 삼는다.<sup>48)</sup>

사료 A-1은 『신라기(新羅記)』이고, A-2는 『신당서(新唐書)』로 모두 중국인의 관점에서 신라를 기록한 글이다. A의 사료에 따르면, 신라에서는 제1골과 제2골이라고 해서 “골(骨)”, 중국에서는 왕족과 귀족이라고 해서 “족(族)”이라고 표기한 것을 알 수 있다. A의 사료에 의하면, 신라인은 “골(骨)”로 인식한 친족집단을 중국인은 “족(族)”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당대의 표현으로 ‘골(骨) = 족(族)’임을 알 수 있다.

## 2) 골(骨) = 족(族) -> 가(家)

친족(親族, kin)보다 더 좁은 단위의 기초집단인 가계(家系, lineage)를 상정하는 연구들이 제기되었다. 가장 먼저 미시나 쇼에이(三品彰英)는 한국 고대 사회에는 씨족(氏族)이 없었고, 그보다 좁은 범주의 혈연관계인 리니이지(家系, lineage)로 구성된 친족집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

47)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眞德王 8년, “國人謂始祖赫居世至眞德二十八王, 謂之聖骨, 自武烈至永王, 謂之眞骨. 唐令狐澄新羅記曰, “其國王族, 謂之第一骨, 餘貴族第二骨.”

48) 『新唐書』卷220, 東夷列傳, 新羅, “其建官, 以親屬爲上, 其族名第一骨·第二骨以自別. 兄弟女·姑·姨·從姊妹, 皆聘爲妻. 王族爲第一骨, 妻亦其族, 生子皆爲第一骨, 不娶第二骨女, 雖娶, 常爲妾媵. 官有宰相·侍中·司農卿·太府令, 凡十有七等, 第二骨得爲之. 事必與衆議, 號「和白」, 一人異則罷. 宰相家不絕祿, 奴僮三千人, 甲兵牛馬豬稱之. 畜牧海中山, 須食乃射. 息穀米於人, 償不滿, 庸爲奴婢.”

다.<sup>49)</sup>

이후 김철준과 이기동은 씨족의 하부단위로서 3가지 범주의 리니이지를 설정하여 신라사에 적용하였다. 김철준은 Maximal Lineage-Major Lineage-Minor Lineage-Minimal Lineage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sup>50)</sup> 이기동 역시 최소 리니이지-소 리니이지-대 리니이지-최대 리니이지로 구성된 리니이지 분지조직(分枝組織, Lineage Segmentary System) 이론을 수용해서<sup>51)</sup> 나물왕 이후 나물왕의 장자인 눌지왕의 직계비속은 소지왕대까지 3대에 걸쳐 소 리니이지 집단을 형성하였다고 이해하였다.<sup>52)</sup> 즉 눌지왕 이후 직계가 고정적으로 왕위계승을 하였고, 이에 나머지 왕실의 친족집단은 3세대를 지나면서 점차 분지화(分枝化)하였다고 보았다.<sup>53)</sup>

이종욱은 씨족(氏族, Clan)-가계(家系, Lineage) 이론을 받아들여 신라상대의 왕위계승을 부계혈족의 원리로 이해하였다. 즉 박·석·김은 각각 하나의 씨족(氏族)이었고, 이들 씨족은 다시 가계(家系)로 분지(分枝)되었다고 보았고,<sup>54)</sup> 나아가 종가(宗家)도 상징하였다.<sup>55)</sup>

49) 三品彰英, 『骨品制社會』, 『古代史講座』7, 1963, 192면.

50) 金哲竣은 무열왕계, 나물계, 김주원계 등의 구분은 Maximal Lineage, 七代同一親族集團이 Major Lineage, 五代同一親族集團이 Minor Lineage, 祖父까지의 혈연은 Minor Lineage와 Major Lineage 솔하에 있는 Minimal Lineage로 간주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新羅時代의 親族集團』, 『韓國史研究』 1, 1968;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1975 재수록, 263, 275면).

51) 李基東, 『新羅 奈勿王系の 血緣意識』, 『歷史學報』 53:54, 1972;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재수록, 54~63면.

52) 이기동, 앞의 책, 1984, 71~72면.

53) 이기동은 기존의 骨-族-家の 도식에서 骨=族의 도식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族을 Kin(同族)이 아닌 Lineage(系譜親族 또는 家系)로 이해하였다(『新羅 中古時代 血族集團의 特質에 관한 諸問題』, 『震檀學報』 40, 1975;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재수록, 86~89면, 97면).

54) 李鍾旭, 『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0, 40면.

55) 李鍾旭, 『新羅時代의 眞骨』, 『東亞研究』 6, 1985; 『新羅骨品制研究』, 一潮閣, 1999 재수록, 243~247면. 여기서의 宗家は 중심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순근은 기존에 분지화로만 설명하던 것을 분지화(分枝化, Segmentation)와 분열화(分裂化, fission)을 구분하였다. 전자는 협동적인 동일체에서 새로운 지파가 형성되는 것인 반면 후자는 대립하는 별개의 개체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신라 하대 왕위계승쟁탈전의 적대적인 상황을 분지화가 아닌 분열화로 이해한 것이다. 분열화의 과정을 거쳐 나말려초에 새로운 성씨가 출현하였다는 것이다.<sup>56)</sup> 이기백의 연구에서도 Lineage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신라의 갈문왕과 신라 하대의 왕위계승쟁탈전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성격의 진골 '가계(家系)'를 상정하였다.<sup>57)</sup>

또한 주목할 만한 연구로 이광규의 인류학 관점에서 한국 가족 및 친족을 고찰한 연구가 있다. 이광규는 한국 친족집단의 특성으로서 ① 오세동족집단(五世同族集團) 내부에 존재하는 소집단(小集團)의 독립성과 ② 부계·모계의 비중이 거의 대등한 양계적 성격(兩系的 性格)을 주목하였다. 또한 한국 가족의 특성은 ① 형제가 분가(分家)하여 별거(別居)하면 독립적 존재가 되고 여자가 여식(女息)으로서 가계계승과 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과 여식을 차별하지 않는 혈연주의와 ② 혈연은 부에 의하여, 그리고 동시에 모에 의하여 이룩된다는 부모동혈주의(父母同血主義)라고 하였다.<sup>58)</sup> 이광규는 '양계적 성격'을 주목하였으나 다만 한국은 기본적으로 부계사회였고, 모계가 중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 고대의 가족 및 친족에 관한 연구는 문헌 사료 및 문자 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인류학 이론을 도입하여 보편성과 특수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족(族)에서 가(家)로 분화하였고, '가(家)'의 의식은 하대에 심화하였다고 이해하였다.<sup>59)</sup> 이들

56) 李純根, 『新羅時代 姓氏取得과 그 意味』, 『韓國史論』 6, 1980, 58~64면.

57)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16~18면, 185~186면.

58) 李光奎, 『韓國家族의 構造分析』, 一志社, 1975.

59) 신라사회의 경우 처음부터 父系制를 상정할 근거가 유력하다고 보았다(李基東,

연구로 인해 한국 고대 가족 및 친족에 대하여 많은 부분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상정하는 ‘가(家)’와 ‘가계(家系)’는 부계혈연 중심의 중국의 ‘가(家)’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 3. 한국 고대의 ‘가(家)’를 찾아서 – 왕위계승을 중심으로 -

다음으로 ‘가(家)’의 계승에 관하여 ‘왕위계승의 원리’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국 고대사회에서 부계적 ‘가(家)’를 상정하였고, ‘가계계승’을 ‘부자계승’에 한정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중 상대적으로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 신라의 왕위계승에 관한 연구가 다수이다.

우선 이종욱은 신라 상대의 왕위계승을 부계혈족 원리로 이해하였는데, 박·석·김씨가 씨족(氏族, Clan)이고, 이들은 각각 작은 가계(家系, lineage)로 분지화된 것으로 보았다<sup>60)</sup>. 또한 이기동은 중고기에 나물왕계를 중심으로 lineage가 형성되고, lineage의 분지화됨에 따라 진평왕대에 성골이 성립된 것을 밝힌 연구를 시작으로, 이후 신라 하대의 왕위계승을 둘러싼 쟁탈전 역시 lineage와 lineage의 분지화로 인한 결과로 파악하였다. 특히 신라 하대는 왕실친족집단원에 의한 권력 장악, 권력 집중의 한 전형이 확립되어 가던 시기로 이해하였다.<sup>61)</sup> 즉 원성왕이 하대의 실질적인 시조였고,<sup>62)</sup> 원성왕계가 왕위를 독점함에 따라 왕실 가계가 분지화(分枝化)되어서 인검계와 예영계 및 균정계로 나뉘었다는

『新羅 中古時代 血族集團의 特質에 관한 諸問題』, 震檀學報 40, 1975).

60) 李鍾旭, 『신라상대왕위계승연구』, 민족문화연구소, 1980; 『新羅時代의 血族集團과 相續』, 『韓國親族制度研究』, 一潮閣, 1992.

61) 이기동, 앞의 책, 1984.

62) 末松保和, 앞의 책, 1954; 申澧植,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一潮閣, 1984; 金壽泰, 『新羅中代政治史研究』, 일조각, 1996.

것이다.<sup>63)</sup> 이와 같은 견해는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계승되었는데, 신라의 왕위계승의 원리는 혈연적 친소(親疏)에 따라 부계친의 남자를 중심으로 계승되었고, 그 순서는 자(子), 적손(嫡孫) 순이었고, 정당한 왕위계승자가 없을 경우, 동생(弟), 숙부(叔父), 조카(姪), 사위(女婿)의 순이었다고 이해하였다.<sup>64)</sup>

이처럼 친족원리에 기반한 계승원리에 대한 연구는 ‘부계가족 내 계승’, ‘부자계승’의 원리를 상정해놓고 이에 부합하지 않은 계승사례는 비상시의 일로 간주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왕위계승은 아버지(父)에서 아들(子)로 계승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계승원리를 이해하고자 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즉 원칙적으로 아들(子) 외에도 딸(女), 사위(女婿), 친손(親孫), 외손(外孫)의 5종의 친족원이 왕위계승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중 우선순위에 따라 계승이 정해졌다는 것이다.<sup>65)</sup> 또한 ‘사위(女婿)’의 왕위계승권에 주목하여 부계혈연의식에 기반한 ‘가계의 분지화’ 개념에 의문을 제기한 연구도 이루어졌다.<sup>66)</sup>

계승원리, 특히 신라의 왕위계승원리에 관해서 대체로 하대로 올수록 아들을 우선하는 부계적 요소가 강화되었고,<sup>67)</sup> 이는 족(族)에서 가

- 
- 63) 吳星, 『新羅 元聖王系의 王位交替』, 『全海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一潮閣, 1979; 尹炳喜, 『新羅 下代 均貞系의 王位繼承과 金陽』, 『歷史學報』 96, 1982; 金東洙, 『新羅 憲德·興德王代의 改革政治 - 특히 興德王 九年에 頒布된 諸規定의 政治의 背景에 대하여 -』, 『韓國史研究』 39, 1982; 姜聲媛, 『新羅時代 叛逆의 歷史的 性格: 《三國史記》를 中心으로』, 『韓國史研究』 43, 1983; 李明植, 『新羅政治史研究』, 형설출판사, 1992; 金昌謙, 『신라 하대 왕위계승 연구』, 경인문화사, 2003.
- 64) 李基白, 앞의 책, 1974; 김창겸, 앞의 책, 2003; 최의광, 『新羅 下代 王位繼承 樣相과 性格』, 高麗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박사학위논문, 2013; 선석열, 『신라 왕위계승 원리 연구』, 혜안, 2015.
- 65) 최계석, 『韓國家族制度史研究』, 一志社, 1983; 『한국 고대의 가족제도』, 『國史館論叢』 24, 1991; 『한국의 가족과 사회』, 景仁文化社 재수록, 2009, 28-34면; 하정룡, 『新羅上代 王位繼承 研究 - 王室內 近親婚을 中心으로』, 『新羅文化』 12, 1995.
- 66) 이재환, 앞의 논문, 2017.

(家)로 분지화하는 경향과 맞물려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였다.

사실상 신라 하대 왕위계승분쟁에서 ‘왕의 자격’과 관련하여 왕실여성의 지위 역시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요인이었다. 상시적 상황의 왕위계승은 ‘왕의 자격’ 조건으로 혈연적 정통성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비상시적 상황의 왕위계승은 ‘왕의 자격’에 대해 차별적 조건을 덧붙여야만 했다. 신라 하대의 왕위계승쟁탈전은 부계가 동일한 근친 간의 경쟁이었다. 부계가 동일하므로 상대적으로 모계 및 처계의 위상이 중요해졌고, 이는 왕실여성, 특히 태후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다.<sup>68)</sup> 이처럼 신라 하대는 왕위계승쟁탈전이 치열했던 만큼 부계 못지않게 모계 및 처계도 ‘왕위 자격’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 4. 한국 고대의 ‘부(父)’를 찾아서

결국 신라의 친족제도의 연구는 출계율에서 시작하여 출계율로 귀결된다. 신라는 언제부터 ‘부계(父系)’ 사회였을까. 과연 ‘부계’ 사회였을까.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부계제’를 상정하는 것은 ‘한국고대사회의 모계(母系)적 요소’에 관한 초기의 연구를 극복하는 것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는 한국 고대 사회를 여계에서 남

---

67) 최재석 역시 기본적인 친족원리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 왕위계승의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하대로 올수록 부계적 요소가 강화되고 비단계적 요소가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왕권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앞의 책, 2009, 40면).

68) 이현주, 『신라 하대초기의 왕위계승과 태후의 역할』, 『여성과 역사』 29, 2018; 『신라 하대 왕위계승권과 왕실여성 - 경문왕가를 중심으로 -』, 『新羅文化』 56, 2020.

계로 이행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즉 신라 상고기는 여계적·모권적 경향의 사회였고, 중고기를 남계적·부권적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한층 성장한 사회가 된 것으로 보았다.<sup>69)</sup> 이마니시 류(今西龍) 역시 신라사회의 모계제적 속성에 주목하였고,<sup>70)</sup> 손진태도 10세기 초까지 모계적 경향이 농후하였다고 이해하였다.<sup>71)</sup>

이에 대해 이기백은 갈문왕 연구를 통해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상고기에 이미 성립되었다고 상정하였다.<sup>72)</sup> 이기동은 신라에 있어 여계·모계의 중요성은 전시대를 통해 일관된 것이므로, 여계에서 부계로의 변화, 특히 모권에서 부권으로의 성장을 상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았다.<sup>73)</sup> 이처럼 초기의 연구는 한국 고대에 부계혈연의식이나 부계친족 집단이 이미 성립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려의 친족연구에서 고려가 부계를 기반으로 한 친족사회가 아니었다는 점을 규명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신라의 친족구조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가 시도되었다. 노명호는 고려의 친족구조가 양측적 친족구조였음을 밝혔는데,<sup>74)</sup> 즉 신라의 집단적이고 부계중심의 혈연관계는 고려에 와서 개인이 기준인 '양측적 친속조직'으로 확대·발달하였다고 이해하였다.<sup>75)</sup> 나아가 이종서는 고려사회의 양측적 친속관계의 기원을 신라 하대 진골귀족으로 소급하기도 하였다.<sup>76)</sup> 또한 최재석은 고려의 친족제도가 부계를 기반으로 한 사회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

69) 末松保和,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98~103면, 196~204면.

70) 今西龍, 『新羅史研究』, 近江書店, 1933, 266면.

71) 孫晉泰, 『朝鮮民族史概論』(上), 乙酉文化社, 1948, 270~271면.

72) 李基白, 『新羅時代の 葛文王』, 『歷史學報』 58, 1973;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재수록, 16면.

73) 이기동, 앞의 책, 1984, 107면, 주38.

74) 盧明鎬, 『山陰帳籍을 통해 본 17世紀初 村落의 血緣樣相』, 『韓國史論』 5, 1979; 『高麗의 五服親과 親族關係 法制』, 『韓國史研究』 33, 1981; 『羅末麗初의 社會變動과 親族制度』, 『韓國古代史研究』 8, 1995.

75) 盧明鎬, 『羅末麗初 親族組織의 변동』, 又仁金龍德博士停年紀念 史學論叢, 1988.

76) 이종서, 『신라 진골(眞骨) 성씨의 성립과 기능 변화』, 『역사와 현실』 105, 2017.

고, 그 기원을 신라의 친족구조로 보았다.<sup>77)</sup> 최근 ‘골(骨)’에서 가계(家系, lineage)가 분지해갔다는 상정이 가능하려면 ‘골(骨)’이 원래부터 단일한 부계 혈연집단이어야 하는데, ‘골(骨)’은 하나의 커다란 부계 친족 집단이 아니라는 문제제기도 이루어졌다.<sup>78)</sup>

이처럼 한국 고대의 기족 및 친족 연구는 한국 고대에 부계혈연의식이나 부계친족집단이 이미 성립되었다는 것을 전제한 것에 반해<sup>79)</sup> 고려의 친족 연구는 ‘양측적 친속조직’을 전제로 한다.<sup>80)</sup> 신라의 부계혈족집단과 고려의 양측적 친속조직 사이의 연계성을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이다. 기존 연구의 한계는 한국 고·중세의 친족구조를 분절적이고 단절적인 관점으로 이해한 것에서 기인한다. 한국 고·중세의 가족 및 친족 구조에 대한 시계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 5. 맺음말 : 고대 가족의 이원적 운영 원리

신라에는 ‘부계적 가(家)’와 ‘비부계적 가(家)’의 두 가지 원리가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부계적 가(家)’를 전제한 친족원리는 중국제도의 도입과 관련이 있다.<sup>81)</sup> 한국의 고대국가는

77) 崔在錫, 『新羅王室의 親族構造』, 『東方學志』 35, 1983; 『新羅王室의 婚姻制』, 『韓國史研究』 40, 1983; 『新羅王室의 王位繼承』, 『歷史學報』 98, 1983; 『韓國古代社會史研究』, 一志社, 1987; 『韓國古代의 家族制度研究』, 『國史館論叢』 24, 1991; 『한국의 가족과 사회』, 경인문화사, 2009 재수록.

78) 이재환, 『新羅 眞骨의 ‘家系 分枝化’에 대한 재검토 - 사위의 왕위계승권을 중심으로 -』, 『大丘史學』 127, 2017, 5-6면.

79) 김철준, 앞의 논문, 1968; 邊太燮, 앞의 논문, 1964; 이기백 앞의 책, 1974; 이종욱, 앞의 책, 1980; 이기동, 앞의 책, 1984.

80) 盧明鎬, 앞의 논문, 1979; 앞의 논문, 1981; 앞의 논문, 1988; 이종서, 앞의 논문, 2017.

81) 최재석은 비단계적 제도와 부계적 제도로 구분하였는데, 전자에는 왕위계승,

중국의 제반 제도를 수용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지배체제를 정비하였다. 또한 왕권의 강화와 통치 질서의 수립을 위해 중국의 예제를 기반으로 한 제도를 수용하였다. 상복법과 종묘제, 후비제, 태자제 등은 중국의 예제적 질서를 기반으로 한 제도로 중국 고유의 친족제도인 종법제를 기반으로 한 제도이다.

신라가 종법제와 후비제를 수용한 것 역시 중국의 율령과 예제를 통한 개혁의 일환이었고, 그 목적은 왕권 강화였다.<sup>82)</sup> 신라는 당의 후비제를 수용하였지만, 신라의 가족 및 친족제도의 기반 하에 신라의 실정에 맞게 운용하였다. 왕실의 가묘적 성격을 지닌 국가제의인 종묘제는 왕의 부계적 계통성을 기반으로 한 제도인 반면 왕의 즉위와 더불어 이루어진 왕의 부모 추봉은 왕 개인을 중심으로 한 부계와 모계의 위상을 높인 것이었다. 신라의 부모 추봉 사례를 보면, '가(家)'의 개념이 강화된 신라 하대에 오히려 왕위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모를 추봉하는 사례가 다수 보인다. 즉 부계(父系) 못지않게 모계(母系)가 중시되었는데, 태후의 출신은 왕권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주요 요소였던 것이다.<sup>83)</sup> 이처럼 모계의 중요성은 왕위계승권에서도 알 수 있다. 신라 하대 태후의 혈연적 정통성은 왕위계승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왕녀 출신의 왕후와 태후는 왕통의 계승을 매개하고,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였다.<sup>84)</sup>

또한 상복법의 도입은 삼국이 부모와 처자로 구성된 '가(家)'를 통치의 대상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sup>85)</sup> 고구려·백제, 신라는

시조묘제사, 신궁제사, 계보기록, 양성, 갈문왕 추봉 원리가 해당하고, 후자에는 오묘제사, 대왕 및 태자 칭호부여 등이 해당한다고 보았다(『韓國家族史에서의 서로 다른 두 原理에 대하여』, 『歷史學報』 106, 1985; 『韓國古代社會史方法論』, 一志社, 1987 재수록, 404-417면).

82) 이현주, 「신라 중대 왕후의 책봉과 위상 정립」, 『역사와 현실』 95, 2015; 「신라 후비제의 비교사적 고찰 - 正妃의 지위를 중심으로 -」, 『사림』 73, 2020.

83) 이현주, 「신라 종묘제의 변천과 태후」, 『사림』 66, 2018.

84) 이현주, 앞의 논문 2018; 앞의 논문, 2020.

상복법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해 부모-자녀와 부부로 구성된 유교의 예제적 ‘가(家)’ 개념을 인식하였다. 신라의 태자제 역시 중국의 종법제를 기반으로 하는 적장자 계승을 원칙으로 하는데, 태자제의 수용과 운용은 신라 왕실의 ‘가족’ 인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sup>86)</sup>

이처럼 중국 종법제에 기반한 제도의 수용이 기존에 있었던 신라의 친족질서를 전면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고대의 ‘가(家)’의 운영원리가 이원적인 것은 한국 고대의 혼인·가족제가 중국과 다른 것에서 기인한다.<sup>87)</sup> 신라에는 중국의 종법제에 근거한 제도가 수용되면서 부계적 가의 개념이 수용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모계 및 처계는 ‘가(家)’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즉 한국 고대의 가족 및 친족의 이원적 운영원리는 한국의 가족 및 친족제도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제도를 수용하고, 운영하는 데서 오는 괴리를 극복하는 방안이었다.

한국 고대의 가족 및 친족제도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제도를 수용하였고,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양자 간의 괴리, 즉 기존의 사회적 기반과 새로운 제도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였다. 한국 고대의 가족 및 친족제도의 이원적 운영 원리는 한국과 중국의 가족 및 친족 구조 및 제도 사이의 괴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85) 이현주, 『신라 유교 가족윤리의 도입과 변용 - 상복법을 중심으로』, 『新羅文化』 59, 2021.

86) 이현주, 『신라 태자제의 수용과 왕실의 ‘家族’ 인식』, 『新羅史學報』 55, 2022.

87) 이현주, 『한국 고·중세의 혼인제와 “유녀(遊女)”의 인식 - 서옥제와 서류부가제를 중심으로 -』, 『여성과 역사』 36, 2022.

■ 참고문헌

- 金斗憲, 『韓國家族制度 研究』,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0.
- 金哲垞,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1975.
- 李光奎, 『韓國家族의 史的研究』, 一志社, 1977.
- 李基東,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 蔡雄錫, 『高麗時代의 國家와 地方社會 -‘本貫制’의 施行과 地方支配秩序-』,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崔在錫, 『韓國古代社會史研究』, 一志社, 1987.
- 旗田巍, 『朝鮮中世社會史の研究』, 法政大學出版部, 1972
- 歷史學會 編, 『韓國親族制度研究』, 一潮閣, 1992.
- 盧明鎬, 『高麗時代 親族組織의 研究상황』, 『中央史論』 5, 1987.
- 崔在錫, 『韓國古代의 家族制度研究』, 『國史館論叢』 24, 1991.
- 이종서, 『고려시대 가족·친족 연구의 역사와 반성』, 『역사와 현실』 66,  
2007.
- 井上和枝, 『朝鮮家族史研究の現狀と課題』, 『歷史評論』 424, 1985.
- 손병규, 『시카타 히로시(四方 博)의 조선시대 ‘인구·가족’ 연구에 대한 재  
검토』, 『韓國史學報』 52, 2013.
- 김경란, 『조선후기 가족제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  
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2000.
- 한국역사연구회, 『나말여초 호족의 연구동향 —1960년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 1990.

■ Abstract

## The Origin of the Family in Ancient Korea

Lee, Hyun Ju

A key issue in the study of family history in ancient Korea is the 'Descent Rules'. In early studies, it was understood that ancient society of Korea developed from a Matriarchal to a Patriarchal.

This research is a topic that later researchers want to overcome, and since then, research has been mainly conducted to find the "Patriarchal" elements and principles of Korean ancient society.

Anthropological and sociological theories were introduced to clarify the structure and operating principles of family and relatives in ancient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the theory of Lineage and Kindred had a significant impact on identifying the structure of family and relatives in Korea. However, in the study of family and relatives in ancient Korean society, there is still a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perception and reality.

The records of Silla's family and relatives show that there are dual principles. One is the patrilineal principle, and the other is the non-patrilineal principle.

The dual principles of operation of the "Family" in ancient Korea is due to the difference in marriage and family systems in ancient Korea from China. As the system based on China's general legal system was accepted, the concept of paternal family was accepted, but maternal family and wife's family were still important factors that made up the "Family" in Korea.

Therefore the dual operating principles of family and relatives in ancient Korea was also a way to overcome the gap that comes from accepting and operating China's system while maintaining the family and relatives system in ancient Korea.

Key Worlds: Family, Kinship, Ancient Korea, Silla, Gol(骨) system, Lineage, kindred, Descent Rules

이 논문은 2023년 6월 19일 투고되어 2023년 7월 13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3년 7월 14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

[기획특집]

고려시대 여성사의 연구성과와 가족·친족제\*

이정란\*\*

— 목차 —

1. 머리말
2. 정치 관계 속 여성의 지위와 역할: 후비의 ‘이념상’ 지위 천착과 외척 연구의 새로운 돌파구
3. 내·외명부의 칭호와 유교적 내치체제(內治體制) 구현의 상관성: 여성 칭호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과 왕실 혼인에 대한 단상(斷想)
4. 가계계승·재산상속에서의 ‘혈통주의’와 친족지칭 속 여성: 양측적 친속 인식의 발현과 복수의 여성성으로의 환기
5. 맺음말

■ 국문초록

최근 고려 여성사는 많은 연구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고려 후비의 역할과 위상을 다룬 글들은 여성 ‘개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거기에서 복합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그녀들’의 모습을 천착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보다 진일보했다. 한편, 개별이 아니라 전체를 시야에 두고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8S1A6A3A04042721).

\*\*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고려 후비의 정치적 위상을 검토한 글도 꾸준히 발표되었다. 전근대 여성의 정치적 열악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禮論에 투영된 이념적 지위를 통해 후비의 정치적 위상을 살펴본 일련의 글들은 고려 여성사 연구의 진전에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 여성의 칭호를 둘러싼 연구도 새로운 국면에 도달했다. 유교적 통치체계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후비의 칭호를 분석함으로써 왕실의 혼인 형태를 재고하도록 한 연구, 궁·원호에 담긴 거주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천착하여 서류부가혼 전통을 재확인한 논문, 외명부 칭호의 실사례 분석으로 고려의 양측적 친속 모습을 살핀 글이 이 방면의 연구에서 특히 주목된다.

다양한 주제와 갈래로 진행된 고려 여성사 연구에서 유의해야 할 사실은 ‘복수의 여성성’에 대한 고민과 고려의 혈통주의가 여성의 위상과 역할에 끼친 결과를 분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복수의 여성성’ 추구가 여성사 연구에 대한 반성이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려는 시도라고 한다면, 혈통주의에 관한 관심은 고려 여성의 특수성을 확인해보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이상의 주제는 고려 여성사 연구의 진척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 복수의 여성성, 혈통주의, 친족지칭, 후비 칭호, 외척 연구, 내명부, 외명부, 다처제, 양측적 친속

## 1. 머리말

고려의 가족·친족사 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 진전되어 왔다. 고대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부계 질서의 유구함을 당연시해왔던 시기가 첫 단계 연구라면, 1970년대 이후 부계 자체에 의문을 품고 엄밀한 사료 분석과 서구 인류학 이론의 접목으로 고려의 친족조직을 양측적(兩側的) 친속(親屬)으로 이해한 연구가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sup>1)</sup>

1) 이종서, 『고려시대 가족·친족 연구의 역사와 반성』 『역사와 현실』66, 2007.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한 친속(kindred)의 발달, 음서제(蔭敍制)·상피제(相避制)에 투영된 양측사회로서의 모습, 족당 세력의 총계성(總系性), 자녀 간 균분상속의 양상 등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고려를 양측적 친속사회로 명명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고려의 비(非) 부계적인 관습과 제도를 총체적으로 검토한 2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연구는 친족 호칭, 족보 등에서 보이는 양측사회로서의 구체적인 실상을 재확인하고 혈통인식의 고려적 속성을 조망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고려의 가족·친족 연구는 이제 다음 단계로 도약할 시점에 와있다. 그동안의 연구가 가족·출계의 유형과 구조에 집중하였다면, 이제 가족·친족 내부로 시선을 옮겨 ‘가치’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출계집단과 가족의 구성원들이 맺는 관계의 내용에 따라 출계집단의 성격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성원들이 열린(open)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닫힌(closed) 구조 속에 놓여있는지에 따라, 가족·친족을 구성하는 내용물은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졌듯이, 한 사회의 가족·친족들 사이에 불평등이 존재하듯 가족 내에도 다양한 유형의 불평등이 내재해 있다. 가족들은 “계급·젠더·연령에 따라 복잡하여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구성과 내용적 측면에서 유동성이 큰데, 그중 가족·친족의 실체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젠더’이다.<sup>2)</sup>

이에 필자는 2000년 이후의 고려 여성 관련 연구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여성사 연구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가족·친

---

위의 연구에서는 가족·친족 연구를 일제시기, 해방이후~1960년대, 1970~1980년대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필자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일제 강점기와 1960년대까지의 연구는 정체성론을 바라보는 태도에 차이가 있긴 하나, 부계 질서의 유구함을 선형적 주장했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연구 경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 여기에서는 일단 두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2) 다이애너 기턴스, 『가족은 없다』, 일신사, 1997, 19~21면.

족사 연구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그동안 가족·친족제에 관한 연구성과를 되짚어보는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졌는데 비해<sup>3)</sup> 고려 여성사의 연구성과는 제대로 다루어진 바 없다는 사실도 주제 선정에 영향을 주었음을 아울러 밝혀두는 바이다.<sup>4)</sup>

## 2. 정치 관계 속 여성의 지위와 역할 : 후비의 ‘이념상’ 지위 천착과 외척 연구의 새로운 돌파구

고려 여성사 연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후비(后妃) 개인의 일생을 살피는 것을 매개로 정치사·외교사·사상사의 이해를 넓히려는 목적에서 기술된 글들이다. 고려 후비를 다룬 이전의 연구는 개별 후비를 연구의 소재로 거의 다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체적인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가문의 일원이라는 제한된 시각에서 보는 경향이 컸다. 그에 비해 2000년 이후에는 여성 ‘개개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거기에서 주체적 인간으로서 ‘그녀’의 역할과 정치적 위상을 천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런 점에서 이전의 연구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우선, 고려 전기 개별 후비의 삶을 소재로 한 일련의 연구가 발표되었다.<sup>5)</sup> 고려 전기의 경우 당대의 정세와 정치세력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3) 노명호, 『고려시대 친족조직의 연구상황』 『중앙사론』5, 1987 ; 이종서, 앞의 논문, 2007.

4) 고려 여성사 연구성과는 고대의 여성사를 다루면서 ‘부수적으로’ 검토되는 수준으로 연구되어왔다(김선주, 『여성과 여성성 연구의 모색』 『여성과 역사』19, 2013). 그런데 2000년대 이후의 고려 여성사 연구는 고대의 연구와 함께 검토되기 버거울 정도로 양·질의 측면에서 비약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이 점에서 필자는 2000년대 이후의 연구 성과를 검토 대상으로 삼아, 여성사 연구의 경향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바를 모색하고자 한다.

5) 고려 전기 후비를 소재로 쓴 논문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태후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신혜왕후·신정왕태후·천추태후·인예태후·선정태후·명의태후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후비의 가문과 왕실 혼인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거나, 태후의 섭정과 정치활동을 검토하여 후비와 후비 가문의 정치적 위상을 조망하는 연구가 많았다.

한편, 여원관계사에 대한 관심의 폭증에 상응하여 원 공주를 소재로 삼은 논문들이 연이어 소개되었다. 그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원 공주가 바로 제국대장공주를 다룬 논고들이다.<sup>6)</sup> 고려에 下嫁해 온 몽골

권순형, 「고려 목종대 현애왕태후의 섭정에 대한 고찰」 『史學研究』89, 2008 ; 권순형, 「고려 최고의 여성정치가 현애왕태후(천추태후) 황보씨」 『여성이론』21, 2009a ; 김갑동, 「高麗 太祖妃 神惠王后와 貞州 柳氏」 『한국인물사연구』11, 2009 ; 김아네스, 「고려시대 천추태후의 정치적 활동」 『한국인물사연구』10, 2008 ; 김창현, 「고려시대 천추태후와 인예태후의 생애와 신앙」 『한국인물사연구』5, 2006 ; 김창현, 「천추태후 역사」, 푸른역사, 2009 ; 신수정, 「고려시대 신정왕태후 황보씨의 위상 변화 - 왕실 근친혼과 관련하여 -」 『여성과 역사』23, 2015 ; 신수정, 「자매간 왕비가 된 장경왕후 김씨, 광정태후 김씨, 선정태후 김씨」 『史學研究』131, 2018 ; 신수정, 「고려 원종 왕비 慶昌宮主 柳氏」 『史學研究』140, 2020 ; 신수정, 「고려 현종비 원성태후 김씨의 혼인과 그 영향」 『여성과 역사』37, 2022 ; 이정란, 「고려 肅宗妃 明懿太后的 정치적 위상」 『한국인물사연구』6, 2006 ; 이정란, 「고려 宣宗妃 思肅太后와 仁宗妃 恭睿太后」 『한국인물사연구』16, 2011.

- 6) 권순형, 「원 공주 출신 왕비의 정치권력 연구 - 충렬왕비 제국대장공주를 중심으로 -」 『史學研究』77, 2005 ; 권순형, 「『목은시고』를 통해 본 고려 말 정신택주의 가정 생활」 『여성과 역사』19, 2013 ; 권순형, 「충렬왕비 제국대장공주의 고려 왕비로서의 삶」 『여성과 역사』28, 2018 ; 김난옥, 「충혜왕비 덕녕공주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 『한국인물사연구』14, 2010 ; 김현라, 「고려 원간섭기 慶華公主의 역할과 위상」 『역사와 세계』53, 2018 ; 김현라, 「고려 충렬왕비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의 위상과 역할」 『지역과 역사』23, 2008 ; 이명미, 「고려에 下嫁해 온 몽골공주들의 정치적 위치와 고려-몽골 관계 : 齊國大長公主의 사례를 중심으로」 『梨花史學研究』54, 2017 ; 이바른, 「왕비 제국대장공주의 고려 이주와 외국인의 삶」 『한국이민학』8, 2021 ; 이정란, 「忠烈王妃 齊國大長公主의 冊封과 그 의미」 『한국인물사연구』18, 2012.

공주들의 가문 배경과 정치적 위상을 개별적 단위로 검토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는 원 공주이자 고려의 왕비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던 원 공주의 삶과 정치적 위치를 다룬 일련의 연구들이 주목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몽골을 대리·대표하는 위치에서 고려를 간섭하는 주체로서 원 공주를 일관되게 바라보았다면, 최근에는 본래 몽골을 대리하는 정치 세력이지만 때로는 고려 왕비로서의 정체성을 발현하기도 했음에 주목한 글들이 발표되었다.<sup>7)</sup> 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동적’ 존재에서 복합적 정체성을 지닌 인간으로 관점의 중심축이 옮겨갔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원 공주를 하나의 주체적 인간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도 진행되었다. 몽골의 황제권·조정을 대리하는 존재라기 보다는 몽골제국의 분권 세력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행동한 능동적 인간으로 보았다는 점<sup>8)</sup>에서 고려 지배층 여성 연구에 커다란 시사점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사의 목적은 기존의 역사 서술에 보충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sup>9)</sup> 새로운 관점의 제시 자체가 어려운 일일뿐더러 고려 여성 자료의 영성한 현황에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일은 상당히 힘들다. ‘그녀’의 역할과 위상을 주체적 인간의 관점에서 천착하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진전이 있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려 후비 개인의 삶과 위상을 다룬 일련의 연구들이 여전히 여성의 삶을 소재로 다루었을 뿐 새로운 시각이나 관점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소재주의에 불과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한편, 개별이 아니라 전체를 시야에 두고 고려 후비의 정치적 위상을 검토하고, 나아가 거기에서 고려적 속성을 밝히고자 했던 일련의 논고

7) 권순형, 앞의 논문, 2005 ; 김현라, 앞의 논문, 2008 ; 이바른, 앞의 논문, 2021.

8) 이명미, 앞의 논문, 2017, 33-48면.

9) 최숙경, 『한국여성사 연구의 성립과 과제』 『한국사시민강좌』15, 일지사, 1994, 17면 ; 김선주, 『여성과 여성성 연구의 모색』 『여성과 역사』19, 2013, 3면.

가 발표되었다.<sup>10)</sup> 정치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전근대 여성의 정치적 열악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고려 여성의 정치적 위상은 실체로서의 ‘정치권력’보다는 관념·예론에 ‘은폐’되어 잘 포착되지 않는 이념적 지위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와 관련된 연구가 몇 편 발표되었다.

우선, 국왕의 외치(外治)에 상응하는 내치(內治)의 주관자이며, 관념상이나 왕업(王業)의 한 축을 담당한다고 인식되던 고려 후비의 위상과 역할에 주의해야 함을 강조한 논문이 근래에 발표되었다.<sup>11)</sup> 이는 여성의 종속성에 매몰되어 고려 후비의 정치적 영향력을 부차적·제한적으로 바라본 기존 연구에 경종을 울린 견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실증적 자료의 보강이 이루어진다면, 고려 여성사 연구에 큰 획이 그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책봉의례를 분석하여 거기에 투영된 고려 태후의 관념적 위상을 살핀 연구<sup>12)</sup>가 주목된다. 고려의 책태후례(冊太后禮)를 책왕비례(冊王妃禮)와 비교해보면, 여러 면에서 태후의 위상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책왕비례와 달리 태후에게 줄 책(冊)과 보(寶)를 국왕이 ‘직접’ 책사(冊使)에게 건네주었을 뿐 아니라 태후가 의례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백관의 칭하(稱賀)를 받았다. 이는 고려에서 “관인들과 의례 공간을 공유하고 왕과 백관의 배례(拜禮)를 받는 존재”로 태후를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고려의 책태후의는 송에서 태후의 전권 시기에 만든 의주(儀注)를 따른 것이라는 사실에서 고려 태후의 이념적 지위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sup>13)</sup>

10) 이혜옥, 「고려 후비의 정치적 위상과 영향력에 대한 재조명」 『역사와 현실』 185, 2009 ; 豊島悠果, 「高麗前期の冊立儀禮と后妃」 『史學雜誌』 114, 2005 ; 『高麗王朝の儀禮と中國』, 汲古書院, 2017 ; 이정란, 「고려 전기 太后의 이념적 지위와 ‘太后權’의 근거」 『史學研究』 191, 2013.

11) 이혜옥, 앞의 논문, 2009, 188~194면.

12) 豊島悠果, 앞의 논문, 2005.

책태후의를 통해 태후의 예론상의 위상을 살피는 작업은 이후 ‘태후권’의 이념적 근거와 그에 대한 고려인의 인식을 검토하는 연구로 이어졌다. 중국에서 태후를 예우한 이념적 근거는 ‘선황(先皇)의 적처(嫡妻)’라는 데 있다.<sup>14)</sup> 선황과 ‘공치천하(共治天下)’하던 ‘선황의 적처’였던 까닭에 황제의 유고 시에는 임조칭제(臨朝稱制)할 수 있었고, 평소에는 황제로부터 칭신(稱臣)을 받을 수 있었다. 위와 같은 ‘태후권’의 논리는 고려에도 수용되었다. 다만, 흥미로운 사실은 고려의 현실에 맞게 변용되었다는 점이다. 살아서 태후의 지위에 있었다더라도 사후(死後)에는 공승종묘(共承宗廟)의 대상으로서 ‘왕후’로 예우해야 했다. 그런데 고려에서는 태후를 사후에도 그대로 ‘태후’로 예우했다. 이는 고려왕들이 ‘태후’를 자신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존재로 인식한 데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여겨지는데,<sup>15)</sup> 이에 대해서는 향후 더 면밀한 분석이 요망된다. 즉, 태후의 지위가 높았던 사회적 배경을 중국과 다르게 ‘다처제’를 고수하던 고려 왕실의 전통, 그로 인해 ‘선왕의 적처’라는 이념상의 관계보다는 ‘생모’라는 생물학적 관계를 상대적으로 중시할 수 있던 환경의 형성 등과 연계하여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sup>16)</sup> 나아가 ‘효’에 대한 고려인의 인식도 아울러 점검해본다면, 이 방면의 연구에 새로운 길이

13) 豊島悠果, 앞의 논문, 2005, 46~47면.

14) 물론 共治天下라고 하더라도 황제의 재세 중에 황후의 정치참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谷口やすよ, 「漢代の太后臨朝」, 『歴史評論』 359, 1980, 86~88면; 李成珪, 「中國古代 皇帝權의 性格」, 『東亞史上의 王權』, 한울아카데미, 1993, 35~38면; 金慶浩, 「漢代 皇太后權의 性格에 對한 再論」, 『阜村 申延澈教授停年退任紀念 史學論叢』, 일월서각, 1995, 44~45면.

15) 이정란, 앞의 논문, 2013.

16) 島田正郎, 「契丹における生母の地位-嘉禮諸儀を中心として-」, 『遼朝史の研究』, 創文社, 1979.

위의 논문은 요에서 태후의 지위가 비정상하게 높았던 원인을 주권자의 ‘생모’였던 사실에서 유추했는데, 고려 태후 지위 연구에 보탬이 될 만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개척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고려 외척을 보는 관점에도 새로운 진전이 이루어졌다.<sup>17)</sup> 왕권을 훨씬 뛰어넘는 이자겸과 같은 존재로 인해 기존 연구에서 외척은 왕권의 ‘대립항’에 있는 존재로 주로 파악되었다. 외척을 바라보는 이런 뿌리 깊은 통념에 문제를 제기한 논문들이 최근에 연이어 발표되었다. 왕의 직접적인 혈족인 외친, 혼인 관계를 통해 왕의 인척이 된 척신은 모두 왕권을 옹위하는 주요 번병(藩屏)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고려가 종친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배제한 한반도 최초의 왕조이자 「훈요」로 왕위의 형제 계승을 인정한 사회라는 사실에 유의하면 더욱 그렇다. 고려는 그만큼 외척의 보정(輔政) 역할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조건에 있었던 셈이다.<sup>18)</sup> 한편, 외척세력의 중심이 모후나 왕후였음을 자주 간과하던 기존의 문제점을 비판한 글<sup>19)</sup>도 외척세력을 다루는 데 있어 참고해야 한다. 외척세력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은 여성사의 발전은 물론 왕권의 속성을 집단의 권력 측면에서 재해석하는 연구로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 3. 내·외명부의 칭호와 유교적 내치체제(內治體制) 구현의 상관성: 여성 칭호를 둘러싼 논쟁과 왕실 혼인에 대한 단상(斷想)

최근 고려 여성의 칭호를 둘러싼 연구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왕후와 왕비 칭호 사이의 위계를 분석하고 후비의 별칭인 궁·원호에

17) 채웅석, 「고려중기 외척의 위상과 정치적 역할」, 『한국중세사연구』38, 2014 ; 김창현, 「고려왕실 외척의 등장과 왕위 계승방식의 변화」, 『한국중세사연구』46, 2016.

18) 채웅석, 앞의 논문, 2014, 352면.

19) 이해옥, 앞의 논문, 2009, 187면.

담긴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배층의 모·처에게 주어지는 외명부 칭호의 실사례를 검토하여 많은 성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왕후·왕비 칭호의 위계를 둘러싼 연구를 알아보자. 그동안 고려의 왕비·왕후 칭호 연구는 칭호의 부여 시기를 세밀하게 의식하지 않았다. 즉, 후비가 생전에 받은 칭호인지 사후에 추증받은 칭호였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구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왕(夫王)의 재위기에 받은 칭호인지 아닌지에도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칭호의 부여 시기에 관심을 기울인 최근 논문에 따르면 고려의 ‘왕비(王妃)’는 주로 생존의 존호로, ‘왕후(王后)’는 사후의 위호로 이용되었다고 한다.<sup>20)</sup> 최근 국초의 ‘태자’의 칭호를 분석한 글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도출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sup>21)</sup> 향후 작호·위호를 검토할 때 해당 칭호의 부여 시기를 우선 검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해당 연구는 왕후·왕비의 위계를 구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신의 입론을 근거로 고려 왕실의 혼인형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고려 왕실은 형식상 다처(多妻)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교적 통치이념을 표방하던 왕조로서 국왕 정점의 외치(外治)에 상응하는 내치(內治)의 구조, 즉 왕비 1인을 정점으로 하는 내치체제를 ‘공식적이며 외면적으로’ 구성해야 했다. 그래서 국왕의 여러 적처에게 궁·원주의 칭호를 부여했지만, 왕비 칭호는 적처 중 1인에게만 주었다는 것이 해당 글의 주요 논리다.<sup>22)</sup> 후비의 칭호 문제에서 시작하여 왕실의 혼인형

20) 이정훈, 「고려전기 후비(后妃)의 칭호에 대한 諸問題」, 『역사와 실학』 77, 2022, 11~25면.

21) 현종민, 「고려 초기의 正胤과 太子 검토」, 『서강인문논총』 62, 2021, 151~160면 ; 김선미, 『고려전기 왕위계승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22 ; 황향주, 「고려 태조~목종대 왕실의 편제—왕실 남성의 ‘태자(太子)’·‘군(君) 칭호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71, 2022.

22) 이정훈, 앞의 논문, 2022, 27~31면.

한편, 고려 왕실에서 엿보이는 다처제는 ‘개인적 선택’에 달린 문제였으며, 그것을 왕실 전반의 경향으로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다(이중

태, 비계열과 주계열 칭호의 병행 배경으로까지 시야를 넓혀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경청할 만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다만, 고려에서 왕비와 왕후라는 칭호를 그렇게 예리하게 구분해서 사용했는가에 대해 의문이 없지 않다.<sup>23)</sup> 현종의 1비인 원정왕후는 생시에 “현덕왕후”로 불린 기록<sup>24)</sup>이 있으며, 처음에 향춘전왕비로 불렸던 현종의 2비도 “현덕·대명양왕후”로 기술된 현종 원년의 기록으로 보건대 생시에 대명왕후로 호칭되었다. 현종의 두 후비 모두 생시에 왕후로 불렸음은 물론이거니와<sup>25)</sup> 두 명의 왕후가 동시에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유사한 모습은 선종비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현종(獻宗)의 모후인 사숙태후(思肅太后) 이씨는 선종 즉위년에,<sup>26)</sup> 원신공주는 선종 9년에 각각 왕비가 되었다.<sup>27)</sup> 선종대에도 두 명의 왕비가 공존했던 셈이다. 후비 칭호를 칭호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유교적 통치체제의 구현이라는 관점과 연계짓고 혼인형태에 대한 재론<sup>28)</sup>으로까지 나갔다는 점에서 이상의 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자료적 밀받침을 보완한다면 여성사 연구는 물론 고려 정치체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서, 앞의 논문, 2007).

- 23) 도요시마 유카(『고려전기 后妃·女官 제도』 『한국중세사연구』27, 2009, 205면)는 “왕후와 왕비는 둘 다 왕의 적처를 의미하지만, 왕비가 왕후보다 공식적인 칭호였으며, 왕후는 왕비보다 존엄한 어감을 지닌 칭호”로 보았다.
- 24) “至巴山驛 王謂蔡文曰 玄德王后有娠 不宜遠行 其鄉善州 距此不遠 可以遣之 蔡文固執前議”(『고려사』 권94 열전7 지채문).
- 25) 이외에도 생시에 왕후로 책봉된 사례는 여러 기록에서 확인된다. “甲寅 冊麗妃韓氏爲王后 翼日 告于大廟 百官賀”(『고려사』 권6 세가6 靖宗 6년 2월조)·“八月丁酉 冊妃柳氏爲王后 子諱爲太子”(『고려사』 권25 세가25 원종 원년 8월).
- 26) “宣宗卽位 冊爲王妃”(『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선종 후비 사숙태후조).
- 27) “戊午 冊宮人李氏爲王妃”(『고려사』 권10 세가10 선종 9년 4월).
- 28) 고려가 ‘왕비 1인을 정점으로 하는 내치체제’를 외형상으로나마 구현했다면, 왕실의 혼인형태를 다쳐로 볼 수는 없다.

최근에 후비의 궁·원주 칭호를 둘러싼 연구도 새로운 국면에 도달했다. 우선, 궁호·원호를 후비의 칭호에 국한하여 주로 살펴보았던 경향에서 벗어나 거주공간으로서의 의미로 연구 시각을 확대한 글이 최근에 발표되었다.<sup>29)</sup> 기존 연구에서도 궁·원호에 담긴 거주공간의 의미를 완전히 도외시했던 것은 아니다.<sup>30)</sup> 기존 연구가 칭호로서의 의미와 함께 거기에 부수된 궁원진 등의 경제기반에 관심을 가졌다면, 최근의 논문은 거주 공간으로서 궁·원호의 기능을 상세하게 추적하였다. 고려의 후비들은 평소에는 본궐(本闕)의 내전에 생활하지만, 왕자녀의 출산·양육 및 의례의 거행과 같은 일이 행해지는 시기에는 자신의 궁·원에 거처한다. 그러다가 부왕(夫王)의 사후가 되면 태후의 지위에 오른 후비를 제외한 나머지 후비들은 본궐을 나와 자신의 궁·원에 거처하게 된다고 한다.<sup>31)</sup> 나아가 후비들이 이처럼 이중의 거처를 가지게 된 배경을 고려의 오래된 서류부가혼의 관습에서 찾았다. 즉, 서류부가혼의 전통에 따라 자녀들을 외가에서 기르던 고려의 전통이 왕실의 자녀 양육에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았다.

극히 영성한 자료의 상황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하나, 위의 견해는 소수의 기록만을 근거로 위와 같은 결론에 도출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자료의 보강이 요구된다. 하지만, 궁·원호를 칭호 자체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공간의 의미까지 넓게 해석하고 그것의 역사적 배경까지 추론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29) 한편 궁·원주의 의미를 內職體系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도 주목된다. 그에 따르면 중국보다 훨씬 간소한 고려의 내직체계를 보완하거나 多妻制 속 왕비 1인의 內治를 구현하기 위해, 고려는 후비의 칭호로서 궁·원호를 병행했다고 한다 (권순형, 『고려 內職制의 비교사적 고찰 —요·금제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梨花史學研究』39, 2009b, 183면 ; 이정훈, 앞의 논문, 2022, 31면).

30) 李貞蘭, 「高麗 后妃의 呼稱에 관한 考察」 『典農史論』2, 1996 ; 安秉佑, 『高麗前期의 財政構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31) 신혜영, 「고려 전기 후비의 생활공간과 의미」 『여성과 역사』30, 2021.

궁·원호의 문제에서 향후 추가로 검토해야 할 내용은 고려가 궁·원주를 후비의 칭호로 채택한 역사적 과정과 맥락을 살피는 일이다. ‘주’ 계열의 칭호로서 궁·원주는 그동안 신라와 고려 왕실에서 주로 사용한 고유한 별칭으로 이해되어왔다.<sup>32)</sup> 중국의 자료에 관련 용례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쓰임새마저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궁·원주는 고려의 경우처럼 여성 전용의 칭호로 사용되지 않았을뿐더러<sup>33)</sup> 후비 칭호로 사용한 용례를 찾기 어렵다. 궁·원주 칭호의 이러한 쓰임새 차이는 고려에서 궁·원주를 후비의 칭호로 사용한 사실을 특기(特記)한 중국 측 기록을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왕이 거동할 적에는 멩에를 맨 소의 수레를 타고, 험한 산을 넘을 적에는 말을 탄다. 자의(紫衣)를 입은 사람이 앞에 서서 『호국인왕경(護國仁王經)』을 받들고 인도하였다.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것을 교(敎)나 선(宣)이라고 하였다. 신민(臣民)들은 그 임금을 성상(聖上)이라고 부르고 사사로이는 엄공(嚴公)이라고도 불렀으며, 후비를 궁주(宮主)라고 불렀다. 백관의 명칭·품계·훈·공신·검교 등은 거의 중국과 같았으며, 어사대를 지날 적에는 말에서 내려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탄핵하였다.”(『宋史』 권487 列傳246 外國3 高麗傳).<sup>34)</sup>

“후비를 궁주로 불렀음”을 특기한 사실에서 궁·원주를 고려의 독특한

32) 이정란은 고려 후비의 칭호를 주계열과 비계열로 나눠보았던 데 비해 김창현은 하나의 체계로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논문을 참조 바란다.

李貞蘭, 앞의 논문, 1996 ; 김창현, 「고려시대 후비의 칭호와 궁」 『인문과학연구』24, 2006 ; 김창현, 「신라왕실과 고려왕실의 칭호」 『韓國古代史研究』55, 2009.

33) “甄棲眞字道淵 單州單父人 … 祥符中寓居晉州 性和靜無所好惡 晉人愛之 以為紫極宮主”(『宋史』 卷462 列傳221 方技下 甄棲眞傳).

34) “王出 乘車駕牛 歷山險乃騎 紫衣行前 捧護國仁王經以導 出令曰敎曰宣 臣民呼之曰聖上 私謂曰嚴公 后妃曰宮主 百官名稱·階·勳·功臣·檢校 頗與中朝相類 過御史臺則下馬 違者有劾”.

후비 칭호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점에서 고려가 궁·원주를 후비의 칭호로 사용하게 된 배경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도리천궁주(勿利天宮主)·제석천궁주(帝釋天宮主) 등과 같은 칭호가 『대장경』에 다수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sup>35)</sup> 고려의 궁주 칭호 사용에 불교의 영향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고려가 궁주를 후비 칭호로 사용하게 된 정치적·문화적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후비 이외에 일반 여성의 칭호를 검토한 글로는 고려 외명부(外命婦) 규정과 실사례를 살핀 논문이 주목된다. 4개 등급 13개의 칭호로 구성된 고려의 외명부는 원칙적으로 참질(參秩) 이상 관리의 모·처를 대상으로 하며,<sup>36)</sup> 관료와 그 가족의 명예를 높이는 기능을 했을 뿐 아니라 지배층 여성이 공적인 지위를 획득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했다.<sup>37)</sup> 그런데 고려 외명부 제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주목되는 사실이 있다. 하나는 내명부와 외명부의 분화 문제이다. 당에서 외명부와 내명부는 엄격히 구분되는 여성 작호였는데, 고려에서는 그것의 경계선이 불분명하였다. 그 점은 내명부의 여인을 외명부로 책봉하거나 외명부의 여인을 내명부의 궁관으로 삼은 사례에서 엿보인다. 성종 제3비 연창궁부인(延昌宮夫人)은 자신의 딸인 원화왕후(元和王后)가 현종비로 되자 낙랑군대부인(樂郎郡大夫人)으로 책봉되었다.<sup>38)</sup> 선종 3년에는 정신현비(眞信賢妃)의 계모인 이에(李預)의 처 왕씨를 왕태후의 궁관인

35) “是諸龍女作供養已 頭面禮敬 合掌向佛 以偈讚曰 … 如是作諸供養已 誓求佛果大菩提 後當捨此龍女身 得生三十三天上 得爲帝釋天宮主”(『大正新脩大藏經』寶積部上 32·父子合集經 권5 龍女授記品 7)·“得爲勿利天宮主 親近承事諸如來 了達諸法無有疑 如黑暗中燃大炬”(『大正新脩大藏經』寶積部上 32·父子合集經 권6 鳩盤荼王授記品 9).

36) 김용선, 「고려시대의 外命婦制와 封爵체계」, 『진단학보』135, 2020, 95면.

37) 권순형, 앞의 논문, 2009b ; 권순형, 「고려시대 宮人의 職制와 생활」, 『梨花史學研究』41, 2010 ; 김아네스, 「고려 전기의 外命婦」, 『역사와 경계』87, 2013, 67면.

38)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현종 원화왕후조.

상궁(尙宮)으로 삼았다.<sup>39)</sup> 이러한 내·외명부의 교차 책봉은 그 자체만으로도 특이한 현상인데,<sup>40)</sup> 이에 대해 오대·송에 유사한 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오대·송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거나<sup>41)</sup> 고려의 근친혼과 관련된 현상으로 파악한 연구가 발표되었다.<sup>42)</sup> 향후 이 문제의 원인과 의미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 외명부 읍호(邑號)의 선정 기준 문제이다. 고려에서 외명부의 읍호는 당의 군망(群望)에서 유래한 이름을 붙이거나 남편의 본관을 따르기도 했으나, 관련 제도가 정비된 현종 대 이후에는 대개 여성 본인의 출신 관향에서 따왔다. 하지만 어머니의 본관에서 따온 사례도 있어 주목을 이끈다. 박황(朴瑋)의 아내 문씨(文氏)가 그러한 사례이다. 「박황묘지명」에 따르면 문씨는 ‘경원군부인(慶源郡夫人)’으로 책봉되었는데, 이는 이예(李預)의 딸인 그녀의 어머니 관향에서 따온 것이었다.<sup>43)</sup> 남편의 본관 외에도 자신의 관향을 읍호명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외조의 관향도 선택의 범주에 포함한 문씨와 같은 사례에서 ‘잘난 조상’을 기리는 고려의 ‘양측적 친속’ 원리가 여성 작호에도 작동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여성은 물론 일반 관인의 읍호명을 자세히 검토하여, 읍호명에서 드러나는 고려의 친속 관행, 남녀 읍호의 차이 및 그것의 변화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39) 『고려사』 권10 세가10 선종 3년 1월조.

인종대 그녀는 上黨君夫人이라는 외명부의 작호를 하사받았다.

40) 李貞蘭, 앞의 논문, 1996 ; 권순형, 『고려시대 宮人の 職制와 생활』 『梨花史學研究』41, 2010, 122~124면 ; 김아네스, 앞의 논문, 65~66면 ; 이정훈, 앞의 논문, 2022, 25면.

41) 권순형, 앞의 논문, 2009b, 174~175면.

42) 권순형은 “왕실과 소수의 문벌 귀족 집안이 폐쇄적 통혼권을 형성하여 혈연적으로 연결”된 데서 그 원인을 찾았다(앞의 논문, 2010, 122~124면).

43) 김아네스, 앞의 논문, 2013, 67~73면.

#### 4. 가계계승·재산상속에서의 ‘혈통주의’와 친족지칭 속 여성: 양측적 친속 인식의 발현과 복수의 여성성으로의 환기

고려의 양측적 친속성은 출계·혈통인식을 보여주는 다양한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 남계뿐만 아니라 여계를 통한 계보선에도 음서와 봉작의 혜택을 거의 동등하게 주었던 관습, 시조의 모든 후손을 수록한 ‘자손보(子孫譜)’·‘~씨족보(氏族譜)’의 간행 및 부측과 모측을 거의 동등하게 수록하여 방사형 대칭구조에 가까운 형태를 이룬 팔조호구·팔고조도 등과 같은 가계기록의 양상, ‘나’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족당세력’의 모습이 양측적 친속사회로서 고려의 모습을 대변한다. 이상에서 열거한 내용 외에도 기존 연구에서는 부계 중심으로 짜인 중국의 오복제·상피제를 고려의 현실에 맞춰 변형한 사실, 남녀균분 상속의 전통 등을 추가로 제시하였다.<sup>44)</sup>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최근의 연구는 구체적인 실상을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친족제도와 관련된 선행 성과를 재확인하고, 고려인의 혈연 인식으로 시각을 확장하였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연구가 친족 지칭에서 고려의 양측적 친속성을 도출한 글이라고 할 수 있다.<sup>45)</sup> 혈연의 계통보다는 혈연의 거리를 중시하는 우리식 ‘촌(寸)’ 호칭법, 양측을 포괄하던 삼촌숙모부(三寸叔母夫)·대부(大父)·질(姪)·숙부(叔父) 등과 같은 한자어 친족지칭의 변용, 양측을 모두 지칭하던 ㄹ촌 아들[少爲子]·ㄹ촌어미[少爲母] 등과 같은 고유어 친족지칭을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친족지칭에 스며있는 양측사회의 모습을 재검증했고 나아가 그것의 변화과정을 시계열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크다.

44) 최재석, 『韓國家族制度史研究』, 一志社, 1983 ; 盧明鎬, 『高麗社會의 兩側的 親屬 組織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8.

45) 이종서, 『고려·조선의 친족용어와 혈연의식—친족관계의 정형과 변동—』, 신구문화사, 2009.

근자에 발표된 자녀기록 양상에서 양측사회로서의 모습과 거기에 내포된 고려적 특성을 확인한 논문도 주목할만하다.<sup>46)</sup> 고려의 가계 기록 양상에서는 양측사회의 모습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측의 혈통을 동등하게 중시하던 전통은 물론 혈연주의의 유구성과 강고함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점은 고려인의 묘지명 자료와 『안동권씨성화보』·『문화유씨가정보』에 수록된 자녀의 기록범위를 보면 알 수 있다. 해당 자료의 자녀 기재 범주를 보면, 비혈족을 배제하면서 친형제·자매만을 ‘동기(同氣)’로 인식하는 경향성을 엿볼 수 있다. 즉, 사위·며느리의 자녀라도 시조의 혈손이 아니면 족보에 수록하지 않았고, 이복(異腹)·이부(異父) 형제의 관계도 철저히 무시되었다.

이러한 혈통주의적 가계 기록 관행은 여말선초에 다양한 경로로 발생한 대규모 재산의 사회적 재분배 정황 및 남녀균분의 관습 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나, 더 근원적인 원인은 유구하고 뿌리 깊은 ‘혈통주의’의 전통에 있었다. 비혈손에게는 재산의 상속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강고한 사회적 ‘합의’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사실 고려에서는 국왕의 자녀도 모측의 혈통이 나쁘면 소군(小君)·국서(國庶)로 부르며 차별하고, ‘천류(賤類)’의 유무를 8세 호적까지 추심(推尋)할 만큼, 혈통주의의 역사는 유구하고 뿌리도 깊었다.<sup>47)</sup> 강고한 혈통주의는 동기이론(同氣理論)의 수용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주자학에서 父系로 이어지는 계보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논리로 활용되던 동기이론조차, 고려에서는 부계의 의미를 희석하고 비혈연의 의미를 부정하는 형태로 수용되었다.<sup>48)</sup>

이처럼 강고하고 유서 깊은 ‘혈통주의’는 친족·가족·신분 등 고려사

46) 이정란, 「족보의 자녀 수록방식을 통해서 본 여말선초 족보의 편찬 배경—《安東權氏成化譜》·《文化柳氏嘉靖譜》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25, 2008.

47) 이정란, 『高麗時代 庶孽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48) 이러한 고려인의 동기 인식에 대해서는 이종서의 논문(『고려 후기 이후 동기 이론의 전개와 혈연의식의 변동』, 『동방학지』120, 2003)을 참조 바란다.

회 곳곳에 영향을 주었다. 여성에 대한 인식에도 혈통주의가 끼친 영향이 적지 않았다. 중국적 ‘출가외인’의 개념을 일찍이 인지·수용했으나, 그것의 영향이 중국에서만 강하지 못했다. 혈연의 계선 상에 있는 이모·고모를 ‘숙모’로 부르고, ‘타성바지’인 중국의 숙모를 ‘숙부지처(叔父之妻)’로 지칭했던 고려의 독특한 지칭법, 외손으로의 가계 계승 전통, ‘양자제’ 수용의 소극성 등에서 비혈연에 대한 배제를 기반으로 하는 강고한 혈연주의 전통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향후 가족·친족제 연구에서는 물론 고려 여성의 위상·역할 등을 다룰 때는 이러한 혈통주의의 강고함이 끼친 영향에 아울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려의 ‘혈통주의’는 ‘이론에서 실체로’·‘구조에서 가치로’ 관점·시선의 전환을 요하는 현시점에서 주안점을 두고 분석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한다. 고려의 가족·친족제 연구는 그동안 서구의 출계이론을 근간으로 고려사회의 실체를 파악해 왔다. 이론적 분석이 조각조각 흩어진 실체를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어떤 점에서는 실체를 이론으로 뒤집어썩워 설명한 측면도 없지 않다. 고려가 양측사회였기에 부측·모측의 혈통을 거의 동등하게 중시했던 것이 아니라, 오랜 혈통주의 전통의 발현이 현대 연구자의 눈에 ‘양측사회로서의 모습’으로 포착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고려 친족제가 양측적 모습으로 발현 또는 이해되도록 만든, 그 기저에 깔린 친족을 바라보는 당대인의 인식을 향후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가계계승·재산상속·친족지칭에서 드러난 양측사회로서의 모습, 양측적 관행의 저변에 깔린 ‘혈통주의’의 강고함이 가족·친족 속 고려 여성의 위상에 끼친 영향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핀 가족·친족제에서 포착된 여성의 모습 이외에도 여성사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광범위하다.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 그러한 경향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일상사의 관점에서 고려 여성의 여가생활과 가정생활 등을 다룬 글,<sup>49)</sup> 여성의 문자 생활과 독서목록의 다양성을 검

토하고 그 의미를 분석한 논문<sup>50)</sup>이 주목된다. ‘정치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여성에 주목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서라는 소재를 발굴하고 시를 분석 대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소재와 자료의 발굴에 기여했다. 다음으로, 도덕 규범·간통 규제 및 열녀 인식에 투영된 고려의 여성관을 다룬 글들이 꾸준히 발표되었는데,<sup>51)</sup> 그중에는 기존 견해와 사뭇 다른 흥미로운 주장을 펼친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 해당 글은 조선과 달리 고려가 포상의 대상에 절부(節婦)와 함께 의부(義夫)도 포함한 사실에서 혼인에서의 도덕규범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규율이 아니었음을, ‘절개’·‘절의’·‘수절’은 죽은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킨 여성을 숭장(崇獎)하는 의미가 아니라 훌륭한 삶을 찬미하려는 의도에서 사용된 용어였음을 논증했다.<sup>52)</sup> 이는 유교적 용어에 은폐되고 후대적 관점에 의해 왜곡되던 장막을 걷어내지 않으면 고려 여성의 온전한 위상에 다가가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고려 여성의 사회적

49) 김난옥, 『廉瓊愛의 婦道와 가정생활』 『韓國史市民講座』39, 2006 ; 권순형, 『고려시대 여성의 여가생활과 명절 풍속』 『梨花史學研究』34, 2007 ; 권순형, 『『목은시고』를 통해 본 고려 말 정신택주의 가정 생활』 『여성과 역사』19, 2013.

50) 박재우, 『고려시기 여성들의 독서와 문자생활』 『한국사연구』164, 2021.

51) 권순형, 『고려시대 여성의 규범과 삶』 『유교사상문화연구』14, 2000 ; 권순형, 『고려시대 奸非 연구』 『여성학논집』11, 1995 ; 권순형, 『고려시대 節婦에 대한 고찰』 『여성과 역사』27, 2017 ; 김난옥, 『고려후기 여성의 법적 지위—범죄와 형벌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9, 2009 ; 김창현, 『고려시대 간통과 그 성격』 『여성과 역사』 28, 2018 ; 박은경, 『고려시대 재가에 대한 검토—유교사상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26, 2017.

52) 박은경, 앞의 논문, 2017, 125~127·133면 ; 권순형, 앞의 논문, 2017, 176면. 한편, 고려가 의부를 포상의 대상으로 내세운 원인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미미한 상황에서 가정의 붕괴를 막고 나아가 사회의 안정을” 이루려는 사회경제적 요인의 결과로 본 견해가 발표되었는데(권순형, 앞의 논문, 2017, 176면),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즉, 포상 대상 선정에는 남녀에게 도덕규범을 동등하게 적용하려는 목적보다는 가족의 안정을 지키려는 고려조의 의사가 깊게 배어있다고 하겠다.

위상을 불교 사상계의 흐름과 연결 지어 분석한 일련의 논고도 발표되었다.<sup>53)</sup> 고려 여성의 신앙생활을 전착하고 그것이 고려 불교 교단에 끼친 영향을 살피는 한편 여성성불론(女性成佛論)의 수용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불교계 여성관의 변화 양상을 포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향후의 연구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재혼 가정의 거주 규정을 분석함으로써 전통적 ‘계모관’은 조선에 이르러서야 형성된 통념이었음을 밝힌 글도 여성사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sup>54)</sup> 소수의 사례 분석에 의거한 결론인 점에서 불안한 면이 없지 않으나, 전근대 ‘가(家)’의 안전성 신화 및 부성·모성의 천부성을 되짚어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높은 사망력으로 부모 중 한쪽이 죽고 다른 한쪽이 재혼하는 일의 빈번함이 전근대의 가족을 “결속력이 강하고 안정된 제도”로 인식하는 통념에,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는 모성·부성의 보편성에 의문부호를 달게 하기 때문이다. 고려에서 아버지들이 아이의 양육을 친족에게 떠넘기고 재혼하는 현상은, 전근대 부성·모성 관념에 대해 다시 질문할 것을 요구한다.<sup>55)</sup>

이상에서 소개한 주제 이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여성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갈래와 주제로 진행된 고려 여성사 연구에서 향후 유의해야 할 사실은 ‘복수의 여성성’에 대한 추구라고 할 수 있다. 전근대 사회이지만 고려의 여성 내부에도 계층적·경제적·교육적 배경에 따른 다양한 여성성이 존재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sup>56)</sup> 그러나 그동안 그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귀족·지배층에

53) 김창현, 『고려시대 천주태후와 인예태후의 생애와 신앙』 『한국인물사연구』5, 2006 ; 김영미, 『高麗時代 比丘尼의 활동과 사회적 지위』 『한국문화연구』1, 2001 ; 김영미, 『고려 여성들의 불교 신앙과 수행』 『史學研究』86, 2007 ; 김영미, 『高麗末 女身成佛論과 그 영향』 『韓國思想史學』41, 2012.

54) 이종서, 『전통적 ‘繼母觀’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51, 2004.

55) 다이애너 기틴스, 앞의 책, 일신사, 1997, 24면.

56) 박효근, 『프랑스 여성사 연구 과제와 동향—중세에서 근대 초 시기를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21, 2014, 40면.

속하는 대상만을 주로 연구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복수의 여성성’ 추구는 기존 고려 여성사 연구에 대한 반성이자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려는 시도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극히 영성한 고려의 자료 현황에서 ‘복수의 여성성’ 추구가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가구경제학적 입장에서 성별 분업에 유의하여 조선 농민층 여성의 지위 변화를 살핀 연구, 송의 방직업에서 남성 노동력의 중시 경향 강화가 여성의 지위 변화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 연구는 고려 여성사 연구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흥미롭다.<sup>57)</sup> 피지배층 여성을 다루었을 뿐 아니라 성별 분업의 관점에서 통시적인 흐름을 포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말이다.

## 5. 맺음말

본 글은 2000년 이후의 고려 여성 관련 연구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여성사 연구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가족·친족사 연구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고려 후비를 연구의 소재로 삼은 논문들은 여성 ‘개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거기에서 주체적 인간으로서 ‘그녀’의 역할과 위상을 천착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보다 진일보했다. 그 점은 원 공주를 다룬 글에서 잘 드러난다. 그동안 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동적’ 존재로

57) 마이클 앤더슨, 「가구경제학적 접근」 『서구가족사의 세가지 접근방법 — 1500~1914—』, 한울아카데미, 1994 ; 문소정, 「한국가부장제의 확립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33(『한국의 사회제도와 농촌사회의 변동』), 한국사회사연구회, 1992 ; 육정임, 「宋代 紡織業과 女性의 地位」 『동양사학연구』96, 2006 ; 권순형, 「고려시대 여성의 일과 경제활동」 『梨花史學研究』31, 2004.

만 바라보던 경향에서 벗어나, 복합적 정체성을 지닌 능동적 인간으로 파악하려는 일련의 시도가 진행되었다. 한편, 개별이 아니라 전체를 시야에 두고 고려 후비의 정치적 위상을 검토한 글도 꾸준히 발표되었다. 정치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여성의 정치적 열악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고려사회에서, 禮論에 투영된 이념적 지위 분석을 통해 후비의 정치적 위상을 검토해보았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고려 여성의 칭호를 둘러싼 연구도 현재 새로운 국면에 도달했다. 왕후와 왕비 칭호 사이의 위계를 세밀히 분석한 연구가 우선 주목된다. 유교적 통치체제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후비의 칭호를 검토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왕실의 혼인 형태를 재고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라고 생각한다. 또한 후비의 별칭인 궁·원호에 담긴 거주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천착하여 고려의 서류부가혼 전통을 재확인한 연구, 지배층의 모·처에게 주어지는 외명부 칭호를 분석하여 고려의 양측적 친속 모습을 살핀 논문도 주목된다.

이상에서 소개한 논문 외에도 다양한 주제와 갈래로 고려의 여성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그중에서 향후 여성사 연구에서 유의해야 할 사실은 ‘복수의 여성성’에 대한 고민과 고려의 혈통주의가 여성의 위상과 역할에 끼친 결과를 분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고려의 여성 내부에는 계층적·경제적·교육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여성성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귀족·지배층에 속하는 여성만을 주로 연구해왔다. 이 점에서 ‘복수의 여성성’ 추구는 기존 고려 여성사 연구에 대한 반성이자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는 시도의 하나가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고려의 가족·친족제 연구에서 드러난 양측적 관행과 그 저변에 깔린 ‘혈통주의’의 강고함이 고려 여성의 위상·역할에 끼친 영향도 고려적 특수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천착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권순형, 『고려의 혼인제와 여성의 삶』 해안, 2006.  
 김창현, 『천추태후 역사』, 푸른역사, 2009.  
 다이애너 기틴스, 『가족은 없다』, 일신사, 1997.  
 마이클 앤더슨, 「가구경제학적 접근」 『서구가족사의 세가지 접근방법 — 1500~1914—』, 한울아카데미, 1994  
 安秉佑, 『高麗前期의 財政構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이중서, 『고려·조선의 친족용어와 혈연의식—친족관계의 정형과 변동—』, 신구문화사, 2009.  
 최재석, 『韓國家族制度史研究』, 一志社, 1983.

### <논문>

- 권순형, 「고려시대 奸非 연구」 『여성학논집』11, 1995.  
 권순형, 「고려시대 여성의 규범과 삶」 『유교사상문화연구』14, 2000.  
 권순형, 「고려시대 여성의 일과 경제활동」 『梨花史學研究』31, 2004.  
 권순형, 「원 공주 출신 왕비의 정치권력 연구 - 충렬왕비 제국대장공주를 중심으로 -」 『史學研究』77, 2005.  
 권순형, 「고려시대 여성의 여가생활과 명절 풍속」 『梨花史學研究』34, 2007.  
 권순형, 「고려 목종대 현애왕태후의 섭정에 대한 고찰」 『史學研究』89, 2008.  
 권순형, 「고려최고의 여성정치가 현애왕태후(천추태후) 황보씨」 『여성이론』21, 2009a.  
 권순형, 「고려 內職制의 비교사적 고찰 —요·금제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梨花史學研究』39, 2009b.  
 권순형, 「고려시대 宮人の 職制와 생활」 『梨花史學研究』41, 2010.  
 권순형, 「『목은시교』를 통해 본 고려 말 정신택주의 가정 생활」 『여성과 역사』19, 2013.  
 권순형, 「고려시대 節婦에 대한 고찰」 『여성과 역사』27, 2017.

- 권순형, 「충렬왕비 제국대장공주의 고려 왕비로서의 삶」 『여성과 역사』 28, 2018.
- 金慶浩, 「漢代 皇太后權의 性格에 대한 再論」 『阜村 申延澈教授停年退任紀念 史學論叢』, 일월서각, 1995.
- 김갑동, 「高麗 太祖妃 神惠王后와 貞州 柳氏」 『한국인물사연구』 11, 2009.
- 김난옥, 「廉瓊愛의 婦道와 가정생활」 『韓國史市民講座』 39, 2006.
- 김난옥, 「고려 후기 여성의 법적 지위—범죄와 형벌을 중심으로—」 『한국 고전여성문학연구』 19, 2009.
- 김난옥, 「충혜왕비 덕녕공주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 『한국인물사연구』 14, 2010.
- 김선미, 『고려전기 왕위계승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22.
- 김선주, 「여성과 여성성 연구의 모색」 『여성과 역사』 19, 2013.
- 김아네스, 「고려시대 천추태후의 정치적 활동」 『한국인물사연구』 10, 2008.
- 김아네스, 「고려 전기의 外命婦」 『역사와 경계』 87, 2013.
- 김영미, 「高麗時代 比丘尼의 활동과 사회적 지위」 『한국문화연구』 1, 2001.
- 김영미, 「고려 여성들의 불교 신앙과 수행」 『史學研究』 86, 2007.
- 김영미, 「高麗末 女身成佛論과 그 영향」 『韓國思想史學』 41, 2012.
- 김용선, 「고려시대의 外命婦制와 封爵체계」 『진단학보』 135, 2020.
- 김창현, 「고려시대 천추태후와 인예태후의 생애와 신앙」 『한국인물사연구』 5, 2006.
- 김창현, 「고려시대 후비의 칭호와 궁」 『인문과학연구』 24, 2006.
- 김창현, 「신라왕실과 고려왕실의 칭호」 『韓國古代史研究』 55, 2009.
- 김창현, 「고려왕실 외척의 등장과 왕위 계승방식의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46, 2016.
- 김창현, 「고려시대 간통과 그 성격」 『여성과 역사』 28, 2018.
- 김현라, 「고려 충렬왕비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의 위상과 역할」 『지역과 역사』 23, 2008.
- 김현라, 「고려 원간섭기 慶華公主의 역할과 위상」 『역사와 세계』 53, 2018.
- 노명호, 「고려시대 친족조직의 연구상황」 『중앙사론』 5, 1987.
- 盧明鎬, 『高麗社會의 兩側의 親屬組織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8.

- 도요시마 유카, 「고려전기 后妃·女官 제도」 『한국중세사연구』27, 2009.
- 문소정, 「한국가부장제의 확립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33(『한국의 사회제도와 농촌사회의 변동』), 한국사회사연구회, 1992.
- 박은경, 「고려시대 재가에 대한 검토—유교사상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26, 2017.
- 박재우, 「고려시기 여성들의 독서와 문자생활」 『한국사연구』164, 2021.
- 박효근, 「프랑스 여성사 연구 과제와 동향—중세에서 근대 초 시기를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21, 2014.
- 신수정, 「고려시대 신정왕태후 황보씨의 위상 변화 - 왕실 근친혼과 관련하여 -」 『여성과 역사』23, 2015.
- 신수정, 「자매간 왕비가 된 장경왕후 김씨, 광정태후 김씨, 선정태후 김씨」 『史學研究』131, 2018.
- 신수정, 「고려 원종 왕비 慶昌宮主 柳氏」 『史學研究』140, 2020.
- 신수정, 「고려 현종비 원성태후 김씨의 혼인과 그 영향」 『여성과 역사』37, 2022.
- 육정임, 「宋代代 紡織業과 女性의 地位」 『동양사학연구』96, 2006.
- 이명미, 「고려에 下嫁해 온 몽골공주들의 정치적 위치와 고려-몽골 관계 : 齊國大長公主의 사례를 중심으로」 『梨花史學研究』54, 2017.
- 이바른, 「왕비 제국대장공주의 고려 이주와 외국인의 삶」 『한국이민학』8, 2021.
- 李成珪, 「中國 古代 皇帝權의 性格」 『東亞史上的 王權』, 한울아카데미, 1993.
- 李貞蘭, 「高麗 后妃의 呼稱에 관한 考察」 『典農史論』2, 1996.
- 이정란, 『高麗時代 庶孽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 이정란, 「고려 肅宗妃 明懿太后的 정치적 위상」 『한국인물사연구』6, 2006.
- 이정란, 「족보의 자녀 수록방식을 통해서 본 여말선초 족보의 편찬 배경—《安東權氏成化譜》·《文化柳氏嘉靖譜》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25, 2008.
- 이정란, 「고려 宣宗妃 思肅太后와 仁宗妃 恭睿太后」 『한국인물사연구』16,

2011.

이정란, 「忠烈王妃 齊國大長公主의 冊封과 그 의미」 『한국인물사연구』18, 2012.

이정란, 「고려 전기 太后의 이념적 지위와 ‘太后權’의 근거」 『史學研究』191, 2013.

이정훈, 「고려전기 후비(后妃)의 칭호에 대한 諸問題」 『역사와실학』77, 2022.

이중서, 「고려후기 이후 동기 이론의 전개와 혈연의식의 변동」 『동방학지』120, 2003.

이중서, 「전통적 ‘繼母觀’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51, 2004.

이중서, 「고려시대 가족·친족 연구의 역사와 반성」 『역사와현실』66, 2007.

이혜옥, 「고려 후비의 정치적 위상과 영향력에 대한 재조명」 『역사와현실』185, 2009.

채웅석, 「고려중기 외척의 위상과 정치적 역할」 『한국중세사연구』38, 2014.

최숙경, 「한국여성사 연구의 성립과 과제」 『한국사시민강좌』15, 일지사, 1994.

현종민, 「고려 초기의 正胤과 太子 검토」 『서강인문논총』62, 2021

황향주, 「고려 태조~목종대 왕실의 편제—왕실 남성의 ‘태자(太子)’·‘군(君) 칭호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71, 2022.

谷口やすよ, 「漢代の太后臨朝」 『歴史評論』 359, 1980

島田正郎, 「契丹における生母の地位-嘉禮諸儀を中心として-」 『遼朝史の研究』, 創文社, 1979.

豊島悠果, 「高麗前期の冊立儀禮と后妃」 『史學雜誌』 114, 2005 ; 『高麗王朝の儀禮と中國』, 汲古書院, 2017.

■ Abstract

## The Trends and Tasks of Goryeo Women's and Gender History

Lee, Jung Ran

Recently, a lot of researches have been made on the women's history of Goryeo. Articles dealing with the role and status of queen and concubines looked into women's 'individual lives' in detail. It is also a step forward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examines 'her' as a complex and subjective human being.

On the other hand, articles that reviewed on the political status of queens from an overall rather than individual point of view were also steadily published. These papers helped advance women's history in that they examined the political status of queens through the ideological status reflected in the Theory of Li(禮).

Meanwhile, research on the titles of women in Goryeo has also reached a new phase. First of all, attention is paid to the study that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consider the royal family's marriage form by analyzing the title of queens from the viewpoint of realizing the Confucian ruling system. Second, the thesis reaffirming the tradition of Seoryubugahon(壻留婦家婚) by penetrating the meaning of residence space contained in the palace title, and the article looking at the bilateral Kinship of Goryeo by analyzing the title of Oe-Myeongbu(外命婦) are noteworthy.

In the study of Goryeo women's history, facts to note are the concerns about 'Plural of femininity' and the results of the lineage-ism on the status and role of women. The pursuit of 'Plural of femininity' is a reflection on women's history research and an attempt to present a new methodology. Interest in lineage-ism can be said to be the work of confirming the distinctiveness of Goryeo women.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above topics will help the progress of research on women's history in Goryeo.

Key words: Plural of femininity, kinship terms, Lineage-ism, Titles of the queen and concubines, A Study on the Maternal Relatives, Nae-Myeongbu(內命婦), Oe-Myeongbu(外命婦), Polygamy, Bilateral kindred

이 논문은 2023년 6월 19일 투고되어 2023년 7월 13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3년 7월 14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

[기획특집]

## 조선 시대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 2000 ~ 2022년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

박미선\*

목차

1. 머리말
2. 연구사 논문을 통해 본 가족사 연구의 확장
  - 1) 가족 관련 연구사 검토
  - 2) 가족 연구 주제의 분류
3. 박사학위논문을 통해 본 가족사 연구의 경향
  - 1) 박사학위논문의 양적 추세
  - 2) 박사학위논문의 주제 현황
4. 맺음말 : 가족사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

### ■ 국문초록

본고는 가족 관련 연구사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사 분야에서 진행된 조선 시대 가족, 친족 관련 박사학위논문에 대한 흐름과 내용 검토를 통해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8S1A6A3A04042721). 본고는 2023년 5월 12일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2023 국내학술대회 <한국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조교수.

한국가족사연구에 대한 연구사 정리 논문은 1980년 사회학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역사학계에서는 1992년 여성사 관련 연구의 현황을 검토하면서 가족 관련 연구의 흐름이 최초로 정리되었다. 그 후 사회사, 생활사의 한 항목으로 가족사에 대한 연구성과가 파악되었고,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었다. 2000년에는 조선 후기 가족사 연구의 현황이 검토되었는데 그 이후 한국가족사 연구 현황에 대한 종합적 정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0~2022년 가족, 친족 관련 주제의 박사학위 논문은 매년 1편 이상 제출되었으며 조선 시대 전체 344편의 논문 중 52편의 논문이 가족, 친족 관련 연구성과였다. 24개 대학에서 박사학위자를 배출하였으며 조선후기 논문의 비중이 크다. 조선 시대 사회사의 중심주제인 지배집단의 ‘변화와 지속’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가족, 친족 문제가 검토되었고, 신분제와 성리학적 가족질서라는 외부 환경과 연관하여 연구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이러한 가족사 연구를 신분에 따라 ①왕실, ②양반사족, ③기타로 구분하였고, 이를 다시 가족사의 주제에 따라 ①가족 구성과 성원, ②가족 변화와 전략, ③가족 계승과 갈등, ④가족 활동과 일상, ⑤가족 의례와 실천, ⑥가족 지배와 통치, ⑦가족 규범과 실제, ⑧가족 의식과 심성 등 8가지 주제로 나누어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주제어 : 조선 시대, 가족사, 가족, 친족, 박사학위논문

## 1. 머리말

근대 역사학에서 가족에 대한 첫 번째 연구는 일제 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한 측면에서 시작되었다. 광복 이후에는 일제의 연구 경향을 비판하면서도 실증주의에 기반한 서구의 이론을 접목하여 가족의 실상을 밝히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한국가족사 연구는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연

구성과에 대한 현황과 전망 또한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조선 시대 가족사 연구에 대한 논의도 그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광복 이후 조선 시대 가족에 대한 연구는 윤리학, 인류학, 사회학, 민속학 등에서 검토되었다. 역사학계에서는 1960~70년대에 가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960년대에는 여성사 연구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유교 사회에서의 가족 질서와 가족 구성원을 포착하는 계기를 이루었다. 1970년대에는 사회사 영역에 있어서 사족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면서 씨족과 가문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그 후 1990년대 후반에는 구조보다는 역사행위자로서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한 생활사, 미시사 등이 부각되었고, 새로운 자료, 그동안 소외된 대상들이 주요 연구 주제로 부상되면서 가족 연구의 범위도 확장되었다.

본고는 조선 시대 가족 관련 연구 가운데에서도 역사학계의 연구에 집중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sup>1)</sup> 다만 조선 시대 가족 관련 주제가 광범위한 만큼 연구사와 박사학위논문 검토에 집중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첫째, 가족 관련 연구사를 검토하여 조선 시대 가족 연구를 진단하고 연구 주제를 분류할 것이다. 둘째, 2000년 이후 발행된 가족 관련 역사학계의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연구 주제와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시기나 제도에 제한되지 않는 조선 시대 가족 연구의 종합적 윤곽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만 논문을 정리하면서 논문의 분류가 연구자의 의도와 다르게 배

1) 가족(家族)이라는 한자어 기표는 17세기 등장하였다. 그렇지만 부모와 그 자녀라고 하는 현재 일반적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으며 사용되는 용어도 아니었다. 오히려 가(家)와 족(族)이라는 어휘가 혼인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의미있는 어휘로 사용되었다(박미선, 『조선시대 ‘가족(家族)’의 등장과 성리학』, 『민족문화연구』 82, 2019.). 이에 본고에서 다루는 ‘가족사’의 대상은 부모와 그 자녀로 이어지는 세대 공동체이자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로서 친족, 문중 등을 포괄함을 밝혀 둔다. 또 주제도 ‘제도’나 ‘생활’ 뿐만 아니라 ‘의식’, ‘국가의 지배’ 등 종합적인 내용을 포괄하고자 하였다.

치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남는다. 박사학위논문은 한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섭하는 연구 결과물인 만큼 꼭 여기에서 나누는 한 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류를 시도한 것은 다른 논문들과 차별화되고 참신한 지점을 부각함으로써 향후 개별 논문에 시사하는 바나 영감을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연구자의 의도와 다르게 분류된 부분이 있다면 필자의 부주의와 이해 부족으로 여기어 헤량되기를 바랄 뿐이다.

## 2. 연구사 논문을 통해 본 가족사 연구의 확장

### 1) 가족 관련 연구사 검토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로 이를 지칭하는 기표는 시대나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인류 역사에 늘 존재하였고 모든 사회 영역과 관련되었다. 이러한 가족의 역사는 인간의 행위와 규범에 대한 학문 영역인 윤리학이나 근대학문인 인류학, 사회학, 민속학 등에서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 이후에는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었다. 여기에서는 조선 시대 가족과 관련된 연구사를 검토해 보겠다.

역사학계에서 ‘조선 시대 가족사 연구 동향’에 대한 성과 검토를 전면에 내세운 논문은 기대와 매우 다르게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김경란에 의해서 비로소 가족사 연구 동향이 검토될 수 있었는데, 김경란은 「조선후기 가족제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서 1990년대 후반까지 사회학, 인류학, 민속학 등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가족사 연구를 검토하고 역사학계에서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았다. 특히 김경란은 혼인제도, 상속제도 등 기존의 가족제도에서 다루었던 연구들뿐만

아니라 부계 혈연 집단인 문중과 성씨, 동성촌락 등 역사학의 사회사 분야에서 오랫동안 다루어 왔던 주제를 추가하여 조선 후기 가족제도 연구를 종합 정리하였다.<sup>2)</sup>

그 후 현재까지 조선 시대 가족을 전면에 내세운 종합적인 연구사 정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역사학계에서 조선 시대 가족사의 지위 및 연구자의 입지를 드러내는 것이기에 씩쓸하다. 비록 인접 분야의 연구사 검토에서 가족 관련 주제를 함께 정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선 시대 가족사 연구의 동향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관련 연구사 논문들에서 가족에 대한 연구사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가족 연구의 확장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가족 연구의 주제를 분류해 볼 수 있다. 이에 연구사에 대한 연구사 검토를 통해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주제를 다음에서 살펴보겠다.

조선 시대 가족에 대한 연구가 연구자들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여성사 연구자들에 의해서였다. 조선 시대 여성사는 일찍이 박용옥에 의해서 연구되었지만, ‘조선 시대’ ‘여성사’에 대한 연구 동향은 그보다 늦은 1992년 이순구, 한희숙에 의해서 검토되었다. 조선 시대는 부계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로 여성들에게 제약이 많았던 시기였으므로 여성사의 변곡점이 되는 시기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연구사 정리가 시도된 것이었다. 그 가운데 가족제도 및 친족은 여성사 연구의 한 항목으로 설정되었다.<sup>3)</sup> 이후에도 여성사 연구 동향을 검토한 논문에서 가족 관련 연구들이 언급되었다. 2004년 한희숙은 「조선 시대 여성인물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서 대중서 및 연구서에서 자주 소개되는 인물, 왕비 대비 등 궁중 여성, 여성문인, 조선 후기 여성 실학자로 나누어 여성인물에 대한

2) 김경란, 「조선후기 가족제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사, 2000.

3) 이순구, 한희숙, 「조선 시대 여성사 관련 연구의 현황과 과제」, 『水邨 朴永錫教授 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上, 탐구당, 1992, 578면.

연구현황을 정리하였다.<sup>4)</sup> 또 2007년 장병인은 2004년 이후부터 2007년까지의 여성사 관련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는데 여성과 남성의 가족 내 권력과 관련하여 가부장제를 하나의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로써 조선 시대 가족과 관련하여 가부장제의 문제를 한 범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정해은은 「한국여성사의 동향과 전망」에서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의 여성사 연구 동향을 검토하였고, 이외에도 「조선 시대 여성사 연구 동향과 전망, 2007~2013」, 「조선 시대 여성사 연구, 어디로 가고 있는가?」 등을 통해 꾸준히 조선 시대 여성사 연구의 동향과 쟁점,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sup>5)</sup> 이러한 여성사 연구사 논문들을 통해서 가족 연구에 대한 저변도 점차 확대될 수 있었다.

여성사 분야의 연구사 정리가 가족 연구에 미친 영향은 이후 진행된 조선 시대 연구사 정리 논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992년 이순구, 한희숙의 연구사 논문은 이후 다른 조선 시대 연구사 논문의 분류 범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역사학보』 회고와 전망에 ‘가족’이 연구의 한 범주로 연구자들에 의해서 의미 있게 이해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즉 1990년과 1993년에 발행된 『역사학보』의 회고와 전망을 비교해보면 1990년 회고와 전망과 달리 1993년에는 사회사 영역에 상속 및 여성, 가족과 관련된 연구사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회고와 전망을 정리한 연구자의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역사학보』뿐만 아니라 1994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한국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에서도 가족사가 소항목으로 정리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sup>6)</sup> 1992년 조선 시대 여성사 연구사 논문이 조선 시대사

4) 한희숙, 「조선 시대 여성인물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인물사연구』 1, 2004.

5) 정해은, 「조선 시대 여성사 연구 동향과 전망, 2007~2013」, 『여성과 역사』 19, 2013. ; 「조선시대 여성사 연구,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역사와 현실』 91, 2014. ; 「한국여성사의 동향과 전망-삼국~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28, 2015.

연구에서 가족 연구를 주요 주제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조선 시대 생활사도 가족사 연구 영역의 확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가족제도 연구사가 정리된 2000년을 전후하여 역사학계에서는 새로운 역사 방법론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한편, 각종 자료들을 디지털화하는 대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특히 1990년대 서구에서 미시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조선 시대 연구자들도 생활사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의 정립을 위한 노력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우인수는 생활사 연구의 현황을 정리하면서 생활사의 연구 범위와 방법론 등을 제시하였는데 그 분야에 가족을 포함하였다. 즉, 생활사 분야를 “가정생활, 의식주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 여가생활, 언어생활, 의료생활, 노동생활” 등 8개 분야로 나누고, 그중 가정생활은 “생활양태, 생활규범, 가계운영, 혼인, 부부생활, 가족·친족, 가정의례”로 구분하여 역사학의 사회사 영역에서 생활사 영역의 독립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사와의 차별성을 위해 『조선후기 사회사연구법』에서 제시한 사회사의 범주 가운데서 ‘민의 조직과 생활자료’에 포함되는 ‘생활사 자료’ 7개 부류, 즉 생업관련 자료, 의식주, 교통 통신 시장, 가족 친족, 사법제도 민속놀이

- 6) 김성우, 『朝鮮 ‘전기’의 사회경제사 연구현황과과제』, 『韓國史論-韓國史研究의回顧와 展望 II』, 국사편찬위원회, 1994. : 지승중, 『조선전기 사회사 연구의 동향-가족·향촌사회·신분 연구를 중심으로』, 『韓國史論-韓國史研究의回顧와 展望 II』, 국사편찬위원회, 1994. 1994년 국사편찬위원회의 연구 동향 소개를 좀 더 살펴보면 ‘가족’이라는 항목은 ‘조선 전기’ 연구사 정리 부분에만 포함되어 있고 ‘조선 후기’ 연구사 부분의 항목에는 없다. 먼저 『朝鮮 ‘前期’의 사회경제사 연구현황과 과제』에서는 ‘생활사’ 항목의 하부 항목으로 ‘가족·친족·여성’을 두어 정리하였다. 최제석, 이수진, 박주, 이종일, 이순구 등이 대표 연구자로 제시되었다. 또 같은 책 『朝鮮前期 社會史 研究의 動向』에서는 ‘가족’을 대표 항목으로 두고 여기에서 김두현, 최제석, 이광규의 저서를 소개하였는데 인접 학문 분야의 연구성과를 제시한 것이었다. 아울러 가족제도와 친족제도 등에 대한 개별 연구자를 소개하고 역사학 분야에서의 가족 연구는 미약하지만 대체로 상속제도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및 행사, 신앙 종교 등을 생활사 묶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sup>7)</sup> 이로써 고문서, 일기자료 등을 자료로 사용하면서 생활사의 접근법을 활용한 가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생활사는 특히 고문서 자료를 활용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자료를 활용한 연구사 논문에서도 가족 관련 연구들이 정리되었다. 2006년 『영남학』 10에서는 고문서의 현황과 과제를 특집호로 간행하였는데 그중 김경숙과 문숙자는 가족사와 관련한 연구 현황을 정리하였다.<sup>8)</sup> 김경숙은 가정 및 친족 생활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문숙자는 재산상속과 관련한 가족사 연구를 정리하였다. 다만 여기에서는 고문서를 ‘목적물 가지고 주고 받는 문서’로 한정하여 일기, 호적, 양안, 족보 등의 연구를 제외하고 연구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자료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연구사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먼저 호적은 가구 편제, 가족 유형 등과 연결되어 오랫동안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되었던 만큼 일찍부터 연구사 정리가 진행되었다.<sup>9)</sup> 족보 역시 가계 계승과 동족의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었던 만큼 친족 연구와 관련된 연구 동향이 검토되었다.<sup>10)</sup>

이상과 같이 조선 시대 가족 관련 연구사 논문들을 살펴본 결과 역사학에서 조선 시대 가족사 분야는 독자적 영역의 구축이 미흡함을 확인

- 
- 7) 우인수, 『조선 시대 생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교육논집』 24, 1999, 833면.
- 8) 김경숙, 『고문서를 활용한 생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가정 및 친족생활을 중심으로-』, 『영남학』 10, 2006. : 문숙자, 『조선시대 재산상속문서의 연구현황과 과제-가족사 연구의 진전을 위한 제언-』, 『영남학』 10, 2006.
- 9) 정두희, 『朝鮮後期 戶籍研究의 現況과 課題』, 『韓國史研究』 101, 1998. : 노영구, 『조선후기 호적대장 연구현황과 전산화의 일례』, 『대동문화연구』 39, 2001. : 권내현, 『조선 후기 호적, 호구의 성격과 새로운 쟁점』, 『한국사연구』 135, 2006. : 권치중, 『조선후기 호적 연구의 현재와 향후 과제』, 『大東文化研究』 100, 2017.
- 10) 권기석, 『한국의 族譜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학논집』 44, 2011.

할 수 있다. 가족이라는 대상이 갖는 익숙함과는 달리 조선 시대 가족 연구사에 대한 검토는 소홀히 다루어진 것이었다. 2000년 한 번, 그것도 조선 후기 가족제도 연구의 현황만이 정리된 것이다. 또 사회사, 여성사, 생활사 및 각종 자료사(고문서, 족보, 호적)의 한 주제나 항목으로 가족에 대한 연구 동향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연구자 스스로 가족사 연구자로 자신을 위치하기 보다는 여성사, 생활사, 사회사 연구자로서 규정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성사나 생활사 영역에서의 연구 동향 검토를 통해 가족 연구의 확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연구사의 주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조선 시대 가족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항목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 2) 가족 연구 주제의 분류

조선 시대 가족에 대한 주제 영역이 점차 확장되어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가족 연구의 주제 분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조선 후기 가족제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정리한 김경란의 분류와 가족 연구의 확장에 영향을 미친 여성사, 생활사 영역의 연구사 분류를 참고하여 기존의 주제를 살펴보겠다.

김경란은 ‘조선 후기’ ‘가족제도’에 대한 연구사 검토에서 다음과 같이 ‘혼인제도’, ‘가족형태’, ‘상속제도’, ‘문중·성씨·동성촌락’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연구 동향을 검토하였다.

김경란, 「조선후기 가족제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사, 2000.

1) 혼인제도, 2) 가족형태, 3) 상속제도, 4) 문중·성씨·동성촌락

이러한 주제 분류에 대한 구체적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기존에 활발하게 연구된 분야를 모으고 선행 연구사 검토를 참

조하고 조선 후기 가족제도 변화의 특징을 부각한 연구성과들을 검토하여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 연구사와 관련해서는 사회학과 여성사 연구 동향의 분류가 참조되는데, 최재석은 1) 호적과 실지에 있어서 호당 인원, 2) 가족유형, 3) 동성불혼, 4) 상속제도, 5) 양자제도 등 5가지로 분류하여 연구사를 정리하였고,<sup>11)</sup> 이순구, 한희숙은 1) 혼인제도, 2) 가족제도 및 친족, 3) 상속제도, 4) 여성(윤리)관·여성교육, 5) 여성생활·여성노동 등 5가지로 나누어 연구 경향을 정리하였다.<sup>12)</sup> 후자의 경우 4), 5)는 여성에 대한 주제이므로 1), 2), 3) 가족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참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경란은 “조선 후기 문중은 당시 가족제도 변화의 산물이자 조선 후기 가족제도의 시기적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sup>13)</sup> 이러한 조선후기 연구 경향의 특징을 강조하여 ‘문중·성씨·동성촌락’ 항목을 추가한 것이라 여겨진다.<sup>14)</sup>

가족 제도와 관련된 주요 주제들이 2000년 이전에 이와 같이 나누어져 이해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가족 제도와 관련된 사례 연구의 심화와 주제 영역의 확장이 나타난다. 이러한 주제의 분류는 김경숙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김경숙은 고문서를 활용한 생활사 영역 중에서도 가정생활, 친족생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성과를 정리하되, 가계운동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구성과가 집중적으로 많이 제출된 주제를 선정하여 하부 주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김경숙, 「고문서를 활용한 생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가정 및 친족생

11) 최재석, 「조선 시대 가족제도연구의 회고」, 『정신문화』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12) 이순구, 한희숙, 위의 글, 578면.

13) 김경란, 위의 글, 394면.

14) 1993년 이해준·김인걸의 『조선 시기 사회사 연구법』에서는 사족의 조직과 대민 지배자료로 ‘문중조직’의 자료를 강조하고 있다.

활을 중심으로-」, 『영남학』 16, 2006.

- 1) 가정생활 : ① 일상생활과 가훈, ② 가족형태와 가세변동, ③ 혼인과 가계계승
- 2) 가계운영 : ① 노비와 전답 경영, ② 갈등과 해결
- 3) 친족생활 : 문중과 족계

가족 제도에서 다루었던 주제들을 다루면서도 구체적인 가문이나 부부, 인물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사용하는 의식주, 경비 등 더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주제를 부각하여 연구 주제들을 분류하였다. 특히 가문의 생활 규범이나 가치관, 생활방식 등은 기존의 가족제도 연구 동향에서는 분류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또 실질적인 가계의 운영과 가족 내 갈등과 그 해결 등을 분류항목으로 제시하여 조선 시대 제도 속에 갇힌 이념형 가족이 아닌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실제적 가족과 관련된 분류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가족에 대한 연구 주제 항목을 살펴볼 때 가족 제도 중심에서 가족 생활로 그 연구가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김경숙의 연구사 논문이 작성된 2006년 이후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더 많은 가족 사례가 발굴되었다. 사례 뿐만 아니라 서구의 각종 이론들이 수용되면서 다양한 시각과 방법론을 활용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 결과 제도와 생활 중심의 분류 항목만으로는 가족 전략, 가족 의례, 가족 실천, 가족 통치, 가족 의식 등의 주제를 포괄하지 못한다. 이에 기존의 주제들과 2000년 이후 발표된 논문들의 문제의식과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1) ‘가족 구성과 성원’, 2) ‘가족 변화와 전략’, 3) ‘가족 계승과 갈등’, 4) ‘가족 활동과 일상’, 5) ‘가족 의례와 실천’, 6) ‘가족 지배와 통치’, 7) ‘가족 규범과 실제’, 8) ‘가족 의식과 심성’ 등 8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가족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겠다.

다음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의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가족사 연구의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2000년대 박사학위논문은 저

서로 간행된 경우가 많고,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만큼 조선 시대 가족사 연구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3. 박사학위논문을 통해 본 가족사 연구의 경향

#### 1) 박사학위논문의 양적 추세

2000~2022년까지 가족 관련 주제의 박사학위 논문은 매년 1편 이상 제출되었다. 조선 시대 전체 344편의 논문 중 모두 52편의 논문으로 약 15% 정도의 논문이 가족과 관련한 연구성과라 할 수 있다(<표1>).<sup>15)</sup>

<표 1. 조선 시대 박사학위 논문과 가족 관련 박사학위논문 편수(2000~2022년)>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편수	20	17	17	23	13	16	16	14	16	13
<b>가족관련 편수</b>	<b>4</b>	<b>3</b>	<b>2</b>	<b>6</b>	<b>3</b>	<b>1</b>	<b>1</b>	<b>2</b>	<b>1</b>	<b>1</b>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편수	12	13	11	13	14	13	9	19	10	21
<b>가족관련 편수</b>	<b>2</b>	<b>2</b>	<b>3</b>	<b>2</b>	<b>2</b>	<b>3</b>	<b>2</b>	<b>1</b>	<b>1</b>	<b>2</b>
년도	2020	2021	2022							
전체 편수	9	17	18							
<b>가족관련 편수</b>	<b>1</b>	<b>2</b>	<b>5</b>							

15) 박사학위 논문은 학위 수여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예컨대 박사학위 논문 제출이 1999년 하반기일 경우 학위 수여일은 2000년 2월이 된다. 한국사연구회보에도 이를 발행일로 정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2000-2021년까지 전체논문 편수는 조성산의 논문(『2000~2021년 조선 시대사 박사학위논문 분석』, 『사림』 제82호, 2022)을 참고하였으며 2022년은 전체 논문 편수는 한국사연구회보에서 ‘한국사 대학원’을 졸업한 연구로 제한하여 정리하였다. 가족 관련 편수는 조성산의 논문과 한국사연구회보의 박사학위논문을 비교 검토하여 추가하였다.

그 중 박사학위논문이 나온 대학은 총 24개 대학으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 38편, 지방에서 14편의 학위논문이 제출되었음이 확인된다. 대략 서울 경기에서 73%, 지방 27% 정도 학위논문이 나왔다. 이 중 서울대,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민대 등의 순서로 박사학위자가 많이 배출되었다 (<표2>).

<표 2. 학교별 논문수 현황(2000~2022년)>

번호	학교	편수	번호	학교	편수	번호	학교	편수
1	강원대	1	9	목포대	1	17	원광대	1
2	건국대	1	10	부산대	2	18	영남대	2
3	경북대	2	11	서강대	2	19	이화여대	1
4	경희대	1	12	서울대	8	20	인하대	2
5	고려대	3	13	성균관대	4	21	전북대	2
6	공주대	1	14	성신여대	1	22	충남대	1
7	국민대	4	15	숭실대	1	23	한국학중앙연구원	7
8	동국대	1	16	안동대	1	24	한양대	2

한편 박사학위논문의 시기적 범위는 다음 <표 3>와 같이 조선 초부터 19세기까지 다양하다.<sup>16)</sup> 1990년대 초반까지의 역사학 분야에서 가족 연구가 ‘조선 전기’에 집중되었다는 것은 앞서 연구사 논문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초창기 가족 관련 연구는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서 성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 대체로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가족 제도에 있어서 연속성을 살피면서도 실제적인 변화의 변곡점을 찾는 데 집중되었다. 그 결과 15세기로부터 17세기까지 사립과의 가족 구성과 주거의 특성, 그리고 친족제도의 변화상을 검출하여 17세기 전반까지 중법적 가족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였음을 밝혀냈다. 조선 전기는 고려와 같이 ‘양측적 친족 관계’ 속에서 남귀여가혼, 자녀균분제, 자녀윤회봉사 제도

16) ‘~세기’를 표에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은 박사학위논문 제목을 기준으로 시기를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학위논문 제목을 ‘조선후기~’라고 제시하였다면 후기 부분으로, ‘18세기’라고 하였다면 18세기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가 상호 간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고 17세기 후반 ‘부계 질서’의 강화로 친영제, 장자상속, 장자봉사 등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조선 시대 가족 자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 또 조선 후기 가족에 대한 연구는 문중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표 3. 박사학위논문 연구 대상의 시기별 분포 현황(2000~2022년)>

구분	조선	초기	전기	중기	후기	14-16세기	16세기	17세기	15-17세기	16-17세기	17-18세기	18세기	19세기	기타	합계
2000		1			2						1				4
2001			1		1									1	3
2002					1		1								2
2003					2	1	2				1				6
2004	1									1			1		3
2005														1	1
2006										1					1
2007			1					1							2
2008													1		1
2009					1										1
2010									1					1	2
2011					1							1			2
2012	1			1			1								3
2013	1													1	2
2014			1		1										2
2015					3										3
2016	1										1				2
2017					1										1
2018					1										1
2019	2														2
2020					1										1
2021	1				1										2
2022			1		4										5
합계	7	1	4	1	20	1	4	1	1	2	3	1	2	4	52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조선 후기 중심으로 조선 전 시기 가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조선 시대는 7건이었고, 그리고 조선 초기, 조선 전기, 조선 중기, 조선 후기로 구분했을 때에는 조선 후기 주제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세기를

구분하여 검토한 연구에서는 14세기나 15세기를 단독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대체로 16, 17세기를 함께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가 8건이며, 17~19세기를 다룬 연구가 5건이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16세기 이후 조선 후기 가족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들이 주로 진행된 추세를 보여준다.

각 세기별 가족 연구는 각 시대의 정치사회적 변화와 연관하여 가족의 특징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서술되었다. 16세기는 정치적으로 중소지주 출신의 사림이 성장하여 기존 훈구와 대립하고 갈등하던 시기로 사림들이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시기였고 경제적으로는 과전법의 붕괴와 함께 양반 지주층이 상속이나 매득, 개간 등을 통해 농장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주자학적 질서 의식이 보급되는 시기였다. 또 18세기는 향촌에 기반을 둔 사족들이 정치적으로 진출하거나 경제적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드러나는 시기였지만, 반면 조선의 예학에 있어서는 변례(變禮)에 대한 담론이 확대되고 거질의 예서가 편찬되는 등 예학의 발전이 드러난 시기였다. 19세기는 사족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고 수령권이 강화되는 한편 서얼과 향리의 성장 등이 나타나지만 여전히 사족이 향촌을 주도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이러한 각 시기별 사회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가족의 생활과 구체적인 대응 양상들이 검토된 것이다.

다음으로 이상의 박사학위논문을 5년 단위로 나누어 편수와 주제의 흐름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겠다. 2000~2022년까지 연구 주제 중 사족 가문의 사회변동에 대한 대응을 다룬 연구는 전 시기에 걸쳐서 고루 나타난다. 이러한 내용 이외에 어떤 주제가 박사학위논문으로 발간되었는지 5년 단위로 편수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0~2004년에는 조선 1편, 초기 1편, 전기 1편, 후기 6편, 14-16세기 1편, 16세기 3편, 16-17세기 2편, 17~18세기 2편, 19세기 1편, 기타 1편 총 18편이다. 1999년부터 전산화가 진행된 호적대장에 대한 연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중에서도 여성호주에 대한 문제는 이제까지

가족 연구 대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였다. 또 일기 자료를 활용한 양반 가족의 생활에 대한 연구, 고문서 자료를 활용한 상속, 산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간찰을 통해 19세기 소농 가족의 생활을 밝힌 연구도 나왔다. 친족 용어를 분석하여 혈연의식을 검토한 연구는 방법론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이었다.

2005~2009년의 연구는 조선 전기 1편, 후기 2편, 17세기 1편, 16~17세기 1편, 19세기 1편으로 총 6편이다. 5년 동안의 성과가 2003년 6편의 성과와 수치상 같다. 이렇게 볼 때 2000년대 초반보다 가족 연구에 대한 열기가 사그라들었던 것 같다. 조선 후기 사회 변동 속에서 사족 가문이나 외척 가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조선 전기 입후법의 정착을 검토하는 한편 양반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생활상을 다채롭게 살펴본 연구가 주목된다.

2010~2014년의 연구는 조선 2편, 전기 1편, 중기 1편, 후기 3편, 16세기 1편, 15~17세기 1편, 18세기 1편, 기타 2편 등 총 11편이다. 각 지역의 사례연구로 사회 변화에 따른 사족 가문의 대응에 대한 연구가 계속 나오면서도 새로운 대상의 가족에 대해서 접근한 사실이 주목된다. 왕실에 있어서는 후궁, 왕비가문, 국왕 후손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일기 자료를 통해 노비 가족의 삶과 의식세계 등이 새롭게 밝혀졌다. 또 족보를 통해 동족의식을 검토하고, 예서의 가족담론을 검토한 연구 등이 주목된다.

2015~2019년의 연구는 조선 3편, 후기 5편, 17~18세기 1편 등 총 9편이다. 성리학적 가족질서의 핵심 저서인 『주자가례』의 적용에 대한 검토가 왕실과 사족의 의례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검토되었다. 또 호적대장과 친족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연구도 있다. 호를 가옥소유권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자연호와 편제호의 성격이 함께 나타난다는 관점이 제기되면서 가족 공거(共居)를 재exam할 수 있었다. 또 친족들은 대체로 동일한 정치색이라는 통념에 대해서 비판적

으로 접근하며 다양한 친족네트워크를 검토하였다.

2020~2022년 최근 3년의 연구는 조선 1편, 전기 1편, 후기 6편 등 총 8편이다. 왕실의 의빈에 대한 연구, 사족 상례의 절차와 부조 방식에 있어서 종법 질서의 강화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 여성과 관련하여 총부와 종부를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 종부의 역할을 설명한 연구가 있다. 특히 유교 젠더 규범과 실제 양반 여성들의 대응에 대한 연구는 ‘젠더사’의 관점에서 특정한 역사적 국면 속에서 여성이 구성된 방식과 사회가 고안한 규범에 여성 주체가 저항한 다양한 균열의 지점을 포착해냈다.

가족사 연구는 사회사에 뿌리를 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관점을 망라하며 확대해 왔다. 따라서 조선 시대 사회사의 중심주제인 지배집단의 ‘변화와 지속’의 문제, 즉 사회구성원의 신분 변화, 신분제도의 변화, 향촌사회의 주도권 장악문제 등과 깊은 영향을 맺고 있다. 동시에 가족은 실제 삶을 살아가는 인간 주체의 행위로 이해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 민주주의, 개인주의 시대의 가족을 이해하는 방식과 달리 ‘신분제’와 ‘성리학적 가족질서/종법적 가족질서’라고 하는 가족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다음에서는 2000년 이후 박사학위논문을 신분별, 주제별로 나누어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다.

## 2) 박사학위논문의 주제 현황

조선 시대는 신분제 사회로 신분에 따라 가족 생활 모습에 차이가 있었던 만큼 이를 나눈 후 각 주제별로 세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 시대 신분과 계층을 반영하여 조선 시대 전체 가족사의 대상을 범주화해보면, ‘왕실가족’, ‘양반(문무반)가족’, ‘사족가족’, ‘중인가족’, ‘상민가족’, ‘천민가족’으로 나눌 수 있다. 잘 알다시피 조선 시대 신분제는

양천제를 바탕으로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하였고, 양인은 다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나누어졌다. 또 양반은 관제상 문반과 무반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조선 후기에는 지배신분층 일반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들은 ‘양반가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성종대 이후 향촌사회의 지배계층을 사족이라고 하였다.<sup>17)</sup> 이들은 ‘경화사족’에서부터 ‘재지사족’까지 다양한데 ‘사족가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분과 함께 왕족, 중인, 상민, 천민을 포함하면 신분 및 계층에 따라 위와 같이 6개의 가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왕실가족’, ‘양반사족가족’(‘양반가족’, ‘사족가족’), ‘중인 이하 가족’(‘중인가족’, ‘상민가족’, ‘천민가족’), ‘기타: 민 일반’으로 나누어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양반가족과 사족가족을 함께 묶은 이유는 사족이 문반, 무반 등 관직과 친연성이 있으며, 양반은 사족과 같이 지배신분층 일반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중인가족, 상민가족, 천민가족을 ‘중인 이하 가족’으로 묶은 것은 관련 연구성과가 소략하여 편의상 함께 정리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분류하여 박사학위 논문 수치를 확인한 결과 ‘왕실가족’과 관련한 박사학위 논문은 7편, ‘양반사족가족’은 34편, 중인 이하 6편, 기타 여러 계층을 포괄하는 연구 5편으로 ‘양반사족가족’의 논문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앞서 2장 2절에서 분류하였던 8가지 주제로 나누어 해당 항목과 관련된 학위논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sup>18)</sup>

### (1) 왕실가족

1990년대까지 조선 시대 왕실 가족과 관련한 연구는 제도가 중심이

17) 사족의 개념과 기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성우, 『조선 시대 ‘사족’ 개념과 기원에 대한 검토』를 참고하기 바란다(349~350면).

18) 이하 본문의 박사학위논문은 참고문헌을 살펴보기 바란다. 본문에서는 박사학위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 )에 연도를 표기하였다.

되었다. 비빈제도, 종친부, 종부시, 종학, 의빈부, 돈녕부, 종친의 음서제, 군사제도에서 왕실구성원의 배치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로써 왕의 직계 가족에 대한 제도와 왕의 부계자손들에 대한 예우와 제한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제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왕실의 구성 및 구성원에 대한 세부적 이해, 왕실의 혼인의례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 ① 가족 구성과 성원

신명호는 국왕의 친인척 조직 및 관리 등을 종합적이고 구조적으로 검토하여 왕실의 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 유교적 친족조직 및 친족 의식을 반영하여 왕친, 외척을 포함하여 국가적 예우와 규제 대상이 되었던 왕실의 최대 범위를 ‘의친’이라고 하였다. 친족 집단인 의친과 제도적 측면인 봉작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친에 대한 예우와 규제를 유교 가족의 원리인 친친의 논리를 통해서 그 편제를 살펴보았다(2000).

왕실 여성들, 즉 왕비·후궁·부마(의빈) 가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왕 및 왕실제도와 관련한 정치적 관점에 입각해 있다. 임혜련은 19세기 수렴청정을 한 두 왕비의 가문에 대해서 검토하였다(2008). 양웅렬은 조선 전 시기 개별 왕비가문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선대의 내력과 가문의 상황, 간택 이후 후손의 추이나 교류 활동 등에 대한 것이었다. 숙종 대 후반 이전에는 직계 선조가 비교적 번성한 가문에서 왕비가 배출되었고 숙종 대 후반에는 직계 선조는 미약한 가문에서 간택되는 양상을 밝혔다(2013). 이미선은 후궁 175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내명부 직제의 실제 운영과 후궁제의 변화, 왕실 구성원으로서의 후궁의 위치, 성격, 역할 등을 파악하였으며, 후궁 집안의 가계 및 계보도 함께 검토하였다(2012). 신채용은 조선 시대 왕의 사위인 의빈 92가문을 분석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훈구척신, 조선 중기에는 사림파, 조선 후기에는

탕평과와 외척가문에서 의빈이 배출되어 왕권을 뒷받침하는 정치세력이 되었음을 살펴보았다(2021).

국왕 후손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박진은 국왕 후손의 혼인 관계를 추적하여 왕실에서 종법 질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적서(嫡庶)의 유교적 질서를 검토하였다. 국왕의 후손을 위해 확립된 제도적 예우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국왕 후손을 종성(宗姓), 이성(異姓), 남, 여의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그 배우자 가문을 분석하여 조선 전기 왕실에서 적서의 질서가 정착되었음을 밝혔다(2014).

## ② 가족 의례와 실천

왕가의 구성과 관련하여 국혼의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박미선은 조선 시대 국왕과 세자의 혼인의례를 검토하여 주자성리학의 영향으로 사가례(士家禮)의 혼례 양식을 적용하면서도 왕례(王禮)로서 국혼의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또 『국조오례의』와 조선 후기 의례의 납비의와 납빈의를 비교하여 『국조오례의』 그대로 시행하기보다는 전례와 현실을 반영하여 의례가 거행되었음을 밝히고 사족 여성이 왕실 가족의 일원으로서 신분 변화하는 의례적 장치들을 확인하였다(2016).

## (2) 양반사족가족

양반과 사족에 대한 연구는 조선 시대 사회사 분야에서 신분제 및 향촌지배질서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역사학계에서 양반사족가족에 대한 연구는 유력 사족가의 문서를 수집하여 포괄적으로 정리한 이수건의 가족 연구 및 유교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정리한 박용옥의 여성 연구에서 출발한 성과들이 기본

토대가 되었다.<sup>19)</sup> 부계조직/질서의 강화, 자녀균분상속, 장자우대상속, 자녀유훈회봉사, 양자제, 남녀여가혼, 친영제, 동성촌락, 혈연의식, 정표정책과 열녀 등은 양반사족가족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결과였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2000년 이후 박사학위논문의 방향은 지역 사례 연구를 통한 사족가문 연구 사례의 보완적 작업, 가족 전략에 대한 종합적 검토, 조선 후기 성리학적 가족질서 및 부계질서의 구체적 사례 검토, 선행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등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를 ‘가족 변화와 전략’, ‘가족 계승과 갈등’, ‘가족 활동과 일상’, ‘가족 의례와 실천’, ‘가족 규범과 실제’ 등 5가지와 ‘기타’로 분류하여 살펴보겠다.

### ① 가족 변화와 전략

조선 시대 종중(宗中), 동족(同族), 문중(門中)이라 일컬어지는 가문들은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내적으로는 기득권의 유지와 가문의 정통성을 확보하며 외적으로는 혼맥 등을 통해 상호 의존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향촌사회에서는 서원과 사우, 정려 등의 건립을 통하여 지역에서 가문의 위상을 드러냈다. 조선 후기 사회변동에 따라 양반사족은 사회경제적 지위 유지를 위해 부계질서의 강화를 통한 족적 결합을 위한 구체적 활동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간다. 이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주로 양반사족가족이 향촌사회에 입향하여 정착하고 향촌을 지배하며 가계를 계승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대응과 갈등이 중심 내용이었다.

김준형 조선 전기 각 성씨가 단성지역으로 이거하여 지배 기반을 구축하였으나 인조반정 후 사족층의 기반이 약화되는 한편 평민층과 향리층의 입지 강화 및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단성지역 사족층들의 활동을 검토하였는데, 학파를 현창하고

19) 박용옥, 『李朝 女性史』, 한국일보사, 1976. : 이수건, 『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 출판부, 1979.

관직에 진출하는 한편 다른 사족들과 연대하여 공동의 대응을 하였고 가문에서는 문중조직을 형성하고 서원 사우를 건립하며 문집 실기를 간행하여 조상을 현창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음을 종합적으로 밝혔다(2000).

이경구는 안동 김씨의 한 지파로서 16세기 후반 이후 형성된 장동 김문에 대해 연구했다. 장동 김문은 조선 전기에는 미미하였다가 조선후기에 부상하여 19세기 초반 최대의 세도가문이 된 가문으로 종법에 입각하여 전체 본관과 각 지파의 질서를 정비하였음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조의 유적과 선영을 정비하고 족보 편찬을 주도하여 동중 의식을 고취하였고, 문헌을 정리하여 장동 김문만의 독자적인 가문 의식을 형성한 사실을 밝혔다. 또 장동 김문은 문과에 응시하여 관직에 진출함으로써 관료 가문으로서 입지도 굳혀 나갔는데, 이로써 17세기 초반 사림의 명가 중 하나로 자리하게 되고 병자호란 때 척화론을 주장하면서 절의, 도학, 문장을 대표하는 가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찰하였다(2003).

김문택은 16-17세기 진성이씨 문중의 사례를 다루었다. 그는 동일한 조상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시조를 조상으로 한 문중, 불천위조(不遷位祖)를 조상으로 한 문중, 파조를 조상으로 한 문중으로 구분하였다. 진성이씨가 향촌의 다른 가문에 비해 좀 더 일찍 문중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경제적 성장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족보의 간행과 족계의 형성을 통한 가통의 정리를 밝히고 부계질서가 반영됨을 설명하였다. 문중 형성에 있어서 성리학적 예제의 실천과 제사를 강조하며 불천위 봉사와 사당의 운영, 재사의 건립, 시조와 입향조의 묘소를 추심하는 과정에서 문중 조직이 강화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2004). 임호민은 조선 초, 17세기, 18세기 사족 사회의 변화 속에서 재지사족의 문중 활동 확대를 검토하였다(2004).

박현순은 경상도 예안현의 사례를 통해 16~17세기 사족사회의 운영

구조와 변화를 고찰하였다. 예안현 사족은 15~16세기 이주하여 세거지를 형성하고 17세기 전반 사족 사회가 재편되어 사족사회의 분화와 유력가계가 대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징적인 점은 이황의 학맥을 잇는 인물들이 사족사회의 중심이 되었다는 점이며, 17세기 후반 영남 지역이 정치적으로 침체 될 때에는 이황의 상징성으로 진성이씨 이황계가 부각 되는 경향이 나타남을 검토하였다(2006).

김명자는 김문택의 문중 개념을 세분화하여 문중의 범위를 조선 후기로 한정할 때 입향조 혹은 중시조를 중심으로 하는 대문중과 그 아래 현조를 중심으로 분파하여 형성된 소문중으로 구분하였다. 안동 하회 풍산 류씨 가문을 분석하였는데 문중의 형성, 과거 응시와 관직 진출, 분파의 양상, 가학의 계승 등을 정리하고 혼반의 형성과 변화, 문중 재산의 내용, 불천위 제사의 시행, 시호를 청하고, 문중서원, 문집 족보 간행하는 등의 활동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향촌질서의 재편 속에서 문중의 대응 양상을 검토하는 한편 산송의 전개 과정에서 문중의 결집을 밝혔다(2009).

장현희는 용인 해주오씨 추탄공파 가문의 사회생활, 친족생활, 경제생활 등의 구명하였다. 추탄공파 종가를 통해 볼 때, 경기사족의 존재 양태는 주거는 서울에 있으면서 인근의 경기지역에 문중의 세거지를 두고 장악하며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추탄공파의 경우 전답 규모와 노비수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점차 줄어들어 종가의 가세가 기우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족보 수보를 통해 문중의 족적 결속을 강화하였으며 종계를 통해 문중을 더욱 조직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용인의 영일 정씨와 산송을 통해 문중의 결속력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살펴보았다(2013).

주매는 17~19세기에 걸쳐서 월촌지역에 세거하는 양반가 단양 우씨를 중심으로 형성된 친족을 검토하였다. 조선 후기 가족의 분화는 하향

평준화 경향이 나타나는데 지역의 거주민들은 각 가족의 실제 경제 조건에 부합하는 가족전략을 모색하였음을 밝혔다. 형제 간의 불평등 전략, 장자우대 등의 가족전략과 더불어 동족결합의 친족전략을 활용했고 그 이면에는 친족 간 갈등이 내포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 소중 범위가 곧 같은 가라는 인식이 상례와 제례를 통해서 공유되었으며, 사회적 위상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음을 고찰하였다(2015).

이와 같은 지역의 사족 사례를 통해 사회변동과 부계질서를 통한 가족 대응 전략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문무과 급제 및 문무반 관직을 중심으로 가문의 성장과 분화 속에서의 가족 전략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김인호는 영남 지역 문과급제자의 성관과 가문현황을 검토하여 영남 지역 문과급제자의 전체적인 양상과 정치적 변동에 따른 성장과 쇠퇴를 살펴보았다. 그중 상징적 위치에 있는 대표 4가문의 후예들을 검토하였다. 지역사회에서 상징적 위치에 있던 인물들의 후손을 등용하고자 한 의도와 영남 남인의 주요 가문의 목적을 정리하고 이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약 2년마다 1명씩 급제자가 배출되어 서울 다음으로 많은 문과급제자가 배출되었음을 밝혔다. 그렇지만 이들이 주요 핵심 관직에 임명되지 못했음을 고찰하였다(2019).

사족, 문반 이외에도 무반가문의 변화와 전략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조선 시대 전반 문반 위주의 사회적 분위기에 불구하고 무반가문들이 독자적 지위를 갖추어 나갔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지속적인 전란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게 된 17세기 이후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변란으로 인하여 무신들의 군권이 확대되는 계기가 나타난 것이었다. 그중에서도 조선 후기 5군영의 군사조직은 무반직 실권과 관련하여 무반벌족가문의 성장과 연결되는 제도였다. 무반가족은 중앙과 지방에서 각 1건씩 연구되었다.

장필기는 무반벌족 가문들의 기초 자료라 할 수 있는 『무보(武譜)』를

통해 무반별족 가문들의 별족화 과정을 살펴보고 각 가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무반의 청요직인 선전관과 별군직, 조선 후기 무반의 실질적인 최고 군사적인 군영대장 출신 등단자의 기록을 분석하고, 조선 후기 무반별족의 대표적인 9개 가문을 추출하여 가문별 가계와 인적 구성, 관직 진출 현황을 파악하고 출계 관계 및 통혼 관계, 당색 등을 통하여 무반가문의 별족화 과정을 검토하였다(2000).

강경윤은 충청우도 무반가문의 형성과 발전을 검토하였다. 충청우도에 거주했던 무인들은 무과급제, 남행, 별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물을 배출했다. 또 무반가문들 간의 중첩적인 혼맥관계를 통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보하고 유대관계를 강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충청우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 부각되며 충청우도 지역을 근거지로 세거하면서 성장 발전하였음을 검토하였다(2020).

이상의 연구가 성리학적 부계질서의 강조와 그 확대의 차원에서 결집과 분화로 설명되었다면 비부계 친족 및 처족 등의 영향력 속에서 친족네트워크의 다양성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 한상우는 조선 후기 족보는 외손 기록이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비부계 친족 관계 정보가 부계 친족의 정보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불천위는 친족이 당내(堂內)의 범위를 넘어서 확대될 수 있는 구심점을 제공했다. 이처럼 친족 네트워크는 다양한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정치적 성향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었다. 친족 네트워크 안에서 개별 가족들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했는데, 2대 이내의 선조들은 혈연의 방향과 관계없이 개인의 관직 획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부계 친족 중 방계인 삼촌의 경우에도 일정한 영향력이 나타났음을 설명하였다. 더구나 19세기에는 부계의 영향력이 줄어든 반면 처부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밝혔다. 이처럼 친족 집단 내 정치적 다양성과 부계친족 집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재경양반과 재지양반의 가족 유지 전략이 있

있음을 검토하였다(2015).

## ② 가족 계승과 갈등

가족의 유지 및 계승은 경제적 측면과 혈연 및 계통적인 측면과 연결된다. 전자는 토지 및 노비 등 재산 상속과 관련되며, 후자는 봉사 즉 제사 상속과 관련된다. 조선은 종법 가운데에서도 송나라 때의 동고조 소종의 범주에서의 종법을 수용하면서 가문 내에서 적장자의 상속 문제가 점차 중요해졌다. 그런데 조선 시대 가족은 모두 적장자가 있는 동일한 상황이 아니었고 가족에 따라 적장자에 의한 가계계승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양자를 들여 선대의 봉사를 의탁하는 입후가 활용되었다. 또 재산상속도 점차 적장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분산(墳山)도 부계조상에 대한 인식의 확대로 족산, 종산의 형태가 되었다. 이러한 제도들은 부계질서에 기반한 가계계승의 인식 속에서 17세기 후반 변화되었다. 1990년대까지는 이러한 가계계승과 관련된 상속 및 입양 제도와 그 변화의 기점에 대한 연구가 초점이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가족 상황에서 친인척 간의 분쟁이나 갈등의 양상, 대응의 실상을 밝히고 그 의미를 고찰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문숙자는 다양한 상속 형태와 원인 등을 검토하였다. 조선 시대 매득, 개간, 농장경영, 사패 등의 재산 형성 방식을 밝히고 다양한 상속 형태를 밝혔다. 즉, 혼인하고 자식 없이 죽은 딸 재산의 귀속처가 16세기 말 변화하였음을 밝혔고, 첩자녀에 대한 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적 규정의 내용과 재주의 의사대로 분재를 집행하는 별급 분재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상속 관행을 통해 당시 재산 상속에 담긴 삶의 모습을 밝혔다(2001).

김경숙은 산송 문제를 경제적 측면보다는 조선 후기 사회적 사상적 변화 속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또 산송은 다른 소송과 달리 상장

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소송 방식이었음에 주목하였다. 분산(墳山)은 16, 17세기를 거치며 주자가례 중범 관념에 근거한 종족질서가 형성되면서 부계조상에 대한 인식의 확대를 바탕으로 족산 종산의 형태로 성립되었고, 그 과정에서 종족의식에 바탕한 사족층의 분산 확보 노력이 투장의 성행과 분산의 확대 현상으로 나타나 산송이 발생하는 요인이었음을 검토하였다. 또 유교적 상장례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중인 및 양인층 이하에서도 분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커지고, 이는 사회 전반으로 산송이 확산되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밝혔다. 사족층은 분산을 수호하기 위해 족계와 동계 등을 통해 연대를 도모하였음을 검토하였다(2002).

박노옥은 후손이 없는 사람의 재산 처리 법제를 검토하고 이문건, 경주 손씨, 의성 김씨 등의 전답 쟁송에 대한 사례 살펴보았다(2005). 정운섭은 해남에 터를 잡은 재지양반 가문인 해남윤씨가에서 조선 후기 서남해 연안 지역과 도서지방을 대상으로 벌인 해연전 개발과 도서경영 과정을 통해 재산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다(2011). 김영준은 전북 부안의 부안 김씨 고문서를 분석하여 16세기, 17세기 초, 17세기 중후반, 18세기 초로 나누어 재산형성에서부터 분재 원칙, 가문의 위기 속에서 재산의 수호 방법, 재산 분쟁과 쇠퇴 등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2019).

한편 제사 상속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입후제이다. 박경은 조선 전기 성행하였던 수양·시양의 실태를 통해서 입후법 제정 전후의 사회상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15세기 수양·시양의 입양 대상은 부처(夫妻) 양측의 친족 입양과 부처에 모두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의 입양이 가능하여 부처 모두 자신과 혈연관계에 있는 친족을 계통을 따지지 않고 입양하였음을 밝혀 고려시대 친족조직의 특성이 이어지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또 부처 모두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의 입양사례도 나타나 이익과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입양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입후법은 세종 19년부터 『경국대전』이 완성될 때까지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손자 항렬의 입후를 금함으로써 부측 동성 친족 중 지자(支子)로 소목(昭穆)에 합당한 사람만이 입후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입후의 기준이 제시되었음을 밝혔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계후자의 적자승증자로서 지위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점차 아들 없는 집안에서 입후가 증가하게 되고 부계중심 가족질서의 강화가 나타남을 고찰하였다(2007).

고민정은 17, 18세기 『계후등록』을 중심으로 입후제 운영을 검토하였다. 『계후등록』은 일반적 계후, 『별계후등록』은 특별한 계후 사실이 중심이 되어 왕명으로 특별히 입후되는 경우를 정리한 것이었다. 고민정은 첩자가 있는데 적자를 입후하려는 경우, 양가 부모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 확대된 계후의 자격의 문제(법제적으로 제한했던 다른 가문의 장자, 독자, 죽은 자)가 제기된 경우 등 세 가지 사례로 유형화하고 양상을 검토하였다(2014).

김보람은 가계계승에 있어서 종부의 역할과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종부는 조선 시대 일반 만며느리를 의미하는 ‘총부’에 포함되는 개념이면서도 종법적 구조에 의해 부여된 지위라는 점에서 총부와 구별되는 개념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 총부권은 조선 후기에 들어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종부의 권한으로 전환되었음을 밝혔다. 종부의 권한은 봉사권과 입후권에 있는데 이에 대한 예학적 담론을 검토하여 입후권이 비록 축소되었지만 축소된 만큼 더 강력한 지지를 받았음을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종부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음을 검토하였다(2022).

### ③ 가족 활동과 일상

가족 구성원의 가정 생활 및 일상에 대한 연구는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표방한 생활사 연구의 방법론을 취하며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종래

사회사의 거대 구조와 구조적 변화의 분석에 집중하기보다는 인간의 ‘경험’에 관심을 돌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상의 현실을 인식하고 해석하며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한 것이었다. 일기와 편지 등 필자의 솔직한 감정과 생활상을 담고 있는 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가족생활의 실상을 생생하게 드러냈다.

김소은은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이문건가 혼인, 가정생활, 경제활동을 검토하였고(2002), 이성임은 유희춘의 『미암일기』를 중심으로 사족의 경제생활을 연구하였다(2003). 정성미는 오희문의 일기인 『쇄미록』을 통하여 16세기 사대부들의 일상생활을 검토하여 사회상을 밝혔다. 즉, 16세기 제사 설행 방식에 있어서 유교적 제사 방식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였고, 양반들이 고고한 유교적 생활을 하였을 것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지극히 인간적인 생활을 하였고, 주노 관계도 일방적인 복종의 관계는 아니었음을 검토하였다(2003).

하영희는 유학자 조병덕의 편지 자료를 통해 호서 지방의 사회사를 문화사적 시각으로 살펴보았다. 그는 19세기에 양반 계층의 붕괴가 나타나고 씨족 단위보다는 가족이 경제활동의 핵심이 되는 소농사회로 친족들은 관혼상제 외에는 무관심한 관계임을 서술함으로써 부계질서에 의해서 강력히 결집되어 있는 가족 관계와는 또 다른 가족의 실상을 드러냈다(2004).

양반 여성의 경제 활동과 일상에 대해서는 한효정의 연구가 있다. 『병자일기』, 교훈서, 행장, 묘지명 등의 자료를 통해서 17세기 전후 성리학적 규제의 최일선에 있었던 양반가 부인들의 경제활동과 그 의미를 구명하였다. 조선 시대 가정경제의 운영은 남성 여성 모두 상호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양반가 부인들은 활발한 농업경영(개간사업, 토지 매매, 노비 통솔)을 통해 가산(家産)을 확대할 수 있었고 잉여생산물로 토지를 구매하여 재투자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음을 밝혔다. 이외에도 직포생산, 염철, 가산증식형, 매점매석형 상업활동 등 상업 경

제 활동의 사례도 검토하였다(2007).

#### ④ 가족 의례와 실천

유교 의례는 종법의 질서를 잘 반영하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변례를 통해 현실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되었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예학자들의 가족담론, 17-18세기 혼례와 제사의 실제 양상, 17~18세기 유교 상례의 사례 등을 통해 담론과 실제 양상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윤정은 18세기 낙론계 학자들의 예서와 예설 등을 통해 예학자들의 가족 담론을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은 5대조와 관련된 의례, 입후의 확대에 따라 파생되는 다양한 변례 속에서 형성되는 담론, 아버지 중심의 가례 운영에서 여성 의례에 대한 담론, 가례 실천의 주체로서 서얼의 인정 담론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서얼과 관련된 의례의 정비를 검토함으로써 서자도 친족 내에서 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며 보편적인 종법 질서 속에 포함되기 시작하였음을 구명했다(2011).

김정운은 17세기 전반,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 18세기 후반으로 나누어 혼인과 제사에서 『주자가례』가 활용된 방식을 검토하였다. 17세기 전반에는 양측적 친족 관계였으며 친영례를 시행하지 않았고 4대 봉사를 거행하되 지자를 포함해서 제사 대수를 정하였으며 윤희봉사 경향이 나타났음을 검토하였다.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에는 혼례에서 친영은 수용하지 않았고, 양측적인 친족 질서가 유지되었지만 여성은 윤희봉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부계 중심이 되었음을 밝혔다. 18세기에는 혼례에 있어서 17세기 후반 방식이 유지되었고 19세기 전반까지도 친영례가 없었음을 살펴보았다(2016).

김진우는 17, 18세기와 상례 가운데 종법을 확인할 수 있는 유교 상례 절차, 서손의 삼년복 착용, 부조 대상과 방식 등을 분석하였다. 17세기 상례가 사족들 사이에서 잘 정착되지 못하였던 이유는 사족이 자신들

의 신분적 우위를 통해 외손, 상민, 서얼 등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17세기 후반~18세기 사족의 통제력 상실 속에서 결집을 강화하였는데 상례를 더 호화롭게 치르고 사족 집단의 영속성과 결속을 강조하여 상례를 준용하고 적통을 확립하는 한편 상호부조에 있어서도 사족이 중심이 되었음을 밝혔다(2022).

### ⑤ 가족 규범과 실제

규범은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행동양식으로 인간 행위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원리이다. 하여주는 유교규범이 아닌 ‘유교젠더규범’이라는 용어를 전격적으로 사용하여 양반 여성이 지배질서의 경계를 오가며 어떻게 균열을 만들어 가는 지 고찰하였다. 15~16세기 내외법의 시행, 여성 재가 금지로 정절 이데올로기가 형성되고 유교식 의례의 보급 등으로 여성에게 며느리 역할을 강조하는 행위기준이 만들어졌으며, 『소학』 등 여성 교육서를 통해 유교 젠더 규범이 보급되는 한편, 의학서를 통해 여성의 성품과 몸에 대한 유교 젠더 규범이 강화되었음을 검토하였다. 이에 여성들은 어머니의 권위를 활용하거나 친가 일원으로서의 의식을 지켜나가거나 흡연의 행위를 유지하는 등의 대응을 통해 유교젠더규범에 균열을 가하였다는 점을 규명하였다(2022).

### ⑥ 기타

이외에 지역의 가문 사례를 발굴, 활용 방향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 김승대는 홍계희의 선대가 호남 북부 지역에 광범위하게 정착하여 세거하였고 홍계희의 아버지 홍우전은 신입사화를 겪으면 전주 귀족으로 정착하였음을 밝혔다. 홍계희 가문은 송시열 노론 학맥과 연관하여 학연 연혼 관계를 맺었음을 살펴보았다(2010). 오경택은 15~16세기 전반,

16세기 후반, 17세기 전반, 17세기 중후반으로 나누어 전주 지역에서 사족 사회가 형성되고 재편되었는지 살펴본 후 그중에서도 서인계, 남인계 가문의 동향을 검토하였다(2012). 유준상은 기내 진출 가문이 경기 지역에 묘역을 조성한 내용을 검토하였고(2018), 김인경은 17세기 경주 김문의 형성, 18세기 정치동향, 외척이 된 후 정치 활동을 살펴본 후 월성위 김한신 가문의 주거공간, 유배공간, 별업 등의 현대적 활용에 대해서 서술하였다(2022).

### (3) 중인 이하 가족

#### ① 가족 변화와 전략

김두헌은 잡과 입격자의 가계를 분석하여 잡과의 증인은 양반서자들에서 기원하였고 17세기에 세전되었음을 검토하였다(2001). 이동규는 국역이 부여되는 계층 가운데 일반 군역이 아닌 군역대상자를 관리 통솔하는 임무가 부여된 군관 직역과 군관으로 선발되었던 대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군관은 군사 조직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 소요에 동원되었는데 군관과 관련된 직역을 맡았던 개인과 가족들의 사례를 보면, 누대에 걸친 장남 계열을 제외하면 차남이나 삼남 계열에서는 대체로 선조와 다른 일반 군역자로 하락하는 경우가 존재하였음을 검토하였다(2017).

중인 가운데 향리에 대한 연구는 권기중에 의해서 검토되었다. 향리 가문 내에서 향역 계승을 둘러싸고 가문이 끊임없이 분화하였고 향리 가문 내의 특정가계로만 향역이 이어지게 되었음을 고찰하였다. 가리층이 향역에 차정되는 경우는 부계, 처가, 외가의 도움을 받을 때 가능했고 향역 수행을 통해 천인 신분을 벗어나기도 했지만 향리가 양반으로 신분 변동되는 양상이 없었음을 검토하였다(2003). 정성학은 조선 후기 향리 직임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자신의 직임

을 대를 이어 계승시켜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였음을 살펴보았다. 향리직에서 배제된 자들은 이를 큰 위기로 인식했기 때문에 향리직임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나타남을 밝혔다. 또 향직에서 배제된 자들은 읍치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이거하여 세를 키웠고 마을에 정착한 후 과거에 응시하고, 조상을 추송하는 사업을 펼침으로써 향직에 있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향리로 여기며 생활하였음을 고찰하였다. 또한 향리 가운데 생원시, 진사시에 합격하였더라도 양반 가문과의 혼인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구명하였다(2022).

## ② 가족 활동과 일상

이혜정은 『목재일기』를 통해 조선 시대 가장 하층 계급인 노비의 생활을 검토하였다. 노비의 임신과 출산, 장례 등을 통해 거주 기간, 지속성 상호 부조 등을 확인하고 노비의 혼인관계와 혼인생활에 있어서 가치관과 자기결정을 살펴보았다. 또 노비가족의 형태, 노주와의 관계 속에서 노비의 정체성과 저항을 밝힘으로써 노비 역시 자신의 믿음, 가치, 행동의 그물망을 통해 삶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구사한 주체적 인간이었음을 고찰하였다(2012).

## (4) 기타 가족: 민 일반

### ① 가족 구성과 성원

정지영은 지배집단의 변화와 지속을 통한 사회변동론보다는 주도권에서 무관한 상태의 삶에 대한 관심에서 호적대장에 기재된 성별의 문제, 호주와 호구 성원 사이의 관계, 여성의 지위 변화 등을 고찰하였다. 특히 한 집안의 남성 연장자가 죽거나 하여 호주가 바뀌게 되는 상황에서 17세기 후반에는 거의 대부분 여성에게 호주의 승계가 이루어진 반

면 18세기에는 아들이 호를 잇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밝혀 부계 질서의 강화를 고증해 냈다. 또 17, 18세기 단성지역 사람들은 대체로 부부 가족, 직계 가족을 이루고 살았는데 이외에도 처가의 가족원이나 결혼한 형제자매가 함께 사는 경우, 사위와 함께 사는 처부모, 친청 오빠와 함께 사는 과부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있었음을 밝혔다. 아울러 재혼한 여성의 혼인 경력, 신분 연령을 분석하여 재혼 부부의 유형과 재혼 자녀를 검토하여 복잡한 조건들 속에서 재혼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2001).

## ② 가족 지배와 통치

김경란은 조선 후기 여성주호의 성격과 호정(戶政) 운영을 연관하여 검토하였다. 도이상조에 여성기재 명칭은 부녀, 과부, 양녀, 과녀, 비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 양녀의 비율이 공사천 여성 비 다음으로 많은 비율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공사천 비는 직역부과대상이므로 그 명칭이 기재되었던 반면 양녀는 양친교혼 소생 자녀를 양인화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기재되었음을 규명하였다. 즉, 양녀의 수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 급증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19세기 전반 전혀 기재되지 않는 시기적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18세기 중반 균역법 시행에 따른 양정확보책과 연결하여 검토하였다. 또 과부 과녀는 여성주호에게만 표기된 명칭으로 이렇게 기록하여 실제 부세를 부담시킬 수 없는 호, 즉 잔호, 허호로 국가가 인식하였고 이는 덕정을 베푸는 이념적 차원에서 파악하였음을 고찰하였다(2003).

장경준은 호적표 상의 동거의 범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접근하였다. 흔히 동거란 호주와 같은 가옥(자연가)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호적표 상의 동거는 가옥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하므로 더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호적의 호수, 양안의 대주를 비교하여 호수는 대부분 가족

이나 약간의 노비 노동력을 이용해 소농 경영을 영위해 나갔던 부류였고, 협호는 다수가 호수와 종족이 아닌 비종족 관계를 이루는데 이는 타인의 가옥을 빌려 사는 사람들로 파악하였다. 협호가 종족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는 가족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종족 간 결합으로 해석하였다. 또 협호의 경제력은 다양하고 호수와의 관계도 인신지배관계로 일률적이지만은 않음을 밝혔다. 결국 호는 가옥의 소유권자를 호수로 하여 그와 가족이나 지배예속관계를 이룬 자들을 묶는 원리로 구성되어 자연호와 편제호의 모습을 동시에 보인다고 하였다. 이로써 호적표 상의 동거와 호수 가족만의 동거를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2015).

### ③ 가족 규범과 실제

김가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효가 아닌 조선 전기 유교식 효행의 실천 방식에 있어서 특징에 주목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15세기 부터 16세기 전반까지 고려시대, 태종~세종대, 성종대, 중종대로 나누어 유교식 효행의 변화를 국가의 효행 정책과 함께 효/비효/불효의 행위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신체 훼손과 같은 자기희생에서 삼년상이라고 하는 상장례 실천으로의 변화가 효행의 중요한 요소였음을 설명하였다. 특히 세종대에 부모 생전과 사후 모든 시기에 효행을 실천하는 것이 ‘유교식 효행’의 본질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유교식 효행을 강조한 결과 비효도 불효로 파악하는 방식의 논리들이 만들어지면서 비효에 대한 논의가 세분화되었음을 밝혔다(2022).

### ④ 가족 의식과 심성

이중서는 사람들의 심성과 생활, 사회 분위기를 통하여 보편적인 친족관계를 확인하려는 심성사, 생활사의 측면을 고려하여 친족 용어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조선전기 일부 지식층이 ‘부계’를 지향했을지는 몰라도 개인 생활을 규정하고 그 심성을 형성하는 보편적 요인은 아니었음을 친족용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즉 16세기 이전에는 혈연계통을 구분하지 않고 혈연거리가 같으면 동일한 지칭으로 포괄하였고, 단일한 혈연계통으로 구성된 혈족집단 즉 현재 개념의 ‘족’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규명하였다. 14~16세기 ‘족’이 들어가는 용어는 혈연 관계에 있는 모든 족속을 포괄하는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동기’ 이론 즉 아버지의 ‘기’를 아들이 이어받아 탄생하는 과정으로 여기는 믿음을 해석해 가는 조선 후기에 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의식이 만들어졌다고 하였다(2003).

권기석은 15~16세기 족보의 일반적인 유형은 부계에 국한하지 않고 동성 및 이성 자손을 구별없이 수록하는 내외종합보였음을 살펴보았다. 또 초기 족보 편찬에 참여한 계층은 일정한 계층적 동류의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족보는 중앙 거족의 명족의식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의미가 컸음을 밝혔다. 그런데 16~17세기 종법적 친족관념을 원형에 가깝게 구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외손을 축소하고 성손 위주로 계보를 재편집하는 동성보로 변화하였고 17세기 후반에는 동성보가 대세가 되어 ‘동성백세지친’의 관념이 생겨났음을 설명하였다. 이로써 같은 시조의 부계 자손으로 구성된 종족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었다고 해석하였다. 또 17세기 족보의 수보, 중수는 동성만의 참여로 이루어졌고 종족 단위의 조직적인 협동 양상도 뚜렷해졌는데 족회에서 작업을 의논하고 유사를 선정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통문을 발송하여 집단적인 연락을 취하는 등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내부적 차등은 있지만 가문의 구성원 전체가 동족의식을 공유하는 성족으로 변화되었음을 규명하였다(2010).

#### 4. 맺음말 : 가족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

본고를 작성하면서 조선 시대 가족 관련 연구를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가족은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인간의 삶 모든 것과 관계하여 연구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다. 더구나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 시대 다양한 신분 및 계층의 가족들을 사회적·사상적으로 만들어진 여러 질서 체계들과 연관해서 이해해야 하므로 그 어려움이 배가된다. 이에 당초 2000년 이후 가족 관련 연구를 모두 정리해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점차 축소되었다. 논문을 목록화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최근 10년, 최근 5년, 최근 3년으로 점차 줄어들었고, 결국은 개별논문을 제외하고 2000년 이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한하여 그 개략적인 흐름을 정리하는데 그쳤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살펴본 연구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꾸준하게 개별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만큼 박사학위 논문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가족 연구사 정리에 있어서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위안을 삼아본다.

본고는 최근 개별 연구논문의 연구 흐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필자가 제시하는 향후 가족 연구 방향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본 박사학위논문의 추세와 주제를 검토하면서 파악한 사실을 중심으로 향후 연구의 방향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첫째, 근대로의 이행기인 19세기 가족에 대해서 다양한 사료와 방법론을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79년 이후 조선 전기 가족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2000년대 이후에는 조선 후기 부계질서의 강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양상과 균열의 지점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연구되었다. 이를 통해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는 교체되었지만 사람들의 생활 세계와 심성에 있어서 지속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 17세기 이후

부계질서가 강화되며 가족의 생활세계에 변화가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 다시 균열의 지점이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19세기의 모습은 강력한 부계질서의 모습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다. 후기를 시간적 범위로 한 박사논문 가운데 일부 논문은 19세기의 내용을 한 장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시기에 대해 신분변동의 양상이 포착되지만 여전히 사족이 향촌을 주도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부계질서와 종법에 입각하여 가족을 결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족적 결합은 국가의 부세 수탈에 대응하여 가족 경제의 불안정성을 보완해주는 장치로 작동하였고, 이마저도 어렵게 되자 사족까지 민란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19세기에는 양반사족 뿐만 아니라 민까지도 부계가족질서에 따라 가족이 결집하였다고 이해된다.<sup>20)</sup> 그렇지만 강력한 부계질서가 새로운 사상과 변화가 물결치는 19세기의 사람들의 삶에 몇 퍼센트나 또 얼마만큼이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을까? 19세기인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개인의 욕망은 부계질서로만 귀결되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앞서 하영희는 호서지방 조병덕의 편지를 통해서 친족들은 관혼상제 외에는 무관심한 관계였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강력한 부계질서는 가족 내에서 의례라고 하는 형식적 외피인 것은 아닐까? 형식화 된 것은 언제일까? 등의 의문이 이어진다. ‘19세기 강력한 부계중심의 가족’에 대한 이미지는 신분을 파악하기 위한 호적자료나 문중자료(족보, 고문서) 중심의 연구 수행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물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이러한 가족상이 19세기 주도적인 경향이었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다양한 문헌자료나 서구 사상을 접촉한 인물 및 가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사법품보』와 같은 각종 범죄 처벌과 관련된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강력한 부계질서와는 또 다른 가족질서의 양상을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20) 권내현, 「조선후기 부계가족·친족의 확산과 몇 가지 문제」, 『한국사학보』 62호, 2016, 259~263면.

생각한다. 즉 고려와 구별되는 조선의 가족상을 17세기라고 하는 시기에서 포착하였던 것처럼, 근대 이후 가족상의 등장을 19세기라고 하는 시기에서 고찰해보려는 시도가 이어지길 바란다.

둘째, 가족 내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구조, 제도, 체제 등에 함몰되어 있었던 가족을 건져낸 것은 생활사와 여성사의 공이 크다. 생활사와 여성사는 인간의 행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사는 어머니, 딸, 시어머니, 총부, 종부 등 여성의 가족 내 역할에 따라 그 의미를 밝혀냈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 내 구성원을 성별, 여성의 역할에 따라 구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연령에 따라 검토해 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즉 아동, 청년, 노인 등의 구분에 따라 가족의 생활을 살펴보는 것이다. 또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따라 장남, 장녀, 차남,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내, 남편 등의 생활상을 살펴보는 것도 조선 시대 가족의 실상을 부계질서와 연결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신분별, 주제별, 지역별 가족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사의 주요 내용은 대체로 지배계층인 양반사족층의 영역으로 전유되어 왔다. 상대적으로 왕실, 중인 이하 신분의 가족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더구나 그 세부 주제도 한정적이다. 2000년대 이후 의례연구가 심화 되고 왕실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왕실 생활상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정치적 측면 이외에도 왕실 가족의 생활상도 더 다채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조선의 은밀한 취향』(2021)과 같은 왕실의 사적인 내밀한 영역을 다루는 대중서도 발간되고 있는 만큼 왕실 가족에 대한 연구도 확장되기 바란다. 아울러 ‘양반사족가족’에 대한 연구의 지역적 측면을 보면 거의 대부분 영남지역의 양반사족이다. 타지역에 대한 사례 연구들도 박사학위논문으로 계속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박사학위논문 뿐만 아니라 개별 논문에 대한 연구사 검토가 진

행되고, 또 지속적이며 주기적으로 가족 연구사 동향이 정리되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박용옥, 『李朝 女性史』, 한국일보사, 1976.
- 이수건, 『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 출판부, 1979.
- 김성우, 『조선 시대 ‘사족’의 개념과 기원에 대한 검토』,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2000.
- 권내현, 『조선후기 부계가족·친족의 확산과 몇 가지 문제』, 『한국사학보』 62, 2016.
- 박미선, 『조선 시대 ‘가족(家族)’의 등장과 성리학』, 『민족문화연구』 82, 2019.
- 연구사 논문
- 최재석, 『조선 시대 가족제도연구의 회고』, 『정신문화』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이순구, 한희숙, 『조선 시대 여성사 관련 연구의 현황과 과제』, 『水邨 朴永錫教授 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탐구당, 1992.
- 이해준·김인걸, 『조선 시기 사회사 연구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김성우, 『朝鮮 ‘전기’의 사회경제사 연구현황과과제』, 『韓國史論-韓國史研究의 回顧와 展望 II』, 국사편찬위원회, 1994.
- 지승중, 『조선전기 사회사 연구의 동향-가족·향촌사회·신분 연구를 중심으로』, 『韓國史論-韓國史研究의 回顧와 展望 II』, 국사편찬위원회, 1994.
- 정두희, 『朝鮮後期 戶籍研究의 現況과 課題』, 『韓國史研究』 101, 1998.
- 우인수, 『조선 시대 생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교육논집』 24, 1999.
- 김경란, 『조선후기 가족제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사, 2000.

- 김경숙, 「고문서를 활용한 생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가정 및 친족생활을 중심으로-」, 『영남학』 10, 2006.
- 문숙자, 「조선시대 재산상속문서의 연구현황과 과제-가족사 연구의 진전을 위한 제언-」, 『영남학』 10, 2006.
- 노영구, 「조선후기 호적대장 연구현황과 전산화의 일례」, 『대동문화연구』 39, 2001.
- 한희숙, 「조선 시대 여성인물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인물사연구』 1, 2004.
- 권내현, 「조선 후기 호적, 호구의 성격과 새로운 쟁점」, 『한국사연구』 135, 2006.
- 장병인, 「조선 시대 여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여성과 역사』 6, 2007.
- 권기석, 「한국의 族譜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학논집』 44, 2011.
- 정해은, 「조선 시대 여성사 연구 동향과 전망, 2007~2013」, 『여성과 역사』 19, 2013.
- 정해은, 「조선시대 여성사 연구,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역사와 현실』 91, 2014.
- 정해은, 「한국여성사의 동향과 전망-삼국~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28, 2015.
- 權奇重, 「조선후기 호적 연구의 현재와 향후 과제」, 『大東文化研究』 100, 2017.
- 조성산, 「2000~2021년 조선 시대사 박사학위논문 분석」, 『사람』 82, 2022.

- 박사학위논문

- 金俊亨, 「조선후기 丹城지역의 사회변화와 士族層의 대응」,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0.
- 申明鎬, 「朝鮮初期 王室 編制에 관한 研究 -‘議親制’의 정착을 중심으로-」, 韓國精神文化研究院박사학위논문, 2000.
- 林學成, 「17·18世期 丹城地域 住民의 身分變動에 관한 研究」, 인하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0.
- 張弼基, 「朝鮮後期 武班家門의 閥閥化와 그 性格」, 嶺南대학교박사학위논문

문, 2000.

- 金斗憲, 『技術職 中人 身分 研究』, 全北大學校박사학위논문, 2001.
- 文叔子, 『朝鮮前期의 財産相續』, 韓國精神文化研究院박사학위논문, 2001.
- 鄭智泳, 『朝鮮後期의 女性戶主 研究-『慶尙道 丹城戶籍大帳』의 분석을 중심으로-』, 西江大學校박사학위논문, 2001.
- 김경숙, 『조선후기 산송과 사회갈등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2.
- 김소은, 『16세기 兩班士族의 生活相 研究 : 『默齋日記』를 中心으로』, 송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2.
- 權奇重, 『朝鮮後期 鄉役과 鄉役者 研究』, 성균관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3.
- 김경란, 『朝鮮後期 『丹城縣戶籍大帳』의 女性把握實態 研究』,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3.
- 이경구, 『17~18세기 壯洞 金門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3.
- 이성임, 『16세기 양반관료의 경제생활 연구』, 인하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3.
- 이중서, 『14~16세기 韓國의 親族用語와 日常 親族關係』,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3.
- 정성미, 『쇄미록 연구』, 원광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3.
- 임호민, 『朝鮮時代 江陵地方 士族의 鄉村活動에 대한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학위논문, 2004.
- 김문택, 『16~17世紀 安東의 眞城李氏 門中 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박사학위논문, 2004.
- 하영휘, 『한 유학자의 書簡을 통한 19세기 湖西 社會사 연구』, 서강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4.
- 박현순, 『16~17세기 禮安縣 士族社會 研究』,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6.
- 박 경, 『조선훈기 收養·侍養의 실태와 立後法의 정착』, 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7.
- 한효정, 『17世紀前後 兩班家 婦人의 經濟活動 研究』, 성신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7.
- 김명자,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경북대학교박사학위

논문, 2009.

권기석, 『15~17세기 族譜 편찬과 참여계층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0.

김승대, 『談窩 洪啓禧 研究』, 圓光大學校박사학위논문, 2010.

김윤정, 『18세기 禮學 연구 : 洛論의 禮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1.

정운섭, 『조선후기 海南尹氏家の 海堰田개발과 島嶼·沿海 經營』, 목포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1.

오경택, 『조선중기 全州地域 士族 연구』, 國民大學校박사학위논문, 2012.

이미선, 『조선 시대 後宮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학위논문, 2012.

이혜정, 『16세기 노비의 삶과 의식세계 :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2.

양웅열, 『조선 시대 王妃家門 연구』, 國民大學校박사학위논문, 2013.

장현희, 『古文書를 통해 본 朝鮮後期 京畿地域 兩班 家門 研究 : 龍仁 海州 吳氏 楸灘公派를 중심』, 한양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3.

고민정, 『朝鮮後期 家系繼承 研究 : 立後制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4.

박진, 『朝鮮前期 王室婚姻 研究 : 璿源錄에 보이는 國王 後孫의 通婚범위와 嫡庶차별』, 高麗大學校박사학위논문, 2014.

장영준, 『조선후기 호적대장과 '戶'의 성격 : 경상도 지역 사례』, 부산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5.

朱 玫, 『朝鮮後期 家族 및 親族秩序 研究 - 17~19세기 大邱 月村지역을 중심으로 -』, 成均館大學校박사학위논문, 2015.

한상우, 『朝鮮後期 兩班層의 親族 네트워크』, 성균관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5.

김정운, 『17~18세기 경상도 북부지역 사족의 친족관계 연구 : 일기에 나타난 혼인과 제사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6.

박미선, 『조선 시대 국혼의례 연구』,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6.

이동규, 『朝鮮後期 軍官職役者 研究』, 성균관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7.

유준상, 『조선후기 노론의 지역기반 변동연구 :畿內 진출가문의 묘역변동

- 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8.
- 김영준, 『조선 시대 부안김씨가의 재산형성과 분재 양상 연구』, 전북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9.
- 김인호, 『조선 시대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연구』, 안동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9.
- 강경윤, 『조선후기 충청우도 무반가문의 성격과 사례연구』, 공주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20.
- 김인경, 『조선후기 慶州 金門의 정치활동과 역사문화공간 연구』, 건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21.
- 신채용, 『朝鮮時代 儀賓家門 研究』, 국민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21.
- 김가람, 『조선 전기 유교식 효행의 정착 과정 연구』, 서강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22.
- 김보람, 『조선후기 가계계승과 종부의 역할』,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22.
- 김진우, 『朝鮮後期 士族의 喪禮 研究』,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22.
- 정성학, 『조선후기 경상도 향리의 향직 계승과 지향』,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22.
- 하여주, 『조선후기 유교 젠더 규범과 양반 여성의 대응』, 부산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22.

■ Abstract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the Researches  
on Family History in the Joseon Dynasty**

- Focused on doctoral dissertations from 2000 to 2022 -

**Park, Mi Sun**

This study presents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Family History Research through the trend and quantitative review on family-related research history and doctoral dissertations dealing with family and kinship of Joseon Dynasty published in the field of Korean History from 2000 to 2022.

The dissertation which organized the history of researches on Korean family history began in 1980 in the field of sociology. In the studies of history, the flow of family-related research was first compiled in 1992 in the middle of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researches on women's history. After that, there were the research results on family history as one item of social history and life history, and such a trend continued. In 2000, the current status of the researches on family history in the late Joseon Dynasty was studied, but unfortunately that of Korean family history has not been organized since then.

From 2000 to 2022, a family and kinship-related dissertation was submitted at least one every year. Fifty two(52) of the total three hundred and forty four(344) doctoral dissertations were on the Joseon family and kinship-related research. Twenty-four universities produced doctoral degrees, and among them the research related to the late Joseon period took a large proportion. The item of family and kinship was reviewed in the critical view of 'Change and Continuity' of the ruling group as the central theme of social history in the Joseon Dynasty, and the research topics were dealt with in connection with external environments such as the status system and the Neo-Confucian family order. The study examined the family history by dividing into ①royal family, ②noble class, and ③others according to the social status. And then according to the research topic of family history, the researches were re-divided into eight themes; ①family composition and members, ②family changes and strategies, ③family succession and conflicts, ④family activities and

100 『가족과 커뮤니티』 8집

daily life ⑤family rituals and practices, ⑥family rule and governance, ⑦family norms and reality, and ⑧family consciousness and mind-nature.

Key Words: Joseon Dynasty, Family History, Family, Kinship, Doctoral Dissertation

이 논문은 2023년 6월 19일 투고되어 2023년 7월 14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3년 7월 15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

[기획특집]

‘가족의 시대’에서 ‘포스트-가족’의 시대로:  
한국 근대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홍양희\*

목차

1. 머리말
2. ‘근대 가족’ 제도의 구축과 담론 정치
3. 가족의 경험, 일상, 그리고 행위성
4.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은 가족
5. 맺음말

■ 국문초록

‘가족 위기론’이 한국 사회에 유통된 지도 꽤나 오래되었다. 만고불변의 진리와의도 같아 보이는 ‘가족’, 그것이 해체되는 것만 같은 사회 현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기의 징후로 인식되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가족’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의 역사적 해체에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근대 가족’, 이것은 언제부터 등장하였고, 그것의 존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더욱이 이러한 가족 구성 방식의 붕괴가 왜 ‘위기’로 담론화 되어야만 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질문하는 것은 ‘근대 가족’이 발 딛고 있는 토양, 그것이 가진 위치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나아가 가족의 존재 양태와 거기에 내재된 정치학을 문제시 하는 근대 가족사 연구의

\*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연구교수.

현재적 의미를 가시화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2000년을 전후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근대 가족사 연구 성과를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근대 가족의 구축과 관련된 연구이다. 주로 근대 가족의 지식 생산, 담론 정치, 그리고 제도의 구성 등에 주목한다. 이들 세 가지의 주제들은 근대가 가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장치들이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장에서는 구축 재구축되는 근대 가족 제도, 거기에서 개인들의 일상, 경험, 그리고 그들이 행한 실천들과 관련된 연구들을 고찰한다. 그리고 끝으로 3장에서는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살아가는 이주자 가족의 삶을 추적한 연구들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가족의 위기가 운위되는 시대, ‘가족의 시대’를 재사유하고, ‘포스트-가족’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의 단초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가족사, 근대 가족, 가족 위기, 가족제도, 젠더 정치, 성별역할분담

## 1. 머리말

‘가족 위기론’이 한국 사회에 유통된 지도 꽤나 오래되었다. 만고불변의 진리와의도 같아 보이는 ‘가족’, 그것이 해체되는 것만 같은 사회 현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기의 징후로 인식되었다. 비혼 혹은 만혼, 이혼 및 재혼, 거기에서 초래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등 가족 붕괴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도 여러 가지였다. 사실상 특정한 형태의 가족만을 ‘정상’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가족의 존재로부터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진다는 인식론에서 비롯되는 불안감이었다. 여기에는 ‘가족은 과거부터 있어 왔고, 현재에도 잘 존재하며, 앞으로도 계속 존치되어야만 한다.’는 강박적 전제가 작동하고 있다. ‘가족’을 초역사적인 것으로 본질화 하는 사유가 사회에서 지배적 담론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시대별 가족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도 어찌 보면 고대에도, 조

선시대에도, 그리고 근대 및 현대에도 ‘가족’이 실제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현재적 의미의 가족과 비견되는 관계는 과거에도 존재하였다. 부부 및 친자를 품고 있는 관계망, 그것을 ‘가족’으로 의미화 하고, 그 시대의 맥락에서 그것이 가진 역사성을 추적하는 것은 그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최근친의 혈연관계이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구성원들의 공동체로서의 ‘근대 가족’, 그 이전 사회에 존재하던 그들 사이의 관계성, 그것의 추적은 당대의 역사를 읽는 작업인 동시에, 그를 통해 ‘근대 가족’이 가진 역사성이 보다 선명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가족’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의 역사적 해체에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근대 가족’, 이것은 언제부터 등장하였고, 그것의 존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더욱이 이와 같은 가족 구성 방식의 붕괴가 왜 ‘위기’로 담론화 되어야만 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질문하는 것은 ‘근대 가족’이 발 딛고 있는 토양, 그것이 가진 위치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나아가 가족의 존재 양태와 거기에 내재된 정치학을 문제시 하는 근대 가족사 연구의 현재적 의미를 가시화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기간은 한국 근대 가족사 연구가 양적 질적으로 비약적 전환을 맞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우선 주로 사회학이나 인류학의 연구 대상이던 가족, 그리고 그것의 역사가 역사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하면서 연구의 저변이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 시각 또한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가족사는 여성사/젠더사 연구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되었고, 근대 가족이 문제화되기 시작하였다. 여성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가 가족 내에서 모성적 역할이나 아내로서의 내조자 역할이기에, ‘가족’은 필연적으로 여성사/젠더사 연구

의 핵심 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여성 젠더의 생활 기반 그 자체이자 그들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 가족 내에서의 위치성,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성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2000년을 전후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근대 가족사 연구 성과를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근대 가족의 구축과 관련된 연구이다. 근대 가족의 지식 생산, 담론 정치, 그리고 제도의 구성 등에 특히 주목한다. 이들 세 가지의 주제들은 근대가 가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장치들이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장에서는 구축/재구축되는 근대 가족 제도, 거기에서 개인들의 일상, 경험, 그리고 그들이 행한 실천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끝으로 3장에서는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살아가는 이주자 가족의 삶과 관련된 연구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위기’가 운위되는 시대, ‘가족의 시대’를 재사유하고, ‘포스트-가족’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의 단초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2. ‘근대 가족’ 제도의 구축과 담론 정치

근대 가족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시작된 연구는 가족제도, 즉 가족의 구성 원리 및 그 성격과 관련된 연구이다. 처음 가족 연구에 관심을 둔 것은 주로 사회학자들에 의해서이다. 역사학자들의 작업, 특히 근대 이후의 역사 연구는 사회사보다는 민족운동사와 정치사에 연구가 집중되었다. 이것은 근대 전환기 식민지를 경험한 한국 사회 특수성의 산물이기도 하다. 우선, 식민지시기 가족제도의 전근대성을 강조하는 연구이다. 거의 1세대 연구자라 할 수 있는 김두현의 연구로부터 출발하여 가족 연구는 1970, 80년대 가장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한 최재석, 이효재 등으로 이어졌다. 초기 가족사 연구는 주로 식민지 조선에서 제도화 된

가족제도의 성격에 관한 것들로, 가족 관념이나 가족 의식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식민지시기 가족제도의 전근대성을 강조한다. 특히 최재석은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교과서에 나타나는 가족 관념, 그리고 가족법 분석을 통해 전근대적 가치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합병 전의 가족관념과 합병 후의 가족관념은 동일하며 하등의 변용도 찾아볼 수 없다. 근대적 가족의식은 이들의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추호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sup>1)</sup> 여성주의 사회학자 이효재 역시 식민지시기 가족제도나 가족 관념을 전근대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이것을 여성 불평등의 한 원인으로 비판하였다.<sup>2)</sup>

그러나 식민지 이후 구축된 가족제도를 전근대 그것의 연장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기존 연구들이 이를 전근대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이들에게 일정한 근대의 상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근대에 대한 선망, 즉 근대가 남녀 사이의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진 사회라고 인지하는 부당전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시기 지배 담론이었던 사회진화론적 시각에서 가족을 사유하는 인식론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 경향에 새로운 시각이 도입되는 것은 1990년대 중후반 이후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사조가 도입되면서 근대가 사회를 조직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식민지 가족사 연구에도 영향을 미쳐,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식민지시기 가족 담론이나 가족제도를 재사유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여성주의 역사사회학자들에 의해 주도된 이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근대 가족사 연구에 ‘젠더사’의 문제의식을 결합한 것이었다.<sup>3)</sup> ‘가족’이라는 공간에 구

---

1) 최재석, 『개정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1982, 246면.  
2) 이효재, 『한국 가부장제의 확립과 변형』, 『한국가족론』, 까치, 1990.  
3) 역사 분석의 범주로 젠더가 논의되는데 핵심 역할을 한 것은 조안 스콧(Joan W. Scott)이다.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 그 시대의 권력 지형에 의해 젠더관계가 구성되고 재편된다는 문제의식이다. 따라서 젠더사는 그 당대 사회에서 젠더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질문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조화 되어있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가 그들 사이의 불평등을 생산하는, 즉 국가의 젠더 정치가 작동하는 핵심적 거점이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젠더 관계가 생물학적 차이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그 시대의 권력 관계에 의해 매번 새롭게 구성/재구성되는 유동적인 것이라는 사유는 자연적이고 전통적인 것으로 보이던 가족, 그리고 그 내부의 관계성 또한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 등장한 가변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가능케 했다. 이제 ‘젠더’ 개념을 통해 가족사, 그리고 여성사 연구가 더욱 풍부한 내용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식민지 가족과 젠더 문제를 탐구한 초기 연구로는 김혜경의 것이 있다.<sup>4)</sup> 1920-30년대 가족 담론을 분석한 이 연구는 가족을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당대의 지배적인 가족 담론과 그에 대한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특정한 형태의 역사적 가족상을 구성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자크 동즈로(Jacques Donzelot)가 18세기 프랑스에서 근대 가족이 구성되는 방식을 분석하는데 사용한 계보학적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식민지 근대 가족 구성의 역사를 추적하였다.<sup>5)</sup> 특히 어린이에 대한 ‘과학적 양육’ 담론이 여성의 젠더 규범을 규정하고 새로운 가족상을 만드는 진양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현재 여전히 기능하고 있는 부부와 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 가족의 계보를 식민지 지식의 담론 정치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한말부터 시작된 근대 가족 관련 담론 정치는 식민지시기 극대화 되었다.<sup>6)</sup> 가족을 단위로 하는 부부 사이의 성별역할분담이 주류 담론으로 기능하기 시작하는 것도 이 시기였다. 근대 가족의 가장 큰 핵심은 성별역할분담론이다. ‘남자는 밖, 여자는 안’이라는 이분법적인 젠더 경계

4) 김혜경, 『식민지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 창비, 2006.

5) Jacques Donzelot의 *The Policing of Families*(1977)이 그것이다.

6) 전미경, 『근대 계몽기 가족론과 국민생산 프로젝트』, 소명, 2005. ; 김정일,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 푸른역사, 2012. ;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 담론과 젠더 정치, 1920-1934』, 소명, 2009.

위에, 제2의 국민 생산이라는 국가적 민족적 사명을 위해 여성을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로 호명하고 자리매김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여성을 모성으로 정체화 하는 것은 민족과 국가의 이름으로 담론 정치를 통해 지지되었다. 가족 내 여성의 역할 규범이라 할 수 있는 '현모양처' 논의 또한 일본판 근대 가족 담론의 연장이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가족 내의 역할분담은 서구적 모더니티를 공유하는 식민주의와 민족주의의 젠더 정치가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나아가 근대적 여성교육론이자 일본의 여성교육론으로부터 도입된 현모양처, 그것을 상징하는 전형으로 신사임당이 동원되고, 급기야 현모양처가 '전통적인 여성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이 분석되었다.<sup>7)</sup>

이러한 논의는 현재 전통으로 굳게 믿고 있는 것들의 계보를 추적하면, 그것이 그리 오래지 않은 시기에 발명되었다는 것을 드러낸다. 흡스봄이나 레인저가 논의하듯이, 근대의 '전통'은 국민 국가의 통합을 위해 과거의 실천 행위들 중 특정한 것이 채택되고 의례화 되는 과정을 통해 구성된 근대 정치의 산물이었던 것이다.<sup>8)</sup>

더욱이 가족에 요구되는 전통의 발명에는 타자화의 역학이 관철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현모양처가 '전통'이 되는 과정에는 젠더 규범을 위반하는 여성들에 젠더 정치가 작동되고 있었다.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나쁜 여성'으로 담론화 된 '신여성'은 현모양처 담론의 또 다른 이면이었다. 1930년대는 서구적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이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에 확산되었다. 섹슈얼리티나 성별역할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젠더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성들에 대한 타자화 작업이

7) 홍양희, 『식민지 시기 '현모양처'론과 '신여성'』, 임지현 외, 『근대 한국, '제국'과 '민족'의 교차로』, 책과함께, 2011. ; 홍양희, 『'현모양처'의 상징, 신사임당 : 식민지시기 신사임당의 재현과 젠더 정치학』, 『사학연구』, 122, 2016.

8) Eric Hobsbawm and Terence Ranger ed.,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 박지향·장문석 옮김,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진행되었고, 그것은 신여성을 나쁜 여성으로 기호화 하면서 현모양처를 온존되어야 될 전통으로 재탄생시켰던 것이다. 전시체제기로 들어가면 이러한 담론 정치는 더욱 극대화되었다. 총력전체제가 가족/가정은 전쟁 수행의 기간 조직으로 남성 병사의 동원 단위이자 총후의 보루로 기능해야만 했다. 권명아의 연구는 전쟁기 담론 정치의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여성은 ‘총후부인’으로서 전쟁에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여성들에게는 적의 ‘스파이’란 낙인이 만들어졌다.<sup>9)</sup> 결국 1930년대의 ‘신여성’, 1940년대의 ‘스파이’, 1950년대 ‘자유부인’, 1990년대 ‘된장녀’ 담론은 젠더 내부의 경계를 만들어 젠더 규범을 위반한 이들을 ‘나쁜 여성’으로 타자화 하는 젠더 정치의 동일 궤도 위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전통의 발명 방식에 대한 통찰은 식민지의 문화 정체성 형성에 작동한 식민주의 권력에 대한 논의로 나아갔다. 일본인 엘리트들이 재현한 식민지 조선의 가족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서양이 동양을 묘사하고 생산하는 지식은 재현 주체의 인식체계 및 지식체계에 의한다는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의 통찰이 이들 연구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sup>10)</sup> 권력 주체의 인식론에 의해 식민지의 전통이나 관습이 발명되는, 특히 조선의 가족과 문화가 재현되는 방식에 대한 성찰적 연구가 바로 그러하다.

사실상 식민지 조선은 한국의 문화정체성 그리고 가족에 관한 많은 지식이 생산된 시기였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총독부의 일본인 관료나 일본 지식인들의 생산물이기도 했다. 조선총독부의 촉탁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및 오다 미키지로(小田幹治郎), 판사 노무라 초타로(野村調太郎), 경성제대 교수 시카타 히로시(四方博), 경찰이자 조선 민속학자 이마무라 도모(今村鞆), 부인병원 의사 쿠도 다케키(工藤武成) 등은

9) 권명아, 『역사적 과시즘-제국의 판타지와 젠더정치』, 책세상, 2005.

10) Edward Said, *Orientalism*,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07.

저서나 논문 등을 통해 조선의 가족 문화에 대한 지식의 생산자였고, 이들에 대한 비판적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sup>11)</sup> 실제 일본인 관료들에 의해 생산된 가족 관련 논의는 한국인의 문화정체성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1930년 조선총독부의 촉탁으로 마을조사를 통해 ‘동성동본’의 사람들이 많은 수를 접하는 마을을 발견하여 ‘동족부락’이라는 용어로 명명하고 이것을 조선의 종족주의로 특징화 한 것이나, 조선의 결혼 습속을 ‘조혼’으로 규정하고 그것이 조선 여성들의 남편살해 원인이란 규정 또한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는 조혼이 조선의 관행적 실체라기보다는, 근대 국가의 인구 관리 차원에서 전개된 담론 정치였다는 점이 분석되기도 했다.<sup>12)</sup> 출산 문제 또한 인구 관리나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 혹은 그에 대한 비판으로 담론화 되었지만,<sup>13)</sup>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의 출산 정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인 지식인들은 조선의 가족제도를 ‘대가족제도’와 ‘조혼’ 등으로 특징화하고, 이것을 조선 사회의 후진성으로 규정하여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정치학을 구사하였다.

11) 홍양희, 「‘同姓同本’=‘同族’이라는 상상 : 쥬쇼 에이스케(善生永助)의 ‘同族部落’의 발명과 식민지 정치학」, 『한일관계사연구』 58, 2017. ; 홍양희, 「식민지시기 ‘의학’ ‘지식’과 조선의 ‘전통’ : 쿠도(工藤武城)의 ‘婦人科學’적 지식을 중심으로」, 『의사학』 22-2, 2013. ; 홍양희, 「이마무라 도모(今村堯)의 『조선풍속집(朝鮮風俗集)』과 조선사회 인식: 가족과 관련된 풍속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45, 2009. ; 홍양희, 「조선총독부 판사, 노무라 초타로(野村調太郎)의 조선사회 인식: 가족제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3, 2009. ; 이승일, 「오다 미키지로(小田幹治郎)의 한국 관습조사와 관습법 정책」, 『한국민족문화』 46, 2013. ; 손병규, 「시카타 히로시(四方博)의 조선시대 ‘인구·가족’ 연구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학보』 52, 2013.

12) Hong Yang-Hee, “A Dangerous Tradition: Chohon Discourses and Population Management in Colonial Korea”, *Acta Koreana*, 19-2, 2016.

13) 김혜경, 위의 책. ; 소현숙, 「일제 식민지시기 조선의 출산통제 담론의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99.

조선의 가족제도는 당시 유행하고 있던 사회진화론에 의해 후진적인 ‘대가족제도’로 발명되었다. 서구적 핵가족 모델을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상상하는 그들에게 ‘호주가족제도’는 혼합적 중간형, 그리고 ‘종족주의’로 표현되는 대가족제도는 가장 후진적인 것이었다. 즉 그들은 서구적 모더니티를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부부 중심의 단혼 소가족으로 진화 발전해 나간다는 사유체계를 가지고 조선의 문화에 접근하였다는 것이다.

식민지인에 대한 식민주의의 재현, 그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조선의 가족법 연구에도 영향을 주었다. 처음 법사학계가 가족 ‘관습’에 관심을 가진 것은 식민지시기 가족법에 관습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총독부에서 발행한 관습보고서나 법원의 판결에 적용된 ‘관습’이 과연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법사학계의 가족법 연구는 일본의 식민 통치의 폭력성을 폭로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일본에 의해 가족 관습이 왜곡되어 관습법이 적용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sup>14)</sup> 이 ‘관습 왜곡론’은 이후 식민지시기 자연스럽게 변화한 관습을 법인화 한 것이라는 주장에 의해 비판되었다. 일방적 왜곡이 아니라 조선의 구관습이 신관습으로 변화되어 그것이 일본 민법의 적용이라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sup>15)</sup> 위의 두 논의는 기본적으로 기존 조

14) 정광현, 『한국가족법연구』, 서울대출판부, 1967. ; 이병수, 『조선민사령에 관하여-제11조의 관습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제4집, 1977. ; 정종휴, 『한국에서의 일본민법의 변용』, 『전남대논문집』 30, 1985. ; 박병호, 『일제시대 법제상의 가부장권』, 『민법학의 현대적 과제』, 박영사, 1987. ;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관습법형성과정』, 『법학』 33권 2호, 1992. ; 이상욱, 『한국상속법의 성문화과정』, 경북대 박사논문, 1986. ; 『일제하 호주상속관습법의 정립』, 『법사학연구』 제9호, 1988. ; 『일제하 전통가족법의 왜곡』, 박병호교수환갑기념(Ⅱ) 『한국법사학논총』, 박영사, 1991. ; 정금식, 『일제의 관습조사와 그 의의』, 『개역관 관습조사 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2000.

15) 이승일, 『일제시대 친족관습의 변화와 조선민사령 개정에 관한 연구-조선민사

선 사회의 일원적 관습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자가 조선 관습이 총독부 권력에 의해 변형되었다는 점에서 권력적 효과를 강하게 제기하는 반면, 후자의 논의는 일본 민법을 직접 적용하면서 펼쳤던 ‘관습의 변화’라는 조선총독부의 담론 정치와 그간 조선총독부의 법제정책에 의해 변화된 법적 현실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들 두 견해와 달리 식민지시기 관습을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2000년대를 전후하여 등장하였다. 구성주의적 관점과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문제의식으로 관습/전통 및 젠더 문제에 접근하는 연구로, 소위 ‘관습 창출론/관습 발명론’이라 명명된다. 근대 가족제도 및 가족법을 통해 식민주의에 의해 젠더 관계가 재구성 되는 지점을 추적하는 연구들이다. 먼저 ‘포스트식민 페미니즘법학’을 주창하는 양현아의 연구로, 식민주의 권력이 ‘관습’이라는 기호를 사용하여 식민지 관습을 조선의 것으로 내재화시키는 정치적 담론을 이용하였다는 점을 드러낸다.<sup>16)</sup> 특히 호주가족제도는 부계계승적 핵가족을 한국 가족의 정상적인 모형으로 삼아 국민을 생산하는 젠더 정치 그 자체였다는 점이 통찰되었다. 한국 가족법에 내재하는 젠더 불평등의 식민지적 계보를 추적한 이 연구는 2005년 가족법 개정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앞의 연구가 포스트-식민성 문제에 비중이 있다면, 홍양희의 논의는 식민지 가족제도의 구성 원리 및 가족법이 조선총독부에 의해 제도화 되는 추이, 그리고 변화된 법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보다 집중한다.<sup>17)</sup> 호적제도와 가족법을 통해 일본의 근대 가족제도의 개념과 내

령 제11조 제2차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33집, 1999. ; 『식민지 조선의 차양자(次養子) 연구』, 『역사와 현실』 제34호, 1999. ; 『조선총독부 법제정책: 일제의 식민통치와 조선민사령』, 역사비평사, 2008.

16) 양현아, 『가족법 읽기: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창비, 2011.

17) 홍양희, 『조선총독부의 가족정책: 식민주의와 가족, 법, 젠더』, 동북아역사재단, 2021.

용의 상당 부분이 조선 고유의 가족제도로 치환되어 구축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가진 식민 정치와 젠더 정치의 문제를 공적 문서와 판결문들을 이용하여 추적하였다. 식민지 호적제도와 가족법에 의해 ‘가족’이 조직화 되고, 이 ‘호주가족제도’를 통해 모든 개인은 총독부 권력과 대면하는 존재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역사적 관점에서 주목되지 않았던 ‘사생아’, ‘친권’ 등의 개념이 조선의 관습으로 재구성되어 일본 민법의 내용으로 제도화 되는 과정과 그것이 가진 젠더 차별의 구조가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호주제도 등 성차별적인 가족법 폐지를 추동하기 위한 페미니스트 정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식민지시기 관습법 체제에서, ‘유교’의 젠더 관계가 조선의 전형적인 가족 관습으로 인식되어 법제화 되고, 그로 인해 가족 내의 차별적인 젠더 관계가 보편화의 길을 걸었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이들 논의가 중요한 것은 현재 정상적인 가족으로 인식되고, 또 전통적 가족으로 본질화 된 가족의 모습이 구성되는 지점을 추적하는 계보학적 연구라는 점이다. 나아가 가족제도의 상당부분이 식민주의 정치의 효과라는 점을 드러냄으로써, 포스트-식민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연구는 현대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작동하는 가족 및 젠더 정치학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비판적인 연구들이다.

근대 전환기 가족 문제를 다룬 또 다른 성과로 한말의 호적을 통해 가족 구성의 성격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다. 누가 ‘호주’로 지정되는지가 대부분 연구들의 핵심으로, 이것은 크게 두 가지의 논점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먼저 한말의 호적을 통해 가족의 존재 양태와 그 성격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처음 조성윤, 조은에 의해 이루어졌다. 교토대 도서관에 보관 중인 1903년, 1906년 각각 조사된 한성부 호적을 통해 20세기 초 가구 구성을 분석하여 조선시대의 신분과 가족 구조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에 의하면, 조선시대 가족구조는 전형적인 부계

중심의 가족이었으며, 중인 신분은 양반 지배층과 비슷한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 이 점에서 유교 보다는 경제 상태에 의해 가족 구성이 좌우되는 특징 또한 가진다는 결론이다.<sup>18)</sup> 나아가 조은은 여성이 호주인 가구를 추출하여, 이를 ‘비전형적인 가족’으로 규정한다. 여성 호주는 집안에 남성이 존재하기 어려운 소사나 상궁 같이 ‘특수한’ 여성들의 가구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교적 가부장제의 제도적 결과로서, 여성을 호주 위치에서 배제시키는 정치학이 작동되었다는 것이다.<sup>19)</sup> 호주에서 여성의 배제는 사회 경제적인 조건만이 아닌, 통치이념 혹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족이 구성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유교적 가부장제의 핵심 전략이며 가부장제 강화의 주요 요건이라는 결론이다.

이에 비해 다른 한 연구는 호적에 부계계승을 강화하려는 국가의 의도가 일방적으로 관철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드러내, 조은의 연구와 대별된다.<sup>20)</sup> 이 연구는 1906년 한성부 호적을 통해 호주와 동거친속으로 기재된 구성원들의 다양성에 주목한다. 특히 호주 차정이 세대의 위계와 성별의 위계가 교차한다는 점에서 “종법적 호주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의 결론에는 필자도 동의한다. 그러나 한말 호적에 “종법적 호주 승계”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한말의 호적 작성은 주지하듯이 하나의 가옥에 주거를 같이하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호주 역시 그 가옥의 소유자이거나 임차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그 세대의 대표자가 되는 것은 가부장제 사회이기에 남성 가장일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가 이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8) 조성윤·조은, 『한말의 가족과 신분-한성부 호적 분석』, 『사회와 역사』 50권, 1996.

19) 조은, 『유교적 가부장제하 여성 호주 가족: 한말 한성부 호적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1-2, 한국여성학회, 2005.

20) 이정선, 『한국 근대 호적의 호주 및 가족 구성: 1906년 한성부 호적을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92, 2015.

대신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호주로 차정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법적’ 대 ‘비종법적’이라는 대립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연구자가 식민지시기 ‘호주의 계승을 종법적인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민지시기 호주 상속을 종법적 원칙으로 규정하는 것 또한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더욱이 한말의 ‘호주’는 가계승의 성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종법적’이라는 잣대를 대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점에서 한말 호적은 향후 폭넓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896년 호구조사규칙에 의해 작성된 이들 호적은 신분제가 철폐된 한말 상황에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것과 차별적이다. 그렇지만 하나의 가옥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조선시대의 호적과 내용적으로 동일하다. 이 호적은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여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식민지 이전 가족공동체의 구성을 엿볼 수 있다는 연구사적 의미를 지니기에,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되는 바이다.

### 3. 가족의 경험, 일상, 그리고 행위성

식민지시기 법제화 된 가족제도, 그리고 법적 환경의 변화는 일상인들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일상적 삶은 조선총독부에 의해 행정적으로 새롭게 경계 지워지고 조직화된 가족제도의 변화된 성격에 직접적으로 구애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일군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상당한 변화를 감지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했다.

그동안 근대 역사 연구에서 일상의 경험 연구가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거대 담론 위주의 연구, 즉

정치사나 민족운동사가 연구의 주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사와 운동사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하였던 엘리트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진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연구 방법론 또한 공적인 문헌 분석, 즉 정책 당국이 남긴 기록물이나 신문 잡지 등이 주요 분석 대상이었다. 그동안 정책이나 제도사, 그리고 담론 분석을 통한 연구 성과가 많이 축적된 것도 여기서 기인한다. 더욱이 문헌 연구 방법론으로는 개인이 경험하는 일상의 모습이 거의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자에서 소외된 계층이나 여성들의 목소리는 전혀 가시화 될 수 없다. 문헌만을 통한 연구 성과나 거대 담론 위주의 연구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여기에 일상사의 문제의식과 방법론이 역사 연구 방법론으로 채택되기 시작하였다. 일상의 경험을 추적하는 연구들에 대한 관심과 이를 드러낼 수 있는 구술, 회고록, 일기, 문집 등 개인이 남긴 기록이나 소송 기록 등 자료도 다양화 되었다. 그렇지만 구술이나 회고록, 일기 등은 특정인의 기억이나 기술에 의거하여 개인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동안 사료로서의 가치가 부정되기도 하였다.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넘어 이것이 사료로 인정받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특히 구술은 구술자의 경험이 기억에 의존된다는 점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른 의도적 혹은 무의식적 변형,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실 및 왜곡 등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구술은 문헌 자료로는 전혀 포착할 수 없는 생생한 삶의 경험을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 또한 크다고 하겠다. 문헌 사료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느 정도의 균형감을 가지고 구술 자료에 접근한다면 그동안 삭제되고 묻혀 있던 많은 이야기들이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술사는 특히 “문자권력에서 소외된 주체들의 삶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없는 이들이 구술사의 주된 대상”이라는 것이다.<sup>21)</sup> 일본군 ‘위안부’ 연구가 가능해진 것 또한 구술 자료가 역사 연구

에 얼마나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하겠다. 더불어 당대 가족 관계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호적이나 가족들 사이의 분쟁을 담고 있는 재판의 판결 기록 또한 그 당대인들의 삶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일상의 경험을 담은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우선, 집안 문서 발굴에 의한 연구이다. 구술과 집안에 전해오던 문서들을 통해, 한 양반가 4대에 걸친 가족사를 읽어낸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sup>21)</sup> 식민지시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부친의 한 양반가의 세대 갈등과 현실에서 마주한 신구문화의 충돌 등이 미세하게 그려졌다. 특히 근대 교육을 받은 소위 ‘신여성’들이나 ‘모던보이’들 또한 그들이 새롭게 접한 지식 체계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사회 현실 사이에 상당한 갈등을 마주하였다. 서울에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신여성이 양반가의 남성과 결혼하여 직면한 현실은 “숨막힐 정도로 가족의 굴레에 얽매인 ‘구여성’의 삶”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한편으로는 타협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욕망을 실천하기 위한 작은 기회를 잡는데 만족하기도 하였다. 신식교육을 받았을지라도 가족 관계의 가장 저층에 위치하는 여성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방법은 시골에서 보기 어려운 커피를 서울 백화점에서 사다 마시거나, 선물 받은 반팔 원피스를 아무도 안보는 밤에 입고 뒷마당을 거니는 정도였다는 것이다.<sup>22)</sup>

나아가 생활일기를 발굴하여 가족의 일상을 고찰한 연구도 주목된다.

21) 김영미, 『구술과 가장문서를 통해 본 양반가 4대의 가족 이야기: 식민지, 근대의 경험과 가족문화의 변화』, 『역사비평』 79, 2007.

22) 김영미, 위의 논문.

23)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구술을 연구와 결합하여 그들의 가족 이야기를 재현하는 실험적인 연구도 흥미롭다. 김영미, 『독립운동가의 가족 이야기와 트라우마의 재현: K대학교에서 진행된 구술사·연구융합수업의 경험 분석(Ⅱ)』, 『구술사연구』 9-2, 2018.

경상북도 비안의 향반 출신 김광진 가족의 역사이다.<sup>24)</sup> 신구문화가 충돌하던 식민지시기 농촌에서 도시 대구로 이주하여 살아간 그가 남긴 일종의 생활일기 『家歷』과 김광진이 가족들의 편지를 모아놓은 『家信』 등 가족의 일상을 재현할 수 있는 자료의 발굴로 가능했던 연구이다. 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둘째 아들 김영소의 편지에는 진학, 결혼, 그리고 가족 문제 등 당대를 살아가던 일상인들의 삶과 고민이 그대로 담겨있다는 점에서 일상사 연구에 귀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는 농촌의 향반 지식인 가족이 도시로 이주하고 근대 지식 및 법제와 대면하면서 생기는 신구 문화의 충돌 양상이 표현되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부모에 의해 일찍 결혼하였지만 근대 교육을 받은 둘째 아들이 ‘신식 결혼’에 대한 욕망과 처가에서 주는 경제적 지원 사이의 타협,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며느리의 처신 등, 문명의 전환기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갈등과 고민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다음으로, 가족 관계 안에서 법적 소송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 하는 여성들의 실천 행위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있다. 여성들이 청구한 소송을 통해 당대인들의 삶과 그들의 행위를 가능케 하는 법적 제도 또한 아울러 고찰하는 연구들이다. 먼저 식민지시기 여성들의 이혼 소송을 주체적 행위성으로 의미화 하는 연구이다.<sup>25)</sup> 이 연구는 이혼을 청구하는 여성들의 다양한 실천 행위에 주목하여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행한 도전과 투쟁을 적극적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이혼 청구 소송을 조선총독부의 관습법 정책의 변화와 연동하여 해석한다. “여성들의 이혼 청구 자체가 관습주의 원칙을 교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거나 “이혼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없는 상

24) 박지현, 『식민지시기 유교 지식인의 도시 이주와 가족사의 새로운 전개: 경북 비안의 향반 출신 해약 김광진 가족의 사례 연구』, 『진단학보』 126, 2016.

25) 소현숙, 『이혼 법정에서 선 식민지 조선 여성들 : 근대적 이혼제도의 도입과 켜더』, 역사비평사, 2017.

태”에서 “끊임없이 재판소의 문을 두드리며 이혼을 요구했던 1910년대 여성들의 줄기찬 요구가 관습주의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일본 민법의 적용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과도하다. 왜냐하면 일단 1910년대에도 여성들의 이혼청구권은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감부시기 시작된 근대 사법제도 성립이후 1910년대 초부터 호적 관련 행정 법규를 통해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제도화 되었다. 가족 관련 사건에서 ‘관습법’은 재판상 이혼이 청구될 경우, 법정에서 이혼의 가부를 판결할 때의 법 적용 원칙이었다. 더욱이 관습법이 여성의 이혼 청구에 의해 ‘교란’ 혹은 ‘무력화’되는 대상이라 할 수도 없다. 오히려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는 관습법을 민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들 통치의 편리성이나 동화주의 정책과도 부합하는 방향이었다. 조선민사령 11조의 개정은 재판상이혼 성립의 판결을 관습법에서 일본 민법 조항의 직접 적용으로 변화시킨 것이고, 조선인의 법률행위 능력이나 신분관계를 정확히 해야만 하는 당시 상황에서 추동된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당시 조선총독부가 처했던 여러 정치적 맥락 안에서 조선민사령 개정을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여성 주체화의 문제를 다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법질서를 전유하고 적극 활용한 여성들의 행위성은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들의 소송 행위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미국학계의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26)</sup> 식민지시기 가부장적 소가족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안에서 여성의 법적 권리의 변화를 추적한 이 연구는 여성들이 식민지 사법제도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위한 법정 투쟁을 불사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그녀

26) Sungyun Lim, *Rules of House: Family Law and Domestic Disputes in Colonial Korea*, University of California, 2019.

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때로는 식민지 권력과 공모하기도 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여성들은 어떤 경우 일본법 보다는 조선 남성들의 가부장적 이익에 맞선 투쟁을 해야만 했고, 따라서 당시 여성들이 일본법의 단순한 피해자이기만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사법체제 안에서 여성들의 법적 행위가 실천되는 방식과 그것의 표현 양태가 지니는 복합적인 면모를 조망한 이 연구는 복잡한 가족의 일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들의 행위는 단순하지만은 않다.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과 첩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친자관계부존재청구’ 소송을 행한 본처의 행위 또한 여성들이 자신의 이해를 위해 사법제도를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sup>27)</sup> 죽은 남편의 모든 재산이 호주상속과 함께 첩자에게 상속되자, 이를 찾기 위해 행한 이 소송은 당시 ‘인지’ 관련 법제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죽은 남편의 재산이 본처인 자신과 딸에게 상속되지 않고 오히려 첩의 아들에게 모두 가버리는 불합리한 식민지 법제에 맞선 법정 투쟁의 모습이기도 했다.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본처의 행위에서, 첩자가 남편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녀의 진술은 정황상 거짓일 가능성도 농후하다. 여기에서 이 여성은 식민지 법제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식민지 법제의 교란자이고, 첩자에게는 가해자이기도 하다. 가족법을 둘러싸고 전개된 여성들의 행위성을 단순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폭넓은 참조를 통해 여성들의 행위성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가족공동체 안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고 있는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연구도 하나의 성과로 주목된다. 이 가사사용인들은 사실상 가족공동체 안에서 공동생활을 하지만 ‘가족인 듯, 가족 아닌’ 존재들로, 하위 주체에 대한 연구 관심으로부터 촉발되었다 할 수 있다. 초

27) 홍양희, 앞의 책, 342-346면.

기 연구들은 주인 가정 내에서 이들이 ‘하녀’로서 수행하는 노동의 성격이나 그들의 존재 양태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었다.<sup>28)</sup> 이에 비해 이들 하녀들이 주로 조선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수양녀’라는 명목으로 행해졌다는 점에 착목한 연구도 최근 산출되었다. 수양녀는 어린 나이의 여성이 ‘남의집살이’로 팔려가는 사실상의 인신매매와 다름없는 경우도 다반사였기 때문이다.<sup>29)</sup> 더욱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중에는 “수양딸의 형식으로 남의집살이를 했다가 기생권변에 있다가 끌려갔다는 구술을 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sup>30)</sup> 이 연구가 향후 위안부 문제 연구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아울러 전시체제기 가족 및 가정이 전쟁에 동원되는 방식을 추적한 연구들도 눈에 띈다.<sup>31)</sup> 총력전체제는 국민을 전쟁으로 동원하기 위해 선전 선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담론 투쟁이 펼쳐지는 시기이다. 여기에서 여성들은 ‘총후부인’, ‘군국의 어머니’로 명명되며, 전장에서 죽은 남편을 대신해 아들마저 국가에 바치겠다는 굳은 결의를 하는 여성으로 그려진다. 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전쟁에 필요한 물자 조달 등으로 헌신할 것이 요구되었다. 향후 총력전시기 조선인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전쟁이 가족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개인들은 이에 어떻게 순응 혹은 저항 혹은 타협하였는지도 함께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28) 이아리, 『일제하 ‘가사사용인’의 등장과 그 존재 양상』, 『한국사론』 60, 2014.  
; 서지영, 『식민지 조선, 하녀들의 공간과 친밀성의 함의들』, 『두 조선의 여성』, 혜안, 2016. ; 소영현, 『1920-30년대 하녀의 노동과 감정: 감정의 위계와 여성 하위주체의 감정 규율』, 『민족문화사연구』 50, 2012.

29) 박정애, 『식민지 조선의 ‘수양녀’ 문제와 인신매매』, 『역사연구』 44호, 2022.

30) 박정애, 위의 논문, 14면.

31) 안태윤, 『식민정치와 모성 : 총동원체제와 모성의 현실』, 한국학술정보, 2006.

#### 4.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은 가족들

2000년대를 전후하여 등장한 주요 이슈 중의 하나는 '이주'이다. 지구 화시대라는 용어가 드러내듯이 사람들은 태어나 살아온 자신의 소속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결혼, 노동, 난민 등 이주와 이산의 이유도 여러 가지이다.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결혼과 노동을 위해 많은 이주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특히 한국 남성들과 결혼을 위해 이주하는 여성들의 현격한 증가로 한국사회에서도 '다문화가정'이 하나의 화두이자 담론으로 기능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 또한 문화 본질주의 혹은 동화주의의 다른 이면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는 이주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였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가족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주지하듯이,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주는 비단 20세기 후반의 일이 아니었다. 제국주의 시기 식민지 본국과 식민지 사이, 식민지와 식민지 사이의 왕래 또한 사뭇 빈번하였다. 이들 사이에 결혼을 통한 가족 구성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가족 단위의 국외 이주 또한 단행되었다. 독립운동가가 가족을 이끌고 중국으로 망명하여 활동하는 경우, 혹은 일자리를 찾아 중국 또는 일본으로 노동 이주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더욱이 제국 일본은 식민지에서 노동 자원을 동원하기 시작하였고, 식민지 말기에는 조선인을 집단적으로 모집해 갔다. 이 시기의 재일조선인들의 삶은 사실상 식민주의, 인종주의, 계급성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온갖 차별적인 처우에 노출되었다. 이에 더해 여성들은 가족 내에 존재하는 가부장제 문화로 인한 젠더 차별의 문제에서 자유롭기도 어려웠다. 과거 조선인 이주자들의 가족사는 이주민들과 삶을 공유하고 있는 현대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주가 현대 사회 현실의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축적

되었다. 이주민들의 근대 가족사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면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식민지시기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결혼, 즉 ‘내선결혼’을 통해 가족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내선결혼은 일본에서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 사이의 결혼이 가장 많았고, 1930년대 후반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sup>32)</sup> 이들 사이의 결혼은 일본과 조선 사이에 이주가 빈번하여 접촉이 많아짐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였다.<sup>33)</sup> 내선결혼 부부는 일본에 계속 거주하기도 하였지만 조선으로 귀환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 일본인 여성이 조선인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가는데 따른 애환도 많았다. 살아온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충돌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양쪽의 문화를 절충하는 방식의 타협을 하며 살아갔는데, 이러한 절충은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 사이의 결혼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sup>34)</sup>

다음으로, 만주로 이주한 독립운동가 가족에 관한 연구이다. 독립운동가의 가족사가 연구 주제로 부상하였는데, 이는 여성독립운동가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촉발된 부분도 컸다. 사실상 독립운동가로 국가적 ‘공인’을 받은 이들의 대부분은 남성이었다. 여성으로서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한 인물들 또한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만이 독립운동가로서 주목받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더욱이 남성들이 독립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아내나 그의 가족들을 독립운동가로서 재조명하는 연구들도 나오기 시작하였다.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김구의 어머니 곽낙원, 신채호의 부인 박자혜, 김원봉의 아내 박차정 등이 대표적이다.<sup>35)</sup> 존재하였으나, 드러

32) 이정선, 『동화와 배제: 일제의 동화정책과 내선결혼』, 역사비평사, 2017.

33) 이정선, 「‘내선결혼’한 일본인 여성의 조선 이주와 가족생활: 일제시기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28, 2018.

34) 이정선, 위의 논문.

35) 윤정란, 「일제강점기 박자혜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 아내로서의 삶」, 『이화사학연구』 38권, 2009. ; 「독립운동가 가족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삶」, 『한국문화

나지도 주목받지도 못하였던 여성들을 발굴하여 독립운동가로서 위치 지우는 작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외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은 많은 경우 가족과 함께 이주하였다. 혹은 먼저 떠난 남편을 찾아가 가족을 이루기도 하였다. 독립운동가들의 가족은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망명생활을 해야 했고, 독립운동을 지원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sup>36)</sup> 이회영의 부인 이은숙, 이상룡의 손부 허은, 김동삼의 며느리 이해동 등은 결혼으로 인해 독립운동가 집안의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 여기에서 독립운동가의 며느리, 아내, 어머니로서 살아간 그녀들의 경험과 실천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도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이들 중 어떤 여성은 조선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 덕목의 실천 행위로서 독립운동을 하였을 것이고, 민족적 대의에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여성도 있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집안 분위기 상 어쩔 수 없이 참여한 일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여성들의 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그들의 다양한 행위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야말로 당대 여성들의 삶과 실천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중에서 독립운동가 아내의 ‘순종(殉終)’을 다룬 이상경의 논의는 당대의 맥락에서 가족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들어있어 상당히 흥미롭다. 20여 년 간 상해에서 기생과 거의 ‘사실혼적 중혼’ 관계를 가지고 살아온 독립운동가 남편 현정건, 그의 본처 윤덕경은 그가 감옥에서 석방되자 6개월간 병간호를 하였지만, 옥살이 후유증으로 남편은 끝내 사망한다. 그 후 윤덕경은 남편 사후 40일 만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 본처 윤덕경의 ‘순사’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질문에 이 연구

연구』 14, 2008. ; 이송희, 『박차정(朴次貞) 여사의 삶과 투쟁(鬪爭) -민족(民族)의 해방(解放)과 여성(女性)의 해방(解放)을 위해 투쟁(鬪爭)한 한 여성(女性)의 이야기-』, 『지역과 역사』 1권, 1996. ; 안성호, 『여성독립운동가 비교연구』, 『한국보훈논총』 17-2, 2018.

36) 윤정란, 2008, 108면.

는 당대 윤덕경이 처했던 맥락에서, 그의 순종 행위를 단순히 열녀의 ‘열사’가 아니라고 해석한다. 죽음으로 본처의 위치를 지키고자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그녀의 주체화의 한 형태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처 위치의 확보라는 행위, 그 주체화는 어떻게 논의될 수 있을까. ‘본처’의 위치를 지키려는 순사와 ‘열녀’가 되고자 하는 순사 사이에 어떤 인식론적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이 글을 쓰는 필자에게는 양자 모두 한국 사회에 작동하는 젠더 정치학, 그 권력의 효과로서 만들어진 여성 주체화의 한 방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여성의 행위를 ‘주체화’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데는 좀 더 비판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독립운동가 가족으로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여성들에 대한 접근 또한 그 당대의 맥락에서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독립운동가의 어머니나 아내, 즉 여성들 또한 독립운동에 일조하였다는 공헌을 강조하여 독립운동사를 보충하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 또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가족 내에서 그러한 역할 분담이 이루지는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접근 또한 필요하다. 독립운동가 가족 내에서 여성들의 위치성이나 남성 가장과의 관계성을 고려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다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현정건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독립운동가 남편들이 첩을 두거나 사실상 중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사이의 관계성 및 가부장성이 그 여성들 삶의 선택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지었고, 거기에서 그녀들이 만들어낸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동시에 보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민족독립운동, 즉 민족과 국가라는 주류 담론 안으로 포섭되어 긍정적 가치만으로 논의되어온 가족사의 또 다른 이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평생 시아버지 동농 김가진과 남편 김의한의 독립운동을 뒷바라지 하면서 자신도 임시정부의 자금 모금을 위하여 여섯 차례에 걸쳐서

국내에 잠입하는 등의 활동을 한 정정화”,<sup>37)</sup> “석주 이상룡의 손부로 서간도에서 독립운동가들의 뒷바라지로 한평생을 바친 허은”<sup>38)</sup> 등의 삶, 그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대표적인 남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은 불가능했을 터이다. 이들을 ‘절반의 독립운동가’로 부르는 서중석의 평가는 거기에서 나온 것이다.<sup>39)</sup> 그녀들은 당대의 아내와 며느리라는 덕목, 그 사유체계 안에서 가정 내적인 역할을 통한 독립운동에 일조한 측면도 간과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자신이 직접 독립운동의 ‘주체’이고자” 가부장적인 남편과의 이혼을 선택한 이화림과 대별되기도 한다.<sup>40)</sup> 따라서 여성독립운동가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끝으로, 제국 내 이주 경험 관련 연구이다. 식민지 조선인들 중에는 반식민지 상태인 중국이나 만주로 이주하거나 혹은 식민지 종주국 일본으로 이주하여 생활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가족 단위의 이주인 경우에는 가부장이 어떤 위치의 인물인지가 그 가족원들의 경험에 큰 차이가 있었다. 그의 성향이나 경제력, 계층성 등이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였기 때문이다. 독립운동가들의 경우와 달리, 만주나 중국의 근대 도시로 이주한 경우, 그 가족원들은 교육을 받고, 근대의 소비문화를 향유하는 등의 경험을 하기도 했다. 당시 중국 천진과 만주국 안동으로 가족 이주를 한 여성들의 구술에 토대 한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근대 교육을 받고 근대적인 직업, 즉 타이피스트와 양장 재단사로 일을 하였다.<sup>41)</sup>

37) 이선이, 『중국 이주 여성독립운동가 이화림(李華林)의 생애에 대한 고찰』, 『여성과 역사』 31, 2019, 79-80면.

38) 구술 허은 · 기록 변창애, 『아직도 내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민족문제연구소, 2013. ; 이선이, 위의 논문, 79-80면.

39)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 이상경, 『일제시대 열녀 담론의 향방』, 『여성문학연구』 28, 2001, 431면.

40) 이선이, 위의 논문, 79-80면.

41) 김미선, 『식민지시대 조선여성의 제국 내 이주경험에 관한 연구 - 양충자(중국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중국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일본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전략을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주는 불이익과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면서도 언제 드러날지 모를 불안감을 안고 사는 불편화된 존재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민자로서 그들은 자신들을 “근대적인 일본인과 좀 더 동일시하면서, ‘야만적’인 중국인과는 거리 두기와 구별짓기”를 하였다.<sup>42)</sup> 근대적인 직업을 가지고 양장을 하며 소비문화를 향유하는, 그들의 삶의 방식은 “가부장적인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키기 보다는 오히려 근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아버지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생활을 하는 등 강한 가족 중심성을 가진다.”고 평가된다. 이들의 삶은 아버지의 지원에 힘입은, 즉 근대 가부장제 하의 “가족의 근대화프로젝트”였다는 것이다.<sup>43)</sup>

식민지시기 만주로 이주한 여성들의 경험을 구술을 통해 재현한 연구도 있다.<sup>44)</sup> “항일 내셔널리즘에 결박당한 만주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식민지기 만주를 일상의 경험으로 구성해온 행위 주체들의 삶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가 주로 독립 운동가들의 민족운동에 초점이 있던데 반해, 이 연구는 만주에서 일상을 경험해온 행위 주체들의 삶에 더욱 주목한다. 나아가 그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조직해 내는 행위성을 전면에 드러낸다. 그리고 식민지시기 만주로 가족 이주를 하였다 귀환한 두 여성과의 인터뷰에 근거한 또 다른 연구는, 이들 여성들이 만주에서 경험한 근대가 이후 생존을 위한 자원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sup>45)</sup> 만주에서 체험한 일상의 경험

천진)와 이종수(만주국 안동)의 구술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11, 2009.

42) 김미선, 위의 논문, 32면.

43) 김미선, 위의 논문, 30면.

44) 이은정, 『식민지기 만주 경험 여성의 귀환과 정체성 전략』, 『민족문화논총』 71집, 2019.

45) 박지선의 인터뷰는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에서 행한 ‘한국민중열전’의 일

을 활용하여 농촌에서 미싱 일을 하거나 생필품을 사서 되파는 등 경제 활동을 극대화 한 여성이 있는가 하면, 화장품 판매, 포목상을 거쳐 의 상실로 성공을 거둔 여성 등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갔다는 점에 큰 가치를 부여한다.

나아가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 결혼을 위해 만주로 이주한 여성들에 관한 연구가 있다. 전시체제기에 조선인 또한 일본 제국의 확장을 위해 만주 이주가 추진되었다. 일본은 만주 개척을 위한 남성노동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결혼할 여성을 알선하였는데, ‘대륙신부’란 명목으로 여성을 동원하였던 것이다. 이 논문은 그동안 가시화되지 못하였던 조선인 ‘대륙신부’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들이 총동원체제라는 상황에서 “위안하고 일하는 존재”로서의 여성성을 요구받았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sup>46)</sup>

그리고 하나 더 언급할 것은 재일조선인의 가족 관련 연구이다. 그동안 일본으로 이주하여 정착해 살아가는 재일조선인 문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지만, 그들의 가족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역사 연구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폭력성이나 인종주의와 차별의 정치학이 연구의 주된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가족과 여성의 이야기는 주로 재일조선인 문학계의 중요 소재이자 주제였다. 가족, 가부장제, 성과 몸, 여성의 삶 등은 여성 작가들뿐만 아니라 남성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기 때문이다.<sup>47)</sup> 1980년대 후반부터는 재

---

환이고, 김옥순의 인터뷰는 대구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생애사열전 사업’ 중의 하나이다. 이 구술은 다음과 같이 출판되었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이은정, 『박지선 1918년 9월 3일생』, 눈빛, 2008. ; 김옥순·이은정, 『대구의상실, 그 역사를 풀어쓰다 : 1928년생 김옥순 구술생애사』,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2017.

46) 박정애, 『조선인의 만주 이주 정책과 ‘대륙신부’』, 『여성과 역사』 33호, 2020.

47) 남성 작가들의 작품으로는 이회성의 『다듬이질하는 여인』, 원수일의 『이카이노 이야기』, 김학영의 『흙의 슬픔』 등이 있다. 이 소설에서는 재일조선인 여성의 한 많은 삶의 이야기, 이카이노 여성들의 생명력 강한 이야기, 아버지의 가

일조선인 여성 작가들의 작업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sup>48)</sup> 특히 가부장적인 질서에 대한 비판과 이의 극복을 위한 노력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진달래』에 실린 원영애의 산문들은 “여성의 현실을 아버지-가족제도-근대국가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관계에서 포착”하여,<sup>49)</sup> 재일조선인 여성들이 처한 상황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의 구조적 성차별의 맥락”에서 사유하고,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균열을 내는 여성의 자립과 연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갔다고 평가된다.<sup>50)</sup>

이에 비해, 재일조선인 가족사 연구는 많지 않다. 여성사 연구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으면서 가족관계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 수준이다. 기존의 여성사 연구가 민족적, 계급적 차별과 그에 대한 저항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면, 이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 및 희생자로서가 아닌, 가족 관계 안에서 여성의 행위성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사실 그간 이러한 연구가 어려웠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에 관한 자료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본에서 관련 구술 자료집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어, 이를 다시 읽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sup>51)</sup> 식민지시기 제사 및 방적 공장의 노동자로 가서 정

---

부장적 폭력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의 아픈 이야기가 그려진다. 윤송아, 『재일여성문학을 읽는 몇 가지 키워드 : 이산과 식민체험, 가부장제, 마이너리티』, 『일본학보』 123집, 2020, 18-19면.

48) 윤송아, 위의 논문.

49) 이승진, 「문예지『진달래(ガンダレ)』와 재일여성문학의 발현」, 『일본어문학』 63권, 2014, 494면. ; 윤송아, 위의 논문, 34면.

50) 윤송아, 위의 논문, 34면.

51) 대표적으로 다음의 구술자료가 있다. 姜琪東, 『身世打令 : 在日朝鮮人女性の半生』, 福岡 : 石風社, 1997. 그리고 재일조선인 역사학자 송연옥은 많은 구술 자료들을 모았는데, 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아침을 보지 못하고 : 서 형제의 어머니, 오기순 씨의 생애』, 사회사상사, 1983. ; 『어머니의 노래 : 48세의 야간중학생』, 1984. ; 『이카이노 타령』, 1986. ; 『11월의 봉선화 : 재일 어머니의 수기』, 1990.

착한 여성들에 대한 구술 작업이나,<sup>52)</sup> 여성노동자들이 구성한 지역 사회의 교회에서 구술 자료가 간행되었다.<sup>53)</sup> 제일대한기독교 교회여성연합회에서 남긴 ‘종교적 고백’ 형식의 구술서도<sup>54)</sup> 면밀히 읽어볼 만한 자료이다.

이러한 구술 자료들에 대한 가족사 및 젠더사의 접근이 요구된다. 최근에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연구 성과가 조금 축적되기는 하였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미혼의 조선 여성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가 있는 기혼 여성들 또한 단신으로 일본으로 노동 이주를 감행한 일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을 찾아 일본으로 떠난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두절되자, 그를 찾아 방적공장 여공으로 일본행을 감행한 여성들도 있었다. 이에 기존 연구가 일본 제국에 의한 조선인 여공의 수난사가 일반적인 연구 경향이었지만, 그들의 행위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다. “가난과 가부장제라는 최악의 조합”에 안주하고 감내하는 존재가 아니라,<sup>55)</sup> 그들의 일본행은 자신들의 일상을 벗어나는 하나의 돌파구이기도 했다는 것이다.<sup>56)</sup> 남편의 부재와 배신에도 그들은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나갔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야학에서 글을 배우고, 교

; 『우리들의 어머니』, 1992. ; 『어머니의 해협』, 1994. ; 『제일의 어머니는 지금』, 1995. ; 『무궁화 - 또 하나의 여성의 인생』, 1996. ; 『어머니의 선물』, 1999. ; 『살고 사랑하고 싸우고 : 제일 조선인 1세들의 이야기』, 2002 등이다. 송연옥, 『제일조선인 여성의 삶에서 본 일본 구술사 연구 현황』, 『구술사연구』 6-2, 2015, 210면.

52) 金贊汀·方鮮姬, 『風の慟哭: 在日朝鮮人女工の生活と歴史』, 東京: 田畑書店, 1977.

; 金贊汀, 『朝鮮人女工のうた: 1930년·岸和田紡績爭議』, 東京: 岩波書店, 1982.

53) 鄭富京, 李相勁, 樋口洋一 編, 『玄海灘を渡った女性信徒たちの物語: 岸和田紡績·朝鮮人女工·春木樽井教会』, 大阪: かんよう出版, 2015.

54) 제일대한기독교 전국교회여성연합회에서 간행한 구술집 『一世聞き書き集』, 회보 『고개』 등에도 제일 조선인 여성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55) 홍양희, 『제국 일본의 ‘여공’이 된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 : 그 배경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29, 2018. ; 『식민지시기 제일조선인 여성과 ‘교회’ 공간의 구성』, 『여성과 역사』 37, 2022.

56) 서지영, 『식민지시기 일본 공장으로 간 제주 여성』, 『비교한국학』 18-3, 2010.

회 형성의 주체로 성장한 여성들의 행위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sup>57)</sup> 사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재일조선인 남성들의 가부장적 문화와 여성들의 교회 활동은 상당한 갈등 요인이 되었다. ‘양반’을 자처하던 그들에게 여성들이 입을 벌리고 노래하는 것조차 수치스런 행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의심이나 폭행, 성경의 파손 등 건디기 힘든 폭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공간으로서의 교회는 여성들에게 “교육 및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정치적 공간”이기도 했다.<sup>58)</sup>

나아가 미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의 가족 관련 연구들 또한 출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을 위해 혹은 결혼하여 이주한 여성들에 관한 연구들로, 먼저 1910년대 노동 이주한 남성노동자들의 ‘사진신부’로 미국행을 택한 여성들 연구가 주목된다. 이 연구들은 이들 사진신부가 단순히 결혼이 목적이 아닌 교육과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으로 결혼이주를 감행하였다는 점, 그리고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 등에서 그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평가한다.<sup>59)</sup> 더욱이 1915년 당시 19살 나이에 사진신부로 하와이에 간 천연희가 남긴 자필기록(한글노트 7권)과 구술기록(육성 녹음테이프 24개)의 발굴로 인해, 향후 이들을 둘러싼 이주 환경, 그리고 그녀들의 삶과 실천적 행위가 보다 풍부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60)</sup> 미국으로 결혼 이주한 여성들 연구는

57) 鄭富京, 李相勳, 樋口洋一 編, 앞의 책, 81면.

58) 홍양희, 2022, 앞의 논문.

59) 김지원, 「한인 사진신부의 적응과 특성, 1920-1945, 2020. : 「일본인 배척법을 넘어서」,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제55집 ; 「미국의 일본인 배척운동과 한인 사진신부의 이주, 1910~1924」, 『미국사연구』 44, 2016. ; 「일제강점기 한인과 일본인 사진신부의 이주에 관한 비교 연구, 1910-1924」,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66, 2023. ; 「일제강점기 한인과 일본인 사진 신부의 적응에 관한 비교 연구, 1910-1945」, 『인문과학연구논총』 44-2, 2023. ; 홍윤정, 「하와이 한인 여성단체와 사진신부의 독립운동」, 『여성과 역사』 26, 2017.

60) 문옥표 외,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 이야기』, 일조각, 2017.

해방 이후 미군 주둔지 주변의 미군과 결혼한 여성들 연구로 이어졌다. 이 여성들 또한 “한국 사회의 배제와 혐오를 벗어나는 길이자 생계를 위한 삶의 방편”으로 국제결혼을 택하였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사진신부 보다 이들의 이주가 더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연구가 더욱 기대되는 바이다.<sup>61)</sup>

이외에도 중앙아시아 이주 가족이나 탈북여성들의 가족사 관련 연구들도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가족 연구는 아직 역사학 보다는 인류학적 관심이 더 많은 듯하다.<sup>62)</sup> 탈북인들의 가족 관련 연구도 현재적 문제로서 사회학적 인류학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이다. 이 중 안태윤의 연구는 탈북 여성의 구술을 통해 가족사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억압적인 사회체제에서의 탈출은 희생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즉 가족이 생존하기 위해 취한 삶의 전략이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행위성이 적극 평가되고 있다.<sup>63)</sup> 아직 이들의 가족사 연구는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앞으로 갈 길이 많은 연구 분야라 할 수 있다.

---

61) 김은경, 「1950년대 ‘결혼허가신청서’를 통해 본 한인 여성과 미군의 결혼과 이주」, 『한국근현대사연구』 91집, 2019. ; 「재미 국제결혼여성의 다방향적 인정투쟁: ‘나도 한국의 딸’과 ‘모범적 소수자’를 넘어 초국적 여성연대로」, 『사람(성대사람)』 84권, 2023.

62) 이광규, 「중앙아시아 재소환인 가족에 대한 연구」, 『가족학논집』 3권, 1991. ; 이정옥, 「중앙아시아 한인가족구조의 변화-해체, 재결합, 분절의 역동성」, 『사회와 역사』 48호, 1996. ; 최계순 외 3명,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 정착촌으로 재이주한 재소환인 가족의 주거생활 사례연구」, 『가정관리학회지』 23-3, 2003.

63) 안태윤, 「한 엘리트 북한여성의 생애사로 본 분단체제하의 여성의 삶과 가족의 생존전략」, 『여성과 역사』 22권, 2015.

## 5. 맺음말

근대는 ‘가족의 시대’로 명명된다. 가족과 관련된 담론이 유독 넘쳐나고, 근대 국민국가 체제는 ‘가족’을 단위로 조직 운영되었다. 민족국가/국민국가 패러다임 안에서 작동하는 가족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있기 때문이다. 개항이후 한국이 접한 세계는 약육강식의 국제적 경쟁 사회였고,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만 된다는 요구가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것이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친 서구 제국주의 국가가 이미 국민 통합력에 기대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효율적인 인구 관리는 국가의 존폐를 결정하는 근대 국가의 근간이라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여기에서 ‘근대 가족’은 인구 및 노동력 재생산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 받았다. 현재의 노동 자원과 미래의 노동 자원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제도로서의 근대의 ‘가족’이었다. ‘남자는 밖, 여자는 안’이라는 근대적 성별역할분담론은 가족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의 노동력인 남성에게 내조, 미래의 노동 자원인 제2의 국민 생산, 이것이 가족 내에서 여성에게 맡겨진 임무였다. 그것은 남성과 여성이 태생부터 부여받은 생물학적 성에서 비롯된 자연적이고 천부적인 역할분담으로 담론화 되었으며, 국가적 민족적 사명으로 지지되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도 굳건히 그 기능을 요구받고 있는 ‘근대 가족’의 모습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와 같은 가족 모델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가족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인구 관리, 특히 국민 재생산이라는 역할이 심히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 위기론’의 실체는 바로 이것이다. 가족을 자연적이고 초역사적인 것으로 상정하는 본질주의 인식론, 가족의 전형을 전제하는 ‘정상 가족’ 모델 또한 문제적인 것으로 비판

되고 있다. 그로부터 벗어난 가족 유형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타자화 함으로써, 다양한 인권 문제를 생산하는 진양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가족에 대한 계보학적 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애에 기반한 가족 구성의 고전적 원리 또한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sup>64)</sup>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근대의 가족 정치학이 비판적으로 고찰되고, 그것이 가진 미덕뿐만 아니라 악행 또한 가시화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근대 가족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가족사 연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동안의 가족사 연구가 가족제도의 구축 및 타자화 문제에 비중이 있었다면, 이제 연구의 중심축은 개인의 일상에서의 경험과 실천 문제로 이동하는 듯하다. 국가와 민족, 그리고 그것을 떠받들던 가족 보다는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한 ‘개인’, 그리고 그가 맺는 다중의 관계성 등이 연구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행위성과 주체화의 문제는 앞으로 연구 쟁점이 될 만하다. 기왕의 연구들이 주체화의 문제를 개인의 자율적 행위로 이해하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이를 권력의 효과라는 측면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자율적 주체 개념으로는 복잡한 개인의 행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의 발로였다. 한국전쟁 ‘미망인’을 둘러싸고 전개된, 즉 이임하의 ‘주체화’ 해석에 대한 김은경의 반론은 그 논쟁을 위한 불씨를 던졌다고 할 수 있다.<sup>65)</sup> 여기에 이임하가 어떤 반론을 제기하고, 또 어떤

64) 토드 A. 헨리 엮음·성소수자 대학원생/신진연구자 네트워크 옮김, 『퀴어 코리아 -주변화된 성적 주체들의 한국 근현대사』, 산치럼, 2023. ; 박차민정, 『조선의 퀴어 - 근대의 틈새에 숨은 변태들의 초상』, 현실문화, 2018.

65) 이임하,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책과함께, 2010. ; 김은경, 『전쟁미망인의 노동 경험과 주체화, 그리고 일상 연대』, 『여성과 역사』 33, 2020. 김은경은 전쟁미망인의 주체화와 관련하여, 전쟁미망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주체화 되었다고 이해하는 이임하의 시각은 ‘국가/가부장제’와 ‘여성’의 관계를 단순화시킨다고 비판한다. 즉 전쟁미망인에 대한 그의 시각은 “주체를 권력의 자장 밖에 있는 자율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를 요한다”는 것이다.(236-237면.)

쟁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매우 흥미롭다.

그렇다면 권력에 저항하고 전복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행위는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가족사와 여성사 연구에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행위성과 주체화의 문제는 주체와 그를 둘러싼 권력의 작동, 그리고 개인의 욕망 등이 다각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가족을 둘러싼 근대의 기획이 매끄럽게 전개되기 보다는 그 사회에 얼마나 많은 균열과 파열음을 만들어냈는지에 주목하면서 가족이 당대 사회에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드러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다양한 가족관계를 사유하는 인식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금껏 가시화 되지 못한 개인들, 삶을 언어화 하지 못한 개인들의 모습이 가족사 기록물의 발굴과 함께 다시 읽는 작업을 통해 복원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역사화 되지 못한 자료의 발굴뿐만 아니라, 쌓여 있으나 이용되지 못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읽어낸다면, 그에 기반하여 새로운 가족사가 쓰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내셔널한 관점이 아닌, 트랜스내셔널한 관점을 가지고 어떤 가족의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일이다.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진화생물학자 최재천은 말한다. ‘동물은 기본적으로 번식에 대한 욕구를 가진다. 한국 사회가 동물 세계의 본능적 순리를 거스르는 방식으로 진화하는 것은 그동안 한국 사회의 번식과 관련된 요구가 인간의 삶에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행해지기 보다는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방식으로 행해졌기 때문이다’고.<sup>66)</sup> 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다양한 가족관계를 사유하는 삶이 될 수 있다면, 인간이라는 동물 또한 번식이라는 ‘본능’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지켜 볼 일이다.

---

66) youtube <최재천의 아마존> 2023. 5. 11.

■ 참고문헌

-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제국의 판타지와 젠더정치』, 책세상, 2005.
- 김경일,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 푸른역사, 2012.
- 김미선, 「식민지시대 조선여성의 제국 내 이주경험에 관한 연구 - 양충자(중국 천진)와 이종수(만주국 안동)의 구술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11, 2009.
-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 담론과 젠더 정치, 1920-1934』, 소명, 2009.
- 김영미, 「구술과 가장문서를 통해 본 양반가 4대의 가족 이야기: 식민지, 근대의 경험과 가족문화의 변화」, 『역사비평』 79, 2017.
- 김영미, 「독립운동가의 가족 이야기와 트라우마의 재현: K대학교에서 진행한 구술사-연극융합수업의 경험 분석(Ⅱ)」, 『구술사연구』 9-2, 2018.
- 김은경, 「1950년대 ‘결혼허가신청서’를 통해 본 한인 여성과 미군의 결혼과 이주」, 『한국근현대사연구』 91집, 2019.
- 김은경 「재미 국제결혼여성의 다방향적 인정투쟁: ‘나도 한국의 딸’과 ‘모범적 소수자’를 넘어 초국적 여성연대로」, 『사림(성대사림)』 84권, 2023.
- 김은경, 「전쟁미망인의 노동 경험과 주체화, 그리고 일상 연대」, 『여성과 역사』 33, 2020.
- 김지원, 「미국의 일본인 배척운동과 한인 사진신부의 이주, 1910~1924」, 『미국사연구』 44, 2016.
- 김지원, 「한인 사진신부의 적응과 특성, 1920-1945 : 일본인 배척법을 넘어서」,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제55집, 2020.
- 김지원, 「일제강점기 한인과 일본인 사진 신부의 적응에 관한 비교 연구, 1910-1945」, 『인문과학연구논총』 44-2, 2023.
- 김지원, 「일제강점기 한인과 일본인 사진신부의 이주에 관한 비교 연구, 1910-1924」,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66, 2023.
- 김혜경, 『식민지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 창비, 2006.
- 문옥표 외,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 이야기』, 일조각, 2017.

- 박병호, 「일제시대 법제상의 가부장권」, 『민법학의 현대적 과제』, 박영사, 1987.
- 박병호,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관습법형성과정」, 『법학』 33권 2호, 1992.
- 박정애, 「조선인의 만주 이주 정책과 ‘대륙신부’」, 『여성과 역사』 33호, 2020.
- 박정애, 「식민지 조선의 ‘수양녀’ 문제와 인신매매」, 『역사연구』 44호, 2022.
- 박지현, 「식민지시기 유교 지식인의 도시 이주와 가족사의 새로운 전개: 경북 비안의 향반 출신 해악 김광진 가족의 사례 연구」, 『진단학보』 126, 2016.
- 박차민정, 『조선의 퀴어 - 근대의 틈새에 숨은 변태들의 초상』, 현실문화, 2018.
-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 서지영, 「식민지시기 일본 공장으로 간 제주 여성」, 『비교한국학』 18-3, 2010.
- 서지영, 「식민지 조선, 하녀들의 공간과 친밀성의 함의들」, 『두 조선의 여성』, 혜안, 2016.
- 소영현, 「1920-30년대 하녀의 노동과 감정: 감정의 위계와 여성 하위주체의 감정 규율」, 『민족문화사연구』 50, 2012.
- 소현숙, 「일제 식민지시기 조선의 출산통제 담론의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99.
- 소현숙, 『이혼 범정에 선 식민지 조선 여성들 : 근대적 이혼제도의 도입과 젠더』, 역사비평사, 2017.
- 손병규, 「시카타 히로시(四方 博)의 조선시대 ‘인구·가족’ 연구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학보』 52, 2013.
- 송연옥, 「재일조선인 여성의 삶에서 본 일본 구술사 연구 현황」, 『구술사연구』 6-2, 2015.
- 안성호, 「여성독립운동가 비교연구」, 『한국보훈논총』 17-2, 2018.
- 안태윤, 『식민정치와 모성 : 충동원체제와 모성의 현실』, 한국학술정보, 2006.

- 안태윤, 「한 엘리트 북한여성의 생애사로 본 분단체제하의 여성의 삶과 가족의 생존전략」, 『여성과 역사』 22, 2015.
- 양현아, 『가족법 읽기: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창비, 2011.
- 윤송아, 「재일여성문학을 읽는 몇 가지 키워드 : 이산과 식민체험, 가부장제, 마이너리티」, 『일본학보』 123집, 2020.
- 윤정란, 「독립운동가 가족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삶」, 『한국문화연구』 14, 2008.
- 윤정란, 「일제강점기 박자혜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 아내로서의 삶」, 『이화사학연구』 38권, 2009.
- 이광규, 「중앙아시아 재소한인 가족에 대한 연구」, 『가족학논집』 3권, 1991.
- 이병수, 「조선민사령에 관하여-제11조의 관습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제4집, 1977.
- 이상경, 「일제시대 열녀 담론의 향방」, 『여성문학연구』 28, 2001.
- 이상욱, 「일제하 호주상속관습법의 정립」, 『법사학연구』 제9호, 1988.
- 이상욱, 「일제하 전통가족법의 왜곡」, 『박병호교수환갑기념(Ⅱ) 한국법사학논총』, 박영사, 1991.
- 이선이, 「중국 이주 여성독립운동가 이화림(李華林)의 생애에 대한 고찰」, 『여성과 역사』 31, 2019.
- 이송희, 「박차정(朴次貞) 여사의 삶과 투쟁(鬪爭) -민족(民族)의 해방(解放)과 여성(女性)의 해방(解放)을 위해 투쟁(鬪爭)한 한 여성(女性)의 이야기-」, 『지역과 역사』 1권, 1996.
- 이승일, 「식민지 조선의 차양자(次養子) 연구」, 『역사와 현실』 제34호, 한국역사연구회, 1999.
- 이승일, 「일제시대 친족관습의 변화와 조선민사령 개정에 관한 연구-조선민사령 제11조 제2차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33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9.
- 이승일, 『조선총독부 법제정책: 일제의 식민통치와 조선민사령』, 역사비평사, 2008.
- 이승일, 「오다 미키지로(小田幹治郎)의 한국 관습조사와 관습법 정책」, 『한

국민족문화』 46, 2013.

이승진, 『문예지 『진달래(ヂンダレ)』와 재일여성문학의 발현』, 『일본어문학』 63권, 2014.

이아리, 『일제하 ‘가사사용인’의 등장과 그 존재 양상』, 『한국사론』 60, 2014.

이은정, 『식민지기 만주 경험 여성의 귀환과 정체성 전략』, 『민족문화논총』 71집, 2019.

이임하,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책과함께, 2010.

이정선, 『한국 근대 호적의 호주 및 가족 구성: 1906년 한성부 호적을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92, 2015.

이정선, 『동화와 배제: 일제의 동화정책과 내선결혼』, 역사비평사, 2017.

이정선, 『‘내선결혼’한 일본인 여성의 조선 이주와 가족생활: 일제시기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28, 2018.

이정옥, 『중양아시아 한인가족구조의 변화-해체, 재결합, 분절의 역동성』, 『사회와 역사』 48호, 1996.

이효재, 『한국 가부장제의 확립과 변형』, 『한국가족론』, 까치, 1990.

전미경, 『근대 계몽기 가족론과 국민생산 프로젝트』, 소명, 2005.

정광현, 『한국가족법연구』, 서울대출판부, 1967.

정공식, 『일제의 관습조사와 그 의의』, 『개역관 관습조사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2000.

정종휴, 『한국에서의 일본민법의 변용』, 『전남대논문집』 30, 1985.

조 은, 『유교적 가부장제하 여성 호주 가족: 한말 한성부 호적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1-2, 한국여성학회, 2005.

조성윤·조은, 『한말의 가족과 신분-한성부 호적 분석』, 『사회와 역사』 50권, 1996.

최재석, 『개정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1982.

최재순 외 3명, 『중양아시아에서 연해주 정착촌으로 재이주한 재소한인 가족의 주거생활 사례연구』, 『가정관리학회지』 23-3, 2003.

토드 A. 헨리 엠크·성소수자 대학원생/신진연구자 네트워크 율김, 『퀴어 코리아-주변화된 성적 주체들의 한국 근현대사』, 산치럼, 2023.

- 홍양희, 『이마무라 도모(今村병)의 『조선풍속집(朝鮮風俗集)』과 조선사회 인식: 가족과 관련된 풍속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45, 2009.
- 홍양희, 『조선총독부 관사, 노무라 초타로(野村調太郎)의 조선 사회 인식 : 가족제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3, 2009.
- 홍양희, 『식민지 시기 '현모양처'론과 '신여성', 임지현 외, 『근대 한국, '제국'과 '민족'의 교차로』, 책과함께, 2011.
- 홍양희, 『식민지시기 '의학' '지식'과 조선의 '전통' : 쿠도(工藤武城)의 '婦人科學'적 지식을 중심으로』, 『의사학』 22-2, 2013.
- 홍양희, 『'현모양처'의 상징, 신사임당 : 식민지시기 신사임당의 재현과 젠더 정치학』, 『사학연구』, 122, 2016.
- 홍양희, 『'同姓同本'='同族'이라는 상상 : 쥬쇼 에이스케(善生永助)의 '同族部落'의 발명과 식민지 정치학』, 『한일관계사연구』 58, 2017.
- 홍양희, 『제국 일본의 '여공'이 된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 : 그 배경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29, 2018.
- 홍양희, 『식민지시기 재일조선인 여성과 '교회' 공간의 구성』, 『여성과 역사』 37, 2022.
- 홍양희, 『조선총독부의 가족정책: 식민주의와 가족, 법, 젠더』, 동북아역사재단, 2021.
- 홍윤정, 『하와이 한인 여성단체와 사진신부의 독립운동』, 『여성과 역사』 26, 2017.
- 金贊汀·方鮮姬, 『風の慟哭: 在日朝鮮人女工の生活と歴史』, 東京: 田畑書店, 1977.
- 金贊汀, 『朝鮮人女工のうた: 1930년·岸和田紡績爭議』, 東京: 岩波書店, 1982.
- 鄭富京, 李相勁, 樋口洋一 編, 『玄海灘を渡った女性信徒たちの物語: 岸和田紡績·朝鮮人女工·春木樽井教会』, 大阪: かんよう出版, 2015.
- Said, Edward, *Orientalism*,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07.
- Hobsbawm, Eric and Ranger, Terence ed.,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 박지향·장문석 옮김, 『만들어진 전통』, 휴머

니스트, 2004.

Hong, Yang-Hee, “A Dangerous Tradition: Chohon Discourses and Population Management in Colonial Korea”, *Acta Koreana*, 19-2, 2016.

Lim, Sungyun, *Rules of House: Family Law and Domestic Disputes in Colonial Korea*, University of California, 2019.

■ Abstract

**From the “Family” to the Families:  
The Review on the Studies of Korean Modern Family History**

**Hong, Yang Hee**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the "discourse on family crisis" circulated in Korean society. The social phenomenon in which the "family" seems to be dismantled, which seems to be the same as the eternal truth, was recognized by many as a sign of crisis. If so, the "modern family," which still gives meaning to the role of "family" in modern society and makes people feel a sense of crisis in its historical dismantlement, has emerged since when, and what does its existence mean. Moreover, why should the collapse of this way of family be discussed as a 'crisis'. These questions is to analyze the position on which the 'modern family' has been on its feet. It also reveals the current meaning of modern family history research that takes issue with the way the family exists and the politics inherent in it.

In this paper, the results of family history research studied from the mid-1990s when the epistemological and methodological changes of family history research took place to the present will be reviewed by dividing it into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First, studie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modern family will be reviewed. In particular, attention will be paid to the production of knowledge, discourse politics, and the system regarding modern family. This is because these three were the key technical devices that made up the family in modern times. Next, it will consider the everyday, experiences, and practices of individuals living within the modern family system. It's focus will be mainly on individual agency and subjectivity. Finally, I would like to track studies related to the lives of migrant families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nation. Through this paper, it is expected that ultimately, the beginning of discussion will be laid to re-consider “the era of family”, and to think about the “post-family”/“families” in these days when the family crisis is circulated as a discourse.

Key Worlds: Family History, Modern Family, Family Crisis, Family System, Gender Politics, Divided Role by Gender

이 논문은 2023년 6월 20일 투고되어 2023년 7월 13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3년 7월 14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

## 『신설서유기도상(新說西遊記圖像)』에 나타난 유가적 관점에 관한 고찰

진서금\*

### — 목차 —

1. 머리말
2. 『서유기』의 성서 과정과 다양한 평점본의 출간
3. 『신설서유기도상』의 유가적 관점
  - 1) 참된 마음과 교화
  - 2) 『신설서유기도상』에 나타난 마음 표현
4. 맺음말

### ■ 국문초록

명나라 때 오승은(吳承恩)에 의해 100회본으로 집대성된 백화체 장회소설 『서유기(西遊記)』는 중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였는데, 청나라 때에는 여러 문인들에 의해 평점본으로 거듭났다. 18세기 청나라의 문인 장서신(張書紳)이 평비(評批)한 『신설서유기도상(新說西遊記圖像)』에 실린 자서(自序)와 왕도(王韜)의 서문, 총평과 목록 그리고 총론과 목록부(目錄賦)는 『서유기』의 주제가 성리학의 ‘마음’을 향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

\* 전주대학교 교양학부 시간강사.

『신설서유기도상』의 제1회 첫머리 평설에서 ‘대학의 도’라는 말을 필두로하여, 장서신은 시종일관 『서유기』가 ‘마음’을 이야기하는 유가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독자가 행간의 깊은 뜻을 쉽게 이해 하도록 평비를 썼다. 장서신은 그의 평비에서 『대학(大學)』과 『중용(中庸)』을 『서유기』에 기탁하여 자신의 유가적 사유를 설과하였다.

청나라는 국가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 불교와 도교를 배척하고 철저히 유교로써 나라를 통치하려 하였으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이미 유·불·도 삼교회통의 정서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에 『신설서유기도상』은 청나라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마음’이라는 주제로 풀이되면서 민중의 사랑을 받았다. 또한 장서신은 송대에 성행했던 도상(圖像)을 통해 유교의 원리를 깨닫는 도서학(圖書學)을 차용하여, 『서유기』에 대한 독자의 이해와 민중의 교화에 힘쓰고자 하였다.

『신설서유기도상』이 불경을 가지러 가는 이야기와 연금술적인 이야기가 내재되어 있는 『서유기』에 다소 편향된 유가적 평비를 가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지만, 이는 장서신이 『신설서유기도상』을 유가적 마음의 알레고리로 이해한 결과였다.

주제어: 장서신, 왕도, 서문, 신설서유기도상, 유교적 마음

## 1. 머리말

『서유기(西遊記)』는 당나라 승려(僧侶) 진현장(陳玄奘, 602~664)이 장안(長安)을 떠나 불경을 구하러 서천에 다녀오는 과정에서 경험한 여러 나라의 기후, 풍토, 언어, 습관, 예술, 전설 등등에 관한 이야기를 현장의 제자인 변기(辯機)가 기록하여 서술한 여행기인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를 모티프로 삼은 백화체 장회(章回)소설이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시간과 내용이 축적되어, 지금 전하는 서사형태로 일단락되기까지 무려 70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고, 소설로서의 『서유기』는

명나라 때 오승은(吳承恩, 1500~1583 추정)이 집대성한 판본이 출간된 1592년을 즈음하여 동아시아 독자에게도 널리 읽히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sup>

중국에서 오랜 세월 민간에 전해오던 당승의 ‘서천취경(西天取經)’ 이야기는 송대(宋代)의 화본(話本)으로 전하였고, 원대(元代) 말기에는 『서유기평화(西遊記平話)』가 출현하였으나, 명대(明代) 『영락대전(永樂大典)』에 ‘위징몽참경하룡(魏徵夢斬涇河龍)’이라는 약 1,200여 자의 문장이 남아있고, 조선시대의 중국어교과서인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에도 『당삼장서유기(唐三藏西遊記)』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어 『서유기』 고사의 존재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sup>2)</sup>

오늘날의 100회본 『서유기』는 오승은이 집대성하였다고 전하는바, 광서(光緒) 연간의 『회안부지(淮安府志)』에 의하면 그의 자는 여충(汝忠)이고 호는 사양산인(射陽山人)이며, 성격이 민첩하고 지혜로우며, 많은 책을 두루 읽었고, 해학에 뛰어나 명대의 회군(淮郡) 출신 시인 가운데 으뜸이었다<sup>3)</sup>고 전한다. 그러나 오승은은 45세가 되어서야 세공생(歲貢生)이 되었고, 54세에 장흥(長興)의 현승(縣丞)이 되었으나 벼슬을 버리고, 55세에는 금릉(金陵)으로 여행길에 올랐다. 짧은 공직 생활을 한 오승은은 『대당서역기』를 읽고 나서, 향간에 퍼져 있는 시화(詩話)·희곡(戲曲)·소설 등을 수집하고,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궁중의 암투, 관료의 부패, 외세 침략 등의 이야기를 잘 엮어, 손오공(孫悟空)·저팔계(豬八戒)·사오정(沙悟靜)과 같은 인물로 형상화하여 『서유기』를 창작 집대성하였다.<sup>4)</sup>

1) 홍상훈, 『그래서 그들은 서천으로 갔다』, 솔, 2004, 22~23면; 민관동·정영호, 『중국고전소설의 국내 출판본 정리 및 해제』, 학고방, 2012, 129면.

2) 김양진, 『『朴通事』에 등장하는 몇몇 난해 지명에 대하여』, 『지명학』 15, 한국지명학회, 2009, 33~61면.

3) 魯迅, 루선전집번역위원회 역, 『中國小說史略』, 그린비출판사, 2015, 422면.

4) 윤태순, 『오승은 소고-서유기를 중심으로-』, 『중어중문학』 3, 한국중어중문학회,

주지하듯이 『서유기』는 유·불·도 삼교의 의리(義利), 사정(邪正), 선악(善惡), 시비(是非), 진망(眞妄) 등의 개념을 혼합 수용하고, 이것을 다시 이원(二元)으로 통합하여<sup>5)</sup> 신선이나 부처, 마귀와 요괴 등등 다양한 인물로 등장시켜 술법을 펼치는 내용의 견지에서 신마소설(神魔小說)로 분류되곤 하였다.<sup>6)</sup> 그러나 장서신은 『서유기』를 유교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주석을 더하며 평비를 가하였다.

소설이 유행하던 명·청 시대에 이르러 백화소설 『서유기』는 민중들의 큰 호응을 받았고, 오승은이 집대성한 『서유기』의 독자들은 저마다 다양한 관점으로 이 책을 독서하였다. 『서유기』는 불경을 구하러 가는 불교 이야기로 보이나, 담고 있는 사상은 유·불·도 삼교회통론(三教會通論)의 견해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아서 성인(聖人)을 목적으로 한 수행론적(修養論的) 유가서(儒家書)라고도 하고, 성불(成佛)하기 위한 수행론적(修行論的) 불가(佛家)의 책이라고도 하며, 진인(眞人)이 되기 위한 수련(修鍊)을 이야기하는 도가(道家)의 책이라고도 전한다.<sup>7)</sup>

본고에서는 청대에 유행했던 『서유기』의 판본 중에 장서신(張書紳)이 평비한 『신설서유기도상(新說西遊記圖像)』이 담고 있는 유가적 관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장서신은 『신설서유기도상』에 자서(自序)를 기록하여 그가 『서유기』에 평비와 주석을 쓰게 된 이유를 서술하였다. 『신설서유기도상』에 수록된 왕도(王韜)의 서문은 장서신의 평비본과 다른 『서유기』 평비본이 구별되다는 것을 지목하고, 구처기(邱處機, 1148~1227)가 『서유기』의 저자가 아니라고 하였다. 청대의 유자 장서신 평비의 『신설서유기도상』을 파악하는 것은 그의 철학사상과 사유(思

1981, 43~65면.

- 5) 魯迅, 魯迅전집번역위원회 역, 앞의 책, 400면.
- 6) 최용철, 『사대기서와 중국문화』,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52~53면; 오승은 저, 임홍빈 역, 『西遊記』, 문학과지성사, 2003, 332~334면.
- 7) 김경수, 『서유기에 나타난 유·불·도의 특징과 삼교회통론』, 『동양고전연구』 69, 동양고전학회, 2015, 593~622면.

惟)가 유가적 관점의 심성론(心性論)에 닿아 있다는 점과 청대에 수용된 유교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충분한 자료가 되리라 여겨진다.

## 2. 『서유기』의 성서 과정과 다양한 평점본의 출간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국운이 넘어오면서 소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사상과 견해를 피력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소설 평비가 유행하게 되자, 소설의 통속성과 인물 형성의 기능은 시문(詩文)의 문학 양식에 비해 한층 더 감화력 있게 대중에게 다가갔다.<sup>8)</sup> 『서유기』는 오랜 세월 민간에서 전해 오던 이야기가 여러 사람의 첨삭과 윤색을 거쳐 일단락되기까지 약 700여 년의 장구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sup>9)</sup> 『서유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당나라 승려 현장이 서역에 가서 불경을 구하여 당나라로 무사히 가져오는 설화이다. 이는 『대당서역기』에서 에피소드를 취한 것이고, 또 현장의 제자인 당사문(唐沙門) 혜립(慧立)이 쓴 『대당대자은삼장법사전(大唐大慈恩三藏法師傳)』의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서유기』에는 당나라 남산 도선율사(道宣律師, 596~667)가 엮은 『속고승전(續高僧傳)』에 실려 있는 현장의 전기인 ‘경대자은사석현장전(京大慈恩寺釋玄奘傳)’의 내용도 담겨 있는데, 이는 『서유기』가 민중 사이에서도 이미 전설처럼 전해지는 고사이며, 송대에는 『태평광기(太平廣記)』의 ‘독이지(獨異志)’에 현장이 불경을 가지러가는 설화가 문헌상 최초의 허구로 수식되어 실려 전한다.<sup>10)</sup> 이것으로 보아 『서유기』는 역사 속 실제 이야기와 허구의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져 있음을 알 수

8) 方正耀, 『中國古典小說理論史』,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5, 97면.

9) 閔寬東, 『中國古典小說史料叢考: 한국편』, 아세아문화사, 2001, 48면.

10) 丁奎福, 『한국소설에 끼친 중국소설의 영향』, 『아세아연구』 26(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83, 153면.

있다. 유·불·도 삼교의 문화가 다양하고 미묘하게 혼합되어 공존하며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이었던 명나라는 정치와 사상, 경제와 윤리, 사회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주변국의 문화를 두루 수용하고 또 자국의 문화를 주변국에 전파하였다.

『서유기』는 본래 당나라 고승 현장이 인도에 가서 불경을 가져오는 이야기를 엮은 것이었고, 수백 년 동안 전해오면서 여러 가지 민간의 전설, 전기, 설화, 잡극 등의 이야기가 첨삭되어 남송(南宋) 시기에는 단편 화본으로 출판되었고, 원나라 때에는 희곡으로도 창작되었다가 명나라에 와서는 오승은에 의해 장회소설 100회본 『서유기』로 집대성된다.<sup>11)</sup> 100회본 『서유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제1부터 8회까지로 손오공의 탄생 이야기부터 삼장법사를 만나 함께 길을 떠나는 이야기이다. 손오공이 돌에서 태어나 천상계와 인간계를 오가는 이야기는 판타스틱[幻]한 소재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모티브이다. 두 번째 부분은 제9부터 12회까지로 삼장법사의 출생과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삼장은 인간으로서 높은 경지에 오른 법사로 금란가사와 구환석장을 가지고 당 태종의 명을 받아 불경을 가져오는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세 번째 부분은 제13부터 100회까지로 삼장법사 일행이 불경을 구해오는 과정에서 겪는 81가지 고난을 극복하고 무사히 돌아오는 이야기이다.

현존하는 명대 100회본 『서유기』 중 비교적 중요한 것으로 화양동천 주인(華陽洞天主人)이 교열하고 금릉(金陵: 난징) 세덕당(世德堂)에서 출판한 『신각출상관판대자서유기(新刻出像官板大字西遊記)』를 첫 번째로 꼽고, 그 다음은 이탁오(李卓吾)가 평점을 붙인 『비평서유기(批評西遊記)』이며, 세 번째는 용경(隆慶) 진후에 나온 『당승서유기(唐僧西遊記)』가 있고, 네 번째는 만력(萬曆) 31년(1603)에 간행된 청백당(淸白

11) 김기영, 『『西遊記』에 나타난 三敎의 倫理文化的 樣相』, 『윤리연구』 61, 한국윤리학회, 2006, 77~101면.

堂) 양민재(楊閩齋) 판본 『정휴경본전상서유기(鼎鑪京本全像西遊記)』를 꼽는데, 『당승서유기』와 『정휴경본전상서유기』는 모두 일본에 소장되어 있다고 전한다.<sup>12)</sup>

청대에 간행된 『서유기』는 대표적인 책으로 회덕당(懷德堂)에서 출간하고 왕상욱(汪象旭, 1644~?)이 찬평(撰評)한 『서유증도서(西遊證道書)』를 꼽는데, 청대의 판본은 명대의 판본에 비해 문장의 표현이나 사건의 구성이 비교적 향상되었다고 전한다.<sup>13)</sup> 강희(康熙) 병자(丙子, 1696)년에 진사빈(陳士斌)이 삼교성인(三教聖人)의 책이라는 견해를 담아 전해하여 개자원(芥子園)에서 간행한 석인본 『서유진진(西遊眞詮)』이 있다. 『서유진진』에는 우동(尤侗)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고, 우동이 쓴 서문에서는 삼교회통에 대한 지향점이 뚜렷이 확인되며, 특히 불교 경전에 대한 소양이 해박하게 나타나 있다.<sup>14)</sup> 건륭(乾隆) 13년(1748)에는 오승은 저(著) 장서신 주(注)의 『신설서유기도상』 100회본이 삽화와 함께 간행되었다. 청대에 나온 여러 종류의 신설본(新說本) 중에 비교적 유행했던 판본이며, 광서(光緒) 14년(1888)에 미잠재(味潛齋) 석인(石印)본으로 간행 되어 장서신의 자서와 왕도의 서문, 총평, 목록, 총론, 전부서유기목록부(全部西遊記目錄賦) 그리고 100회의 이야기와 도상(圖像)이 수록되어 있다.

『신설서유기도상』는 유·불·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알레고리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읽혔으며,<sup>15)</sup> 이 책이 「대학(大學)」의 요지인 ‘명명덕 신민 지지선(明明德 新民 止至善)’을 전달하는 유가서라는 새로운 해석을 하였다.<sup>16)</sup>

12) 오승은 저, 임홍빈 역, 앞의 책, 345~348면.

13) 孟瑤, 『中國小說史』, 傳記文學出版社, 1990, 416~418면.

14) 김하라, 「소설 읽기와 마음의 발견: 俞晚柱의 『西遊記』 독서 일기」, 『한문학논집』 57, 근역한문학회, 2020, 201면.

15) 데이비드 톨스톤 저, 조관희 역, 『중국 고대소설과 소설 평점: 행간 읽기와 쓰기』, 소명, 2009, 139면.

루쉰[魯迅]은 평점본에 대해: “작가가 비록 유생이지만 이 책은 유희적인 데서 나온 것이고, 도를 깨닫는 것이 아니며, 책 전체에서 오행생 극의 이야기가 보이니(...중략...) 불교에서 말하는 진성(眞性)과 도교에서 말하는 원신(元神)이라는 개념이 뒤섞여 있어, 삼교의 사도들이 제각기 멋대로 갖다붙일 수 있게 되었을 따름이다”<sup>17)</sup>라고 하였다. 루쉰의 평은 이 책이 그저 유희적인 데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다.

후스[胡適]는 “『서유기』는 최근 삼사 백년 이래 무수한 도사(道士)와 화상(和尚)과 수재(秀才)가 망쳤다. 도사는 이 책이 ‘금단묘결’이라 하고, 화상은 이 책이 ‘선문심법(禪門心法)’이라 하고, 수재는 이 책이 ‘정심성의(正心誠意)의 이학서(理學書)’라 한다. 이러한 해설들은 모두 『서유기』의 큰 적이다. 『서유기』는 그저 재미있는 해학소설·신화소설일 뿐이다. 어떤 미묘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남을 꾸짖기를 좋아하는 냉소주의가 있을 뿐이다. 이 냉소주의도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도 무엇을 탐구할 필요도 없다”<sup>18)</sup>고 하였다. 후스의 평론은 『서유기』가 내포하고 있는 유·불·도의 해석을 완전히 부정한 것이며, 단지 재미있는 해학과 신화소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장서신의 『신설서유기도상』은 청대에 배척했던 불교와 도교의 관점을 뒤로하고 국가의 정책과 행보를 같이하는 유교 중심의 평비와 주석을 가하므로 『서유기』가 그저 황망하고 허왕된 이야기가 아니라 성리학을 전하는 유익한 책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장서신의 깊은 유가적 소양을 짐작하게 하는 바 다음에 언급할 『신설서유기도상』에 쓴 자서와 왕도가 쓴 서문 등은 장서신의 평비본 편찬 목적을 이해하는 배경이 되어준다.

16) 데이비드 톨스톤 저, 조관희 역, 앞의 책, 145면.

17) 魯迅,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역, 앞의 책, 431면.

18) 胡適, 『中國章回小說考證』, 上海書店, 1980, 258면.

### 3. 『신설서유기도상』의 유가적 관점

#### 1) 참된 마음과 교화

장서신이 평점을 가한 『신설서유기도상』은 청나라 말기와 민국 초기에 크게 유행하였고, 이 책에는 장서신이 쓴 서문과 왕도가 쓴 서문, 총 두 편의 서문이 실려 있다. 『신설서유기도상』의 특징은 두 개의 서문이 있다는 점과 총 120장의 그림[圖像]이 들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장에서 장서신의 자서와 왕도의 서문을 소개하는 것은 『신설서유기도상』이 쓰여진 요지를 파악하는 자료가 되기에 충분하리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 ① 장서신의 자서

먼저 장서신의 자서는 그가 평점본을 편찬한 이유에 대해 상세히 말해주고 있다. 장서신의 『신설서유기도상』 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책의 유래는 이미 오래되어, 독자들은 막연하게 그 뜻을 알지 못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비평을 가하였으나, 혹자는 禪을 말한 것이라 하고, 혹자는 道를 말한 것이라 하며, 심지어 金丹과 연금술 책이라 여기는 이도 있을 정도로 대부분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였고, 결국 『서유기』의 정확한 요지를 연구해 낸 것은 아니었다. 옛사람의 수많은 기묘한 문장과 무한하게 많은 절묘한 뜻은 모두 근거가 있는 학문이니, 황당하고 무익한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은 진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나는 수개월의 시간을 내어 취지를 밝히고 그 미망을 타파하여 장래의 학자를 일깨우려 하는데, 이 또한 떠난 자는 간언할 수 없고, 오는 자는 여전히 쫓을 수 있으니 마땅할지 모르겠다.

서하 장서신 씀<sup>19)</sup>

19) 此書由來已久 讀者茫然不知其旨 雖有數家批評 或以爲講禪 或以爲談道 更有以爲金

자서에서 장서신은 『서유기』의 독자들이 그 요지를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교 혹은 도교 또는 연금술 등과 관련된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여기고 있으나, 옛 사람들의 문장과 그 뜻은 근거가 있는 학문으로 황당하고 무익한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장래의 학자를 깨우치고자 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장서신은 황당무익한 담론을 바로잡아 미래의 독자들에게 『서유기』가 담고 있는 요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어서 왕도가 쓴 『신설서유기도상』의 서문을 살펴보자.

## ② 왕도의 『신설서유기도상』 서문

『신설서유기도상』에 대한 왕도의 서문은 장서신 평비본에 관해 그 내용을 말해준다. 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서유기』라는 책은 오일자의 손에서 나왔고, 주로 성품을 수양하고 단전을 연단하며, 大道를 증명하여 仙籍에 오른다는 것이다. 경험한 바 3재와 8난은 外魔가 아닌 것이 없고, 그 외마를 부르기엔 충분한 것은, 六賊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6적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은 오직 마음뿐이다. 모든 마는 마음에서 생겨난즉 마음에서 사라진다. 이것이 이 책의 요지이다.

당 삼장 원장법사가 서역에서 불경을 가져온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다. 이는 정관 3년 중추 초하루 아침에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길을 따라 석장에 의지하여 먼길을 떠나 곧 불경의 실상을 얻었고, 급히 길을 나서 19년 봄 정월 京邑에 도착하여 낙양에서 황제를 알현하였다. 일찍이 『대당서역기』 12권을 번역하였고 138개 나라를 거치며, 불교 경전에

---

丹採煉 多捕風捉影究非西游之正旨 將古人如許之奇文 無邊之妙旨 有根有據之學 更目爲荒唐無益之譚 良可嘆也 予欲以數月之暇 注明指趣 破其迷罔 喚醒將來之學者 此亦往者不可諫 來者猶可追也 不知有當否 西河張書紳題(張書紳, 『新說西遊記圖像』, 中國書店, 1985.)

서의 인과의 일을 많이 서술하였다. 오늘날 『신당서』와 『구당서』를 조사해 보면 서술된 모든 나라가 다 실려 있지는 않다. 무릇 역사에 기록된 것은 조공을 바치는 나라이고, 記에서 말하는 것은 거쳐간 땅들이다. 풍속, 풍토, 민심, 산물에 관한 기록이 대략적으로 요약되어 있다. 다만 靈怪를 과장되게 늘어놓고, 황당무계한 것은, 유자가 병통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후대의 『서유기』 작품은 결코 이것을 저본으로 삼지 않으며, 기록된 여러 나라도 동일하지 않으니, 즉 산천의 길과 마을도 제각각이다. 오직 작자의 뜻으로 만들었으니, 스스로 깨닫는 바가 있다. 서술한 바 신선과 귀신 요괴는 변화무상하고, 땅에서 멀리 떨어진 빛은 괴이하고, 보고 들은 것마다 특수한 것 외에, 伯益은 궁리할 수 없고, 夷堅은 뜻을 이룰 수 없으며, 山經海錄에 다른 기치를 세울 수는 있다. 만약 우주에 이런 이상한 일이 있다면, 속담은 사실이 아니라 역사로 흘러들어 오늘날까지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고 있을 것이다. 연설자가 또 그것을 위해 부채질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모두 손오공이 있고, 속세에 무지하여 심지어 그것을 위해 절을 지은 자가 있는데, 이러한 수많은 싸움에서 불경을 구한 사건은 불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齊諧』의 지괴함이 얼마나 우연에 속하는지 모르겠고, 『洞冥』의 기이한 서술의 반은 모두 억측이다. 莊周가 예전에 황당한 말로 초나라를 울린 것, 큰 물고기와 큰 새의 변화, 불로장생 등이 모두 그렇다. 虞初 9백은 이로 인해 더욱 넓어진 것이다.

이 책의 예전에 있던 간행본은 그림이 적어 책을 읽는 사람의 눈을 움직이게할 수 없었다. 오늘날 나의 벗 味潛 주인(장서신)이 옛것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아, 이 책을 새로운 지향과 새로운 스타일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특별히 회화의 명인에게 청하여, 100회를 100폭의 그림으로 기록할 계획을 세우고, 20폭의 그림을 더하여 표정이나 태도가 능동적이고, 수염과 눈썹을 생생하게 표현하여 그림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다하게 하였다. 이 책이 나오자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낙양은 이로 인해 종이 값이 올랐다.

혹자는 『서유기』가 邱處機 眞人の 작품이라 하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元 太祖가 인도에 군대를 주둔시켰을 때, 진인이 行帳에 알현하러 갔던 그 경과를 기록한 책과 이름은 같지만, 실제 내용은 크게 다릅니다.

蒲柳仙의 심오함을 하나로 착각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서유진전』은 『신설서유기도상』과 변별됨을 이와같이 서술한다.

광서 14년 무자춘왕 정월 하순 장주 왕도가 상해 송은려에서 서문을 쓰다.<sup>20)</sup>

인용문에서 ‘『서유기』가 오일자(悟一子)의 손에서 나왔다’고 말하였는데, 이 『서유기』는 진사빈 전해의 『서유진전』을 말하는 것이다. 왕도는 『서유기』의 요지를 ‘모든 마귀는 마음에서 생겨나고 마음에서 사라진다’라고 하였다. 그는 삼장법사가 서역에 불경을 가지러 다녀온 사건은 역사적 사실로 정관 3년 가을에 길을 떠나서, 19년 봄 정월에 낙양으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서유기』가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 20) 西游記一書出悟一子手 專在養性修真 煉成內丹 以證大道而登仙籍 所歷三災八難 無非外魔 其足以召外魔者 由於六賊 其足以制六賊者 一心而已 一切魔劫 由心生 即由心滅 此其全書之大旨也 唐三藏元奘法師取經西域 實有其事 此貞觀三年仲秋朔旦 褰裳遵路 杖錫遙征 即得經像 薄言旋軻 以十九年春正月達於京邑 謁帝洛陽 曾譯大唐西域記十二卷 經歷一百三十八國 多述佛典因果之事 今以新舊唐書核之 所序諸國 皆所不載 蓋史所錄者 朝貢之艷 記所言者 經行之地也 記中於俗尚土風民情物產 概在所略 惟是侈陳靈怪 誕漫無稽 儒者病之 後世西游記之作 并不以此為藍本 所歷諸國 亦無一同者 即山川道里 亦復各異 以作者惟憑意造 自有心得 其所述神仙鬼怪 變幻奇詭 光怪陸離 殊出於見聞聞之外 伯益所不能窮 夷堅所不能志 能於山經海錄中別樹一幟 一若宇宙間自有此種異事 俗語不實 流為丹青 至今膾炙人口 演說者又為之推波助瀾 於是人人心中皆有孫悟空在 世俗無知 至有為之立廟者 而戰鬪勝佛 固明明載於佛經也 不知齊諧志怪 多屬寓言 洞冥述奇 半皆臆創 莊周昔日以荒唐之詞鳴於楚 鯤鵬變化 椿靈老壽 此等皆是也 虞初九百 因之益廣 已此書舊有刊本而少圖像 不能動閱者之目 今余友味潛主人嗜古好奇 謂必使此書別開生面 花樣一新 特倩名手為之繪圖 計書百回 為圖百幅 更益以像二十幅 意態主動 鬚眉跃然見紙上 固足以盡丹青之能事矣 此書一出 宜乎不脛而走 洛陽為之紙貴 或疑西游記為邱處機真人所作 此實非也 元太祖駐兵印度 真人往謁之於行帳 記其所經書與同名 而實則大相逕庭 以蒲柳仙之淹博 尚且誤二為一 況其它乎 因序西游記真詮而為辨之如此
- 光緒十有四年歲在戊子春王正月下澣長洲 王韜序於滬上淞隱廬
- (이 원문은 張書紳의 『新說西遊記圖像』에서 가져온 것이며, 필자가 직접 번역하였다.)

소설이 함께 엮어져 있음을 말해준다. 영괴에 관한 황당하고 장황한 서술은 유자들이 병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며, 예전의 『서유기』 책은 그림이 적어 독자의 눈을 움직이게 할 수 없었으나, 『신설서유기도상』은 호기심 많은 장서신의 계획으로 각 회의 그림이 첨부되고, 수상(繡像) 20폭을 더하여 독자에게 생동감을 주었다고 하였다. 원대의 잡극이 아니더라도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 한층 더하여진 것이다. 이 책이 출시되자 날개 돋친 듯 팔려 낙양의 종이 값이 올랐다는 것은 장서신 평비본이 대중들에게 널리 독서되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구처기의 『서유기』와 오승은의 『서유기』는 다른 작품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서유진전』과 『신설서유기도상』이 변별된다는 서술은 두 책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독자들에게 널리 읽혔던 베스트셀러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왕도의 서문은 외마가 마음에서 생겨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신설서유기도상』이 미지의 세계에 관한 풍성한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서유기』가 장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비록 백화체 소설이라 할지라도 독자에게 익숙했던 시문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독자들은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지만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도 한다. 왕도의 서문에서 언급한 120폭의 그림은 독자에게 상상력과 재미를 더해 주는 것이며 『신설서유기도상』의 특징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 ③ 『신설서유기도상』의 그림

『신설서유기도상』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왕도의 서문에서 설명하였듯이 당대의 뛰어난 화가에게 부탁하여 그림을 그려 그것을 삽화로 첨부한 것은 장서신의 신의 한 수이다. 일반인들에게는 그림이 글보다 더 쉽고 빠르게 다가오고 이해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 그림들은 매회의 앞부분이나 끝부분에 순서대로 첨가된 것이 아니라 수상 20폭은 책 목록 뒤에 놓았고, 100회와 관련된 100폭의 그림은 전체 이야기 100회를 4회씩 나누어 그 앞부분에 삽입해 놓았다. 매회의 그림에는



<도상1> 『신설서유기도상』의 손오공 도상. 이 판본의 손오공 이미지는 현대의 드라마나 영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매회의 제목이 화제로 첨가되어 있다. 『신설서유기도상』에 삽입된 그림들은 오늘날까지 그 영향이 미쳐 현대의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그 형상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수상 20폭은 다음과 같다. 여래불(如來佛), 이로군(李老君), 당태종(唐太宗), 위징(魏徵), 당승(唐僧), 손행자(孫行者), 저팔계(豬八戒), 사승(沙僧), 진원선(鎭元仙), 오소선사(烏巢禪師), 이랑신(二郎神), 이천왕(李天王), 금성(金星), 우마왕(牛魔王), 철선공주(鐵扇公主), 홍해아(紅孩兒), 황포괴(黃袍怪), 사자정

(獅子精), 지주정(蜘蛛精), 후정(狐精) 모두 상상력을 자극하는 『서유기』의 중요한 등장인물들이다. 이 밖에 제1회 앞부분에 제1부터 4회까지의 그림 4점이 놓여 있고, 제4회 뒤에 제5부터 8회까지의 그림이 순서대로 놓여 있다. 이는 독자에게 독서의 흥미를 더해주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2) 『신설서유기도상』에 나타난 마음 표현

『서유기』는 ‘삼교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철학 서로서의 면모를 갖는다.’<sup>21)</sup> 명말청초의 문인 오종선(吳從先)의 『소창자기(小窓自紀)』에도 『서유기』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서유기』 한 질은 性을 안정시키는 책이고, 『수호전』 한 질은 情을 안정시키는 책이다.<sup>22)</sup>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서유기』가 마음의 문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견해가 장서신만의 생각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설서유기도상』의 제1회 「신령한 돌부리를 잉태하니 수렴동 근원이 드러나고, 돌원승이는 마음을 수양하여 큰 도를 깨치다[靈根育孕源流出 心性修持大道生]」<sup>23)</sup>에서는 ‘대학지도(大學之道)’라는 평어 제목으로 시작을 하며, 이 책이 ‘대학의 도’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평비를 시작한다.<sup>24)</sup> 「대학(大學)」은 도덕과 지성을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놓은 책으로, 『예기(禮記)』에 수록되어 있던 것을 주희(朱熹)가 분리하여 『대학장구(大學章句)』라 이름 붙이고,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을 ‘삼강령(三綱領)’으로,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를 ‘팔조목(八條目)’으로 삼은 자기 수양의 책이다.<sup>25)</sup> 이는 북송의 주돈이(周敦頤)가 성현의 학문을 이어서 『태극도설(太極圖說)』을 저술하여 음양오행의

21) 홍상훈, 앞의 책, 32면.

22) 西遊記一部 是定性書 水滸傳一部 是定情書.(吳從先 撰, 郭征帆 評注, 『小窓自紀』, 中華書局, 2008. 159면)

23) 각 회의 제목 번역은 임홍빈이 옮긴 『서유기』를 참조 하였다.

24) 張書紳, 『新說西遊記圖像』 上冊, 中國書店, 1985.

25) 증자·자사 지음, 김원중 옮김, 『대학·중용 수양과 덕치의 고전』, (주)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20, 27면.

이치와 천명과 인성의 관계를 밝힌 것이며,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형제가 그 사상을 계승하였고, 남송시대에 주희가 정씨 형제의 학풍을 계승한 것이다.<sup>26)</sup>

‘대학의 도’라는 제목에 이어 ‘『서유기』의 시작은 천지, 음양, 삼재(三才: 하늘과 땅과 사람), 사상(四象)부터 기록하여, 무에서 시작하여 유에 이르고, 가볍게 동승신주(東勝身洲)에 내려와 (...중략...) 참으로 성학(聖學)이 아니면 이런 이치를 쓸 수 없고, 선재(仙才)가 아니면 이런 글을 구성할 수 없다’<sup>27)</sup>고 평비를 시작한다. ‘동방신주’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서천을 끌어오기 위함’이고, ‘바다 가운데 화과산(花果山)’은 ‘마음 가운데 좋은 땅’을 비유한 것이며, ‘동쪽에서 꽃을 피고, 서쪽에서 열매를 맺으니 동쪽과 서쪽 사이의 모든 기이한 꽃과 열매, 인삼과, 진광예가 여기에서 나왔다’고 주석한다. 돌원숭이가 살던 마을에 물난리가 나서 돌원숭이는 그들을 데리고 수렴동(水簾洞)이라는 곳으로 이주하여 그들의 미후왕(美猴王)이 된다. ‘돌원숭이’는 ‘마음을 비유한 것으로, 성인[大人]을 지향하나 아직 어린 상태를 보인다’고 주석하고 있다. 행복한 삶[享樂天真]을 살던 돌원숭이는 불로장생을 얻기 위해 신선을 찾아 나선다. ‘천진(天真)’은 바로 도[性理學]이며 100회까지 관통하는 글자라고 주석해 주었다.

장서신은 이렇게 제1회가 시작되는 처음부분부터 “‘대학의 도’에 따라 책이 기록되었다”고 평비를 가하고 있으며, 『서유기』의 서사 열개를 「대학」의 개념 구성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평비와 주석은 『서유기』 읽기를 통해 성리학적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대학』과 『중용』을 읽는 것보다 더 쉽고 빠르게 성리학적 사유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6) 금장대, 『유교사상과 유교문화』, 한국학술정보(주), 2001, 39면.

27) 西遊記開卷 却從天地陰陽三才四象寫起 自無而以及於有 輕輕落在東勝身洲 (...中略...) 信非聖學不能寫此理 信非仙才不能構此文也(張書紳, 앞의 책, 제1회)

『서유기』에서 사용된 ‘영대방촌(靈臺方寸)’이라는 장소는 『장자(莊子)』 「경상초(庚桑楚)」에 보이는 말로, 곽상(郭象)의 주에서 “영대는 마음이다”라고 풀이하고, ‘방촌’ 역시 마음을 비유하는 말로, 마음이 1촌(寸)의 가슴속에 있다 함을 이른 것이다. 이처럼 ‘영대방촌’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 술어가 제1회에서부터 중요한 상징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서유기』 제1회 중 손오공이 술법을 배우기 위해 신선을 찾아가는 길에 만난 나무꾼에게 길을 묻는 장면이다.

“내게 그 신선께서 사시는 곳을 좀 가르쳐 주시구려. 제가 좀 찾아 가볼까 하거든요.” 나무꾼이 대답하길: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아요. 멀지 않아요! 이 산은 영대방촌산이라고 하는데, 산속에 ‘기울어가는 달빛 속에 세 개의 별빛이 반짝인다’는 뜻의 사월 삼성동이라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을에 수보리조사라는 신선이 한 분 계십니다.”<sup>28)</sup>

인용문에서 손오공은 신선이 사는 곳을 묻는데, 장서신은 ‘신선은 본래 마음에 있다[神仙原就在心上]’고 주석한다. 그래서 나무꾼은 “멀지 않아요”라고 대답한 것이다. 여정이 시작되려는 지점이 손오공이 찾아가려는 장소 영대방촌산인 것이다. 장서신은 ‘영대방촌은 마음이다[靈臺方寸乃心也]’고 주석하고 있다. 이 부분은 『서유기』가 마음 수양의 과정과 비유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해석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 중 하나이며, 그 출발점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제2회 「스승 보리조사의 참된 묘리를 철저히 깨치고, 마를 끊고 근본에 돌아와 원신을 이루다[悟徹菩提眞妙理 斷魔歸本合元神]」에서는 그 평비의 제목이 ‘밝은 덕을 밝히는데 있고, 민중을 새롭게 하는데 있고,

28) 但望你指與我那神仙住處 却好拜訪去也 樵夫道 不遠不遠 此山叫做靈臺方寸山 山中有座斜月三星洞 那洞中有一個神仙稱名須菩提祖師(張書紳, 앞의 책, 제1회)

지극한 선에 이르는 것에 있다'이다. 이것은 『대학장구』에서 제시하는 어른[大人]이 되는 방법이다.<sup>29)</sup> 제2회 평비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사람의 수명이 백세인데 어찌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겠는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요순의 덕정, 이주의 공업, 공맹의 경서, 노반의 기예, 변작의 의술, 관락의 점괘와 크게는 충효절의의 일이고, 작게는 예약서수의 문장 같은 것이니, 모두 세상에 널리 전하여 옛날부터 소멸하지 않은 것이 죽은 사람이라도 죽은 것이 아닌 이치이다.<sup>30)</sup>

인용문은 비록 72가지 변신술을 터득하고, 근두운(筋斗雲) 타고 순간 이동을 할 수 있어도, 영생한다는 것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며, 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수행이 따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제3회 「사해 바다와 산천이 모두 굴복하고, 저승의 생사부에서 원숭이의 이름을 지우다[四海千山皆拱伏 九幽十類盡除名]」의 앞부분 평설 제목은 ‘능히 큰 덕을 밝힌다[克明峻德]’이다. 이것은 개인의 덕을 닦음으로써 온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린다는 『서경(書經)』의 ‘요전(堯典)’ 편에 나오는 말이다. 주희는 『대학』에서 명덕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천하(平天下)에 있다고 하였다.<sup>31)</sup> 손오공의 공으로 원숭이 나라의 모든 일원은 생사부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원숭이 나라에 평천하가 이루어진 것이다. 제4회 「관직 필마온에 봉하여졌으나 마음에 어찌 족할 것이며, 이름에 제천을 달아도 마음은 편하지 않다[官封弼馬心何足 名注齊天意未寧]」의 말미 평설을 보면, “경서(經書) 이학(理學)의 요지가 『서유

29)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新民 在止於至善 (원문과 번역은 동양고전종합DB 참조.)

30) 人生百歲 豈有不死而長生者哉 不死則不生 此至言也 然死者人也 不死者 如堯舜之德政 尹周之功業 孔孟之 經書 魯班之技 扁鵲之醫 管輅之卜 大而忠孝節義之事 小而禮樂書數之文 皆可以流傳千古不朽是死者人也 不死者其理也(張書紳, 앞의 책, 제2회)

31) 증자·자사 지음, 김원중 옮김, 앞의 책, 45면

기』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장서신은 말하고 있다.<sup>32)</sup> 이학은 마음을 다스리는 유가의 핵심 수양과제중 하나이다. 제7회 「제천대성은 팔괘로 속에서 도망 치고, 여래는 오행산 밑에 심원을 두다[八卦爐中逃大聖 五行山下定心猿]의 평설의 제목은 ‘그침을 알고난 후에 정함이 있다 [知止而后有定]’이다. 이것은 『대학장구』 경(經) 1장에 나오는 “그침을 안 이후에 정함이 있으며, 정한 이후에 고요할 수 있으며, 고요한 이후에 편안할 수 있으며, 편안한 이후에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한 이후에 얻을 수 있다”<sup>33)</sup>라는 말과 상응한다.

장서신의 평비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이야기 곳곳에 유교적 배경이 드러난다. 제9회 「진광예는 부임 도중에 횡액을 당하고, 그 아들 강류승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근본을 되찾는다[陳光蕊赴任逢災 江流僧復讐報本]에서는 불경을 구하러 떠나는 삼장의 출신 배경이 전형적인 유교사상을 나타낸다. 삼장의 아버지인 진악(陳萼)이 장원급제하여 재상인 은개산(殷開山)의 딸과 결혼하고, 함께 부임지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 횡액을 당한다. 강도는 가짜 진악으로 행세하며 진악의 부인과 살아가고, 태중에 있던 진악의 아기가 태어나자 부인은 가짜 진악이 두려워 아기를 상자에 담아 강물에 떠내보낸다. 상자 속에 아기는 금산사(金山寺)의 스님에게 발견되어 ‘강류(江流)’라는 이름을 받아 성장하고, 장성한 강류는 신령들의 도움으로 부모의 원수에게 복수하여 부귀영화를 다시 찾았으나 진악의 부인은 자결한다.<sup>34)</sup> 제9회의 평설 제목은 ‘사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끝과 시작이 있다[物有本末 事有終始]’이다. 그리고 제9회 말미의 평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32) 蓋宋自元祐黨人之論一起 凡系正人君子 理學名儒 莫不被禍 後至彌遠專權 鄒魯之書 并禁 小則遺發 重則斃命 而善良几無遺類 聖教之傳亦危矣 (…中略…) 然而純儒宿學 又不甘以自沒 或托之傳奇 或借一典故 以發明其理學之要 (張書紳, 위의 책, 제4회)

33) 知止而後有定 定而後能靜 靜而後能安 安而後能慮 慮而後能得(증자·자사 지음, 김원중 옮김, 앞의 책, 38면)

34) 오승은 저, 홍상훈 외 역, 앞의 책, 260~283면.

明德을 근본으로 하였기에 장안에서 과거시험에 응시한 일을 먼저 쓰고, 新民을 말미로 하였기에, 江州로 부임하는 것을 그 다음에 썼다. 자기분수에 지나치지 않도록 그칠 줄 아는 것을 시작으로 하였기에 法明을 먼저 썼고, 그침을 얻는 것을 종결로 하였기에, 金山에 도달하는 것을 결론으로 하였다.<sup>35)</sup>

인용문에서 보듯이 장서신은 『대학』의 주요 개념을 사용하여 『서유기』의 평설을 더하고 있다. 『대학』의 핵심 단어인 ‘지지’는 “머물 데를 안 뒤에 정(定)함이 있으니, 정한 뒤에 고요할 수 있고, 고요한 뒤에 편안할 수 있고, 편안한 뒤에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 뒤에 얻을 수 있다.”<sup>36)</sup>라는 말로 자기 분수에 지나치지 않도록 마땅히 멈추야 할 곳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제12회 「당 왕이 지성으로 대회를 열고, 관음은 현성하여 금선을 교화하다[唐王秉誠修大會 觀音顯聖化金蟬]」에서 당 태종은 나라의 태평성대와 백성들의 화합을 이루려 수륙대회(水陸大會)를 개최하였고, 제100회 「동토로 돌아오고, 다섯은 진성이 되다[徑回東土 五聖成真]」에서는 불교 경전을 가지고 무사히 돌아와 온 나라가 화합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실현한다. 제12회에서 가졌던 당 태종의 바람이 제100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음에 뜻을 품은 대로 소망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 태종이 수륙대회를 개최하여 현장을 가장 우수한 승려로 추대하였는데 알고 보니 현장은 출신도 좋고, 덕망도 높으며 유·불·도를 뛰어넘는 탁월한 승려였다. 불경을 가지러 가는 길에서 부딪치는 고난 앞에서는 겁에 질려하고 불안해하기도 하였으며, 요괴들에게 잡혀갔을 때는 목숨에 연연하여 사리판단을 못하였다. 신분

35) 明德爲本 所以先寫長安應試 新民爲末 所以次寫江州赴任 知止爲始 所以首寫法明得止爲終 所以眉又結到金山(張書紳, 앞의 책, 제9회)

36) 知止而后有定 定而后能靜 靜而后能安 安而后能慮 慮而后能得  
(원문과 번역은 동양고전종합DB <http://db.cyberseodang.or.kr> 참조.)

과 배움이 높아도 고난 앞에 서면 인간은 누구나 나약하다. 유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삼장법사는 굳은 의지와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는 것이 그의 강점이며 큰 힘이다. 삼장은 어떤 유혹과 고난에 처해도 결코 불경을 가져오는 임무를 저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삼장이 불경을 성공적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법이라 할 수 있다. 삼장은 의지를 꺾지 않고 정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초지일관하여 임무를 완수 하였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위해 불경을 구하러 가는 일은 학식이 높은 고승이 맡았으나, 그 가는 길은 ‘대인’이 되는 ‘마음 수양’의 과정과 겹쳐진다. 이것이 마음의 문제라 바라보는 장서신의 유가적 관점이라 생각된다.

제22회 「저팔계는 유사하에서 격전을 벌이고, 목차 행자는 법지를 받들어 사오정을 거두어들이다[八戒大戰流沙河 木吒奉法收悟淨]의 평설 제목은 ‘고요함(靜)’이다. 본회는 유사하에서 사오정을 거두는 내용으로 『대학』의 ‘성의정심(誠意正心)’을 논하는 것이라 평설하고 있다. 제25회 「진원 대선은 불경을 가지러 가는 스님을 뒤쫓아 잡고, 손행자는 오장관에서 난동을 피다[鎮元仙趕提取經僧 孫行者大鬧五莊觀]」에서는 ‘사람이 본시 인의의 마음으로 행한 것은 충효의 일에서 나온 것이고, 일생동안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완전한 충효를 얻을 것이다’고 평설 말미에서 말한다. 이는 제31회 「저팔계는 의로써 후왕을 해석하고, 손행자는 지혜로써 요괴를 항복시킨다[豬八戒義釋猴王 孫行者智降妖怪]」에서 손오공이 “너희 부부와 자식의 정이 이처럼 두텁구나. 너의 몸은 어디에서 왔느냐? 어찌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느냐? 참으로 불효녀로구나”<sup>37)</sup>라고 말하는 것과 이어져 유가의 중요한 덕목인 충효를 강조하고 있음이다. 『서유기』의 여러 장회에서 손오공은 부모님의 무병장수와 불로장생을 위해 삼장을 잡으려는 장면이 나온다.

37) 你如此夫妻兒女情重 你身從何來 怎麼就再不想念你的生身父母 眞爲不孝之女(張書紳, 앞의 책, 제31회)

공덕이 높은 스님을 잡아 먹으면 원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47부터 49회까지는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충성으로 한다[臣事君以忠]’라는 평설 제목이 더해져 통천하(通天河)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제85회 「심원은 저팔계를 질투하고, 마왕은 삼장법사를 삼키려 하다[心猿妒木母 魔主計吞禪]」에서 삼장법사는 “임금을 섬기나 부모를 섬기나 이치는 같다. 그대는 아버지라, 나는 임금을 위하는 처지이다”<sup>38)</sup>라고 말한다. ‘충효’의 메시지가 스며들어 있는 부분으로 나라에 대한 충성이나 부모에 대한 효도는 모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주희의 ‘제가(齊家)’와 ‘치국(治國)’ 모두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85회 평설 제목은 ‘없는 것은 있음을 위함이고, 비우는 것은 차는 것을 위함이고, 약속은 평안함을 위함인데, 어렵구나 항심[亡而爲有虛而爲盈約而爲泰難乎有恒矣]’이다. ‘항심(恒心)’의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으로 맹자와 동계의 것으로 보인다.<sup>39)</sup> 제98부터 100회까지는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을 다시 해석해 준다.

장서신의 『신설서유기도상』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이학서’라는 유가의 관점으로 『서유기』를 해석하되, 명나라의 ‘심학’이 아닌, 마음을 이야기하는 주희의 ‘심성론’ 즉 『심경』<sup>40)</sup>이었다. 장서신의 『신설서유기도상』은 백화문으로 된 『심경』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백성을 교화하여 아름다운 풍속을 이루는 것[化民成俗]과 스스로를 닦아 남을 교화[修己治人]하는 성리학이 추구하는 학문의 목표는<sup>41)</sup>

38) 事君事親皆同一理 你爲親恩 我爲君恩(張書紳, 앞의 책, 제85회)

39) 金赫濟 교열, 『原本孟子集註全』, 『滕文公章句上』, 명문당, 1976, 127면.

40) 『心經』은 ‘마음을 다스리는 글’이라는 뜻으로 南宋 朱子學派 문인 진덕수가 경전에서 격언을 모아 심성을 수양하기 위해 편찬한 것이다. 그리고 명대에 와서 程敏政이 『심경』에 ‘주를 부’하여 보완된 서명이 『心經附註』이다. 이 책에는 원문의 해석은 물론 주자학과 수양론이 대폭 수용되어 있다.(한형조 외, 『심경, 주자학의 마음 훈련 매뉴얼』,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09, 11~49면.)

41) 이연세, 『霞谷의 『大學』經說 研究』, 인천학연구총서 26, 인천학연구원, 2014, 29

장서신이 추구한 사상과도 맞닿는다.

장서신 평점본 총평에 ‘건륭 13년 윤 7월 양성지(乾隆十三年閏七月羊城誌)’라는 정보가 나오고, 총론에는 다시 ‘건륭 무진년 가을 7월 진 서하 장서신 씀(乾隆戊辰年秋七月晉西河張書紳題)’이라 기록하고 있다. 이 두 문장은 모두 장서신의 본적과 활동한 시기를 알려주는 정보로 건륭 13년과 무진년은 모두 1748년이다. ‘서하’는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화음현(華陰縣) 일대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황하의 서쪽을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장서신은 섬서성 출신으로, 18세기 중반에 활동하며 『신설서유기도상』의 성과를 이루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장서신은 자서 외에 총평에서도 자신의 창작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진실로 무릇 세인을 보면, 날마다 분주하다. 힘써 마음을 다하여 일하건만 헛되고 무익하다. 심지어 풍속을 폐하고, 理法을 사라지게 하고, 신명을 바쳐 죄악에 빠지니, 어찌 큰 재난이 아니겠는가? 작가는 이 점을 슬퍼하고 근심하여 왜곡된 것을 바로 잡고, 다방면으로 교화하여 반드시 정도에 귀결되게 하여 전에 지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 한다.<sup>42)</sup>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 사람들을 ‘다방면으로 교화[多方點化]’하여 ‘정도에 귀결되게 하는 것[歸于正道]’과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장서신의 집필 목적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서유기』가 유희적이거나 냉소주의적인 소설이 아니라, 민중을 깨우치기에 적합한 양서로서 독자의 마음에 다가가 교화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의 도’를 전하는 책이라는 것이다. 성리학자 주희가 『대

---

면.

42) 誠見世人 逐日奔波 徒事無益 竭盡心力 虛渡浮生 甚至傷風敗俗 滅理犯法 以致身陷罪孽 豈非大厄 作者悲憫于此 委曲開明 多方點化 必欲其盡歸於正道 不使之復蹈於前愆 (張書紳, 앞의 책, 총평)

학』을 통해 이루려는 선진유학이 추구했던 ‘덕치’와 ‘인치’의 맥락<sup>43)</sup>과 닿아 있다. 장서신은 『신설서유기도상』의 총론에서 『서유기』를 평비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작금에 『서유기』 100회를 평비한 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단지 사람들이 성심으로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그 큰 뜻이다. 문단과 절을 쫓아 이르러, 모두 마음을 바르게 하여 몸을 닦음에 이르고, 부지런히 힘써 깨우쳐 자기를 극복하여 禮를 회복함에 이르는 요지이다. 天地萬象, 四海九洲의 사농공상, 三教九流의 제자백가도 나열하고 있으니, 『서유기』 하나에만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략...) 결과적으로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서천에 도달할 수 없고, 지극한 선에 이를 수 없다. 작가는 여기에 감동이 있었으며, 생각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 끝은 또 달라서 일일이 친절하게 가르칠 수도 없고, 또한 각각을 한 책으로 여겨 가르칠 수도 없다. 따라서 『신설서유기도상』을 지어, 각자가 『서유기』를 읽어, 각자의 가르침으로 삼게 하려는 것이다.”<sup>44)</sup>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예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장서신이 『신설서유기도상』을 편찬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몸과 마음을 바르게하고 예를 회복하게 하려는 것은 곧 ‘대학의 도’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장서신은 『대학』의 성의·정심·극기·명덕의 요지를 힘을 다해 세밀하게 기록하였다[把大學誠意正心克己明德之要竭力備細寫了一盡]’라고 하여 그의 평비 요지를 명확히 했다. 유·불·도 삼교합일의 사회적

43) 김원중 옮김, 『대학·중용 수양과 덕치의 고전』, (주)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20, 30면.

44) 予今批西游記 一百回 亦一言以蔽之曰 只是教人誠心爲學 不要退悔 此其大略也 至於逐段逐節 皆寓正心修身勉警策克己復禮之至要 實包羅天地萬象 四海九洲士農工商 三教九流 諸子百家 無非一部西游記也 (...中略...) 總之心不誠者 西天不可到 至善不可止 作者有感於此 而念世人至多 其端又不一 故不能一一耳提面命以教之 又不能各爲一書以教之 故作西游記使各自讀之 而各自教之也(張書紳, 앞의 책, 총론)

인 큰 흐름 속에서 성리학을 수용한 시대사조에 따라 『서유기』를 통해서 유학을 전수하고, 유학을 통해서 ‘극기복례(克己復禮)’를 실천하는 내용하며, 백성의 교화를 ‘마음’이라는 주제로 풀어 놓은 것으로 추론된다. 장서신은 『서유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단지 사람들에게 성심을 가르치는 것을 학문으로 삼을 뿐, 물리나 후회할 필요는 없다 [只是教人誠心爲學 不要退悔]”고 본인이 기록한 총론에서 말하고 있다. 장서신은 성품수양을 중요시 하면서 민중이 참된 마음의 깨달음을 얻기를 진정으로 바랬던 것으로 사료된다.

#### 4. 맺는말

『서유기』는 명·청 시대 사대기서 중의 하나로 현재까지 널리 애독되는 장편 장회소설이다.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은 삼장법사 일행이 불경을 구하러 서천으로 가는 중에 81난을 만나고, 그 역경을 잘 이겨내어 마침내 불경을 구하여 당나라로 무사히 돌아와 일행 모두가 불제자의 일원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민간에서 700여 년 동안 전해 오던 이야기를 집대성한 오승은의 『서유기』는 청대에 와서 여러 가지 평비본으로 거듭 태어났다. 이지(李贄)의 평비본 『비평서유기』를 비롯하여, 왕상욱(汪象旭) 찬평의 『서유증도서』, 진사빈이 전해한 『서유진전』 등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장서신이 평비한 『신설서유기도상』의 자서와 왕도가 쓴 서문, 장서신이 쓴 총평과 총론 그리고 본문에 더해진 평설과 주석을 살펴보고 그가 성리학적 심성론을 『신설서유기도상』의 기본적인 철학 배경으로 삼아 ‘대학의 도’를 설파하고 있음을 논하였다. 장서신은 자서에서 『서유기』의 담론을 바로잡고 정확한 요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왕도의 서문은 『신설서유기도상』과 『서유진전』의 구분을 명확

히 하고 미지의 세계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120쪽의 그림이 담겨있음을 언급하였다. 장서신은 제1회의 시작 부분에서 ‘대학의 도’라는 말을 필두로 시종일관 『서유기』가 마음을 이야기하는 유가서라는 점을 강조하며, 행간의 깊은 뜻을 쉽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평비를 썼다고 한다. 영대방촌에서 시작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이야기는 마음 수양의 이야기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임금의 명령을 수행하는 삼장의 충의 마음과 삼장을 잡아 부모님께 바치려는 요괴들의 효심, 72가지 변신술과 하늘을 나는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삼장을 수행하는 손오공과 일행들의 의리, 이 모든 것이 공자의 충효인의(忠孝仁義) 사상이다.

청나라는 국가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 불교와 도교를 배척하고 철저하게 유교로써 나라를 통치하려 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이미 유·불·도 삼교회통의 정서가 스며들어 있었다. 장서신은 주희의 성리학적 관점과 송대에 성행했던 그림[圖像]을 통해 원리를 깨닫는 도서학[圖書學]을 차용하여 새롭게 『서유기』를 평비하였다. 독자가 『서유기』를 읽을 때 그 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다방면으로 교화[多方點化]’되어 ‘정도에 귀결되게 하는 것[歸于正道]’이 장서신의 집필 목적이다. 궁극적으로는 바른 마음으로 몸을 닦고 예를 회복하여[誠意正心克己復禮], 새로운 세상에서 유교적 가르침을 실행하며 잘 살아가자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서(四書)를 공부하여 과거시험에 응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대학’의 가르침에 따라 ‘대인’이 되어 세상을 살아간다면, 사회는 더 평화로울 수 있을 것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실현을 꿈꾸는 장서신의 이와 같은 마음은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의 독자에게도 닿았기에 『서유기』가 양서로서 여전히 애독되고 있다 사료된다.

## ■ 참고문헌

『莊子』

- 張書紳, 『新說西遊記圖像』 上-下, 北京: 中國書店, 1985.
- 董沛文, 『西遊真詮』 上-下,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2015.
- 吳從先 撰, 郭征帆 評注, 『小窗自紀』, 北京: 中華書局, 2008.
- 金赫濟 교열, 『原本孟子集註全』, 명문당, 1976.
- 오승은 저, 임홍빈 역, 『서유기』 1~10, 문학과지성사, 2003.
- 오승은 저, 홍상훈 외 역, 『서유기』 1~10, 솔, 2019.
- 금장태, 『유교사상과 유교문화』, 한국학술정보(주), 2001,
- 민관동, 『中國古典小說史料叢考: 한국편』, 아세아문화사, 2001.
- 민관동 · 정영호, 『중국고전소설의 국내 출판본 정리 및 해제』, 학교방, 2012.
- 김원중 옮김, 『대학·중용 수양과 덕치의 고전』, (주)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20.
- 이연세, 『霞谷의 『大學』 經說 研究』,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4.
- 최용철, 『사대기서와 중국문화』,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 한형조 외, 『심경, 주자학의 마음 훈련 매뉴얼』,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홍상훈, 『그래서 그들은 서천으로 갔다』, 솔출판사, 2004.
- 魯 迅,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역, 『중국소설사략』, 그린비, 2015.
- 胡 適, 『中國章回小說考證』, 上海書店, 1980.
- 方正耀, 『中國古典小說理論史』,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5.
- 孟 瑤, 『中國小說史』, 臺灣: 傳記文學出版社, 1990.
- 데이비드 볼스톤 저, 조관희 역, 『중국 고대소설과 소설 평점: 행간 읽기와 쓰기』, 소명, 2009.
- 劉安 편저, 안길환 편역, 『신완역 淮南子』 상, 명문당, 2001.
- 김양진, 『『朴通事』에 등장하는 몇몇 난해 지명에 대하여』, 『지명학』15, 한국지명학회, 2009.
- 김경수, 『서유기에 나타난 유·불·도의 특징과 삼교회통론』, 『동양고전연구』 69, 동양고전학회, 2015.

김기영, 『『西遊記』에 나타난 三敎의 倫理文化的 樣相』, 『윤리연구』 61, 한국윤리학회, 2006.

김하라, 『소설 읽기와 마음의 발견: 유만주의 『서유기』 독서 일기』, 『한문학 논집』 57, 근역한문학회, 2020.

윤태순, 『오승은 소고-서유기를 중심으로-』, 『중어중문학』 3, 한국중어중문학회, 1981.

丁奎福, 『한국소설에 끼친 중국소설의 영향』, 『아세아연구』 26(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83.

郭琳, 『張書紳『新說西遊記圖像』點評研究』, 호남사범대학 석사학위논문, 2011.

진서금, 『조선 후기 사대부 지식인의 『서유기(西遊記)』 수용 연구』,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동양고전종합DB(<http://db.cyberseodang.or.kr>)

국립중앙도서관(<https://nl.go.kr>)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

[www.xyjg.com](http://www.xyjg.com)

■ Abstract

**A Study on the Confucian Perspective  
in “*New Journey to the West*”**

**Chen, Shu Qin**

"*Seoyugi*" compiled by Wu Cheng-en(吳承恩) during the Ming Dynasty, was revealed in the Qing Dynasty and was reborn as a critical copy by various writer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reface of Wang Tao(王韜) recorded in Zhang Shu-shen(張書紳)'s "*New Journey to the West*", it is understood that it has the theme of "mind" .

Wang Tao, who recorded the preface to "*New Journey to the West*" said that this is the main point of this book because all demons are born in the heart and destroyed in the heart. In particular, starting with the word "The Great Learning" at the beginning of the first episode, it emphasizes that "*Seoyugi*" is a book that talks about the mind, and he wrote a criticism to easily understand the deep meaning between the lines.

The Qing Dynasty excluded Buddhism and Taoism for the rule of the country and tried to rule the country thoroughly with Confucianism. However, in the lives of the people, the emotions of the three religions were already fused. The book was loved by the people as they were interpreted under the theme of mind, reflecting the situation of the Qing Dynasty.

The reason why this book was not included in the list of the Qing Dynasty is that the new government may have intended to make public sentiment more relaxed so that it can adapt well to the new Qing Dynasty well.

Key Worlds: Zhang Shu-shen, Wang Tao, *New Journey to the West*, preface, Confucian

이 논문은 2023년 6월 21일 투고되어 2023년 7월 13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3년 7월 14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



## <사복불언>에 나타난 모자(母子)의 수행과 성불

정천구\*

### 목차

1. 머리말
2. <사복불언>의 내용과 찬시
3. 사복과 그 어머니의 수행과 성불
  - 1) 모자의 불도 수행
  - 2) 모자의 동시 성불
4. <사복불언>의 숨은 의미
5. 맺음말

### ■ 국문초록

<사복불언(蛇福不言)>은 『삼국유사』에서 「의해(義解)」편에 실려 있다. ‘의해’는 불교 교리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뜻으로, 「의해」편에는 그런 면에서 뛰어난 승려들의 전기를 싣고 있다. 특히, 그들의 수행 과정과 성불을 위한 여정이 전기의 핵심이다. 이는 <사복불언> 또한 그런 맥락에서 분석하고 해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은 사복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도 주요 인물로서 수행과 성불을 함께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복불언>의 서사에 담긴 모자의 수행과 성불을 분석하고 그 숨은 의미를 밝혀낼 것이다.

<사복불언>에서 사복의 어머니는 과부로서, 남편이 없이 아들을 낳았

---

\* 부산대학교 강사.

다. 사복은 열두 살이 될 때까지 말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한 장애 아들이었다. 그런 사복이 불도 수행을 할 수 있게 된 데에는 그 어머니가 원효를 찾아가 불법을 듣고 아들에게 전함으로써 가능했던 일이다. 그리고 아들의 의문과 물음을 원효에게 전하고 그 대답을 다시 아들에게 전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그 어머니도 자연스럽게 수행자가 되었다. 사복이 원효를 찾아가서 “그대와 내가 요전에 경전을 실어나르던 암소가 이제 막 죽었다”고 한 말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결국 사복도 깨달음을 얻었고 그 어머니도 ‘지혜의 범’이 되었으니, 이는 수행의 결과가 원만했다는 뜻이다. 사복이 계송을 읊고 어머니의 주검을 업은 채 땅속 연화장세계에 들어간 일이 이를 입증해준다. 사복과 그 어머니는 동시에 성불한 것이다.

<사복불언>의 서사에 숨겨진 주요한 원리는 ‘불이’와 ‘대등’이다. 이 두 원리는 재가자인 과부, 장애인인 사복, 출가자인 원효 세 사람의 관계 및 각자의 수행과 성취를 관통하고 있다. 사복과 어머니는 수행자로서 둘이 아니었다. 사복은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님을, 중생이 사는 이 땅이 곧 연화장세계여서 둘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런 불이의 원리 위에서 대등의 원리가 구현되었다. 수행자로서 재가자인 사복과 그 어머니는 출가자인 원효와 대등하다는 것, 또 장애인과 정상인이 대등하다는 것, 사복과 그 어머니의 성불에서 드러나듯이 남성과 여성이 대등하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주제어: 수행, 성불, 재가자, 출가자, 불이, 대등

## 1. 머리말

『삼국유사』에서 <사복불언(蛇福不言)>은 「의해(義解)」편에 실려 있다. 「의해」는 본래 중국의 고승전(高僧傳)에서 마련된 체재인 십과(十科)의 하나다.<sup>1)</sup> 처음 십과를 선보였던 양(梁)나라 혜교(慧皎, 497~554)

1) 중국에서 고승전의 십과 체제가 성립되고 변화한 일에 대해서는 정천구, 『중국 고승전의 체제 변화와 그 의미』, 『대순사상논총』 43집, 2022 참조.

가 ‘의해’에 대해 “지혜와 해석으로 정신을 열면 불도는 무수한 사람이 아우른다”<sup>2)</sup>고 했듯이, 불교 교리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뛰어난 고승들의 전기가 실려 있는 과목이 바로 「의해」다. 특히, 『삼국유사』 「의해」에서는 그런 고승들의 수행 과정과 성불을 위한 여정이 서사의 핵심이다. 이는 <사복불언>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은 <사복불언>에서는 사복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도 서사에서 핵심적인 인물로서 수행과 성불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는 <사복불언>을 ‘의해’의 측면에서 그리고 사복과 그 어머니를 수행과 성불의 관점에서 함께 분석하고 해석하지 않았다. 게다가 <사복불언>에 대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황패강은 이야기 속 죽음과 연화장세계를 신화적 상징으로 보고 분석했다.<sup>3)</sup> 신화적 사유는 중세에도 영향을 끼쳤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더구나 <사복불언>은 불교라는 중세적 관념을 표현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보완한 연구를 김상현이 했다.<sup>4)</sup> 김상현은 화엄사상의 영향으로 생겨난 설화라고 하면서 설화의 사상적 측면을 자세하게 논의했다. 그러나 주인공인 사복을 단순히 화신(化身)으로 이해하고 사복의 어머니를 수동적 존재로 보면서 그들의 수행과 성취는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그것은 서사의 흐름과 맥락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박서연의 논문이 있다.<sup>5)</sup> 박서연은 설화에 나오는 포살과 수계에 초점을 맞추어 신라인의 윤회관을 살피면서 불교의 효가 상징

2) 『高僧傳』 권14, 「序錄」. “慧解開神, 則道兼萬億.”

3) 황패강, 「蛇福說話試論」, 『한국서사문학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72, 171-185면.

4) 김상현, 「사복설화의 불교적 의미」, 『사학지』 16, 1982. 이 논문은 새로 다듬어져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34집(2013)에 「사복설화의 불교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다시 수록되었다. 본고에서는 뒤의 논문을 참조한다.

5) 박서연, 「사복설화에 나타난 신라인의 윤회관 — 『범망경』과 관련하여」, 『동아시아불교문화』 36집, 2018.

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해석했다. 이 또한 이야기의 맥락보다는 부분적 사건에 집중한 연구다. 이 연구들 외에도 신라시대의 불교사상과 관련해서 <사복불언>을 거론한 경우가 이따금 있었으나, 불도 수행 그리고 성불의 과정과 의미 등은 거의 논의되지 못했다.

<사복불언>에는 사복의 출가 여부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 그런데 「흥법(興法)」 편의 <동경흥륜사금당십성(東京興輪寺金堂十聖)>에는 신라의 대표적인 고승들과 사파(蛇巴) 곧 사복이 나란히 열거되고 있다.<sup>6)</sup> 이는 사복이 적어도 출가자나 다름없는 인물이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사복불언>을 통해 그의 수행과 성취가 어떠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는 작업은 매우 필요하다. 또 서사가 시작되고 사복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과정을 거쳐 결말에 이르기까지 줄곧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사복의 어머니이므로 함께 다루어야 마땅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모자(母子)의 ‘불도 수행’과 ‘해탈이나 성불’에 대해 분석하고 거기에 숨은 원리와 의미도 밝힐 것이다.

## 2. <사복불언>의 내용과 찬시

<사복불언(蛇福不言)>의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서울 만선북리의 한 과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말을 못하고 일어 서지도 못했으므로 사동(蛇童)이라 불렀다.
- ② 사동 곧 사복은 어머니가 죽자 원효를 찾아가 함께 장사지내자고 했다.
- ③ 원효는 사복의 모친에게 계를 주고 축문을 외며 빌어주었다.

6) 『三國遺事』 권3, <東京興輪寺金堂十聖>. “東壁坐庚向泥塑: 我道, 厭羈, 惠宿, 安舍, 義湘. 西壁坐甲向泥塑: 表訓, 蛇巴, 元曉, 惠空, 慈藏.”

- ④ 사복과 원효는 활리산(活里山)으로 가서 장사지냈다.
- ⑤ 사복이 계송을 외고 띠풀을 뽑으니, 그 아래에 연화장세계가 펼쳐졌다.
- ⑥ 사복은 모친의 주검을 업고 함께 땅속으로 들어갔다.
- ⑦ 후세 사람들이 사복을 위해 도량사(道場寺)를 짓고 점찰법회를 열었다.
- ⑧ 일연은 사복의 이야기는 이것뿐이라고 했다.
- ⑨ 찬시7)

①에서 ⑥까지는 사복이 태어나 죽기까지 과정을 알려주는 서사다. ⑧에서 일연은 “사복이 세상에 나타나 보여준 거라고는 이뿐인데, 세간에서는 황당한 이야기를 갖다 붙이니 가소롭다”라고 말하는데, 이 서사가 민간에서 전승되던 이야기이며 사실에 해당되는 것만 가려서 실은 것임을 알려준다. 여기서 이미 일연이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의해」 편에 실었다는 정황을 읽을 수 있다.

서사는 다시 ①에서 ③까지 전반부, ④에서 ⑥까지 후반부 둘로 나눌 수 있다. 문면에 드러난 것으로만 보자면, 전반부에서는 사복이 원효와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사이였고 사복이 원효보다 더 높은 경지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후반부에서는 사복이 계송을 읊고 어머니와 함께 연화

---

7) 『三國遺事』 권4, <蛇福不言>. “① 京師萬善北里有寡女, 不夫而孕. 既產, 年至十二歲, 不語亦不起, 因號蛇童.[下或作蛇卜, 又巴又伏等, 皆言童也.] ② 一日其母死, 時元曉住高仙寺. 曉見之迎禮, 福不答拜而曰: ‘君我昔日馱經犂牛, 今已亡矣, 偕葬何如?’ 曉曰: ‘諾.’ ③ 遂與到家, 令曉布薩授戒. 臨尸祝曰: ‘莫生兮其死也苦! 莫死兮其生也苦!’ 福曰: ‘詞煩.’ 更之曰: ‘死生苦兮!’ ④ 二公輿歸活里山東麓. 曉曰: ‘葬智惠虎於智惠林中, 不亦宜乎?’ ⑤ 福乃作偈曰: ‘往昔釋迦牟尼佛, 娑羅樹間入涅槃. 于今亦有如彼者, 欲入蓮花藏界寬.’ 言訖拔茅莖, 下有世界, 晃朗清虛, 七寶欄楯, 樓閣莊嚴, 殆非人間世. ⑥ 福負尸共入, 其地奄然而合. 曉乃還. ⑦ 後人爲創寺於金剛山東南, 額曰道場寺. 每年三月十四日, 行占察會爲恒規. ⑧ 福之應世, 唯示此爾, 俚諺多以荒唐之說託焉, 可笑. ⑨ 讚曰: 淵默龍眠豈等閑, 臨行一曲沒多般. 苦兮生死元非苦, 華藏淨休世界寬.”

장세계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이렇게 사복의 성취가 두드러져 보이는 서사에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다. 바로 사복의 어머니다.

②에서 ⑥까지 서사에서 전면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사복이지만, 그 사복의 모든 행동과 말은 사복의 어머니가 원인이자 계기다. 서사만이 아니라 사복이 자신의 경지나 성취 수준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도 그 어머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다. 이는 사복과 그 어머니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사복은 표면에 드러나 있고 그의 어머니는 이면에 숨겨져 있을 따름이다. 즉, 서사에서 모자(母子)는 함께 주인공이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사복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도 어떻게 해서 그런 경지에 이르렀는지가 의문이 된다. 이는 서사를 자세하게 분석할 때 해명될 것이다. 이 분석에는 아래에서 살펴볼 찬시가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⑦과 ⑧은 일연이 사복의 죽음 이후에 있었던 일과 이야기의 성격에 대해 부연한 부분으로, 설명에 해당한다. ⑦은 “후세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금강산 동남쪽에 절을 짓고 ‘도량사’라 했다. 해마다 3월 14일이면 점찰법회를 여는 것을 항규(恒規)로 삼았다”는 간략한 내용이다. 이것은 사복이 실재했던 존재임을 알려준다. 특히, ⑧은 서사의 내용이 결코 허황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⑨는 일연이 서사에 대해 자신의 이해와 느낌을 시로써 표현한 것이다. 서사에 대한 일종의 감상평이다. 일연이 이 서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왜 「의해」편에 실었는지를 알게 해주므로 서사의 분석과 해석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없이 잠든 용이나 어찌 소홀했으랴  
떠나며 읊은 한 가락 간단도 하구나!

피로운 죽살이도 본디 피로움 아니며  
죽고 삶도 연화장이니 세계가 넓구나.

앞의 두 줄은 사복의 언행에 대해 표현한 것이다. 첫줄에서는 사복을 ‘연묵용면(淵默龍眠)’이라 했다. 사복이 말하지 못한 것을 두고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다 했고, 일어서지 못한 것을 두고 용이 잠든 것으로 표현했다. 흥미로운 구절은 ‘하등한(何等閑)’이다. 등한(等閑)은 “소홀하다, 심상하다, 담박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하등한’은 “어찌 소홀하거나 무관심했겠느냐?”는 뜻이다. 다시 말해, 마음을 기울여 살폈다는 뜻이며, 말을 못하고 일어서지 못했어도 무언가를 했다는 뜻이다. 그 결과가 둘째 줄에 표현되어 있다. ‘떠나며 읊은 한 가락’은 사복이 모친의 주검을 업고 함께 연화장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읊은 계송을 가리킨다. 이 계송은 사복이 ‘말없이 잠든 용’에서 ‘깨어나 말하는 용’으로 사뭇 달라졌음을 알려주는 표지다. 이로써 보면, 첫째 줄과 둘째 줄은 서사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다.

앞의 두 줄이 오롯이 사복을 가리는 내용이라면, 뒤의 두 줄은 사복에 관한 것이면서 그의 어머니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셋째 줄은 원효가 과부의 주검을 앞에 두고 “죽고 태어나는 일이 괴롭도다!”라고 한 데 바탕을 둔 것으로, 원효의 발언에 대한 일종의 반론이다. 이 반론은 사복이, 나아가 그의 어머니가 이미 행동으로 보여준 것을 일연이 대신 표현한 것이다. 죽고 태어남을 피로움으로 보는 것은 불교의 기본적인 관점이지만, 이 또한 통념이고 중생의 견해일 따름이다. 일연은 사복과 그의 모친이 그런 통념을 넘어선 이들로 보았다. 넷째 줄의 “죽고 삶도 연화장이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찬사에서 뒤의 두 줄에는 불교의 교리 가운데 깨달음 또는 성불과 깊은 관련을 가진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일연이 <사복불언>을 「의해」 편에 실은 이유를 드러낸 것이면서 동시에 <사복불언>을 통념에 기대

서 해석해서는 안 됨을 알려준다. 아래에서는 <사복불언>의 서사를 자세하게 분석하여 사복과 그 어머니의 불도 수행, 성불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이면에 숨은 의미를 풀어내도록 할 것이다.

### 3. 사복과 그 어머니의 수행과 성불

『삼국유사』에서 「의해」편에 실린 설화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불도를 수행하고 성취한 양상들을 보여준다. 수행의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설화들도 적지 않으나, 보여주지 않는 설화들도 있다. 반면에, 성취의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설화들이 알려준다. <사복불언>은 수행 과정이 생략된 채 또는 숨겨진 채 그 성취만을 보여주는 경우다. 그러나 서사를 꼼꼼하게 분석해보면, 어떤 수행을 했는지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다.

#### 1) 모자의 불도 수행

<사복불언>의 서사에 대해서는 앞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제시한 내용 가운데 ①~③의 전반부를 통해 사복과 그 어머니의 수행에 대해 분석한다. 해당 부분의 전문을 제시한다.

서울 만선북리에 과부가 있었는데, 남편도 없이 아이를 뱌다. 아이를 낳은 뒤 그 아이는 열두 살이 되도록 말하지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했다. 그래서 사동(蛇童)[아래에서는 사복(蛇卜)이라고도 하고 또 동(童) 대신에 파(巴) 또는 복(伏)을 쓰기도 하는데, 모두 ‘아이’를 이르는 말이다.]이라 불렀다.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죽었는데, 그때 원효는 고선사(高仙寺)에 머물고 있었다. (사복이 찾아가자) 원효는 그를 보고 예를 갖추 맞이했으나,

사복은 답례도 하지 않고 말했다.

“그대와 내가 요전에 경전을 실어나르던 암소가 이제 막 죽었으니, 함께 장사지내는 게 어떻겠소?”

원효는 “좋네!”라고 말했다. 이윽고 함께 그 집에 이르렀고, 사복은 원효에게 포살을 통해 계를 주게 했다. 원효는 그 주검 앞에서 빌었다.

“태어나지 말지니, 죽음이 괴롭도다! 죽지 말지니, 태어남이 괴롭도다!”

사복이 “말이 번거롭다!”라고 하니, 원효가 고쳐서 말했다.

“죽고 태어나는 일이 괴롭도다!”

이야기는 사복이 과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열두 살 때까지 말하지도 일어서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시작되는데, 사복과 그 어머니가 참으로 버겁고 힘겨운 처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과부가 죽었다고 한 뒤, 사복이 원효를 찾아가 만났다고 한다. 이렇게 과부의 죽음에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서사의 후반부도 이 죽음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복 못지않게 그 어머니도 서사의 중심에 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앞서 말했듯이 모자가 함께 주인공인 셈이다. 그러면, 사복은 어떻게 수행했으며 그의 어머니도 과연 수행을 했는가? 위의 서사가 충분히 해명해주는가?

수행의 측면에서 주목할 점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사복은 열두 살이 될 때까지 말하지도 일어서지도 못했다. 둘째, 어머니가 죽자 사복은 곧바로 원효를 찾아갔다. 셋째, 사복은 원효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그대와 내가 요전에 경전을 실어나르던 암소”라고 표현했다. 넷째, 원효가 사복의 어머니에게 계를 주었다. 이 네 가지는 서사의 맥락을 이루면서 모자(母子)의 수행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먼저 과부는 “남편도 없이 애를 뱌다(不夫而孕)”고 한다.<sup>8)</sup> 과부란 남

8) 김상현은 이 구절을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아이를 잉태하여 낳았다”로 풀면서 과부를 성스러운 여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원효가 죽은 과부를 지혜

편을 여윈, 즉 사별한 여인을 가리킨다. 그런 여인이 새로 혼인을 하지 않은 채 남자와 정을 통해서 애를 가진 것이다. 이는 특이한 일이 아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곳곳에서 확인되듯이 신라 시대에 흔했던 일이다.<sup>9)</sup> 중요한 것은 과부가 낳은 아들이 장애아였고 홀로 길러야 했다는 점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끊이지 않는 주위의 눈총과 입방아를 견뎌내야 했을 테니 말이다. 과부는 어떻게 버티고 이겨냈을까?

어머니가 죽자 사복이 원효를 찾아간 데에 그 실마리가 있다. <원효 불기(元曉不羈)>에 나오듯이, 원효는 무애가(無尋歌)를 부르고 춤추며 오만 마을을 돌아다녔다. 특히 무애가는 “걸림이 없는 모든 사람들,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네(一切無尋人, 一道出生死)”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10)</sup> 게다가 원효는 술집과 창가(倡家)에도 거리낌없이 드나들며 가르침을 퍼던 보살 같은 승려가 아니던가!<sup>11)</sup> 장애아를 키우던 과부가 원효를 찾아갔음은 참으로 당연하다. 사복이 어머니가 죽자 곧바로 원효가 머물고 있던 고선사(高仙寺)로 간 것도, 원효가 예를 갖추 맞이한 것도 모두 그런 인연이 있어서였다.

의 범에 비유한 것도 그 때문이라 했다.(앞의 논문, 174면) 그러나 본고의 논의에서 드러나겠지만, 이는 서사의 맥락을 간과한 해석이다. 본고에서 이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한다.

- 9) 『삼국사기』에서는 <김유신> 열전에 김서현이 만명과 눈이 맞아 정을 통한 일, <강수> 열전에 강수가 대장장이 딸과 정을 통한 일 등이 나오고, 『삼국유사』에서도 <이혜동진(二惠同塵)>에 지귀(志鬼)가 선덕여왕을 사랑한 이야기가, <김현감호>에 김현이 탐돌이하다가 처녀와 눈이 맞은 이야기 등이 나온다. 그 밖에도 신라 시대에 혼인의 여부와 관계 없이 남녀가 정을 통한 일은 많이 기록되어 있다.
- 10) 『三國遺事』 권4, <元曉不羈>. “曉既失戒生聰, 已後易俗服, 自號小姓居士. 偶得優人舞弄大瓠, 其狀瑰奇. 因其形製爲道具, 以華嚴經‘一切無尋人, 一道出生死,’ 命名曰無尋, 仍作歌流于世. 嘗持此, 千村萬落, 且歌且舞, 化詠而歸, 使桑樞瓮鬪獼猴之輩, 皆識佛陀之號, 咸作南無之稱, 曉之化大矣哉!”
- 11) 『宋高僧傳』 권4, <元曉傳>. “同居土入酒肆倡家.”

그렇다면, 사복과 원효의 인연은 어떻게 맺어졌을까? 사복이 원효에게 “그대와 내가 요전에 경전을 실어나르던 암소가 이제 막 죽었다”고 한 말이 실마리다. 암소는 당연히 사복의 어머니를 가리킨다. 그 암소가 경전을 실어날랐다고 한다. 이 일을 전생의 일로 볼 수도 있으나,<sup>12)</sup> 서사의 맥락에서는 현생의 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과부가 아들과 원효, 곧 집과 절 사이를 오가며 경전을 실어날랐다고 해석하는 편이 더 타당하다는 말이다. 이 해석에 대한 근거는 찬시의 첫 줄, “말없이 잠든 용이 나 어찌 소홀했으랴”라고 표현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말없이 잠든 용’은 말하지도 일어서지도 못한 상태에 있던 사복을 가리킨다. 그런 사복이 소홀하지 않았다고 일연은 말한다. 무얼 소홀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불도 수행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했기에 이어지는 둘째 줄 “떠나며 읊은 한 가락 간단도 하구나!”라는 찬탄을 자아내는 경지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다. 장애 상태에서 사복이 불도 수행을 했다는 말이다. 적어도 일어서지 못했을 때에는 집에서 수행했을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장애 아들을 둔 과부가 처음에 원효를 찾아갔을 때에는 불도 수행에 뜻을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자신의 처지와 고단한 삶을 위로받으려고 단순한 신심으로 갔을 공산이 크다. 그러다가 마음에 와 닿는 가르침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와 “오늘 스님이 이러저러한 말씀을 해주셨다”면서 아들에게 들려주었을 것이다. 그런 일이 되풀이되면서 사복은 저절로 불법에 기대며 무언가를 느끼고 알게 되었을 것이다. 말을 하지는 못했어도 들을 줄은 알았으니, 별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일고 또 의문도 생겼을 것이다. 열두 살이 지나서

---

12) 김상현은 <육면비염불서승(郁面婢念佛西昇)>에서 육면이 전생에 불경을 읽고 다닌 소였다는 내용을 끌어와서 과부가 경전을 실어나른 것도 전생이라고 했다.(앞의 논문, 180-181면) 그러나 육면의 경우는 윤회 전생을 맥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나, <사복불언>의 서사는 전혀 맥락이 다르므로 해석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는 말도 할 줄 알았을 터이니,<sup>13)</sup> 어머니를 통해 원효에게 묻기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집과 고선사를 오가며 원효가 들려주는 가르침을 아들에게 전하고 아들의 의문을 다시 원효에게 전하는 매개자 노릇을 한 것, 그것이 바로 ‘경전을 실어나르던 암소’의 역할이었다. 과부의 이런 역할이 있었기에 사복은 수행할 수 있었다. 결국, 사복은 어머니를 통해 원효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수행을 한 셈이니, 원효의 제자였다고 할 수도 있다.<sup>14)</sup> 아울러 과부도 매개자 역할을 하다가 점점 수행자로서 불도를 닦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제자인 사복이 제자로만 머물거나 스승인 원효가 스승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서사에서는 두 사람이 대등해 보인다. 『화엄경』에는 53명의 선지식(善知識)을 두루 찾아다닌 선재동자(善財童子)가 나온다. 이 선재와 선지식, 곧 제자와 스승의 관계에 대해 법장(法藏, 643~712)은 이렇게 풀이했다. “선재는 선우(善友)와 더불어 하나의 연기를 이루는데, 교화하는 이와 교화 받는 이는 두 가지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선우의 밖에 선재가 없으므로 하나가 곧 일체임을 드러내서 ... 선재의 밖에 선우가 없으므로 일체가 곧 하나임을 나타내서 ... 서로 원융하여 결림이 없다.”<sup>15)</sup> 구도하는 제자인 선재와 교화하는 스승인 선우 곧 선지식은 서로 다르기만 하지 않고 원융하여 하나라고 했다.

13) 이야기에서 사복은 “열두 살이 되도록 말하지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했다”고 했는데, 이는 열두 살이 된 뒤에는 말도 하고 일어설 수도 있었다는 뜻이다. 어쩌면 과부가 생업으로 말미암아 어린 자식을 홀로 남겨둔 것이 말을 못하고 또 일어서지도 못하게 만든 계기였을 수도 있다. 어쨌든 사복은 어머니를 통해 원효의 가르침을 자주 들으면서 듣기뿐만 아니라 말하기도 늘었을 공산이 크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일어서려는 열망과 의지를 갖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14) 김상현은 『동국이상국집』의 원효방(元曉房) 설화와 『삼국유사』의 <사복불연>을 아울러 고찰하면서 사복이 원효의 제자였을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앞의 논문, 169-175면)

15) 법藏, 『花嚴經探玄記』 권18. “善財與善友同成一緣起, 以能入所入無二相故. 是故無善友之外善財故彰一即一切, … 無善財之外善友故顯一切即一, … 相融無礙.”

그 근거가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다(一卽一切, 一切卽一)”라는 화엄 철학의 요체다. 이는 곧 매개자 노릇을 한 사복의 어머니에게도 해당된다. 사복의 어머니는 사복과 원효 사이에서 선재와 선지식의 역할을 동시에 한 셈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과부의 수행 여부는 원효가 포살(布薩)을 통해 계를 준 데서 확인된다. 포살은 본디 출가한 승려가 보름마다 모여서 계경(戒經)의 독송을 듣고 스스로 반성하며 죄과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의식이다. 이런 포살을 행하면서 계를 주었다는 것은 과부의 불도 수행을 인정한다는 뜻이다.<sup>16)</sup> 그리고 여기서 계는 보살계(菩薩戒)로 여겨진다. 대승불교에서는 불도를 수행하는 자라면 누구나 보살로 일컬어졌다. 과부와 사복이 그 처지와 상관없이 원효를 통해 불도에 마음을 두고 실천하려고 했다면, 모자는 모두 수행자요 보살이다. 따라서 과부가 받은 계는 대승불교에서 재가자도 받을 수 있는 보살계였을 것이다.

보살계에 대해 원효는 “흐름을 돌이켜 근원으로 돌아가는 큰 나루요 샷됨을 버리고 바름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문”<sup>17)</sup>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보살행을 하는 이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계인 셈이다. 사복의 어머니는 죽은 뒤에나마 이 보살계를 받음으로써 진정한 보살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사복의 어머니는 보살의 실천 덕목인 육바라밀, 곧 보시(布施)·지계(持戒)·인욕(忍辱)·정진(精進)·선정(禪定)·지혜(智慧) 등의 바라밀 가운데 앞의 넷을 실천했다고 할 만하기 때문이다.

16) 박서연, 앞의 논문, 203-206면에서는 사복의 어머니는 중음(中陰)의 단계에서 계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추선을 위한 망자수계라 했다. 그러나 이는 <사복불언>의 서사적 맥락에서 벗어난 해석이다. 게다가 원효는 사복의 어머니를 ‘지혜의 범’이라 일컬었다. 불교에서 지혜는 본인의 수행으로만 얻을 수 있다.

17) 『菩薩戒本持犯要記』, “菩薩戒者, 返流歸源之大津, 去邪就正之要門.”(『한국불교전서』 1, 581a)

우선 과부는 적게나마 지극한 마음으로 원효에게 재물을 보시했을 것이다. 장애아를 키우는 과부로서 온갖 곤욕을 치렀을 텐데, 올바르게 행동하면서 다 견뎌냈을 것이다. 이는 지계와 인육이다. 아울러 아들과 원효 사이에서 불법의 매개자 역할을 하면서 힘써 불도를 닦았을 터이니, 정진이다. 이런 보살행이 없었다면 죽은 뒤에나마 계를 받지 못했을 것이고, ‘지혜의 범’이라 일컬어지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다.<sup>18)</sup>

그런데, 사복은 계를 받았는가? 원효를 만나기 전에 어머니를 통해 이미 받았을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편이 더 타당해 보인다. 원효가 예로써 맞이한 일이나 사복이 원효의 축문이 길다고 타박한 일에서 알 수 있듯이, 사복은 이미 대단한 경지에 이른 상태이기 때문에 계라는 방편이 필요하지 않았다. 원효 또한 그 점을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사복은 그리고 그 어머니는 실제로 어떤 경지에 이르렀는가?

## 2) 모자(母子)의 동시 성불

<사복불언>의 서사에서 전반부는 사복과 그 어머니, 곧 모자의 수행 여부를 낱지시 보여주었다. 후반부에서는 그 모자의 성취에 대해 또는 성불의 여부에 대해 알려준다. 해당 부분의 전문을 제시한다.

(사복과 원효) 두 분은 주검을 메고 활리산(活里山) 동쪽 기슭으로 갔다.  
원효가 말했다.

18) 『의해』의 <원광서학(圓光西學)>에는 원광이 삼기산에 수도하러 들어갔을 때, 그 산의 신이 산을 무너뜨려서 그릇된 수행을 하던 비구의 처소를 물어버린 이야기가 나온다. 또 『감통(感通)』의 <광덕엄장(廣德嚴莊)>에서는 수행의 태도나 정도가 비슷해 보인 두 수행자, 곧 광덕과 엄장이 왕생에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볼 때, 사복의 어머니가 ‘지혜의 범’으로 불렸다는 것은 단순히 신자에 머물지 않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을 했다는 뜻이다.

“지혜의 범을 지혜의 숲속에 장사지내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사복이 계송을 지어 말했다.

“저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라수 사이에서 열반에 드셨지.  
이제 또 그와 같은 이가 있어  
연화장세계에 들어가려 하네.”

말을 마치고 띠폭의 줄기를 뽑으니, 그 아래에 환하게 빛나고 맑게 빈 세계가 펼쳐지는데 칠보로 장식한 난간에 누각이 장엄해 거의 인간 세상이 아니었다. 사복이 주검을 업고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니, 그 땅이 갑자기 합쳐졌다. 원효는 이내 돌아왔다.

위에서는 해탈이나 성불과 관련해서 세 가지가 주목된다. 첫째는 지혜의 범을 지혜의 숲속에 장사지내자고 한 원효의 말이다. 둘째는 사복의 계송이다. 셋째는 연화장 세계가 펼쳐지고 사복이 주검을 업고 그곳으로 들어간 일이다.

활리산(活里山)에 이르러서 원효는 “지혜의 범을 지혜의 숲속에 장사지내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사복에게 말했다. 여기서 ‘지혜의 범’은 당연히 사복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이다. 앞서 사복의 어머니는 보살행, 곧 육바라밀 가운데서 보시와 지계, 인욕, 정진 등의 바라밀을 실천했을 것이라 했다. 육바라밀은 그 자체가 최종적으로 참되고 올바른 지혜, 곧 반야의 완성으로 수렴되지만, 사복의 어머니는 아들과 원효 사이에서 매개자로서 경전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을 했으므로 반야바라밀도 실천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불교의 반야는 세간의 지식이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지혜로서, 무분별지(無分別智) 또는 불지(佛智)라 한다. 그러나 결국 인과의 법칙 또는 연기법을 알아서 일체개고(一切皆苦),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등의 삼법인(三法印)을 깨닫는 것이 반야지혜다. 삼법인

에 관해서라면, 남편 없이 장애 아들을 낳아 길러야 하는 과부야말로 누구보다 더 생생하게 느끼며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과부는 원효로부터 ‘지혜의 범’이라 일컬어질 수 있는 경지에 이르도록 바라밀을 실천했던 것이 분명하다.

물론 과부가 반야바라밀을 완성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앞서 말했듯이, 대승불교에서 바라밀은 미혹과 생사의 차안(此岸)에서 해탈과 열반의 피안(彼岸)에 이르게 해주는 실천이나 수행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완전한 해탈을 이루고 열반에 든 붓다의 반야바라밀과는 다른 수준일 수 있다. 아래의 글을 보라.

[물음] “무엇을 반야바라밀이라 하는가?”

[대답] “보살이 처음 발심해서 일체중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제법의 실상을 아는 지혜가 반야바라밀이다.”

[물음] “만약 그렇다면, 바라밀이라 이름 붙여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지혜의 끝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답] “부처님이 얻은 지혜는 진실한 바라밀이다. 이 바라밀에 말미암은 까닭에 보살이 실천하는 것도 바라밀이라 하니, 원인 가운데 결과를 설하기 때문이다. 이 반야바라밀은 부처님의 마음속에 있으면서 이름이 일체중지로 바뀌었다. 보살은 지혜를 실천하여 피안에 이르려고 하므로 바라밀이라 하고, 부처님은 이미 피안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체중지라 한다.”<sup>19)</sup>

『대지도론(大智度論)』에 나오는 위의 문답을 보면, 반야바라밀은 두 가지 의미로 쓰임을 알 수 있다.<sup>20)</sup> 하나는 ‘과정’으로서 반야바라밀이

19) 『大智度論』 권18. “問曰：‘云何名般若波羅蜜。’ 答曰：‘諸菩薩從初發心，求一切種智，於其中間，知諸法實相慧，是般若波羅蜜。’ 問曰：‘若爾者不應名為波羅蜜。何以故？未到智慧邊故。’ 答曰：‘佛所得智慧是實波羅蜜。因是波羅蜜故，菩薩所行亦名波羅蜜，因中說果故。是般若波羅蜜，在佛心中變名為一切種智。菩薩行智慧，求度彼岸故，名波羅蜜。佛已度彼岸故，名一切種智。’”(K.0549)

고, 다른 하나는 ‘결과’로서 반야바라밀이다. 보살이 실천하는 반야바라밀은 피안에 이르기 위한 과정을 지칭하며, 붓다의 반야바라밀은 이미 피안에 이른 결과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사복의 어머니는 어떤 반야바라밀을 얻었는가?

사복은 계승에서 그 어머니를 붓다에 견주었다. 앞의 두 줄에서 사라수 사이에서 열반에 드신 석가모니를 거론하고나서 뒤의 두 줄에서 “이제 또 그와 같은 이가 있어, 연화장세계에 들어가려 하네”라고 표현했다. 『대반열반경』에 따르면, 입멸이 다가오자 석가모니는 쿠시나가라의 외곽 사라나무 숲에 이르렀고, 거기서 열반에 들었다.<sup>21)</sup> 사복은 어머니의 죽음을 석가모니의 입멸에 견증으로써 대등하게 보았다. 이는 사복의 어머니 또한 붓다의 반야바라밀에 이르렀다고 본 셈이다. 여기에서 보살과 붓다, 과정의 반야바라밀과 결과의 반야바라밀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불이(不二)의 원리를 엿볼 수 있다.

계승을 읊조린 사복은 그 자리에서 띠풀을 뽑았고, 그 아래에 연화장세계가 펼쳐졌다. 그 세계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본래 그곳에 있었다. 다만,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 알지 못했을 따름이다. 앞서 원효가 “지혜의 범을 지혜의 숲속에 장사지내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 따르면 연화장세계는 곧 ‘지혜의 숲속’에 있다. 이는 연화장세계가 지혜와 관련이 있다는 것, 지혜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임을 말해준다.

연화장세계는 비로자나불이 있는 세계로, 한량 없는 공덕으로 장엄되어 있는 이상세계로 알려져 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20) 『대지도론』(100권)은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에 대한 주석서로, 인도의 용수(龍樹)가 저술했다. 육바라밀 가운데 반야바라밀을 중점적으로 논했다.

21) 『대반열반경』(강기희 옮김, 민족사, 2000), 198면, 253면.

불자들이여, 이 연화장세계는 노사나불이 전생에 보살행을 닦을 때, 아승기 세계의 티끌 수만권의 겁 동안에 청정하게 장엄한 곳으로, 그 낱날의 겁마다 그 세계의 티끌 수만권의 여래를 공경하며 공양했고 그 낱날의 부처님 계신 곳에서 세계 바다의 티끌 수만권의 원행을 닦았음을 알아 두어라.<sup>22)</sup>

노사나불(盧舍那佛), 곧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이 보살행을 닦으면서 장엄한 곳이 연화장세계라고 한다. 그렇다면, 붓다가 되기 전의 세계라는 뜻이고 붓다의 세계로서 특별한 곳이 아니라는 뜻이다. 보살로서 장엄한 곳이니, 우리 중생이 사는 세계와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이상 세계로 알려졌고, 어디 다른 곳에 있는, 붓다만이 머무는 세계처럼 여겨졌다. 위의 글에도 나오듯이 노사나불이 보살이었을 때 장엄한 곳이 모두 연화장세계인데, 그 수가 무수히 많다. ‘아승기 세계의 티끌 수만권의 겁 동안에’ 장엄을 했으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는 곧 연화장세계가 시방 어디에나 존재하며 온 우주에 편재(遍在)한다는 뜻이다. 사복이 띠풀을 뽑아서 보여준 연화장세계도 그 무수한 세계 가운데 하나다. 다시 말해, 중생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바로 연화장세계라는 것이다. 일연의 찬시에 나오는 “죽고 삶도 연화장이니 세계가 넓구나”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이다. 곧, 생사(生死)가 되풀이되는 이 세상이 곧 연화장세계라는 뜻이다.

그런데 <사복불언>에서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연화장세계를 지혜와 결부시켰다. 그것은 지혜가 없으면 연화장세계를 붓다만의 세계, 어디 특정한 곳에만 있는 세계로 여기고, 지혜가 있으면 바로 여기 중생의 세계가 곧 연화장세계임을 안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복이 발 아래의 띠풀을 뽑아 연화장세계가 있음을 보여준 일은 그가 바로

22) 『華嚴經』 권3, 『盧舍那佛品』. “諸佛子, 當知此蓮華藏世界海, 是盧舍那佛, 本修菩薩行時, 於阿僧祇世界微塵數劫之所嚴淨, 於一一劫, 恭敬供養世界微塵等如來, 一一佛所, 淨修世界海微塵數願行.”

이 이치를 깨달았다는, 지혜를 얻었다는 증거다.

그러면, 사복의 어머니는 어떠한가? 원효는 지혜의 범으로 표현했다. 사복 또한 그 말에 동의한 듯하다. 계송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사라수 아래에서 열반에 든 석가모니와 대등하다고 노래했기 때문이다. 사복은 어머니가 해탈하거나 성불했다고 보았다. 사복이 어머니의 주검을 업고 연화장세계로 들어간 것도 그것을 입증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사복이 들어간 뒤에 그 땅이 갑자기 합쳐졌다. 이는 사복 또한 성불했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보면, 사복의 계송에 나오는 ‘그와 같은 이’는 사복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아울러 가리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이는 모자(母子)가 동시에 성불한 일로서, 참으로 희유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의미를 갖는다.

자식의 공덕이나 복덕으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가 구제를 받거나 왕생했다는 일은 종종 있다.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스스로 지옥에 들어간 목련존자(目連尊者)의 이야기가 대표적이다.<sup>23)</sup> 『삼국유사』의 「효선(孝善)」편에 실려 있는 <진정사효선쌍미(眞定師孝善雙美)>에서는 진정의 어머니가 자식을 출가시켜 의상의 제자가 되게 한 뒤 세상을 떠났는데, 의상과 문도들이 함께 복을 빌어주어 하늘에 환생할 수 있었다. 진정의 이야기는 확실히 출가자인 승려의 효가 불교의 선과 일치한다는 뜻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렇지만, 사복의 어머니는 전혀 다른 경우다. 만약 <사복불언>에서 사복의 효가 핵심이었다면, 이 설화는 「효선」편에 실렸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의해」에 실렸다는 것은, 사복과 그 어머니 모두 불교의 교리를 잘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사실이 핵심임을 말해준다. 그래서 사

23) 축법호(竺法護)가 한역한 『우란분경(盂蘭盆經)』에 이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온다. 음력 7월 15일에 거행되는 우란분제(盂蘭盆齋)는 이 이야기에 바탕을 둔 것이다. 『우란분경』과 우란분제에 대해서는 김상영, 「우란분제의 의미와 設行 역사」, 『불교학연구』 22, 2009; 이숙현, 「『우란분경』의 성립과 우란분제」, 『유학연구』 44, 2018 참조.

복의 어머니는 비록 마지막에 사복에 업혀서 연화장세계에 들어갔지만, 그 일은 사복의 공덕 덕분이 아니라 그 자신이 생전에 실천한 보살행이 무르익어서 얻은 과보였다.

#### 4. <사복불언>의 숨은 의미

『유마경』 권9의 「입불이법문품(入不二法門品)」에서 유마힐은 수많은 보살들에게 어떻게 하면 상대적 차별을 초월한 불이법문(不二法門)에 들 수 있는지 말해보라고 한다. 이에 여러 보살들이 제각각 견해를 피력했으며, 문수사리도 대답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문답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문수사리가 유마힐에게 물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당신께서 말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살이 불이법문에 들니까?”

그때 유마힐은 입을 다문 채 조용히 말이 없었다.<sup>24)</sup>

유마힐의 ‘묵연무언(默然無言)’은 ‘사복불언’을 연상시킨다. 사복이 계송을 한 수 읊기는 했으나, 그것은 어머니를 기리는 노래였다. 불법의 이치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물론 <사복불언>은 이야기로써 ‘불이’를 풀어냈다. 사복이 띠풀을 뽑고 그 아래에서 연화장세계가 펼쳐지는 장면은 중생의 세계가 곧 붓다의 세계라는 ‘불이(不二)’의 한 원리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런 불이는 차별적 인식이나 분별심에 사로잡혀서는 결코 이를 수 없으며, 불지견(佛知見) 곧 붓다의 지혜를 갖추어야만 이를 수 있는 경지라는 것 또한 알려준다.

24) 『維摩詰所說經』 권2, 「入不二法門品」. “於是, 文殊師利問維摩詰: ‘我等各自說已, 仁者當說. 何等是菩薩入不二法門?’ 時維摩詰默然無言.”

그런데 사복이 말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이치가 드러난 것처럼 서사가 드러내서 말하지 않은 데에 또 다른 논리가 있을 수 있다. 그 논리는 <사복불언>에 등장하는 인물들, 곧 과부와 그 아들 사복, 원효 세 사람의 처지와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구현되고 있다.

중세는 여러 면에서 차별이 당연시되었던 시대다. 신분에서 상층과 하층 사이에는 귀천(貴賤)의 차별이 있었고, 성별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우열(優劣)의 차별이 있었으며, 종교에서도 출가 승려와 재자 신도 사이에 현우(賢愚)의 차별이 있었다. 심지어 뒤의 둘이 결합되어 출가 승려들 사이에서도 비구와 비구니의 차별이 있었다. 세속적 관념에서는 이런 차별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해도 불교에서만큼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었다. 누구나 평등하고 대등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붓다와 경전들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계가 도리어 세속적 관념에 물들어 그런 차별을 더욱 조장하고 강화하는데 앞섰다. 이에 대해 다면적으로 반론을 제기한 것이 <사복불언>이다.

서사의 전개로 보건대, 과부와 그의 아들은 상층에 속하는 인물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과부는 하층의 여성이고, 사복은 하층의 장애아다. 중세 사회에서 가장 멸시 받을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도에 뜻을 둔 재가자였다. 반면에 원효는 귀족 출신으로, 출가한 승려다. 다시 말해, 상층의 신분이면서 출가자였다. 게다가 학승으로서도 명성을 떨치고 있었으니, 여러 모로 우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상반되는 신분과 처지에 있는 이들이 ‘불교’를 매개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수행하고 성불을 향해 나아간 이야기가 바로 <사복불언>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관계가 보여준 논리나 이치는 무엇인가?

먼저 사복을 보자. 그는 열두 살 때까지 말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장애아였다. 정상인보다 크게 모자라거나 어리석은 존재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런 그가 불도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거나 성불하려고 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며 비웃었을까? 그런데 사복은 수행을

했을 뿐더러 원효보다 더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원효가 읍조린 축문이 번거롭다고 나무란 일, 어머니를 업고 연화장세계에 들어간 일이 그런 경지를 입증해준다. 이런 사복은 세 가지 대등을 보여준다. 하층 사람과 상층 사람이 대등하다는 것, 재가자와 출가자가 대등하다는 것, 장애인과 정상인이 대등하다는 것이다. 신분이나 처지, 신체 등으로 귀천이나 현우, 우열을 두는 것은 부질없는 짓일 뿐만 아니라 차별적 인식이어서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고, 오히려 그런 인식이 수행과 성불에는 장애가 된다고 넌지시 일깨워준다.

사복의 어머니 또한 하층 여성으로서 장애아를 키워야 하는 불리한 처지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도 수행에 힘썼다. 아들인 사복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 여인이 성불은커녕 현명해지는 일조차 없으리라 여겼을 것이다. 어찌면 그런 통념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살았을 때 계를 받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불가(佛家)에서조차 비구와 비구니의 차별이 있었으니 말이다. 가령, 구족계를 받을 때도 남녀는 생리적 구조가 다르다며 비구니가 비구보다 더 많은 단계를 밟아야 했으며, 비구니 승가 스스로 구족계를 주지 못하고 비구 승가에서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사복의 어머니는 원효에게서 계를 받았다. 이는 출가자와 대등해졌음을 의미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불행한 처지의 이 과부는 수행을 통해 지혜의 범으로 불릴 만큼 뛰어난 성취를 보여주었으며, 마침내 연화장세계에 들어갔다. 불교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인의 몸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는 여성불성불론(女性不成佛論)이나 “남자가 되어야만 성불한다”는 변성남자설(變成男子說)까지 낳았으며,<sup>25)</sup>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대다수의 비구들은 그런 논리를 타당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사복의 어머니는 연화장

25) 불교에서 여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왜곡된 것이며 붓다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점에 대해 옥복연, 『불교 경전에 나타난 여성혐오적 교리의 재해석: 불교여성주의의 관점에서』, 『한국여성학』 31권 1호, 2015에서 자세하게 검토했다.

세계에 들어갔다. 사복의 계승에도 표현되어 있듯이 석가모니와 대등하게 열반에 든 것이다. 여인의 몸으로 해탈하고 성불한 것이다. 여성으로서 남성과 다르지 않고, 재가자로서 출가자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불에서조차 여성과 남성이 대등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sup>26)</sup>고 했다. 『유마경』에서 유마힐은 “일체의 중생이 모두 여여하고, 일체의 법이 또한 여여하며, 못 성인과 현자 또한 여여하고, 미륵 그대도 여여하다”<sup>27)</sup>고 말했다. 중생이 차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가에서 그런 차별은 널리 퍼져 있었으며 깊고 오래 되었다. 사복과 그 어머니는 미천한 사람과 고귀한 사람이 대등하다는 것, 장애인과 정상인이 대등하다는 것, 재가자와 출가자가 대등하다는 것, 여성이 남성과 대등하다는 것을 다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경전의 가르침을, ‘불이’의 교리를 그 삶에서 ‘대등’으로 구현하며 통념에 반론을 제기했다. 그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학승이자 스승인 원효를 뛰어넘는 성취도 아울러 보여주었다. 생사의 괴로움이 클수록 열반에 더 빨리 이를 수 있다는, 번뇌가 깊을수록 보리를 더 빨리 얻을 수 있다는 또 다른 불교의 논리를 입증한 셈이다.

## 5. 맺음말

<사복불언>은 『삼국유사』의 「의해」에 실린 조목들 가운데 가장 특이하다. 승려인 듯 승려가 아닌 사복에 관한 설화이면서 사복의 어머니

26) 『六十華嚴經』 권11, 「夜摩天宮菩薩說偈品」. “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

27) 『維摩詰所說經』 권1, 「菩薩品」. “一切衆生皆如也, 一切法亦如也, 衆聖賢亦如也, 至於彌勒亦如也.”

에 관한 설화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사의 전개에서 사복의 어머니는 핵심적인 구실을 한다. 사복의 수행 여부, 사복의 성취 수준, 사복의 성불 모두 그 어머니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복불언>이 「의해」에 실린 까닭은 사복과 그 어머니가 수행하는 과정 및 성불의 양상이 불교의 핵심 원리인 ‘불이(不二)’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일연의 찬사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그런데 출가 승려가 아닌 재가 신도라 할 모자가 그 불이를 구현했다는 데에 특성이 있다. 특히, 사복은 장애아였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중세 신라 사회에서 그들은 가장 비천한 존재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 그들이 원효의 가르침을 받으며 재가자로서 불도 수행을 시작해 마침내 원효를 넘어서는 경지에 이르고 함께 연화장세계에 들어갔으니,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사복과 그 어머니가 연화장세계에 들어간 일은 해탈이면서 성불이다. 이런 성취는 자신들의 처지를 그저 한탄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헤쳐나가려 애쓴 결과이며, 특히 기존의 통념, 즉 갖가지 차별적 인식을 이겨낸 결과였다. 사복은 하층민의 아들로서 불도 수행을 통해 장애아라는 신체적 결함을 극복했는데, 이 과정에서 하층과 상층, 재가자와 출가자, 장애인과 정상인이 대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어머니 또한 하층의 여성으로서 불도를 수행하며 지혜를 얻어 연화장세계에 들어갈 자격을 스스로 얻었다. 이는 하층/여성/재가자와 상층/남성/출가자가 대등함을 보여준 것이다.

요컨대, 모자는 수행 과정에서 ‘대등’의 논리를 보여주었고, 함께 연화장세계에 들어가는 동시 열반을 통해서 ‘불이’의 원리를 생동하게 구현했다. 이런 불이와 대등이 「의해」편의 다른 설화들에서도 작용하고 있는지, 나아가 『삼국유사』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이자 논리라고 할 수 있는지는 계속해서 검증해야 할 과제다. 그렇지만 <사복불언>을 「의해」편에 실어 그런 원리와 논리를 드러내려 했다는 데서 이미 일연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짐작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 강인구 외, 『역주 삼국유사 IV』, 이회문화사, 2003
- 慧皎, 『高僧傳』, 대정신수대장경 50-2059
- 贊寧, 『宋高僧傳』, 대정신수대장경 50-2061
- 法藏, 『花嚴經探玄記』, 대정신수대장경 35-1733
- 元曉, 『菩薩戒本持犯要記』, 한국불교전서 1
- 『六十華嚴經』, 고려대장경 8-1
- 『大智度論』, 고려대장경 14-493
- 『維摩詰所說經』, 고려대장경 9-977
- 강기희, 『대반열반경』, 민족사, 2000.
- 김상영, 「우란분재의 의미와 設行 역사」, 『불교학연구』 22, 2009, 173-221면.
- 김상현, 「사복설화의 불교적 이해」,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4집, 2013, 165-196면.
- 박서연, 「사복설화에 나타난 신라인의 윤회관 — 『범망경』과 관련하여」, 『동아시아불교문화』 36집, 2018, 193-222면.
- 옥복연, 「불교 경전에 나타난 여성혐오적 교리의 재해석: 불교여성주의의 관점에서」, 『한국여성학』 31권 1호, 2015, 95-121면.
- 이숙현, 「『우란분경』의 성립과 우란분재」, 『유학연구』 44, 2018, 247-276면.
- 정천구, 「중국 고승전의 체제 변화와 그 의미」, 『대순사상논총』 43집, 2022, 179-209면.
- 황패강, 「蛇福說話試論」, 『한국서사문학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72, 171-185면.

■ Abstract

**A Study on the practice and attaining Buddhahood  
of mother and son in <Sabokbuleon>**

**Jung, Chun Koo**

*Sabokbuleon*(蛇福不言) which means that Sabok does not say a word keeping silence is included in the Uihae(義解) section of *Samguk Yusa*. Uihae means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the meaning of Buddhist doctrine. The Uihae section of *Samguk Yusa* contains biographies of eminent monks who are outstanding in that respect. In particular, their practices and journeys for attaining Buddhahood are the core of biographies. We must also, therefore, focus on and interpret the *Sabokbuleon* in that context. Interestingly, not only Sabok but also his mother appeared as a major figure and participated in the practice of Buddhist discipline and attained Buddhahood. In this study, I will analyze the practice of Sabok and his mother and their attaining Buddhahood in the narrative of *Sabokbuleon*, and interpret its hidden meaning.

In *Sabokbuleon*, Sabok's mother was a widow who gave birth to a son without a husband; Sabok was a disabled son who could not speak nor stand up until he was twelve years old. Sabok's mother went to Wonhyo(元曉) and heard his teachings of Buddhism and told her son so that Sabok could also practice Buddhist discipline. And through mother, the uncertainties and the question of the son were conveyed to Wonhyo and the answer was given to the son again. In this process, the mother naturally became a Buddhist laywoman. Its meaning is contained in the words of Sabok who went to Wonhyo and said, "The cow on which you and I once loaded the Buddhist scriptures is now dead." Finally, Sabok became enlightened, and his mother became a tiger of wisdom which means that she achieved Buddhahood through practicing Buddhist discipline. It is proved by the fact that Sabok recited the song and entered the underground world called Yeonhwajang Segye(蓮華藏世界) with his mother's body. Sabok and his mother becomes Buddha at the same time.

The main principles hidden in the *Sabokbuleon* are non-dualism and equivalence.

These principles penet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idow as a laywoman, her son as the disabled, and Wonhyo as monk, and their respective practice and achievement. Sabok and his mother were not two as practitioners. Sabok realized that life-death and Nirvana is not separate but one and the same, and that this land of sentient beings is the land of the Buddha. The logic of equivalence was realized on the principle of non-dualism. In practicing Buddhist discipline, Sabok and his mother as a practitioner were equal to Wonhyo who renounced the mundane world, and the disabled and the normal were equal. And also in attaining Buddhahood, men and women were equal as revealed by the Sabok and his mother's becoming Buddha.

Key words: practice, becoming Buddha, lay practitioner, monk, non-dualism, equivalence

이 논문은 2023년 6월 26일 투고되어 2023년 7월 13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3년 7월 14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



## 20세기 초 하와이 한인 가족과 커뮤니티 양상

- 『두 이민의 꿈(The Dreams of Two Yi-min)』 분석을 중심으로 -

최희영\*

### 목차

1. 들어가며
2. 20세기 초 미주 한인 이민사 및 『두 이민의 꿈』 개요
3. 『두 이민의 꿈』에 서술된 가족
4. 『두 이민의 꿈』에 서술된 커뮤니티: 영남부인회
5. 나오며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세기 초 한인 이민자들의 삶을 다룬 『두 이민의 꿈(The Dreams of Two Yi-min)』에 나타난 당시 한인 가족과 커뮤니티의 양상을 살펴본다. 20세기 하와이는 미국 본토에 비해서 다섯 배 정도나 많은 숫자의 한인이 거주하여 당시 북미지역 한인사회를 대표하던 공간이었다. 『두 이민의 꿈』의 저자 마가렛 쾰 배(Margaret K. Pai, 1914~?)는 자녀 교육과 새로운 사업을 위해 오아후 도심 지역에 정착했던 전형적인 20세기 초 아시아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다. 『두 이민의 꿈』은 한인 2세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인 가족 및 커뮤니티를 기록한 자서전이기에 기존 디아스포라 한인 문화사 연구에서 소략하게만 다루어졌던 장녀로서의 부담이나 여성 조직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물론 여타의 아시아계 미국인 영화, 드라마 혹은 문학 작품에 서술된 이민자의 고된 삶, 세대

\* 노던일리노이대학교 역사학과 객원연구원.

간 갈등, 이중적 정체성으로 인한 혼란과 부담 등의 내용도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한인 가족 내 개인 사업, 결혼을 둘러싼 부모-자녀 간 갈등, 지방·정치적 색채를 드러낸 영남부인회의 다양한 활동 등은 일제강점기 하와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던 한인들의 삶을 좀 더 면밀하게 이해하게 해준다.

주제어: 마가렛 퀸 배, 두 이민의 꿈, 20세기 초 하와이, 아시아계 미국 여성, 가족 사업, 결혼, 영남부인회

##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20세기 초 한인 이민자들의 삶을 다룬 마가렛 퀸 배(Margaret K. Pai, 1914~?, 이하 ‘마가렛’으로 약칭)의 『두 이민의 꿈(The Dreams of Two Yi-min)』<sup>1)</sup>에 나타난 한인 가족과 한인 커뮤니티의 양상을 살펴본다. 『두 이민의 꿈』은 한인 2세 여성으로서 당시 한인 1세 한인들의 삶을 생생히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미국 태생의 여성 작가가 한국인 부모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 동일시하면서도 하와이에서의 청소년기 경험을 통해 부모 세대와 구별되는 ‘지역(민)’ 정체성 형성 과정을 잘 그려냈다고 평가받고 있다.<sup>2)</sup> 그렇다면 마가렛이 자신의 지역 정체성 형성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와이 한인 가족이나 한인 커뮤니티에 나타나는 특이성을 어떻게 묘사하였을까?

하와이는 20세기 초 미주 내 한인사회를 대표하던 공간이었다. 미국 본토에 비해서 다섯 배 정도나 많은 숫자의 한인이 머물고 있었으며

- 
- 1) Margaret K. Pai, *The Dreams of Two Yi-mi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9.
  - 2) Heui-Yung Park, *Korean and Korean American Life Writing in Hawai'i: From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to Hawai'i Nei*, Lanham: Lexington Books, 2015, p.53.

미주 한인 정체성이 전개되어 나간 곳이다.<sup>3)</sup> 한국계 이민자 중에 시민권을 소지한 자도 점점 증가하여 194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3분의 2 이상이 시민권을 지니고 있었다.<sup>4)</sup> 이 시기에 아시아계 이민자가 귀화로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한인사회의 큰 구성원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당시 하와이는 미국령으로 편입되어 있었다. 본토에서 온 ‘하올리(haole)’라 불린 백인 정착민들은 1893년 미국과의 합병을 주장하며 해병대의 도움을 받아 왕궁을 포위하고 릴리우오칼라니(Liliuokalani) 여왕으로부터 왕권 포기 서명을 받아냄으로써 하와이 왕족을 전복시켰다. 대신 등장한 하와이 공화국(Republic of Hawaii)은 1898년 하와이를 미국 영토로 편입시켰다. 백인 정착민은 19세기 중반부터 대농장 사업을 시작하여 노동력이 저렴한 아시아계 이민자 인력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해오고 있었다.<sup>5)</sup> 한국은 중국, 일본에 이어 뒤늦게 이민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러한 20세기 초 하와이를 배경으로 한 『두 이민의 꿈』은 하와이 한인의 다층적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재외한인 문학계에서 논의된 바 있다. 먼저 류선모<sup>6)</sup>는 미주 한인 2세 작품을 개괄하며 『두 이민의 꿈』이 한인 1세의 꿈을 성취한 가정 이민사, 한국계

3) Anne Soon Choi, “Hawaii Has Been My America”, *American Studies* 45-3, 2004, pp.140~141.

4) Brandon Palmer, 『하와이의 한인과 미국인 간의 관계(1903~1945)』,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5, 196면; Tae-Ung Baik and Duk Hee Lee Murabayashi,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Early Korean Immigration to Hawaii and its Legal Structure”, *Journal of Korean Law* 11, 2011, pp.94~95.

5) 최희영, 『정착형 식민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하와이 한인사회의 첫 영어 연극 분석』, 『한국예술연구』 32,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21, 105면.

6) 류선모, 『한국계 미국인 2세들의 자아 정체성 탐구 - 1990년대를 중심으로 -』, 『시민인문학』 8,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0, 161~203면.

이민족의 생존 투쟁사, 한국 독립운동을 그려내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브렌다 권(Brenda L. Kwon)<sup>7)</sup>은 저자 마가렛이 『두 이민의 꿈』에 투영한 하와이 지역 정체성을 강조하며 여기서 지역 정체성이란 “아시아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주민을 아우르며 한 세대 이상 하와이에 거주하면서 하와이 크리올 영어인 피진어(Pidgin)와 일부 행동 규범에 익숙하고 플랜테이션 역사를 경험한 이들”로서 공유되는 정체성이라고 정의하였다. 박희영(Park, Heui-Yung)<sup>8)</sup>은 브렌다 권과 마찬가지로 『두 이민의 꿈』이 하와이 문화, 언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작가의 지역 정체성을 보여주는 저서이며 정치적 입장의 복잡성, 연애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 한인 2세가 인식한 단순화, 이상화, 혹은 어두운 측면이 부각된 관념화된 한국을 다루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디아스포라 공연문화사 연구에서도 마가렛 권의 『두 이민의 꿈』이 등장한다. 하와이대학 극작 수업 보고서를 분석한 조세핀 리(Josephine Lee)<sup>9)</sup>, 한인 2세가 참여한 공연물에 담긴 정체성을 추적한 최희영<sup>10)</sup>의 논문 등이 그 예이다. 이 연구들은 연애, 결혼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당시 동양계 이민자 사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징이었음을 강조하며 이를 반영한 『두 이민의 꿈』을 언급하였다.

한편 하와이 한인 관련 연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하와이를 중심으로 한 북미 내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동지회, 국민회, 대조선독립단 등의 조직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정치 망명자들

7) Brenda L. Kwon, *Beyond Ke'eaumoku: Koreans, Nationalism, and Local Culture in Hawai'i*, CT: Taylor & Francis Group, 1999, pp.23~58.

8) Heui-Yung Park, 앞의 책, pp.53~64.

9) Josephine Lee, “Asian American (Im)mobility: Perspectives on the College Plays 1937-1955”, in *Recovered Legacies: Authority and Identity in Early Asian American Literature*, edited by Keith Lawrence and Floyd Cheung,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2005, pp.120~140.

10) 최희영, 『하와이 한인 2세의 연극 공연과 역사적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2, 341면.

의 독립운동<sup>11)</sup>과 기독교 문화에 기반을 둔 1세대 한인 이민자들의 재정적 원조와 선전·외교를 통한 정치 활동 참여<sup>12)</sup> 등에 주목하여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 나아가 한인 여성들의 독립운동<sup>13)</sup>과 역사 속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인물사를 밝힌 최근 연구들은<sup>14)</sup> 괄목할 만한 성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상기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두 이민의 꿈』 내용을 분석

- 
- 11) 고정휴, 「대한인동지회 회원 분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163~194면; 이덕희, 『한인기독교회 한인기독교학원 대한인동지회』, 한인기독교회·동지회, 2008; 홍선표, 「해방 이전 대한인동지회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417~463면; 김도형, 「하와이 대조선독립단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209~263면; 홍선표, 『자주독립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재미한인의 꿈과 도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1.
- 12) Do-hyung Kim and Yōng-ho Ch'oe, "The March First Movement of 1919 and Koreans in Hawai'i", *From the land of hibiscus: Koreans in Hawai'i 1903-1950*, ed. Yōng-ho Ch'o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0, pp.123~152; 홍선표, 「1900~1930년대 하와이 한인사회의 선전·외교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6, 5~42면.
- 13) 홍윤정, 「하와이 한인 여성단체와 사진신부의 독립운동」, 『여성과 역사』 26, 한국여성사학회, 2017, 1~26면; 장태한, 「3.1운동과 미주 한인사회」, 『한림일본학』 35,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9, 128~161면; 노선희, 「한인여성 디아스포라 공동체 연구 - 사진신부의 공동체, 영남부인실업동맹회(영남부인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34, 한국여성사학회, 2021, 151~192면.
- 14) Robert Hyung-Chan Kim, "Soon Hyun and His Leadership in the Hawaiian Branch of the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During World War II", *Acta Koreana* 15-1, 2012, pp.163~199; 이명화, 「재미 실업가 김종림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2, 113~168면; 박종연, 「在美韓人 黃思溶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2, 157~184면; 박순섭, 「1920~40년대 玄植의 재미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6, 5~47면; 박준현, 「하와이·미주 사회에서 閔贊鎬의 한인 교육과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7, 5~42면.

하여 (1) 하와이 한인 2세로서 가족 사업 승계나 한국계 배우자와의 결혼이 의무화된 가족 및 (2) 하와이 한인 1세 여성 모임 영남부인회(“The Youngnam Puin Hoe”로 기록)의 구체적 성격을 밝힌다. 두 측면 모두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sup>15)</sup>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확인, 보완할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놓친 구체적 일상의 면모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요컨대 본 논문은 20세기 초 하와이 한인 사회사의 연장선으로서 장녀이자 다문화사회 엘리트 여성인 한인 2세 여성 작가의 경험과 시선을 분석하여 당시 한인 가족과 커뮤니티를 좀 더 심도있게 이해하고자 한다.

## 2. 20세기 초 미주 한인 이민사 및 『두 이민의 꿈』 개요

1903년 1월 102명의 한인을 태운 갤릭호가 호놀룰루항구에 도착하면서 미주 한인 이민사가 시작되었다. 1905년 일본이 한국 외교권을 박탈하고 하와이 노동시장을 독점하고자 곧바로 한국인의 미주 이민을 중단하기까지 약 2년간 7000명이 넘는 한인들이 하와이로 이주했다. 당시 하와이는 사탕수수를 중심으로 한 노동집약적 농장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 하와이 농장 사업에 중요한 노동 인력으로 한국계 이민자가 투입되면서 미주 한인 이민사가 시작된 것이다.<sup>16)</sup> 이들은 대부분 미혼 남성이었다. 하와이 당국은 이들이 하와이 땅에 정착하여 계속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진신부 정책을 도입하였다. 사진신부 정책이 실행되었던 1910년부터 1924년에 이르기까지 900명이

15) 예를 들어 류선모, 앞의 논문, 161~203면; 홍윤정, 앞의 논문, 1~26면; 노선희, 앞의 논문, 151~192면; Heui-Yung Park, 앞의 책, pp.53~64; Brenda L. Kwon, 앞의 책, pp.23~58 참조.

16) 이현주, 『한말 인천의 화교유입과 하와이 이민』,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 한국 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8면.

넘는 미혼 여성들이 가족의 품을 떠나 하와이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sup>17)</sup>

농장노동자와 사진 신부로 이루어진 부모 사이에 2세들이 태어나면서 하와이 한인사회는 급격한 속도로 성장했다. 두 세대로 구성된 한인 가족은 다른 아시아계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1910년 후반부터 도심 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한인 1세들은 공장 일이나 자영업을 일구며 새로운 경제 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좀 더 나은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농장 일을 그만두고 오아후 내 도심 지역으로 이동했다.<sup>18)</sup> 한인 유학생들의 숫자도 3·1운동을 전후로 눈에 띄게 증가하여 한인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였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학업을 마친 후 미주 독립운동의 요충지인 하와이에 머물렀다.

마가렛은 노동자로 온 미혼 남성 이민자와 사진신부 사이에 태어난 전형적인 하와이 한인 2세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자서전 『두 이민의 꿈』에서 ‘두 이민’은 바로 아버지 권도인(Kwon Do In, 1888~1962)과 어머니 이희경(Lee Hee Kyung, 1894~1947)을 일컫는다. 권도인은 경상도 안동에서 태어나 안동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동경에 가서 대학에 들어갔다. 그가 17세가 되던 해인 1905년 2월 호놀룰루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어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희경은 경상도 대구에서 태어난 양반 가문 이조성의 딸이었다. 1912년 10월 그녀가 20세가 되던 해에 사진신부로 하와이에 도착하여 권도인과 결혼하였다.<sup>19)</sup>

대다수의 다른 한인 2세들과 마찬가지로 마가렛은 오아후 호놀룰루 주변을 중심으로 한 도시 삶에 익숙했다. 한 번도 농장에 살거나 농장

17) Tae-Ung Baik and Duk Hee Lee Murabayashi, 앞의 논문, pp.93~94.

18) Wayne Patterson, *The Ilse: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s in Hawaii, 1903-1973*,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0, pp.68~79.

19) 류선모, 앞의 논문, 168면.

일을 도운 적이 없던 그녀였다. 어머니 이희경이 결혼할 당시 24살이었던 아버지 권도인은 마노아 계곡의 한 사업가 집에서 하인으로 허드렛일을 거들고 있었다. 이후에는 주인집 작은 땅을 빌려 채소를 경작하는 등 자립하고자 애쓴 점이 엿보인다. 이민 직후에는 한 달에 16달러씩 받고 4년간 사탕수수 농장에서 힘든 일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러던 중에 농장 일로 삶을 이어가는 것이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인 호놀룰루로 나서게 된 것이다. 동년배 한인 남성중에 다수도 도시로 이동하여 하인이나 세탁소 조수와 같은 일을 하다가 자금을 모아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다. 권도인의 경우 하인으로 일하던 중 친지의 소개로 우연히 가구회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었다. 그는 자신만의 가구회사를 설립하고 7종류의 특허를 얻어 한때 상당한 부를 이루었다.

이희경이 하와이에 이주한 지 2년이 지나고 권도인이 가구업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무렵, 두 부부의 첫 아이가 탄생했다. 그가 바로 『두 이민의 꿈』의 저자 마가렛이다. 마가렛 이후 남동생 영만과 영철, 여동생 에스더가 태어나 권도인과 이희경은 2남 2녀의 자녀를 두었다. 장녀이자 하와이 도심 내 공교육을 받은 엘리트 여성 마가렛은 『두 이민의 꿈』을 통해 20세기 초 하와이 한인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다.

### 3. 『두 이민의 꿈』에 서술된 가족

앞서 언급하였듯이 『두 이민의 꿈』은 노동자와 사진신부 신분으로 이민하여 가정을 이룬 한인 1세 부부가 자신들의 경제 활동과 2세 교육을 위해 오아후 도시에 정착한 전형적인 20세기 초 하와이 한인 가족을 배경으로 한다. 저자 마가렛은 한인 2세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떠맡고

있던 임무나 부담감에 관하여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 1) 가족 사업 조력과 한국계 이민자와의 결혼을 통한 효도

효도라는 명목하에 의무화된 첫 번째 임무는 가족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아버지 권도인은 1924년 대나무 발로 미국 특허를 획득하였으며, 1928년 ‘포인시아나 블라인드(Poinciana Blind)’라는 상호로 첫 개인 가구점을 차렸다. 기쁨도 잠시 1929년 경제 대공황으로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공황을 가까스로 이겨내어 1936년 다시 가구점을 열었고, 이후 그의 사업은 크게 번창하였다. 권도인 개인의 꿈을 달성하는 가운데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는 희생이 요구되었다. 마가렛은 아버지의 사업이 안정세에 접어들기 전 지나간 세월을 동생들과 함께 기계 소음, 지독한 페인트 냄새, 먼지 속에서 힘겹게 성장했음을 고백하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가구 사업과 관련하여 마가렛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경제 공황 시기의 어려움이다. 당시 마가렛의 부모는 날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마가렛을 비롯한 자녀들은 비록 사업의 내용조차 인식하지 못했으나 적어도 그들이 영위하는 삶이 매우 불안정함을 감지하면서 생존하고 있었다. 점점 아버지 사업에 조력은 효도란 이름 아래 당연하게 여겨졌다. 이러한 효에 관한 담론은 류선모의 연구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다.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권도인]는 자녀교육을 통해서 한국의 전통사상을 전수시켰기에 한 민족의 전통사상인 “효성”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 주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또한 그들 부모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국의 고유한 사상인 정직과 중용과 선을 잘 가르쳐왔지만 옛 풍습인 효행을 따르는 것은 그들에게 선한 행동과 건전한 생활을 가르침에 있어 가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충돌을 일으키곤 했던 것이다.<sup>20)</sup>

마가렛은 『두 이민의 꿈』 후반부에서 그녀의 부모님을 떠올리며 고된 일, 큰 희생, 최상의 기쁨(hard work, great sacrifice, and ultimate joy) 등을 경험하며 잠시나마 풍족한 삶을 향한 그들의 꿈을 이루어낸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sup>21)</sup> 자녀들이 안락한 삶을 꾸려 나가길 원하는 한인 1세들의 고군분투 속에서 때로는 갈등을 마주해야 했다. 하단은 아버지가 하와이에서 서부 지역으로 사업장을 확장한 후 마가렛이 감수해야 했던 부담에 관한 구절로 이러한 갈등을 드러낸다.

아버지는 [서부에서의 사업 확장에 관하여] 갑자기 선포하셨고 이에 관련한 몇 가지 발언으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셨다. 먼저, 아버지는 나와 내 남편을 새 지점을 맡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서부로 보내기로 결정하셨다. ...(중략)... 물론 나는 반대했다. “제 남편과 제가 그 조그만 애들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란 말씀이세요? 이토록 갑작스러운 통보로 인해 왜 우리가 익숙하지도 않은 도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해요?” 아버지의 응답은 역시 효도에 관한 것이었다. 역시나 많은 연설 중에 늘 첫 번째로 등장해왔던 주제였다. “네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가족 사업이야. 우리가 모두 함께 일구어야 하는 것이지. 너희 엄마도 이 사업을 일구는 데에 힘쓰셨단다. 이제는 우리의 임무이자 너희 형제, 자매의 임무란다.”<sup>22)</sup>

20) 류선모, 앞의 논문, 169면.

21) Margaret K. Pai, 『두 이민의 꿈』, 54면.

22) Margaret K. Pai, 『두 이민의 꿈』, 171~172면. 저자 번역.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He[The father] made announcements and issued statements that surprised us. First, he had decided to send me and my husband, with our children, to take charge of the new branch. (...) I protested. Why should my husband and I with our two little ones be uprooted? How could we inaugurate the new business in a strange city on such short notice? Then followed a speech on filial piety, the first of many on the subject I was to hear. “How can you say that? This is our family business, a business for all of us. We should all work together. You mother helped build it. Now it is our duty and your brothers’ and sister’s.”

위의 인용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마가렛의 아버지는 효도를 재차 강조 하면서 그 방법의 하나로 마가렛을 가구 사업에 흡수시켜 했다. 그녀는 이러한 강요가 한국인은 물론 한국 커뮤니티에 대해 반감을 불러일으켰다고 고백한다. 아버지가 마가렛에게 강요한 한인 2세로서의 올바른 행실(propriety)이나 한민족성(Koreanness)으로 인해 마가렛은 하와이 한인으로서 정체성에 관한 혼란을 겪었다.<sup>23)</sup>

또 다른 효도의 방법은 한국계와 결혼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일본계 이민자 자손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다행히도’ 한국계 2세를 배우자로 맞이한 마가렛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부모 및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다. 마가렛은 “한국 커뮤니티의 격노를 피하고 우리 가족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다른 민족, 특히 일본계 이민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관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sup>24)</sup> 이는 결혼식 장면에서 한인 1세 여성들 대화를 엿듣는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일본계 배우자를 맞이한 자식을 둔 한 한인 1세 부인이 모임 중에 상당한 수치심을 드러내며 울분을 토하며 울고 다른 이들은 이 부인을 동정(sympathy) 어린 눈길로 위로하는 장면이 그러하다.

## 2) 장녀로서의 부담과 의무감

여기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남녀에 상관없이 동일한 형태로 효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마가렛의 부모는 아들이나 딸 여부에 상관없이 자녀들이 모두 이민 사회에서 성공하여 안락한 삶을

23) Brenda L. Kwon, 앞의 책, 52면.

24) Margaret K. Pai, 『두 이민의 꿈』, 128~129면. 저자 번역.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I thought it was important to marry a Korean, not a Japanese or any other nationality, to avoid the wrath of the Korean community and escape bringing embarrassment to my family.

누리길 원했다. 그녀의 부모 모두 요리나 바느질과 같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렇기에 마가렛에게 가르친 적도 없었다. 자녀들이 그들의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고등 교육받기를 원했다. “공부 열심히 해!”가 매일의 잔소리일 정도로 학업 성과에 대한 기대가 컸다.<sup>25)</sup> 마가렛은 물론 아래 여동생이 학위를 이어 나갈 때도 반대는커녕 응원과 지지로 일관한 그들이었다.

반면 장녀로서의 부담이 강조되었다. 가령, 마가렛은 이회경이 조부모가 위독하여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 대학생이던 그녀는 요리와 집안 살림을 하며 말 안 듣는 동생들과 실랑이하며 외롭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메꾸어 나갔다. 당시의 힘들었던 시간을 떠올리며 그녀 자신을 대리모(surrogate mother)라고 표현할 정도였다.<sup>26)</sup> 아버지 공장에서 전화 응대 혹은 은행 등의 잔무처리를 할 때도 당연히 도와주어야 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었다.

앞서 언급한 인용구에서 보여지듯이 그녀가 다른 형제나 자매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아버지 사업을 이어 나가는 일은 장녀로서 효를 행하는 도리 중 하나였다. 마가렛은 2차 세계대전 후반부에 미군에 복무하고 돌아온 남편이 전쟁으로 인하여 중단했던 학위를 이어가기를 원했다. 마가렛은 결국 효도란 의무감에 이러한 꿈을 접고 가족과 함께 아버지를 따라 서부로 가서 새로운 삶을 꾸렸다. 남편의 학위 취득은 결국 서부에서의 사업이 실패하여 다시 하와이로 돌아온 이후에야 이룰 수 있었다.<sup>27)</sup>

결혼의 의무에서도 장녀를 향한 기대감은 더욱 컸던 것으로 여겨진다. 마가렛의 결혼식 준비 과정 묘사에서 결혼식이 전쟁 중에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피로연을 크게 준비했다. 이는 “첫 자식의 결혼식이지만

25) Margaret K. Pai, 『두 이민의 꿈』, 45~46면.

26) Margaret K. Pai, 『두 이민의 꿈』, 100~101면.

27) Margaret K. Pai, 『두 이민의 꿈』, 181면.

꿈” 크게 열어야 한다는 한인 커뮤니티의 제안 때문이었다.<sup>28)</sup> 물론 아들을 가져야 하는 의무감 특히 장남을 향한 기대는 한국계 이민 가정에 존재했다. 마가렛 스스로도 첫째 임신 후 아들이 아님을 알고 남편이나 시댁에서 실망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들이 집안의 자랑으로 여겨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sup>29)</sup> 또한 그녀는 서부에서 아버지 사업이 안정을 잡은 후에 집안의 장남인 영만에게 맡기려고 마음먹고 있었다.<sup>30)</sup> 이러한 마가렛의 서술은 사업이나 결혼 면에서 장녀의 부담이나 의무감이 아들 혹은 장남만큼이나 크게 자리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20세기 초 하와이 한인 2세는 가족 사업에 조력, 한국계 배우자와 결혼 등을 통해 효를 행하기를 기대되었다. 그 과정에서 남녀 차별은 가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나 장녀로서의 부담과 의무감을 감내해야 했다. 이어질 장에서 논할 특정 출신 지역에 기반한 1세대 한인 모임은 이러한 한인 2세들을 향한 소위 ‘바른 한인’ 청년으로서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었다.

#### 4. 『두 이민의 꿈』에 서술된 커뮤니티: 영남부인회

『두 이민의 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한인 조직은 1928년 결성된 영남 출신 부인들 모임인 영남부인회이다. 미주 내에서는 처음으로 조성된 출신 연고지에 기반한 모임으로 영남 출신이었던 사진신부들이 그 구성원이었다. 사진신부 중 상당수가 영남 출신 여성들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단적인 예로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발급받은 한인들의

28) Margaret K. Pai, 『두 이민의 꿈』, 129면.

29) Margaret K. Pai, 『두 이민의 꿈』, 142면.

30) Margaret K. Pai, 『두 이민의 꿈』, 179면.

여권에는 여권 소지자의 한국 거주지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경상도 지역이 전체의 36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sup>31)</sup> 당시 미국령 입국자 대부분이 사진 혼인을 매개로 하와이에 온 사진신부였다는 점을 주지 하면 상당수의 영남 출신 미혼 여성들이 하와이에서 가정을 이루어 정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영남부인회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의 연고지인 영남 지방에 대한 애착이 강하며 지방색을 보여주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영남부인회가 조직될 때 경상도 출신 사진신부 중 한 명이었던 천연희도 참석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영남부인회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방 감정으로 조직된 사교 단체”라는 이유로 탈퇴하였다.<sup>32)</sup> 반대로 이해 하면 영남부인회가 그만큼 지방색을 표출하면서 활동을 이어갔음을 알 수 있다. 신문 및 인터뷰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영남부인회 활동사를 다룬 연구는 노선희의 최근 논문<sup>33)</sup>이 유일하다. 노선희는 영남부인회가 자매애를 기반으로 연대감을 보여준 조직으로 ‘계’와 같은 비공식 경제 활동, 조선 독립 지원 및 영남 자연재해 피해민을 돕기 위한 의연금 모금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음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영남부인회를 사진 혼인이라는 특수한 경험과 경상도 출신이라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사교 모임으로 ‘도시’에서 새롭게 형성된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조성된 공동체<sup>34)</sup>로 정의하였다. 마가렛은 그녀의 일상에서 영남부인회 회원들을 마주했기에 노선희가 밝힌 영남부인회 활동은 물론 이들의 일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다.

### 1) 반이승만적 정치 성향의 조국 독립운동과 상호 부조 활동

31) 홍윤정, 앞의 논문, 8면.

32) 사진신부 천연희에 관하여는 문옥표 외,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일조각, 2017 참조.

33) 노선희, 앞의 논문, 151~192면 참조.

34) 위의 논문, 172면.

『두 이민의 꿈』에 서술된 영남부인회 회원들은 대부분 한인감리교회에 다니는 기독교 신자였다. 예배 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오후에 모임을 했다.<sup>35)</sup> 정규 모임 이외에도 이들은 빈번한 만남을 가졌는데 다음 구절은 얼마나 이들의 사교 모임이 일상이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나는 걸어서 집에 도착했다. 부인들의 웃고 떠드는 목소리가 들렸다. 내 기억으로는 그날 영남부인회 회원들이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거실에 들어섰을 때 꺼렁꺼렁 울리는 높은 피치의 격양된 목소리에 나는 양 귀를 두 손으로 꼭 막았다. 왜들 그렇게 한꺼번에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sup>36)</sup>

이들이 먹고 마시며 시끌벅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마가렛이 묘사한 부분이다. 사춘기 시절의 마가렛은 빈번한 영남부인회 사교 모임을 귀를 양손으로 닫아 버릴 만큼 왁자지껄하고 요란스러웠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물론 영남부인회의 목적이 단순한 사교모임만은 아니었다. 조국 독립을 갈망하며 박용만(朴容萬, 1881~1928)을 지지하고 이승만(李承晩, 1875~1965)에 반대하는 정치 성향을 드러내고 있었다. 사실상 영남부인회 창단 배경 자체가 이러한 반이승만적 정치 성향을 담고 있었다. 1928년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던 영남 출신의 이극로(李克魯, 1893~1978)가 하와이에 잠시 체류하며 국어강연을 한 적이 있었다. 수많은 사진신부 한인 여성들은 같은 영남 출신인 이극로를 환대했다. 이때 이승만은 이극로를 시기하여 강연 장소로 빌렸던

35) Margaret K. Pai, 『두 이민의 꿈』, 7면.

36) Margaret K. Pai, 『두 이민의 꿈』, 63면. 저자 번역.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I walked toward the home. I could hear women's voices, laughing and chatting. I remembered the Youngnam Puin Hoe ladies were holding their meeting at our house that day. When I entered the living room I came upon such a crescendo of high-pitched and excited voice that I raised my hands to cover my ears. Why was everyone talking at once, I wondered.

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또한 이승만은 “경상도 놈이 박사면 아는 것이 얼마나 되며, 국어는 얼마나 안다고 강연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위험한 발언을 하여 영남 출신 부인들의 심기를 건드렸다.<sup>37)</sup> 이 사건을 계기로 1928년 9월 27일에 영남부인회를 조직하게 된 것이다.

『두 이민의 꿈』에 이러한 영남부인회의 설립 배경이 묘사되어 있는 않다. 그러나 어머니 이희경의 반이승만적 성향은 여러 곳에서 드러난다. 먼저 이희경이 독립운동을 하러 고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조국 독립을 향한 열망이 수그러진 상황을 마주하며 몹시 안타까워했다. 이 장면에서 마가렛은 이승만파와 박용만파로 나뉘어 한인사회 내 갈등이 가시화된 배경과 과정을 3인칭 시점에서 3-4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sup>38)</sup> 이후 부모의 정치적 견해를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다시금 1인칭 시점으로 돌아가 “엄마 아빠 모두 감리교로 남아 있었고 교회에 충성하였다...(중략)...엄마는 특히 용병을 키워서 일본을 축출하려는 박용만의 꿈을 지지했다”라고 밝혔다.<sup>39)</sup> 이어서 이희경이 평화적 시위로 독립을 이루어내는 계획을 회의적으로 바라보았으며 이승만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해방을 이루어낼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음을 명시하였다.<sup>40)</sup>

책의 후반부에서는 아버지 권도인이 1962년 생을 마감하기 전 조국 땅을 밟아보려고 시도한 장면을 회상한다. 이때 이전 박용만 지지자들을 꺼리는 이승만 정권과 이를 빌미로 간접적으로 비자 발급에 뇌물을 요구하는 일본 주재 대사관 직원이 등장한다.<sup>41)</sup> 결론적으로 권도인의 고국 땅 방문의 꿈은 무산되고 만다. 반이승만적 행보가 단순히 일제강점 시기에 개인적 정치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독립을 이

37) 노선희, 앞의 논문, 168~169면.

38) Margaret K. Pai, 『두 이민의 꿈』, 38~41면.

39) Margaret K. Pai, 『두 이민의 꿈』, 41~42면.

40) Margaret K. Pai, 『두 이민의 꿈』, 42면.

41) Margaret K. Pai, 『두 이민의 꿈』, 163면.

룬 이후 일상의 삶에까지 영향을 주었음을 예증하는 부분이다.

확연한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며 영남부인회가 달성하고자 한 궁극적 목적은 조국 독립이었다. 회원들은 어느 날 대규모 시위 계획 즉 3.1운동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 조국 독립운동에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접하고는 저마다 힘들게 번 돈을 내놓았다.<sup>42)</sup> 영남부인회는 한인 대표를 파견하여 자금을 직접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때 영남 부인 대표로 보낸 사람이 바로 마가렛의 어머니 이희경이었다.

이희경은 1918년 7월 중순 즈음에 고국으로 출발하면서 당시 세 살이던 딸 마가렛을 데리고 갔다. 이 모녀가 다시 하와이로 돌아온 것은 3년 뒤였으니 마가렛이 6살 되던 해였다. 이희경은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마가렛을 대구 친정집에 맡긴 후 독립운동 관련 인사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다. 이후에는 아예 서울로 활동지를 옮겨 이화여대에 등록한 후 3.1운동에 동참하였다.<sup>43)</sup> 어떠한 경로를 따라 이희경이 상경하여 이화여대에 입학하였고 다른 교우들과 구체적으로 어떤 독립운동을 펼쳤는지는 『두 이민의 꿈』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당시 마가렛은 외갓집에 홀로 남겨졌고 어머니의 소식을 동네 사람들과 외조부모와의 대담을 통해서만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희경의 독립운동 참여와 영남부인회의 재정적, 정신적 지원에 관한 사실만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sup>44)</sup>

영남부인회 서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분은 상호 부조 활동 모습이다. 기존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계’ 모임은 영남부인회가 펼친 경제 활동 중 하나였다. 영남 부인들이 어떻게 서로의 가족 행사를 도와주었

42) 영남부인회는 회원이 150여명까지 성장하였으며 독립 의연금 모금에 있어 다른 한인 단체에 비해서 월등한 실적을 냈다. 영남부인회 회장이자 마가렛의 어머니였던 이희경은 특과원 경비로 25원, 군사금으로 100원을 납부 하는 등 상당한 금액의 독립운동 자금을 기부하였다(홍윤정, 앞의 논문, 9면 참조).

43) Margaret K. Pai, 『두 이민의 꿈』, 24~33면.

44) Margaret K. Pai, 『두 이민의 꿈』, 8~9면.

는지 『두 이민의 꿈』에 삽입된 결혼식과 장례식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1942년과 1947년 각각 거행된 마가렛과 영만의 결혼식을 영남 부인회가 돕는 부분의 묘사는 당시 모습을 상기시킨다. 전자가 장녀를 위한 행사란 점에 무게감을 두었다면 후자는 장남의 결혼이자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의 첫 ‘잔치’였던 만큼 한인사회의 관심이 상당했다. 3개월에 걸쳐 진행된 결혼식 준비는 부인회 모임 전체의 행사였다. 하객 리스트만도 천명에 가까운 숫자였다고 기록한 부분에서도 얼마나 큰 행사였는지 짐작이 간다.

마가렛은 이에 관하여 “한국에서는 ‘양반’의 아들이 결혼하면 마을 사람을 모두 초대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sup>45)</sup> 어머니인 이회경이 양반 출신이었던 만큼 자연스럽게 부인회의 기대에 맞게 준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회경이 양반 출신 자녀였던 점이 한인사회에서 많이 강조되었기에 마가렛도 이를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카테고리 중 하나로 인지하였으리라 여겨진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연구를 통해 살펴보아야겠지만 출신지뿐만 아니라 본국 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도 영남부인회 리더를 선발하는 데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영남부인회는 장남인 영남의 결혼식을 위해 모든 종류의 김치를 담그며 심지어 간장까지 손수 만들고 갖가지 전, 나물, 약과와 약식 등까지 준비했다. 마가렛 자신의 결혼식 준비 장면과 대동소이했다. 이러한 전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마가렛의 서술을 통해 영남 부인회가 각 가정의 대소사를 마치 친가족처럼 도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잔치 분위기는 이회경이 영만의 결혼식 바로 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면서 우울한 분위기로 전환된다. 마가렛은 장례 절차에 관하여도 부인회 회원들이 모든 절차를 도우며 직접 조문객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나르기까지 했음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이러한 한

45) Margaret K. Pai, 『두 이민의 꿈』, 151~158면.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In Korea the whole village was invited when a *yangban*'s son was married.

국식 장례 절차 가운데 기독교식 문화도 함께 어우러져 중간중간 장례 예배가 진행되었다. 결혼식 대신에 장례식이 되어버린 이 슬픔 가운데 영남부인회는 음식 준비를 중심으로 모든 절차에 참여하고 있었다.

## 2) 서울출신 여성들에 대한 견제와 미국 주류 문화에 적응

상기한 『두 이민의 꿈』에 등장하는 영남부인회는 해당 조직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보완적 서술로 그 구체적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상세히 다루지 못했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먼저 영남부인회 모임의 담소 장면에는 간접적으로 지역색을 드러내며 특히 서울 출신 여성들에 대한 견제 혹은 반감을 반영한 부분이 삽입되어 있다. 마가렛은 영남부인회 회원들이 서울 출신 부인 ‘실라(Silla)’에 대해 뒷담화하는 장면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불이 밧그레한 예쁘장한 얼굴에 쪽진 머리를 한 영순이란 이름의 부인이 웃음을 뺨으며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 서울에서 온 단아하고 고상하신 신라 여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영순은 그때 무릎을 펴고 일어나 구겨진 보랏빛 치마를 펴며 신라의 고상한 척하는 오버스러운 몸짓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고개를 양쪽으로 흔들고 입술을 오무리며 한껏 꾸민 높은 툄로 말하기를, “어머, 그래요? 몰랐어요. 익스큐즈미, 플리스.” 이렇듯 과장되고 왜곡된 조로 서울 출신의 점잖은 한 부인을 따라하자 (부인회) 회원들의 무릎을 치며 폭소했다. 이에 순영이 앉으며 말했다. “신라는 경상도 출신인 우리를 참말로 역세고 시끄럽다고 생각할 거야. 하하하!”<sup>46)</sup>

46) Margaret K. Pai, 『두 이민의 꿈』, 64면. 저자 번역.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young woman named Soon Young, her pretty face flushed, her black hair bunned in the back, began relating in spurts and giggle: “We were just talking about Silla Eun—you know—that prim and proper lady from Seoul.” Soon Young then rose to her knees, straightened her ruffled purple chi-ma and began mimicking the

하와이 한인 1세 여성 사이에 지역에 따른 견제가 존재하였음을 시사하는 장면이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뒷담화를 한인 2세 마가렛이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한인 2세의 한인 1세 조직 간 정치적 갈등에 관한 비판적 시선은 기존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sup>47)</sup> 이러한 비판적 시선이 단순히 정치적 갈등이 아닌 출신 지역 차로 인한 견제에도 존재했음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sup>48)</sup>

더불어 영남 출신 부인들의 미국 주류 문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한 활동을 서술한 장면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영남부인회 회원들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옷 수선을 배웠는데 점점 치마와 저고리를 수선하는 대신 미국식 원피스를 만들어 입기 시작했다. 이에 점점 많은 한인 1세 여성들이 서양식 의복을 입는 일이 많아졌다. 어느 날 마가렛이 그녀의 집에서 몇몇은 치마와 저고리를 다른 이들은 서양식 원피스를 입은 채 먹을 것을 나누는 부인회 모습을 흥미롭게 기록한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sup>49)</sup> ‘계’, 음식, 결혼식 등의 한국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추억하려는 활동과 대조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본 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남부인회는 미주 지역에서 최초로 출신 지역색, 정치적 성향을 표출한 한인 1세 여성 조직으로 각

---

overly mannered Silla. Turning her head side to side, pursing her lips, and in a high, affected tone Soon Young murmured, “Oh, is that so? I did not know that. Ex-cuse me, please.” The exaggerated twisting movements imitating a refined lady from the capital of Korea brought guffaws and slapping of thighs from the audience. Before sitting down, the mimicker said, “Silla must think we from Kyungsangdo are so crude and loud. Ha!Ha!Ha!”.

47) 이에 관하여는 Anne Soon Choi, “‘Are They Koreaned Enough?’ Generation and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before World War II”, *Amerasia Journal* 29-3, 2003, pp.57~78; Heeyoung Choi, “Political Reconciliation through the Performing Arts: Selected Activities of Koreans in Early Twentieth-century Hawai’i”,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24-1 2021, pp.239~264 참조.

48) 이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은 추후 연구를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49) Margaret K. Pai, 『두 이민의 꿈』, 62~63면.

회원의 대소사를 적극적으로 돕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갔다. 『두 이민의 꿈』을 통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함은 물론 영남 부인들의 서울 출신 부인들을 향한 견제, 이러한 지역 간 갈등을 바라보는 한인 2세들의 냉소적 시선, 미국 주류 문화에 동화하려는 노력 등 구체적인 생활사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 5. 나오며

본 연구는 한인 2세 여성 마가렛의 자서전 『두 이민의 꿈』 분석을 통해 본국이 일제 강점기에 놓인 상황에서 미주 내 가장 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던 하와이 내 한인 가족과 커뮤니티 양상을 이해하고자 했다. 본문에서 주지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당시 하와이 한인 2세는 가족 사업에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한국계 배우자와 결혼함으로써 효를 행하기를 기대되었다. 그 과정에서 남녀 간 차별은 가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나 장녀로서의 기대감에 충족해야 했다. 한인 2세들은 이른바 ‘바른 한인’ 청년으로서의 부담을 지녀야만 했다. 이 범주에서 벗어난 이들은 가족의 수치로 상징되었다.

특정 출신, 종교, 정치적 성향의 모임으로 구성된 1세대 한인들은 상기한 한인 2세들을 향한 부담을 증대하였다. 특히 『두 이민의 꿈』에 자주 등장하는 영남부인회의 존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남부인회는 경상도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하며 끈끈한 지방색을 보여주는 영남 출신 사진신부로 구성되었으며 단순한 사교모임을 넘어서서 조국 독립을 갈망하고 반이승만적 정치 성향을 드러내고 있었다. 또한 마가렛과 마가렛 남동생의 결혼식 장면으로부터 영남부인회 회원들이 모든 가족 행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두 이민의 꿈』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시켜 줌은 물론 영남 부인들의 서울 출신

부인들을 향한 견제, 지역 출신에 따른 갈등을 바라보는 2세들의 냉소적 시선, 미국 주류 문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의지 등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영남부인회의 구체적 생활상을 새롭게 상기시켜 준다.

과연 마가렛이 소개한 두 이민의 꿈은 실현된 것일까? 두 이민은 단순히 두 ‘사람’의 이민이 아닌 두 ‘측면’의 이민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가족이란 틀 내에서 권도인은 잠시나마 사업에 성공했고 자녀들 모두가 대학 교육을 받아 이희경의 꿈을 대신 이루었다. 커뮤니티 측면에서 한인사회는 민족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는 동시에 미국 주류 문화에 적응해 나갔다. 무엇보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대가를 겪은 후에야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토록 염원하던 대한 조국의 독립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최근 아시아계 미국인에 관한 영화나 문학 작품에서술된 이민자의 고된 삶, 세대 간 갈등, 이중적 정체성으로 인한 혼란과 부담 등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하와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한인 가족 내 개인 사업이나 결혼을 둘러싼 부모-자녀 간 갈등, 그 과정에서 장녀에게 부가된 부담과 의무감, 지역 출신 간 알력이나 주류 문화 적응을 반영한 영남부인회 사모임 등 20세기 초 하와이 한인의 일상을 좀 더 면밀하게 파헤쳤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본 연구가 디아스포라 한인 문학을 검토하고 그 분석을 통해 국내·외 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이해의 반경을 넓히는 시도들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 ■ 참고문헌

고정휴, 「대한인동지회 회원 분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163~194면.

- 김도형, 「하와이 대조선독립단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209~263면.
- 노선희, 「한인여성 디아스포라 공동체 연구 - 사진신부의 공동체, 영남부인 실업동맹회(영남부인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34, 한국여성사학회, 2021, 151~192면.
- 류선모, 「한국계 미국인 2세들의 자아 정체성 탐구-1990년대를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8,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0, 161~203면.
- 문옥표 외,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일조각, 2017.
- 박순섭, 「1920~40년대 玄楯의 재미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6, 5~47면.
- 박종연, 「在美韓人 黃思潑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2, 157~184면.
- 박준현, 「하와이·미주 사회에서 閔贊鎬의 한인 교육과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7, 5~42면.
- 이덕희, 『한인기독교회 한인기독교학원 대한인동지회』, 한인기독교회·동지회, 2008.
- 이명화, 「재미 실업가 김종림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2, 113~168면.
- 이현주, 「한말 인천의 화교유입과 하와이 이민」,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1~28면.
- 장태한, 「3.1운동과 미주 한인사회」, 『한림일본학』 35,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9, 128~161면.
- 최희영, 「정착형 식민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하와이 한인사회의 첫 영어 연극 분석」, 『한국예술연구』 32,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21, 99~121면.
- \_\_\_\_\_, 「하와이 한인 2세의 연극 공연과 역사적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2, 329~354면.
- 홍선표, 「1900~1930년대 하와이 한인사회의 선전·외교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6, 5~42면.

- \_\_\_\_\_, 『해방 이전 대한인동지회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417~463면.
- \_\_\_\_\_, 『자주독립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재미한인의 꿈과 도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1.
- 홍윤정, 『하와이 한인 여성단체와 사진신부의 독립운동』, 『여성과 역사』 26, 한국여성사학회, 2017, 1~26면.
- Baik, Tae-Ung., and Duk Hee Lee Murabayashi,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Early Korean Immigration to Hawaii and its Legal Structure”, *Journal of Korean Law* 11, 2011, pp.77~99.
- Choi, Anne Soon., “‘Are They Koreaned Enough?’ Generation and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before World War II”, *Amerasia Journal* 29-3, 2003, pp.57~78.
- \_\_\_\_\_, “Hawaii Has Been My America”, *American Studies* 45-3, 2004, pp.140~141.
- Choi, Heeyoung., “Political Reconciliation through the Performing Arts: Selected Activities of Koreans in Early Twentieth-century Hawai‘i”,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24-1, 2021, pp.239~264.
- Kim, Do-hyung and Yǒng-ho Ch’oe., “The March First Movement of 1919 and Koreans in Hawai‘i”, *From the land of hibiscus: Koreans in Hawai‘i 1903-1950*, ed. Yǒng-ho Ch’o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0, pp.123~152.
- Kwon, Brenda L., *Beyond Ke‘eaumoku: Koreans, Nationalism, and Local Culture in Hawai‘i*, CT: Taylor & Francis Group, 1999.
- Lee, Josephine., “Asian American (Im)mobility: Perspectives on the College Plays 1937-1955”, in *Recovered Legacies: Authority and Identity in Early Asian American Literature*, edited by Keith Lawrence and Floyd Cheung,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2005, pp.120~140.
- Pai, Margaret K., *The Dreams of Two Yi-mi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9.
- Park, Heui-Yung., *Korean and Korean American Life Writing in Hawai‘i: From*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to Hawai'i Nei*, Lanham: Lexington Books, 2015.

Patterson, Wayne., *The Ilse: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s in Hawai'i, 1903-1973*,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0.

Kim, Robert Hyung-Chan., "Soon Hyun and His Leadership in the Hawaiian Branch of the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During World War II", *Acta Koreana* 15-1, 2012, pp.163~199.

■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 Family and Community in Early  
Twentieth-century Hawai'i**

- Focusing on Narratives in *The Dreams of Two Yi-min* -

**Choi, Hee Young**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Dreams of Two Yi-min* written by Margaret K. Pai, a second-generation Korean women, to grasp Korean family and community in early twentieth-century Hawai'i. Margaret was a typical second-generation of the Korean Hawaiians, who were from family consisting of plantation contract workers and picture brides. She, as a Korean Hawaiian couple's eldest daughter and an elite woman, gave a vivid account of the Korean family and communities who moved to urban areas for their new businesses and children's better education. *The Dreams of Two Yi-min* covers minorities' ordeals, generational tensions, and inner conflicts resulting from dual identities, which have been discussed by previous studies of contemporary Asian American film, video and literature. In addition to confirming these issu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autobiography reveals some specificities of the ethnic Koreans: the second-generation's pressures associated with family business and marriage, particularly the burden on the first-born daughter, and the Youngnam Puin Hoe members' jealousy of women from Seoul and efforts to adjust themselves to the mainstream U.S. culture.

Key words: Margaret K. Pai, *The Dreams of Two Yi-min*, early twentieth-century Hawai'i, Asian American women, family business, marriage The Youngnam Puin Hoe.

이 논문은 2023년 5월 17일 투고되어 2023년 7월 20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3년 7월 21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

## 김윤성과 정한모 시에 나타난 ‘식물 이미지’ 연구

- 초기시를 중심으로 -

양소영\*

### — 목차 —

1. 서론
2. 본론
  - 1) 존재 확인을 위한 자아 성찰과 생성으로서의 존재
  - 2) 추락과 상승의 양면성을 통한 내면의 응집과 합일의 의지
3. 결론

### ■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김윤성과 정한모 초기시의 식물 이미지를 바슐라르의 이론에 의해 살펴보면서 그들의 시를 풍부히 분석해 보는 데 있다. 이들 초기시에서 식물 이미지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나무와 꽃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시인들의 나무와 꽃은 수직적 상상력이 담겨 있고 이 수직성은 역동성을 지니며 존재의 의지를 만들어 나간다.

김윤성 초기시 「나무」에서 시적 화자는 젖은 나무와 동일시된다. 화자는 나무처럼 무서울 것도, 감시를 받지 않고 하늘을 향해 뻗어 나가며 식물적 도약을 체험한다. 시적 화자는 수직성의 나무로부터 받은 영감을

---

\*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교양대학 조교수.

가슴 속에 남아 유지하면서 더욱 나약한 자신을 극복하고 싶어진다. 「꽃」에서 꽃은 새벽 노을빛에 의해 꽃의 존재를 더욱 부각한다. 특히, 꽃의 존재가 여백을 채운다는 것은 생성의 힘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생성의 힘은 자아를 일깨우는 순수한 의지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시인에게 존재의 전환을 이루게 하는데, 시인에게 “태양처럼 또렷한 의식”(「꽃」)을 주는 등 분명하고 안정적인 자아를 경험하게 한다.

정한모 초기시에서 전쟁으로 인해 고독과 절망을 경험하나, 그는 식물 이미지를 통해 내면의 강한 힘을 마주하게 되고 ‘우리 모두’를 외치는 합일의 의지를 꿈꾼다. 「별리」에서 ‘꽃이파리 지는 상황과 우리의 이별’은 하강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바슐라르에 의하면 수직적 상승에서 추락의 움직임이 전체되거나 수반된다고 한다. 시적 화자는 하얀 꽃이파리 지며, 이별을 경험하는, 마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마주한다. 추락은 강하게 위로 이끌어 가는 상승 이미지가 더욱 내포되어 있다. 시인은 꽃에 나타난 상승 이미지를 통해 이별도 흔들림 없이 받아들이는 단단한 내면을 형성하게 된다. 더 나아가 그는 꽃에 나타난 생명력과 상승의 의지로 ‘나와 너, 우리 모두’를 연결하고 합일의 의지를 꿈꾼다.

주제어: 식물, 자아 성찰, 생성, 추락과 상승, 합일

##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김윤성과 정한모 초기시를 바슐라르 이론을 바탕으로 비교 분석해 그들의 시 시계를 풍요롭게 분석하는 데 있다. 두 시인이 활동했던 1950, 60년대는 한국 전쟁 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도시가 파괴되고 자연의 질서가 해체된, 절망감과 고독한 정서가 난무한 시대였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불안한 시대에 그들의 시적 감수성인 자연과 휴머니즘, 생명 추구의 특성을 통해 전후의 상황에 대응해야 했다.

김윤성<sup>1)</sup>과 정한모<sup>2)</sup>는 일제 식민시기에 태어났고, 1945년『백맥』을 창간하였다. 김윤성은『백맥』에서「들국화」를 발표하면서 등단했고, 정한모는『백맥』에「귀향시편」을 발표하면서,『시탑』(1946),『주막』(1947)의 동인으로 활동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했다.<sup>3)</sup> 그들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백맥』동인 활동을 했고, 어떤 시류에도 속하지 않는 순수서정을 추구하며 독자적인 문학 활동을 했다. 특히, 두 시인은 독자적인 문학 행보 중 자연의 특성과 이미지를 중심으로 순수 서정시를 만들어 나갔다. 다시 말해, 두 시인은 한국 전쟁 후 불안한 현실을 맞서야 한다는 필요성을 생각하며 전통주의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순수 서정으로서 자연의 특성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들의 문학 정신은 자연의 특성을 통한 사유의 결과를 시로 만들어 나갔다.

우선, 김윤성 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그의 데뷔 년도와 작품 양에 비해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에 대한 연구는 평론 형식의 글이 대부분이지만<sup>4)</sup> 최근에 그의 시를 새롭게 분석하려는 논문이 있다. 그것은

- 1) 김윤성은『바다가 보이는 산길』(춘조사, 1959),『예감』(문원사, 1970),『애가』(한일출판사, 1973),『자화상』(현대문학사, 1978),『돌의 계절』(교음사, 1981),『돌아가는 길』(나남,1991),『깨어나지 않는 꿈』(마을, 1995),『저녁노을』(마을, 1999),『아무일 없는 하루』(엠아이지, 2006) 등의 시집과『김윤성 시선』(탐구당, 1982),『바다와 나무와 돌』(월간 에세이사, 1999),『그냥 그대로』(마을, 2013) 등의 시선집을 출간했다.
- 2) 정한모는 시인이자 시론가이며 국문학자를 지냈으며 대한민국 문학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카오스의 사족』(범조사, 1958),『여백을 위한 서정』(신구문화사, 1959),『아가의 방』(문원사, 1970),『새벽』(일지사, 1975),『아가의 방 별사』(문학예술사, 1983),『원점에 서서』(문학사상, 1989) 등의 시집과『나비의 여행』(현대문학사, 1983),『사랑시편』(고려원, 1983) 시선집,『바람과 함께 살 아온 세월』(문음사, 1983.) 수필집을 출간했다.
- 3) 양소영,『해방기 동인지『백맥』 고찰』,『개신어문연구』45, 개신어문학회, 2020, 35~36면.
- 4) 김양주,『정신의 술래잡기』,『현대문학』301, 현대문학, 1980.  
천상명,『김윤성론』,『시문학』61, 시문학사, 1976.  
김용오,『김윤성론- 김윤성 시집『저녁노을』을 중심으로』,『시문학』340, 시문학

김윤성 시에 나타난 어휘와 문법적 부분을 김춘수와 비교 분석한 논문<sup>5)</sup>과, 그의 시 세계 전반을 자아 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 논문<sup>6)</sup>이다. 특히, 오윤정 논문에서 김윤성의 자연 이미지가 내면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언급했다.<sup>7)</sup>

그 다음, 정한모 시에 대한 연구는 현실과 관련 양상을 살펴보거나 공간과 시간적인 측면으로 연구되기도 하고<sup>8)</sup> 여성과 환경을 중심으로 살펴본 논문도 있다.<sup>9)</sup> 특히, 그의 시에 나타난 자연 이미지를 에코페미니즘과 관련해서 살펴보거나<sup>10)</sup>, 후기시에 나타난 자연 이미지 양상을 휴머니즘의 완성으로 살펴본 논문도 있다<sup>11)</sup>.

아직까지 김윤성과 정한모 시에 나타난 자연 이미지 중 식물 이미지를 중심으로 비교 연구는 이론적 성과가 없다. 김윤성과 정한모 각각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들 두 시인을 같이 연구한 논의는 없다. 단지 이들 두 시인은 문학사에서 동인지 활동을 한 시인들로만 언급될 뿐이다. 따라서 김윤성과 정한모 두 시인의 초기시 작품이 식물 이미지를 통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당시 현실에 대응해 나가는 방

사, 1999.

- 5) 강원갑, 『김춘수와 김윤성 시의 어법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2002.
- 6) 오윤정, 『김윤성 시 연구』, 『겨레어문학』51호, 겨레어문학회, 2013.
- 7) 위의 논문.
- 8) 오세영, 『자아와 세계의 화해』, 『정한모의 문학과 인간』, 시와 시학사, 1992.  
송기환, 『정한모 시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23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양소영, 『정한모 시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 연구』, 『우리말글』61호, 우리말글학회, 2014.
- 9) \_\_\_\_\_, 『정한모 시에 나타난 시간의 의미 연구』, 『한국언어문학』94호, 한국언어문학회, 2015.
- 10) 이연승, 『여성 생명력의 신화적 회복과 에코페미니즘 - 정한모의 시세계』, 『한국시학연구』11호, 한국시학회, 2010.
- 11) 양소영, 『정한모 후기시에 나타난 자연 이미지 양상 연구』, 『문학과 환경』16-4호, 문학과 환경학회, 2017, 12면.

식이기도 하다.

각각 개별적으로 시인들에 나타난 식물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간단히 소재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이런 점을 문제점으로 보아, 본 논문에서는 이들 연구를 비교 분석하면서 식물 이미지가 그들의 시에서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점은 그들의 시 세계를 풍부히 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들은 순수서정시를 지향했으며, 이런 점은 초기시<sup>12)</sup>부터 식물 이미지를 통해 표현되었다. 그 결과 그들은 식물 이미지를 통해 절망감을 극복하거나, 존재에 대한 추구 등 긍정적인 자아를 꿈꾼다. 특히, 이들 초기시에 나타난 식물 이미지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강인한 의지의 특징을 담고 있다. 김윤성과 정한모 초기시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초기시가 그들의 시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초기시는 중기시 이후에도 기틀이 된다.

식물 이미지들은 대표적으로 나무와 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조한 시야에 들어오는 미루나무 나상”(「멸입」), “감꽃같이 피어난/ 아름다운 부끄러움”(「감꽃」), “장미나 라이락의 꽃내음 속을”(「아름다운 부끄러움은」), “뿔아름씩이나 될 거창한 나무줄기가”(「푸라타너스」), “한결같은 빛속에 서서 젖는/나무를 보며”(「나무」) “나무의 줄기와 뿌리를 한 번 보고 싶지만”(「그 나무의 크기는」), “담장 안에 목련이 있는 골목”(「목련이 있는 골목에서」)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시인들의 초기시에 집중하며 초기시에 나타난 식물 이미지를 통해 시인의 상상력과 시적 구조를 살펴며 그들의 작품을 풍부히 분석하고자 한다.

김윤성과 정한모 초기시에 나타난 식물 이미지를 비교해야 하는 필요성은 식물 이미지는 그들의 시정신과 연결되어 특별한 의미를 만들

12) 정한모 초기시는 『카오스의 사족』(범조사, 1958), 『여백을 위한 서정』(신구문화사, 1959)이며, 김윤성 초기시는 『바다가 보이는 산길』(춘조사, 1959), 『예감』(문원사, 1970), 『애가』(한일출판사, 1973)로 정리해 보았다.

어 내기 때문이다. 우선, 김윤성 초기시에 나타난 식물 이미지는 자아 성찰을 위한 매개체이자 안정된 자아를 완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즉, 그에게 식물 이미지는 자아를 일깨우게 하는 대상으로 존재하다가 점차 안정된 자아를 만들어 준다. 정한모 초기시에서 식물 이미지는 추락과 상승의 양면성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하며 더 나아가 합일의 의지를 다지게 한다. 결국 두 시인의 작품에서 보여준 식물 이미지는 그들의 시적 상상력이 결집되며 전쟁으로 인한 내면을 극복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바슐라르는 우선 식물과의 친화 관계에서 체험된 상상적 삶과 생명력 추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sup>13)</sup> 사람들이 식물에 대한 꿈을 꾸게 되면 그것은 가장 느리면서 은근하고 평온한 꿈이며, 식물은 사람들에게 원초적인 행복을 맛보게 한다.<sup>14)</sup> 두 시인들은 식물 이미지를 통해 그들의 내면 현상과 연결시켜 시인의 의식을 상징화시켜 보여준다. 또한 바슐라르는 식물이 대지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대지로부터 수액을 끌어올려 생명의 원천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식물의 주변에는 항상 바람이나 햇살 혹은 비와 같은 생명력 넘치는 자연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sup>15)</sup> 시인들에게 식물은 단순한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생명력의 근본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작품에서 식물 이미지를 통해 생명의 에너지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특히, 바슐라르의 식물적 상상력 속에서 나무와 꽃이 중요한데, 이것은 물질적이고 역동적인, 수직적 상상력과 연관된다.<sup>16)</sup> 식물적 상상력에서 존재와 생성 그리고 힘이 있다.<sup>17)</sup> 다시 말해, 이런 식물 이미지

13) 바슐라르, 『공기와 꿈』, 정영란 옮김, 민음사, 1993, 403면.

14) 위의 책, 404면.

15) 조동범, 『오규원 시의 현대성과 자연 인식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2010, 38면.

16) 바슐라르, 앞의 책, 404-405면.

17) 위의 책, 404면.

속에서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다. 나무와 꽃에 나타난 역동적 상상력은 공기적 현상에 의한 경쾌함, 가벼움에 대한 의식과 정비례로 만들어지며 그런 상승의 삶은 곧 내밀한 현실이 될 것이고, 이런 수직성은 질서의 원리이자 존재의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다.<sup>18)</sup> 두 시인들은 초기시의 식물 이미지에 나타난 수직성을 통해 내밀한 상상력을 만들어 나가는데, 김윤성 초기시에서 보여준 식물 이미지는 자아성찰을 위한 매개체이자, 생성으로서의 존재를 형성하며 안정된 자아를 완성하는 역할을 한다. 정한모 초기시에 나타난 식물 이미지는 추락과 상승의 양면성을 통해 내면의 응집을 경험하게 하며 단단한 내면을 지닌 자아를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더욱 그는 식물이 지닌 생명력과 수직성을 통해 자아와 세계와의 합일을 확장시켜 나간다. 이런 점은 식물 이미지에 나타난 역동성 상상력과 수직성을 강조한 바슐라르의 이론에 의해 살펴보면 그들의 시 세계를 풍요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2. 본론

### 1) 존재 확인을 위한 자아 성찰과 생성으로서의 존재

김윤성 초기시에는 삶에 대한 고뇌, 번민 등이 많이 나타난다. 「데드 마스크」<sup>19)</sup>에서 “누구일까? 벽에 걸린 데드 마스크/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다. 누구일까. 돌아서면 모두가 보지 못할 얼굴인 것을.”보면, 화자 자신의 얼굴이 데드 마스크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시에서 화자는 자신의 얼굴에 대해 “그런데도 모르겠다. 누구일까.”라며 부정한다. 이것은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수동적인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 “나의 얼굴에 눈

18) 위의 책, 29~30면.

19) 김윤성, 『바다가 보이는 산길』, 춘조사, 1959, 28면.

물이 고인들, 웃음이 꽃핀들, 돌아서면 모두가 보지 못할 얼굴”(「데드 마스크」)은 표면적인 얼굴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있으나 돌아서면 모두가 보지 못한 얼굴에서 자아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거리는 너의 것이다. 푸라타나스/ 나보다는 더 오랜 세월을/ 이 거리를 지켜가며 살아갈 테지/ 멧아름씩이나 될 거창한 나무줄기가/ 太平路를 덮을 그런 먼 훗날로/ 너를 밀어 보내자/ 난 그 때까지는 살지 못한다./ 날 기억하느냐? 껌 몇 개와 양담배를 목판에 벌려 놓고/ 너의 그늘에서 목숨을 이어온 사람들이 있었다. 날 기억하느냐? 지계를 짚어진 사나이도 있었다./ 종일토록 손님을 기다리다 비를 만나면 굶주리며 기다리는 처자 때문에 오도 가도 못했었지.. 아, 모두가 어렵듯이 생각하느냐? 나의 증인, 푸라타나스

「푸라타나스」20)

「푸라타나스」는 시적 화자가 거리 위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자신의 삶을 생각하는 시편이다. 위의 시에서 “나보다는 더 오랜 세월을/ 이 거리는 지켜가며” 그리고 “멧아름씩이나 될 거창한 나무줄기가/ 太平路를 덮을 그런 먼 훗날”은 나무가 지닌 생명력과 풍성함을 보여준다. 이런 점은 시적 화자의 삶과 대비되면서 나무의 영원함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즉, 나무는 먼 훗날까지 살 수 있지만 “난 그 때까지는 살지 못한다.”에서 인간의 유한성을 잘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커다란 나무가 보여주는 장관은 근사하며, 가지는 먼데까지 뻗치고 줄기는 이끼로 덮여 있으며 깊은 뿌리는 시간의 무한성을 일깨워준다.<sup>21)</sup> 시간의 무한성을 간직한 나무는 무한한 영혼이 담겨 있으며, 무한한 영혼이기에 그 어떤 붓으로도 그것을 그려내지 못할 것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나무는 우주

20) 위의 책, 18~19면.

21) 바슐라르, 앞의 책, 438면.

이며 인간의 정신, 시인의 영혼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존재가 된다.<sup>22)</sup> 이런 점에서 화자는 오랜 세월 나무가 화자 자신보다 오래 살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며 “난 그때까지는 살지 못한다”에서 현재 자신을 더욱 돌아보게 된다.

특히, 푸라타나스 밑에서 “껌 몇 개와 양담배를 목판에 벌려 놓고 너의 그늘에서 목숨을 이어온 사람들”이 있다. 화자는 그들에게 ‘날 기억하느냐’ 라고 물어본다. 이것은 존재에 대한 확인이다. 다시 말해, “나의 증인, 푸라타나스”처럼 식물은 시적 화자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자아를 성찰시키는 대상이다. ‘푸라타나스’는 우리 국토에서 자라던 전통적인 나무가 아니라 근대화와 함께 서구에서 들여온 식물인데, 이것은 근대화의 대표적 상징 중의 하나였던 신작로 옆에 가로수로 주로 심겼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신작로와 함께 일제강점기 근대성의 중요한 한 표지가 되기도 했던 수종이었다.<sup>23)</sup> 하지만 위의 시에서 ‘푸라타나스’는 서구적인 이미지, 혹은 근대화의 상징을 의미하기보다 시인에게 자아 성찰을 시키며 존재에 대한 확인을 시키는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푸라타나스처럼 나무에 담긴 수직성은 비가시적이리만큼 느리지만 존재의 분명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sup>24)</sup> 이 의지가 시인에게 ‘날 기억하느냐’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만든다.

그 나무의 크기는 아직 나도 모른다. 평생을 두고 날으고 또 날아도/가장귀 밖으로 나가 본 일 없으니/ 하여튼 봄마다 새로 돋는 새순들을 보려므나 / 삭정이처럼 말라붙은 늙은 가지에/ 그래도 생명이 통하는 것을 보면 / 아직 이 나무는 살아 있는 것이다./ 얼마나 오래 된 나무일까. 이 나무의 줄기와 뿌리를 한 번 보고 싶지만 글썽, 나는 평생을 날으고

22) 위의 책, 438면.

23) 금동철, 『김현승 시에서 자연 의미』, 『우리말글』40호, 우리말글학회, 2007, 206면.

24) 바슐라르, 앞의 책, 414면.

날아도 열기설기 영킨 가장귀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으니

「그 나무의 크기는」<sup>25)</sup>

「그 나무의 크기는」에서 시적 화자인 ‘나’는 나무에 사는 벌레이다. 왜냐하면 ‘나는 평생을 날고 날아도 열기설기 영킨 가장귀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에서 나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나’는 “삭정이처럼 말라붙은 늙은 가지에/ 그래도 생명이 통하는 것을 보면” 나무가 늙어 있으나 이 늙은 나무가 여전히 생명력이 강함을 느낀다. 부드러움과 그 모든 것을 상실한 앙상한 나무는 얼핏 보면 송장에 불과하나 나무 중에서 항상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는 수지류 나무도 있고 이는 생명의 불멸성을 상징한다.<sup>26)</sup> 즉, 위의 시에 나타난 ‘늙은 가지의 나무’는 ‘생명이 통하는 것처럼’ 여전히 수직적 상상력으로 인해 ‘아직 이 나무는 살아있으면서’ 자신의 존재성을 환기시킨다. 나무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갖고 있고 다양한 모습 속에 나무는 존재의 단일성을 지니며, 나무의 운동과 풍모는 존재에 대한 깊이를 사람들에게 부여한다.<sup>27)</sup> 위의 시에서 벌레가 바라보는 늙은 나무는 나무의 본질인 풍성함은 사라졌지만 존재의 깊이가 있으며 이것은 여전히 생명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나무의 존재성은 다음 「나무」에서 시인에게 식물적 도약을 경험하게 하며 존재 의지를 발현시킨다.

「나무」<sup>28)</sup>에서 “한결같은 빗속에 서서 젖는 나무를 보며 ..... 시작도 끝도 없는 나의 침묵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누구에게 감시받을 생각도 없이 ...나는 하늘을 찌를 때까지 자라려고 한다.”를 보면, 시적 화자는 젖은 나무와 동일시가 되었다. 그 결과 시적 화자는 ‘무서운 것이 없다. 감시 받을 생각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는 나무처럼

25) 김윤성, 『예감』, 문원사, 1970, 70~71면.

26) 자크 브로스, 『나무의 신화』, 주향은 옮김, 이학사, 1988, 39면.

27) 바슐라르, 앞의 책, 410~411면.

28) 김윤성, 『바다가 보이는 산길』, 94~95면.

“나는 하늘을 찌를 때까지 자라려고 한다. 무성한 가지와 그늘을 퍼려고 한다”. 이것은 온 몸으로 펼쳐 보이는 존재성을 의미한다. 식물적 도약을 내밀히 체험한다는 것, 그것은 온 우주 속에서 나무의 형태를 한, 그와 같은 힘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한 무한 세계의 식물적 힘이 가진 온 의지를 흡산한 것을 뜻한다.<sup>29)</sup> 다시 말해, “나는 하늘을 찌를 때까지 자라려고 한다.”에서 시적 화자는 나무와 동일시를 통해 나무처럼 하늘을 향해 뻗으며 식물적 도약을 경험하게 된다. 시적 화자는 수직성의 나무로부터 받은 뻗어나가는 힘을 통해 “나는 자란다”처럼 나약한 자신을 극복하고 싶어 했다. 다시 말해, 시인은 나무를 통해 상승을 지향하면서 현실의 어려움과 절망을 극복하려 한다. 그것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지향이다.

그리고 시인은 식물 이미지 중 꽃을 통해 생성으로서의 존재를 얻으며 안정되고 성숙한 자아를 이루게 된다. “벼랑끝 수풀 속에/ 이름 모를 한 송이 빨간 꽃이/ 웬 일인지 간당거리고 있다./ 바람도 없이/ 가만히 기다려 본다.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대낮」)<sup>30)</sup> 「대낮」에서 “이름모를 한 송이 빨간 꽃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시인의 내면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음을 의미한다.

담장 안에 목련이 있는 골목. 아침 저녁으로 지나면서 / 나는 보았을 뿐이다. 나날이 봉오리가 부푸러진 ... 어느덧 그 목련이 진다. 그 봉오리가 피어날 때까지 아마 일주일은 걸렸을까. 오고 가며 내 눈여겨 피우던 그 일주일/ 지금은 바람에 흩날린다. 떨어져 나간 목련꽃 자리에 호수처럼 밀려와 앉는 계절 아, 은빛으로 반짝이는 오월의 햇살/ 나무에 새가 앉아 있듯이 지금은 기막히게 평안한 골목안의 목련을 본다.

「목련이 있는 골목에서」<sup>31)</sup>

29) 바슐라르, 앞의 책, 442면.

30) 김윤성, 『예감』, 문원사, 1970, 30면.

31) 김윤성, 『바다가 보이는 산길』, 22~23면.

이 숨막히는 정숙의 熱心으로 성장하는 화단을 보라. 안에 맺혔던 고운  
숨이 스스로 탁 터져 맑은 햇살 아래 구김살 하나 없이 곱게 곱게 숨을  
펴는 붉은 꽃잎! 흰 꽃잎! 노란 꽃잎들/ 여름 한 철의 꿈이 / 그냥 그대로  
꽃잎이 되어/ 이 조그마한 화단을 / 爛漫히 장식하다.

「화단」<sup>32)</sup>

바라보면 볼수록 가깝고도 먼 얼굴 /꽃이여. / 그대로 두면 한없이 고히  
잠들어버릴/ 너는 바람에 흔들리어 피었나니/ 일찌기 어둠 속에 반짝이  
던 너의 사념은 / 셋별처럼 하나 둘 스러져가라. 너의 어깨위로 새벽노  
을이 퍼져옴은 萬象으로 네 存在의/여백을 채우려 함이러니. 너는 영원  
히 깨어있는 꿈. 태양처럼 또렷한 의식.

「꽃」<sup>33)</sup>

「목련이 있는 골목에서」는 시적 화자가 목련을 보면서 평화로움을 느끼는 시편이다. 시적 화자는 담장 안에 목련이 있는 골목을 아침, 저녁으로 지나면서 “나날이 봉오리가 부푸러진” 모련꽃을 본다. “부푸러진 목련”은 ‘생성으로서의 존재’이다. 설명하자면, “부푸러진 목련”은 무기력한 자아를 제거하고 자아를 일깨워 존재의 눈을 뜨게 하는 대상이다. 그 결과 “어느덧 그 목련이” 떨어졌어도 시적 화자는 우울하거나 고독하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잡으며 안정된 마음을 갖는다. 다시 말해, “떨어져 나간 목련꽃 자리에 오월의 햇살 나무에 새가 앉아 있듯이 지금은 기막히게 평온한 골목안의 목련을 본다.”에서 꽃이 져버린 그 자리에서 시적 화자는 평화로움을 더욱 느낀다. 이것은 시적 화자의 마음 속에 꽃이 내밀하게 존재하고 있어 자아와 세계의 경계를 초월하듯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된다. 즉, 꽃은 항상 시적 화자의 마음 속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꽃에 나타난 역동적 상승

32) 위의 책, 90면.

33) 김윤성, 『바다가 보이는 산길』, 92~93면.

은 화자 마음 속에 진정한 동력으로 작용하며 모든 것에 가치부여를 하게 된다.

「화단」에서 “숨막히는 정숙의 熱心으로 성장하는 화단”의 꽃은 생명력을 지닌 대상이다. “고운 숨이 스스로 탁 터져 맑은 햇살아래”에서 “구김살 하나 없이 숨을 펴는 붉은 꽃잎! 흰 꽃잎! 노란 꽃잎들”을 보면, “맑은 햇살 아래 구김살 하나 없이”는 평화롭고 고요한 세계를 의미한다. 고요한 세계의 “고운 숨”안에 모든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 “숨이 탁 터져”에서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발산하는 꽃들은 수직적 양상을 보여준다. 즉, 꽃들이 주는 수직성은 “그대로 꽃잎이 되어/ 이 조그마한 화단을 / 爛漫히 장식”한다. 화단에서 열심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존재하는 꽃은 인간의 고통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것과 상통하다. 그대로의 꽃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존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숨막히는 정숙의 熱心으로 성장하는 화단”에서 꽃은 ‘생성으로서의 존재’이다. 이때, 꽃은 무기력한 자아를 벗어나게 하여 동력이 담겨 있고, 이 동력은 현실의 여러 절망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긍정적인 상황을 말한다. 꽃은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꽃에 나타난 생명력과 수직적 상상력은 존재의 안정을 부여하게 된다.

「꽃」에서 “바라보면 볼수록 가깝고도 먼 얼굴”, “꽃이여”를 보면, 꽃은 시적 화자의 주위에 존재하는 평범한 대상이다. “그대로 두면 한없이 고히 잠들어버릴 것 같이”에서 꽃은 주변의 상황에 연약한 대상을 의미한다. 하지만 “너는 바람에 흔들리어 피었나니”에서 바람이라는 매개체에 의해 꽃은 개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너의 어깨위로 새벽 노을이 퍼져옴은 萬象으로 네 存在의/여백을 채우려 함이러니.”에서 꽃 위에서 퍼져드는 새벽빛은 꽃의 “존재”를 더욱 부각시켜준다. 꽃의 만개 자체가 존재를 의미하며 이때 존재는 여백을 채우는 생성의 힘이 포함되었다. 다시 말해, 꽃은 “너는 영원히 깨어있는 꿈”을 지닌 ‘생성으로서의 존재’이다. 존재가 지닌 생성의 힘은 이미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은 본래부터 우리 내부에 있어서 그 이미지에 접하면 <존재의 전환>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sup>34)</sup> 바슐라르에 의하면 우리들의 내부에 존재하는 이 존재 생성의 힘이 바로 그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상상력을 의미한다고 한다.<sup>35)</sup> 점차 위의 시에서 꽃은 우리에게 꿈 “태양처럼 또렷한 의식”을 주는 대상이 된다. 꽃은 시인에게 존재의 전환을 가져다준다. 그 결과 시인은 꽃과 일치의 경험을 가지며 모든 경계를 초월하고 안정된 자아를 경험하게 된다.

## 2) 추락과 상승의 양면성을 통한 내면의 응집과 합일의 의지

정한모 초기시에는 시인이 6. 25 전쟁으로 인해 가족들과 피난을 가면서 느끼는 여러 심정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금나간 양은 냄비며” “불 속에서 끌어낸 몇 가지 옷이며/ 어린 것들 기저귀 등을 꾸러 넣은/ 보통이를 내려놓고서”(「고개머리에서」)는 혼란스런 전쟁의 상황을 보여준다. 전쟁을 체험하는 것은 상승의 가능성을 방해하는 부정적 이미지들로, 시인을 압박한다. “죽음이 바다처럼 발 밑에 내려다 보이는 /목숨의 중점”(「얼굴」)처럼 그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전쟁 체험으로 인해 좌절하게 된다. 하지만 시인은 전쟁의 상처를 방관하지 않고 상승의 의지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시인은 절망이 가득한 현실에 “별빛에 이르고 싶은 마음”(「밤의 생리」)처럼 그의 내면이 “꽃의 아름다움”(「밤의 생리」)과 “아득히 웃고 있는 얼굴”(「밤의 생리」)이 담겨 있기를 바란다. 그는 식물 이미지를 통해 전쟁의 상황에서 벗어나 “자기의 강조”(「석영」)처럼 내면을 응시하고 ‘우리 모두’ ‘나는 너로부터’(「아름다운 부끄러움은」) 합일의 의지를 다지며 더 높은 상승의 의지를 꿈꾼다.

34) 박광수, 『바슐라르』, 민음사, 1995, 36면.

35) 박광수, 앞의 책, 36면.

녹아드는 빙과의 것처럼  
슬픔은  
그런대로 자릿한 미각이기도 하였으나

흔들리는 바다의  
그 푸른 바탕에 떠서  
하늘하늘 하얀 꽃이파리는 지고  
우리들의 이별은 끝났다.

끝났다는 것은 홀가분한 휴식  
아니면 고요한 기도वाद 같은 것

「별리」<sup>36)</sup>부분

바라보면 무엇인가 끊임없이 피어나오는 것이 있다. 목숨이나 정신의  
밑바닥같은 곳으로부터 피어나오는 것 그것은 눈자위 가느다란 주름의  
선을 그리기도 하고 실바람같이 이는듯 사라지는 명암을 지으면서 나  
의 마음 속 가득차는 얼굴을 새긴다.

얼굴은 그대로 내면일 수 있는 얼굴 앞에 아름다운 꽃이 된다.  
그리하여 마음은 오직 하나의 눈이 되고 햇볕 따듯이 멈추는 하얀 벽  
같은 빛나는 지역을 이룬다.

「얼굴」<sup>37)</sup>부분

「별리」는 슬픔으로 인해 고독의 정서를 불러 일으키지만 절망적이  
않고 오히려 심미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이런 미적 승화의 양상은 “하  
늘하늘 하얀 꽃이파리는 지고/ 우리들의 이별은 끝났다”에서 알 수 있  
다. 하얀 꽃이파리 지는 현상과 우리의 이별은 하강의 이미지를 보여준  
다. 상승의 역동적 상상력은 추락의 움직임을 전제하는데 추락은 정신

36) 정한모, 『정한모 시전집1』, 포엠포티아, 2001, 78~79면.

37) 정한모, 위의 책, 24~25면.

심리적인 현실을 의미하며 수직성이 가지는 긍정적 역동성은 너무도 뚜렷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추락한다는 것이다.<sup>38)</sup> 위의 시에서 시적 화자가 ‘하얀 꽃이파리 지고, 우리의 이별’을 노래하는데 마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반대로 상승의 의지가 더욱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별이 끝났다.”에서 화자는 하얀 꽃이파리가 지는 것과 우리의 이별에 슬퍼하지 않고 확고하게 이별을 선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자는 “이별이 끝났다는 것은 흥가분한 휴식 아니면 고요한 기도와도 같은 것”처럼 이별을 휴식과 기도로써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찾으면서 오히려 이별 후 평화로운 정서의 상태를 보여 준다. 여기서 볼 때, 추락하는 것에서 다시 상승하고자 하는 욕망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시인이 절망적의 감각에서 벗어나 확고한 자아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시적 화자는 이별과 꽃이 지는 상황을 통해 더욱 절망의 상황이 깊어질 수 있었지만 슬픔의 상황을 단호하게 받아들이며 극복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식물만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썩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전에 표면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시킨다.<sup>39)</sup> 이런 에너지를 간직한 꽃은 시인에게 전쟁으로 인해 위축된 자아를 벗어나게 해 주는 역할을 하며, 그 결과 시인은 이별의 슬픔도 슬픔도 고요한 기도처럼 수용할 수 있는 단단한 자아를 얻게 된다.

게다가 시인에게 꽃은 자아를 향해 내밀하게 응집되어 가는 힘을 주는 대상이 되며 시인은 꽃이 지닌 역동성과 수직성을 통해 마음의 의지를 다지게 된다. 「얼굴」은 시적 화자의 얼굴을 꽃에 비유되면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한 시편이다. “얼굴은 그대로 내면일 수 있는 얼굴 앞에 아름다운 꽃이 된다.”에서 시적 화자는 얼굴과 꽃의 동일시를 통해 자신의 존재성을 확인하게 해 주며 “아름답다”처럼 심미성을 경험하게 한

38) 바슐라르, 앞의 책, 32~33면.

39) 수잔네 파울젠, 『식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김숙희 옮김, 풀빛, 2002, 100면.

다. 여기서 더 나아가 얼굴은 “목숨이나 정신”처럼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모두 포함하며, 시간과 공간을, 자아와 타자의 경계까지 초월한다. 이런 얼굴이 최종적으로 꽃으로 귀결된다. 얼굴은 “눈자위 가느다란 주름의 선을 그리기도 하고 실바람같이 이는 듯 사라지는 명암을지”으며, 얼굴에 여러 선들이 표현되나 곧 사라져 버리는 것은 모든 것이 경계를 초월함을 의미한다. 즉, 시인은 꽃과 얼굴의 동일시를 통해 모든 것을 허물 수 있는 강한 내면의 힘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 개 돌 속에  
하루가 소리없이 저물어 가듯이  
그렇게 읊기어 가는  
정연한 움직임 속에서

소조한 시야에 들어 오는  
미루나무의 나상

모여 드는 원경을 흔들어 줄  
바람도 없이

이루어 온 밝은 빛깔과 보람과  
모두다 가라앉은 즐거울 더듬어 올라가면

끝 가지 아슬히 사라져  
하늘이 된다.

「멸입」<sup>40)</sup>

「멸입」은 미루나무 나상의 형상을 보여주는 시편이다. 위의 시에 나타난 미루나무 나상은 위태롭고 쓰러질 것 같은 모습보다는 생명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선, “한 개의 돌 속에 하루가 소리 없이 저물다”

40) 정한모, 앞의 책, 53면.

에서 화자는 돌 속에 시간과 공간을 집어 넣는다. ‘저물다’라는 시어는 쓸쓸함과 슬픔의 분위기를 만든다. 그러나 위의 시는 어둡거나 절망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웁기어 가는 정연한 움직임 속”을 보면 시적 화자가 쓸쓸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슬픔의 분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특히, “소소한 시야에 들어오는 미루나무의 나상”을 주목해야 한다. 미루나무 나상은 가을과 겨울 사이에 나뭇잎이 떨어져버린 나무로 표면적으로 생명력이 없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밝은 빛깔과 보람”이 미루나무 나상의 줄기를 타고 더듬어 올라가면 그것은 힘없고 연약한 이미지를 상징하기보다 밝은 빛깔과 보람처럼 평화롭고 초월적인 이미지를 상징한다. 왜냐하면 나무는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하고 조직되며 그것들은 한 덩이가 된 힘으로 뿌리들을 땅에 밀착하고 특히, 수많은 다양한 가지들의 가지고 있는 엽맥은 공기와 빛을 통해 나무가 힘껏 솟아오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sup>41)</sup> 즉, 나무에 나타난 수직적 상상력은 순수하고 역동적인 명상으로 태어난다.<sup>42)</sup> 이런 점에서 볼 때, 미루나무 나상에 나타난 수직적 상승은 밝은 빛깔과 보람을 통해 더욱 시적 화자에게 삶의 활력소를 제공한다.

표면적으로 미루나무 나상은 소박하며 고요한 분위기를 지녔다. 이 고요함은 시적 화자가 현실 세계에서 경험했던 고독과 우울함을 의미한다. 어쩌면 그는 이 세계에서 무언가를 취함도 없이 그저 세계의 저 다른 쪽, 피안으로 건너움을 느끼고, 느릿한 시간, 느릿한 의지와 일치한 자신을 깨닫는 것인지 모른다.<sup>43)</sup> 하지만 이것은 순수한 국면이다. 나무의 역동성은 비가시적인 만큼 느릿하지만 분명한 의지가 있고, 이 의지는 나무 전체가 수직성으로 이끌어 가는 의지이기에 가능하다.<sup>44)</sup> 다시 말해, 미루나무의 수직성은 주변을 포용하는 역동적인 상상력을

41) 바슐라르, 앞의 책, 407면.

42) 위의 책, 413면.

43) 위의 책, 414면.

44) 바슐라르, 앞의 책, 414면.

보여준다. 즉, “즐거움을 더듬어 올라가면 끝까지 아슬히 사라져 하늘이 된다”에서 미류나무의 끝은 하늘이 되는데 이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초월을 하며 모든 것을 포용하는 의미이다. 묵묵히 서 있는 나무줄기에 몸을 기대면 인간은 나무에 동화되어 그 내적인 움직임을 들을 수 있게 된다.<sup>45)</sup> 즉, 미류나무 나상이 모든 빛과 함께 하늘로 뻗어 나가는 것은 세계와의 합일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의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감꽃이 뜰을 덮는 아침에/너는 꽃송이를 하나 하나 좇아 꿰어/ 꿈의 타레를 만들고/ 그 꽃타레에서 감꽃을 따 먹으며/ 하나씩/ 잘근 잘근 꿈을 씹어 먹으며/ 비릿한 그 단 맛 속에서 /너와 나는 자랐다./ 감꽃을 주워 꿰던/ 작은 손은 자라서/ 감꽃같이 피어난/ 이름다운 부끄러움을 가리면서/ 네 육체 위에/ 내 꿈의 통로를 열어 주었다./ 모든 것은 단 맛 또한 알찬 살이 되기 위하여 익어 온 가을/ 바람이 부는 가을의 창 안에서/ 그 비릿하게 단/ 꿈을 씹어 삼키던 입은 자라서/ 눈이 되고 손이 되고 네 유방이 되고 다리가 된 모두가 다 뜨겁게 젖어 떠는 너와 나의 입일 뿐이다.// 2. 감꽃 꿈타레 씹어 먹은 송이 송이 그 손과 입 익어서 지쳐서 황홀한 지금은 가을 낙엽은 굴러가는 돌은 목말라서 불타며 마시는 밤의 어둠.

「감꽃」<sup>46)</sup>

「감꽃」에서 감꽃은 “육체”에 비유되기도 하고, ‘자신의 꿈의 통로’처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통로이기도 하다. 특히, 감꽃으로 “꽃송이를 하나 하나” “꿈의 타레를 만들”수도 있고, “그 꽃타레에서 감꽃을 따 먹으”면 “꿈을 씹어 먹”을 수도 있다. 즉, 감꽃이 절정으로 피어 있을 때, 꿈의 상징이 담겨 있다. 위의 시에서 꽃<sup>47)</sup>과 꿈은 중요하다. 특히,

45) 자크 브로스, 앞의 책, 38면.

46) 정한모, 앞의 책, 123~126면.

47) 본고는 (「정한모 초기시 연구」, 『한국언어문학』 114호, 한국언어문학회,

꽃은 식물적 상상력의 수직성의 절정을 잘 보여준다. 꽃이 활짝 폈을 때 산형화는 순수한 빛을 받아 더욱 수직적 역동성을 잘 보여준다.<sup>48)</sup> 왜냐하면, 화자가 자신의 꿈을 꽃과 동일시하는데 이것은 꽃에 삶의 목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바람이 부는 가을의 창 안에서/ 그 비릿하게 단/ 꿈”에서 꽃이 지닌 단맛과 함께 꿈이 동일시가 되면서 수직적 상상력을 잘 보여준다. 이런 꽃의 수직성은 “눈이 되고 손이 되고 네 유방이 되고 다리가 되며 뜨겁게 젖”을 수 있는 합일의 의지를 다질 수 있게 된다.

“뜨겁게 살아나는 생명의 즐기에서 꽃이”(「아름다운 부끄러움은」) 열리는 것은 생명력과 꽃이 연결되어 수직적 상상력을 잘 보여준다. 특히, “비슷비슷한 모든 나로부터/나를 찾아 비슷비슷한 모든 너로부터 너를 찾아내어”/“우리는 이제 ”“우리의 석류 송이를 하나로 차지한다.”(「아름다운 부끄러움은」)에 주목을 요한다. 여기서 우리 모두의 정체성은 석류와 동일시된다. 붉은색을 상징하는 석류는 우리에게 기운을 돋워 주고 수직적 상상력을 지녔다. 이런 역동성은 나를 찾고, 너를 찾고 우리 모두가 합일이 될 수 있는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왜냐하면, 식물이 대지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이 삶의 근본적인 긍정의 세계와 맞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대지와 맞닿은 식물은 자연의 모든 생명의 출발이 되고, 이로써 식물 이미지는 긍정적 이미지를 수반하게 된다.<sup>49)</sup> 위의 시에서 “둘이서 찾은 마음의 섬, 너는 내, 나는 네 가슴을 갖는다.”(「아름다운 부끄러움은」)에서 꽃의 수직적 상상력은 자아와 세계의 구획을 해체시켜 버리며 ‘둘이서 찾은 마음’처럼 합일의 의지를 강조하게 된다.

---

2020.9.)에서 꽃을 에로스적 상상력으로 분석하였고, 이 글에서는 꽃을 수직적 상상력을 분석하며 꿈과 긍정적 변화의 의지로 해석하였다.

48) 마술라르, 앞의 책, 411면.

49) 조동범, 앞의 논문, 38면.

### 3. 결론

이 논문의 목적은 김윤성과 정한모 초기시를 바슐라르 이론에 의해 살펴보면서 그들의 시를 풍부히 해석해 보는 데 있었다. 그동안 두 시인들을 비교 분석한 논문은 없었다. 두 시인은 전후 불안한 현실 속에서 어떤 시류에도 속하지 않고 순수서정을 추구하면서 독자적인 문한 세계를 만들어 나갔다. 그들 초기시에는 자연 이미지 중 식물 이미지가 많이 나타는데, 그 중에서 꽃과 나무가 많이 나타난다. 본고는 초기시에 나타난 식물 이미지를 중심으로 시인의 시적 상상력을 살펴면서 그들의 작품을 다채롭게 해석하였다.

김윤성은 식물 이미지를 통해 자아 성찰의 매개체이자, 생성으로서의 존재를 형성하게 된다. 김윤성 초기시에서 삶에 대한 고독이 나타나지만 식물 이미지를 통해 자아 성찰을 하며 성숙하며 안정된 자아를 얻게 된다. 그의 시에서 '푸라타나스'는 서구적인 이미지도 근대화의 상징도 아니다. 그것은 영원함과 생명력을 상징하면서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게 해준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시인은 나무의 영원성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게 된다. 특히, 시인은 나무의 수직적 상상력이 분명한 의지를 만들고 나약한 자신 극복시켰다. 또한 그에게 '부푸러진 목련'은 생성으로서의 존재이다. 이것은 자아를 일깨우는 특별한 의지를 만들며 시인에게 긍정적인 내면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그 결과 시인은 성숙하고 안정된 자아를 얻게 된다.

정한모 초기시에서 꽃이 지는 형상은 이별의 상황으로 어두운 정서를 나타낸다. 하지만 이 상황은 절망의 의미로 해석되기보다 오히려 "고요한 기도"나 "휴식"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 낸다. 왜냐하면 꽃이 지는 상황과 이별은 하강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수직적 상승은 추락의 움직임을 전제하거나 수반한다. 하강의 이미지 속에서 강한 상승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별을 끝났다'에서 상승의 의

미가 내포되어 있다. 꽃에 나타난 상승 이미지가 더욱 내포되면서 시인은 이별도 흔들림 없이 받아들이는 내면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더욱 그의 시에 나타난 나무와 꽃에 나타난 수직성과 역동성은 자아와 타자의 경계를 초월하며 이것은 모든 것의 합일로 확장된다.

특히, 김윤성과 정한모 시를 바슐라르 이론으로 분석하는 것은 현재적 관점에서 자아 성찰과 생성으로서의 존재를 형성하고 추락과 상승의 양상 속에서 내면의 응집을 경험하며 더욱 세계와의 합일을 확장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이런 점은 그들의 개성적이고 진정성 있는 삶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며 내면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시인들의 시 세계를 비교하면서 바슐라르의 식물적 상상력으로 분석하는 것은 그들의 시가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의 가치를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현대시 속에 서정시의 위상을 다시 재정립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정한모, 『정한모 시전집1』, 포엠포티아, 2001.

김윤성, 『바다가 보이는 산길』, 춘조사, 1959.

\_\_\_\_\_, 『예감』, 문원사, 1970.

\_\_\_\_\_, 『애가』, 한일출판사, 1973.

### 2. 논문

강원갑, 「김춘수와 김윤성 시의 어법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2002.

금동철, 「김현승 시에서 자연 의미」,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2007.

김양주, 「정신의 슬래잡기」, 『현대문학』301, 현대문학, 1980.

김용오, 「김윤성론- 김윤성 시집 『저녁노을』을 중심으로」, 『시문학』340,

- 시문학사, 1999.
- 오세영, 『자아와 세계의 화해』, 『정한모의 문학과 인간』, 시와 시학사, 1992.
- 송기환, 『정한모 시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23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 양소영, 『정한모 시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 연구』, 『우리말글』61호, 우리말글학회, 2014.
- \_\_\_\_\_, 『정한모 시에 나타난 시간의 의미 연구』, 『한국언어문학』94호, 한국언어문학회, 2015.
- \_\_\_\_\_, 『정한모 후기시에 나타난 자연 이미지의 양상 연구』, 『문학과 환경』16-4호, 문학과 환경학회, 2017.
- \_\_\_\_\_, 『해방기 동인지 『백맥』 고찰』, 『개신어문연구』45, 개신어문학회, 2020.
- 오윤정, 『김윤성 시 연구』, 『겨레어문학』51, 겨레어문학회, 2013.
- 이연승, 『여성 생명력의 신화적 회복과 에코페미니즘 - 정한모의 시세계』, 『한국시학연구』11호, 한국시학회, 2010.
- 조동범, 『오규원 시의 현대성과 자연 인식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2010.
- 천상병, 『김윤성론』, 『시문학』61, 시문학사, 1976.

### 3. 단행본

- 곽광수, 『바슐라르』, 민음사, 1995.
- 바슐라르, 『공기와 꿈』, 정영란 옮김, 민음사, 1993.
- 수잔네 파울젠, 『식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김숙희 옮김, 풀빛, 2002.
- 자크 브로스, 『나무의 신화』, 주향은 옮김, 이학사, 1988.

■ Abstract

**A Study on the Plant Imagination  
in the Poems of Jeong Han-mo · Kim Yun-sung**

**Yang, So Yo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lant images of Kim Yun-sung and Jeong Han-mo's early poems in a rich manner, examining them by Bashlar's theory. Especially in these early poems, plant images vary, especially trees and flowers. In Bashlar's plant imagination, trees and flowers contain vertical imagination and the will to exist.

When you see "Do you remember me" in Puratanas, Kim Yun-sung's early poetry, the poetic speaker checks the existence of the tree and self-reflects. In "Tree," poetic speakers are identified with wet trees. The speaker goes out into the sky, not afraid, not watched, like a tree. Poetic speakers experience a vegetable leap. Poetic speakers want to overcome their weaker selves while keeping their inspiration from the tree of verticality in their hearts. In "Flowers," flowers bloom in the wind, and the presence of flowers is further highlighted by the sunset at dawn. The presence of flowers fills the margin shows that there is a power of creation. This power of creation leads to a transition of existence, which allows the poet to experience a clear, active and stable self, such as giving the poet a "clear consciousness like the sun" ("flower").

In Jeong Han-mo's early poem, solitude and despair of war were expressed, showing signs of anxiety inside. However, he dreams of a solidarity that escapes the situation of war through plant images, encounters strong inner forces, and calls for "all of us." In "Separate," "The situation of flowers falling and our parting" shows the image of descent. According to Bashlar, the movement of a fall from a vertical rise is presupposed or accompanied. The poetic speaker looks as if the white flowers are falling from top to bottom, falling and shouting our farewell. However, this is more implicit in the upward image that leads strongly up. This is possible because it declares an end to the breakup. The rising image on the flower acted more strongly, forming a solid inner side that accepted the poet's parting

without shaking. And he dreams of solidarity by connecting "me and you, all of us," showing vitality and willingness to rise in more flowery imagination.

Key Worlds: Plant, selfreflection, create, fall and rise, unity.

이 논문은 2023년 6월 20일 투고되어 2023년 7월 13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3년 7월 14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



## 어느 조산사의 구술사

- 체험과 경험의 이야기 -

이지연\*

### 목차

1. 들어가며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 1) 연구대상 A
  - 2) 체험과 경험
  - 3) 연구방법
3. 결과분석
  - 1) 1960년대 이전: 의료화 이전의 출산
  - 2) 1960~70년대: 국가의 의료적 개입
  - 3) 1980~90년대: 조산원의 성행과 쇠퇴
4. 나가며

### ■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개인 구술사를 통해서 한국전쟁 이후 출산을 둘러싼 사회사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과거 전남광주에서 조산사로 활동하였던 A의 이야기 형식을 파악하기 위해, 화자가 실제로 체험한 것에 대한 ‘체험적’ 이야기와 그 이후의 다양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통해 재구성해온 ‘경험적’ 이야기를 구분해, 그것을 어떻게 청자에게 말하고자

---

\* 상지대학교 강사.

하는지, 왜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A의 이야기는 ‘체험적’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광주조산협회 회장, 광주주부클럽 회장, 시의원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과거를 회고하고 재구성해온 ‘경험적’ 이야기를 청자에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체험’의 고유한 실재가 존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타자에게 들려줄 수 있는 보편적 의미를 지닌 이야기로서 인터뷰 장에서 산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주제어: 구술사, 체험, 경험, 조산사, 출산문화

## 1. 들어가며

197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여성은 출산을 집에서 했다. 일반적으로 산파를 부르거나 가족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았던 것이다. 이러한 출산 형태가 일반적이었던 이유는 당시 근대적 의료시설이 절대 부족했기 때문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당시 여성들은 전문적인 의료 시설이나 의사의 도움 없이 집에서 아이를 낳는 재래의 방식을 특별히 위험하게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김은경, 2014: 162). 하지만 요즘에는 한국 여성들 사이에 근대적 출산뿐만 아니라 출산조절이 보편화되고 그 결과 급속한 출산을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역사적 요인은 무엇일까?

출산에 대한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것이 역사의 기술로부터 얼마나 소외되어 왔는지, 또 법제도나 통계자료의 분석만으로는 출산과 관련된 여성들의 행위성을 제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 글은 전남광주에서 조산사로 활동해온 여성의 구술사를 바탕으로 보다 긴 시간대 속에서 기층의 경험을 중심으로 출산의 의료화 및 출산문화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 작업은 일

본에서 살았던 유년기를 제외하곤 인생의 대부분을 광주전남에서 살았던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자면 바늘구멍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듯, 출산을 둘러싼 사회사를 지역적 수준에서 탐색하려는 시도이다.

##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 1) 연구대상 A

우선 연구대상의 생애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는 1940년생으로 1958~64년 전문여성 간호사로 시작하여 1964~80년 가족계획지도원을 거치며 본인의 경험을 담은 조산원을 1980년에 개원하고 광주 최고의 조산원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왔으며, 이러한 경험은 여성 정치 활동으로 이어져 2000년대 시의원, 여성단체 회장 등을 역임하여 광주 여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A의 생애사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개화하기 시작한 시기 즉, 한국전쟁 이후의 출산의 의료화 및 출산문화의 변화들을 보여주며, 그것들이 어떻게 국가정책과도 연관되어 있었는지 말해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생애사의 기본 자료는 오창민·임선주(2016)가 채록한 구술인터뷰 자료집 『조산사의 체험과 출산문화: 1950~1990년대 광주전남 조산사』이다. 인터뷰는 2016년에 진행되었으며, 당시 A의 나이는 77세. 인터뷰 당시의 분위기에 대해 자료집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나이가 70대라는 것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깐깐하고 당찬 A 선생의 목소리는 1평 남짓의 세미나실을 충분히 압도하고도 남았다. 2번의 구술동안 전문 의료 용어와 함께 활동했던 지인들의 이름을 모두 암기하는 기억력과 시종일관 지치지 않은 A 선생의 열기는 면담자로 하여금 단순한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조산사 활동을 영화처럼 상상할 수 있도

록 하였다(오창민·임선주, 2016: 7).

구술 당시의 상황을 살리기 위해 이 논문은 되도록 구술내용을 그대로 기록하였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이는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화자와 청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의한 공동 산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연구 참여자는 ‘답변 용기’가 아니고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협동 작업이 인터뷰라는 홀스타인과 구브리움(Holstein & Gubrium, 1995)의 지적에 준거한다.

## 2) 체험과 경험

그렇다면 연구대상의 구술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A가 자신의 경험적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무엇을 비 경험 세대에게 전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싶다. 사회학자 이희영은 생애사는 지나간 체험에 대한 사실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현재를 기점으로 한 기억을 통해 재구성된 결과물이라는 특성을 갖는다고 지적하며, 생애사 자료에 대한 연구가 ‘살았던 생애사’, ‘체험된 생애사’, ‘이야기된 생애사’라고 하는 서로 구분되는 차원에서의 재구성작업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희영, 2005; 2007). 이러한 이희영의 주장은 일본의 사회학자 사쿠라이 아즈시(桜井厚, 2002)가 ‘삶의 세 가지 양태’라고 칭하는 ‘체험’, ‘경험’, ‘이야기’와 유사하다. ‘체험(life as lived)’은 어떤 사건과의 조우로 인해 외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경험(life as experienced)’은 ‘화자의 이미지, 감각, 감정, 욕망, 사상, 의미 등에 따라 성립하는 것’이며 ‘이야기(life as told)’는 ‘언어행위로서의 문화적 관습, 청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맥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桜井厚, 2002: 31).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체험’하는 것으로, 자신의 ‘경험’을 보유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의 사건을 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개괄적 정의만으로는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본고의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사람들의 생활세계라는 내재적 관점에서 각각의 개념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생애사 및 생애이야기 연구의 초점은 개인들의 삶의 경험이다. 사실 이런 경험은 연속되는 의식의 흐름이므로 그것의 전체를 파악하여 말할 수는 없다. 말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다른 경험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는 현상학적 사회학자 슈츠(Schutz)의 사고방식이 참조가 된다. 슈츠는 베르그송(Bergson)의 ‘지속’ 개념을 바탕으로 경험을 두 위상으로 구분했다(Schutz, 1970). 먼저 의식의 흐름(지속)에 있어서 경험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서로 구분 없이 녹아 들고 경과하는’ 것이다. 이를 슈츠는 ‘생생한 경험(lived experience)’(Schutz, 1970) (혹은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Schutz, 1932) 이라고 부른다. 그 경험의 흐름은 일방향적이며 불가역적이다. 이는 사쿠라이 아츠시가 ‘체험’이라고 부르는 것에 가깝다. ‘체험’은 우리가 바깥세상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생활하고 있을 때’ 만나고,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미분화로 녹아든 경험’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체험’은 그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

이에 반해 또 다른 경험의 위상은 ‘서로 구별되고 분리된 영역으로 이미 지나간 과거의 경험’이다. 그것은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가 아닌 ‘주의행위’를 통해서 성찰적으로 돌아본 것이며 ‘유의미한 경험’이다. 경험은 무의식 중에 내가 행하는, 혹은 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상황을 의식하고 주의하는 기억의식의 주의의 행위에 의해 ‘기억(Erinnerung)’으로 뇌 안에 새겨진다. 구술에 이야기(story)로서의 의미를 더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의의 행위에 의해 초래되는 경험, ‘회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험’(Schutz, 1970)이라 하겠다.

다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희미한 기억을 되살리는 것과 타자에게 자신의 과거 체험을 말하려고 ‘성찰적으로’ 돌아보는 것은,

그것이 동일하게 주의행위를 벌이는 ‘경험’이라 할지라도 질적으로 다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설(Husserl)의 제1차적 기억으로서의 과거 지향(retention), 제2차적 기억으로서의 상기(Wiedererinnerung) 및 재생(Reproduction)의 구분이 참조가 된다(Schutz, 1932). 과거지향은 말하자면 체험에 대한 이미지가 시간이 흐르면서 희미해져 가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주체가 현재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에 반해 상기는 성찰적으로 과거의 어떤 경험이 생각나고, 그 기억을 떠올릴 때나 장소가 달라도 의식의 주의행위가 벌어진 경험으로서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특정 시공간에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야기는 말하자면 이미지로서의 기억에 성찰적 균열을 일으키는 가운데 산출된다. 이 기억의 초점이야말로 ‘체험’인 것이다. 가령 가족계획사업 당시의 일은 몇 번이라도 상기할 수 있지만, A의 상기는 1964~80년 전남광주라고 하는 특정 시공간의 틀에서 주의행위가 벌어져, 동일한 ‘경험’을 대상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주의행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험’은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체험’을 둘러싸고 구성된 서사가 담고자 하는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같은 체험이라도 누구의 서사이며 어떤 이데올로기를 담는가에 따라 ‘경험’은 달라진다. 또 경험은 현재의 시점에서 끊임 없이 수정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우리는 몇 번이고 과거를 성찰적으로 돌아보면서 그때그때의 구술 상황을 바탕으로 ‘체험’을 둘러싼 ‘경험’의 서사화를 시도하곤 한다. 어떤 기억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그 중 경험의 핵심 부분은 ‘체험’에 근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체험’ 그 자체를 타인은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지만, 체험자 자신은 파악할 수 있으며 생활사적인 경험을 축적하면서 회고하고 말하는 언어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체험’을 둘러싼 ‘경험’을 현재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체험’은 특정한 시공간에서 구성되는 고유한 경험이다. 이에 반해 주의행위를 통해 구성되는 ‘경험’은 현재의

시점에서 끊임없이 수정되고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서사로서 타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 3) 연구방법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조산사이자 가족계획지도원, 시의원, 여성단체 회장을 역임한 A는 당시의 ‘체험’을 어떠한 ‘경험’으로 말하고 있는지, 출산을 둘러싼 사회사를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청자에게 말하려고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체험’과 ‘경험’을 구분하는 것은 그녀의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체험’을 말하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사를 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통해 성찰적으로 바라본 ‘경험’으로서 이야기가 구성되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그동안 조산사에 대한 연구는 한국 근대 간호사 연구 안에서 조산사를 다룬 연구(이꽃매, 2002), 출산의 의료화 및 임신과 출산에서의 여성 주체의 소외에 대한 연구(김은실, 1996; 조영미, 2004; 안소영, 2001), 조산사 구술을 통한 의료기술, 법적 제도, 기능에 대한 연구(최혜련, 1985; 오선정, 1998; 박운재, 2008; 김효진, 2008; 이임하, 2015) 등이 있었다. 요컨대 대부분의 연구들이 화자가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 말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양한 여타의 자료들을 동원하여 그것을 해석하고 재구성하여 한국 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이 어떻게 의료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정착되었는지, 그리고 여성들은 이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데 집중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 한 개인의 구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인과 사회적 집단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사회적 집단이란 지역사회에서 조산사 활동을 함께 경험한 여성조직이면서 당시 여성들을 근대적 출산문화를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 행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지역사회 등 집단이라고 하겠다. 즉 다양한 집단들 사이에서 존재하

는 맥락 안에서 인터뷰가 진행되기 때문에 화자의 구술이 한편으로는 경험을 말하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집단과의 관계성을 통하여 그것을 해석하고 재구성하기 때문에 경험은 현재의 시점에서 끊임없이 수정될 것이라는 데 착안하여 과연 그런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의 구술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과거 광주전남에서 조산사 및 가족계획지도원으로서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관여해왔으며 현재까지 광주전남에서 거주하고 있는 A의 이야기 형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다만 출산의 의료화 과정, 전통적 출산 문화, 조산업무에서의 지도의사와 조산사의 관계 등은 A의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정보만 가지고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조영미(2004), 안소영(2001), 배은경(2004) 등의 연구는 의료와 국가가 임신과 출산에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였는지에 관한 역사적 변화를 드러내는데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오창민·임선주(2016)가 1950년대에 전남 무안지역에서 조산원을 개업했던 B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내용도 활용하였다. B의 생애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B는 1928년생으로 1945년 일본 후쿠오카 산과학교를 졸업하고 해방과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1954년 결혼을 계기로 무안에서 살고 있다. 1955년 조산원을 개업했고 보건소 가족계획지도원으로 9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여성이다. B의 이야기는 연구자가 출산의 의학적 과정은 물론, A의 경험을 이해하는데도 유용했지만 A가 드러내지 않는 경험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도 유용했다. A의 이야기가 B의 그것과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를 주목하며 A의 이야기가 지닌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진행되는 자료 분석은 A 이야기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 국한되었음을 밝혀둔다. 즉 이 연구는 개인의 구술사를 통해 공적인 맥락이나 어떤 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개인이 자신의 삶이나 경험을 말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연구임을 밝혀둔다.

### 3. 결과분석1)

#### 1) 1960년대 이전: 의료화 이전의 출산

##### ① 조산사가 되게 된 동기: 체험적 이야기

한국 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이 의료의 영역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였다. 즉 1960년대 이전까지 임신을 해서 의사나 조산사를 찾고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은 도시나 농촌이나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다. 거의 모든 분만은 가정에서 이루어졌고 분만 조력자도 전문 의료인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조영미, 2003: 43).

한편 1961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950년대 전국의 조산사는 인구 만 명당 0.8~0.7명에 불과했다. 전쟁이 끝나 1953년에 간신히 2,000명 수준이 되었고 1960년에는 이의 두 배인 4,000명이 넘었지만 이 역시 인구 만 명당 1.7명에 불과한 수치였다. 또 전국의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등록 의사의 수는 1950년에 4,577명, 1955년에 6,141명, 1960년에 7,765명이었고, 의료시설 수는 1955년에 6,073개소, 1960년에 7,700개소였다. 이 당시 의사 수는 인구 만 명당 2.3명(1950년), 3.0명(1955년), 3.1명(1960년)에 불과했다(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61: 400-401; 김은경, 2014: 161 재인용).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전문의 제도가 시작된 것은 1950년대 말이다. 그래서 1950년대에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출산과정에서 수술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외과 의사가 그 수술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출산과정에 참여했던 의사들이 임신, 출산에 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며 따라서 그들은

1) 이하 구술기록의 기술은 ( ): 연구자에 의한 보충, 중략: (중략)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사람 이름과 지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피하고자 A, B, 장○○, 박○○, 이○자, 박○자, 박○옥, I동, B마을 등으로 기입했음을 밝힌다.

출산에 관한 기술이나 지식에서 조산사와 거의 변별력이 없거나 오히려 아이를 받은 경험이 풍부한 조산사가 더 축적된 출산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안소영, 2001: 36).

그렇다면 1960년대 이전에 A가 어떤 체험을 했는지, 그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A는 초등학교를 6세가 되는 1945년에 들어갔다. 남들 보다 2년 일찍 초등학교에 들어갔지만 공부를 잘 했던 것 같다. 1951년 전남여자중학교에 입학시험을 쳐서 장학생으로 들어갔다. 특히 수학을 좋아해서 잘했고 “수학박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했다. 그런 그녀는 사춘기 시절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집안사정이 어려워지자 전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 간호고등기술학교(이하, 간호고등기술학교)를 진학하게 되었다고 한다. 친구 언니의 권유로 별다른 목적도 없이 간호학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공부를 잘한 사람”은 전부 사범학교를 갈 정도로 1950년대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활동한 주 무대는 교육계였다. A는 “선생 했으면 그래도 교육감은 안 돼도 장학사까지는 되었을 건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간호고등기술학교는 현 전남대학교 간호대학의 전신이다. 당시 간호고등기술학교의 신입생 입학정원은 매년 30명가량이었다. 학교의 등록금과 수업료는 전액 관청에서 지급했으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시상을 하기도 하였다. 간호고등기술학교 재학시절 A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학생이었다.

A: 외과학이 재밌었고, 또 이비인후과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교수가 장○○ 교수가 가르쳤거든? 장○○ 교수가 나 항상, 내가 눈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눈보, 눈보하면서, 눈보는 머리가 좋다고, 지금도,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냥 만나도 나를 엑셀런트(뛰어난) 하다는 얘기를. 항상 칭찬을 해주께 감사하긴 한디 내가 그 정도 되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중략) 저희 졸업할 때 (전남대학교병원에) 7명 남았어요. 국비를 공부하면 당연히 국비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됐거든요. 의무연한이 있는 것인데, 우리 졸업할 때 의무연한이고 뭐고 없어졌단 얘기가. 왜냐면 티오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수용은 못하니까.

1958년 간호고등기술학교 졸업. 원래 간호고등기술학교 졸업생은 수업료를 면제 받았기 때문에 전남대학교병원에서 3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했다. 하지만 A가 졸업하게 되었을 때는 이를 반드시 이행할 필요가 없었다. 정원이 다 차서, 소위 말하는 “티오”가 딱 찼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졸업생이 훨씬 더 많았다. 실제로 당시 전남대학교병원의 채용인원은 30명의 졸업생 중 4분의 1인 7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당시 상당히 엄격한 평가가 실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A는 1957년부터 1964년까지 전남대학교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조산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A: 그것을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거든. 케이스 스터디를 20 케이스 하면은 우리 조산사 자격을 줬어. 공계 분만실에 그 케이스를 다 가서, 우리가 직접 얘기를 안 받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받아서 얘기 주면은 우리가 다 씻고 하는 것을 해서 20 케이스를 하게 되면 조산사 자격을 (인정받았다).

조산사 면허를 받기 위해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조산실습으로 20건의 분만 경험을 했다는 말이다. 이렇게 간호학교 졸업생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 조산교육을 받으면 간호사와 조산사 면허를 동시에 주었다고 한다. A는 간호사가 ‘평생직업’이라고 생각되진 않았던 모양이다. “간호사는 결혼하면은 그만두게 되어 있잖아요”라고 말한다.

## ② 롤모델 오희순: 경험적 이야기

한편 이 연구는 사람들이 조우한 사건에 대한 ‘체험’에 주의행위를

벌써 성찰적으로 돌아본 ‘경험’을 ‘경험적 이야기’라고 칭함으로써 이야기가 하나의 서사라고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화자가 말하는 ‘경험적 이야기’를 ‘지어낸 이야기(fiction)’라고 간주해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생산된 서사로서, 과거의 실재(reality)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화자는 ‘체험’이 ‘리얼(real)’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서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리얼’은 ‘사실’과 다르다. ‘사실’이 이야기 또는 사건의 차원이 라면 ‘리얼’은 이를 재가공한 플롯의 개념에 더 가깝다.

인터뷰에서 A는 체험에 충실하고 현실성 있는 이야기와 함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이 더해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느 것이나 ‘경험적 이야기’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본고의 입장에 의하면, 과거지향(retention)적 경험의 이야기는 ‘체험적’ 이야기로 이해되며, 거기에 어떤 의미를 가미한 성찰적 이야기는 ‘경험적’ 이야기로 구분된다. 물론 ‘체험적’ 이야기도 ‘경험적’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서사이며, 화자의 생활사적 경험이나 정보가 반영된 상대적인 개념이다. 본고는 객관적 시공간의 틀에서 동일성을 가진 고유한 경험의 이야기는 ‘체험적’ 이야기로 보고,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경험에 대한 성찰적 이야기는 ‘경험적’ 이야기로 구분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바라보자면, 앞 절의 조산사가 되게 된 동기에 관한 이야기는 ‘체험적’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일한 시기가 ‘경험적’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표현될까? A는 여성으로서 평생 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조산사를 택한 것이지만, ‘오희순’이라는 조산사의 삶을 동경하기도 했다고 한다.

A: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오희순 씨가 모델이야. 어. 오희순 씨는 옛날에 아마 양성소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아주 텍스러우신 분이예요. 후덕하신 분이예요. 아주 멋이 있으시고 자전거 타고 분만 하면서

광주에서는 옛날에는 산과 그랬죠. 광주에서는 넘버원이고, 풍채고 뭐든 것이고 오이순 씨 하면 그 시절에는 광주 시내에서 알아주신 분이야. 그리고 병원이, 산부인과 병원이 오픈한 데가 없었어. 대학병원만 있었고. 그니까 광주 시내 전역을 자전거 타고 그분은 가정 분만을 많이 하신 분이야.

\*: 그 선생님하고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A: 아니, 만난 게 아니라 조산사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제가 직접 만나서 그분을 한 것 보다는 어떻게 앞으로 가난하니까 어떻게 돈을 벌어서 잘 살까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오희순 씨’는 일제시대 산과양성소를 졸업했으며 1955년 전남산과회를 조직한 여성이다. 그녀는 조산사 생활로 보낸 반평생을 한권의 책에 담아 1985년 자서전 『빛과 어둠 사이에서: 조산원 생활로 보낸 반평생』을 펴냈다. 이 책에는 ‘한해에 한집에서 두 아이가 태어나면 나쁘다’는 미신 때문에 셋방살이하는 임산부가 마당에다 거적을 깔아 임신 산실을 차리는가 하면 끔찍한 난산 끝에 산모와 아기가 다 죽어 가는데도 노름에만 미친 남편, 18세의 앓된 씨받이 소녀, 네 딸을 낳은 산모가 다섯 번째 딸 쌍둥이를 낳자 두꺼운 이불을 덮어쓰워 죽여 버린 사건 등 3천 5백여 명에 이르는 새 생명의 탄생을 도우면서 오씨가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이 담겨 있다. 오씨는 또 이 책에 1946년 광주 동명동에서 첫 개업을 했다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실었다(오희순, 1985: 41). 사진에는 오희순이 자전거를 끌며 미소를 짓고 있다. 파마머리에 양장 원피스를 입고 있고 구두를 신었고 손목에 시계까지 차고 있는 걸로 보아서 세련되고 현대적인 여성처럼 느껴진다.

1940년생인 A가 오희순을 만났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따라서 위의 A의 말은 1960년대 이전의 경험이나 가치관의 영역이 아니라고 추측된다. 그녀는 전남대학교병원 간호사로 일하면서 조산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낀 것 같다. 그녀는 당시 병원 분만실에는 조산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A: 그때 출산한 경우는, 그때는 열악했제, 환경이, 병원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실습생들은 보조하고 케어하고 신생아 낳잖아요. 그러면 인자 목록시키는 거. 그때 델리바리(출장분만), 분만은 우리가 안 해, 분만 할라고 할 때는 이미 저 의사 선생님이 와, 그리고 간호사가 거기에서 제대 자르잖아요. 제대 자르고 하는 것은 아이를 받아서 선생님이 하면 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여. 의사가 받아가지고 간호사가 하고. 나이트 일 때 인자 이멀전시(응급상황)나 있어서 막 나왔을 때는 조산사가, 조산사 자격자가 받제.

\*: 그렇죠.

A: 분만실에는 조산사 배치가 되어 있는 거여. 안 되어 있고 그러질 않아.

A는 당시 분만실에는 조산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말로 추측해 보자면, 이 시기 조산사는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병원에 고용된 상태이나 분만실에 근무하고 있어 전문직 역할 수행이 높았을 것이다. 결혼 후 가정을 가지고도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원했던 A의 눈에 비친 조산사는 괜찮은 직업이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순 씨가 자신의 롤모델’이라는 말은 A가 조산사라는 직업의 역사, 이미지,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조산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현저히 부족한 편이었다. 그 무렵 A는 조산원이 어떤 곳인지 알리려고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고 한다.

A: 조산사 개업할라고 했어요. 왜 그냐면 개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냐, 어떻게 해야 조산사 개업을 좀 멋지게 하고 사람이 많이 알려질 건가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 참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해서 뭘 했냐면 제가 미용기술학교를 다녔어요.

\*: 아, 같이 공부하시면서요?

A: 아니 졸업하고 나서 간호사 근무하면서 야간에. 데이 근무하고. 앞으로 조산사 개업을 할란디 왜 그 생각을 했냐면은 미용은 여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여자들이 많이 미용실에 오기 때문에 조산사 홍보를 그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 그때. 그래서 미용사 자격증도 있지요. 결혼 전 이야기, 그것은.

A는 조산원을 개업하려는 목적으로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한다. 하지만 A가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만 해도 조산원은 의료기관이 아니었다. 즉 이 시기는 조산원 분만이 불법이었고 조산사는 왕진의 요구가 있을 때 산모의 집에 가서 분만을 주도했다. 그러다 1973년에 의료법 개정으로 조산사들은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있었는데<sup>2)</sup>, 그 당시에도 많은 조산사들이 자신이 기거하는 집에서 간판을 붙이고 조산원을 개업하고 있었다(안소영, 2001: 46). 즉 당시 사회는 조산사가 입원실과 진찰실을 갖춘 조산원 “개업을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었다. 따라서 1960년대 이후의 경험이나 가치관에 의한 이야기라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 ③ 산과와 조산사와 의사: 체험적 이야기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전반에 이르는 시기에 간호사로 근무한 A의 구술을 통해서도 전통적 출산 문화, 조산업무에서의 지도의사와 조산사의 관계 등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1928년 생인 B의 이야기를 소개하기로 한다. B는 1945년 일본 후쿠오카 산과학

2) 1973년 개정된 의료법은 조산사들이 조산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과 함께 조산소를 규정하였는데, 조산소란 구체적으로 조산원이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었다(의료법 중 개정법률 제2533호, 1973.2.16).

교를 졸업하고 6·25 전쟁 당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하면서 대구의 병원으로 파견근무를 나갔을 때 남편(목포 출신)을 만났다. 당시 남편은 전쟁 때 부상을 입어 대구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때 남편으로부터 청혼을 받았다. 1954년 남편과 결혼하면서 무안군 망운면으로 이사 와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다. 의료 기관과 약국이 드물었던 당시 남편은 약업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도에서 지정해준 지금의 망운면에 약방을 차렸다. 그것이 무안으로 이사를 오게 된 계기였다. 27세 때였고, 그 때부터 조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 ‘B 조산소’라는 간판을 붙이고 아이를 받으러 왕진을 다녔다. 다음 구슬은 ‘B 조산소’가 개업할 당시인 1950년대 중반의 상황으로 추측된다.

B: 여기는 내가 개업하고 있을 때도 어디서 그렇게 돌팔이 여자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 여그서 뭐, 나도 간호사 자격증이 있다, 나도 산과 자격증이 있다. 그래가지고는 저그들이 가서 인자 나한테 오면 저그들이 가서 받아. 안되면 인자 그 집에서는 나를 오라고 해서 나는 가. 그러면은 산모를 놔 놓고 아니 시프<sup>3)</sup>만 하고 앉았어. 그러면 내가 가면은 자리를 바꿔줘야 하는디 딱 버티고 지가 보고 있어. 그러면은 아주머니가 몰라요? 왔으게 거그서 앉아서 보쇼. 나보고 앉아서 보래요. 그러면 내가 돌팔이가 하는 것을 내가 앉아서 보겠소? 그러면 나는 갈라요. 갈란다면 그 집에서 아니라고, 아무게 엄마, 여그 선생님 오셨으게 보시라고 해. 그러면 인자 그때사 슬그머니 비켜줘.

예전에는 출산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을 산파라고 불렀다<sup>4)</sup>. 주로 경

3) 습포, 찜질: 일본어 시프.

4) 이후 현대적 의료법이 도입된 뒤인 1914년에 제정된 ‘산과규칙’에는 전통적으로 산모를 구완하던 사람의 이름을 ‘산파’라고 부르게 했다. 산파는 1951년 국민의료법에 따라 조산원이 되고, 1973년 다시 법이 개정되어 조산사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서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산파 혹은 조산사 면허를 가지고 출산을 담당했던 사람을 현재 사용하는 명칭인 조산사로 통일하였다. 그리

힘 많은 노파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용어이다. 이런 산파는 1950년대 전후까지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었다(오희순, 1998: 11). 그런데 조산사 양성교육은 시기적으로 1950년대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우리나라의 조산사는 1903년 처음 배출된 이래 일제강점기 조산사 면허가 법적으로 제도화되고, 조산사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다(안소영, 2001: 24). 따라서 1950년대는 조산사 면허를 가진 여성과 전통적 산파가 공존하고 있었다. 조산사는 근대 의료 체계에서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의료인이라는 점에서 전통적 산파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그리고 그로 인해 조산사와 산파 사이에 마찰이 있기도 했다. B의 위와 같은 발언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준다. 산파와 조산사의 차이는 산전 진찰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이다. B는 진찰을 해보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산모들은 모두 의사에게 보냈다고 한다.

B: 인자 좀 어렵겠다 하면 바로 보내버려 나는. 그런 거 취급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 내가 뒤집어쓰면 안 돼. 먼저 가서 산모 상태를 먼저 보고 진찰 먼저 내진 딱 해서 아 이것은 안 되겠다. 자궁 수축하는 것을 봐서, 수축이 정기적으로 제대로 안 허면은 보내 버려야 써. 안 그럼 큰일 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때는 조산원 분만이 불법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조산사가 전문 의료인으로 인정되고 조산원이라는 독자적인 출산공간을 운영하는 것은 1973년 이후의 일이었다. 다만 단서가 있었다. 지도의사가 필요했다. 의료법 규정에 “조산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개설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한다”라는 단서가 있었기 때문이다(의료법 중 개정법률 제2533호, 1973.2.16.). B는 지도의사 선정을 보건소가

---

고 근대 의료직과 직접 연결시키기 힘든 전통적 산파 혹은 산(産)할머니의 경우 산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했다고 한다. 지도의사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녀는 지도의사와 한결같이 잘 지냈다고 대답한다.

B: 인자 그 애, 그 배 수축, 어린애 날라면 배 수축이 오는 거. 배 수축이 오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이상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알거든. 배 수축이 있으면 배가 수축이 작아. 근데 수축이, 배는 아프다 근디 배는 수축이 안와. 그러면 벌써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상이 있다 그러면 언능 손을 안대야 써. 언능 손을 안대야 써. 내진을 해보면은, 애기는 될 때가 되얏는디. 될 때가 되얏는디 수축이 안 되니까 애기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놈은 참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참 거기서 이것을 병원 보낼래야, 보낼래야 그때는 차도 없고 뭐 뭇이 무슨 타고 갈라면은 버스가 있어야지. 근데 여그가 인자 공의가 하나 있는디 공의를 부르면은 공의는 산부인과 대해서는 아주 제로여. 몰라. 그러면은 그래도 의사니까...

\*: 공의는 공중보건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B: 응응,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해서 그냥 병원을 보낼까요, 선생님이 손을 봐주실랍니까? 그러면은 나보고 더 일을 물어봐. 어떻게 할라가냐고.

요즘 말하는 1차 진료(primary care)를 조산사가 담당하고 자연분만이 어려운 경우를 의사에게 돌리는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쌍방의 의료행위 범위가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초창기 조산원을 개업할 당시에는 응급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B: 언젠가는 우리 여 우에서 병원이 있었는데, 산모가 하나 와서 막 진통이 와. 그렇게 나를, 나를 부르드라고 불러서 간 게 어린애가 다, 머리가 다 보여. 근디 의사가 회음은 저... 절개할라고 하드라고.

\*: 예, 이렇게 절개해요.

B: 절개할라고 하드라고. 그래서 내가, 원장선생님 절개하지마쇼, 절개

하지 말고 회음만 잘 보호해주세요. 그러면은 파열도 안되고 잘 나옵니다. 궁게, 그러면 나보고 하라글더라고 그래서 그분 선생님 한 번도 안해보셨어요? 궁게 안 했다 그래. 그러면 나 하는 것을 보쇼. 인자 내가 잘 보호해 줘갖고, 고놈을 이 양쪽에 저기를 조금 늘려주거든? 조금 늘려줘. 늘려갖고 회음을 보호해 줘갖고 어린애가 이렇게 나오면 돌려, 요요요요요요요 여기 와서는 또 지가 돌거든.

B는 의사가 출산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회음만 잘 보호해달라”고 의사에게 말하기도 했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당시에는 전문의에게 진찰과 서비스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산부인과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의사가 우위를 확보할 여지가 좁은 상황이었을 것이고 의사와 조산사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다<sup>5)</sup>. 다시 말해 의사와 조산사의 관계에서 조산 행위는 의사의 지시가 필요한 일이지만 조산사의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았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게다가 당시만 해도 농촌에는 산모들을 돌볼 보건 시설이나 조산사들이 충분치 않았다. B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받았다고 한다.

B: 여기서 여기 촌에 20리, 30리 걸어 와가지고 그놈을 조산해서 살려놓고 보면은 내가 그렇게 보람 있드라고. 근데 보면은 또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조산비는 주긴 험디? 먹을 것이 없어.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는 그다음에서부터는 내가 촌에서 출장을 하고는 자전차 뒤에도 타고 가고, 차가 없으께. 그리고 그담에는 무안 가서 택시가 두 사람이 하더라고. 그래서 택시 그 사람을 내가 전용으로 썼어. 저녁에도 오라고 해갖고 그놈을 타고 가서 거기 가서 그냥 저기를 하는

- 
- 5) 안소영은 이러한 이유로 조산사 여성들은 자신들이 의사에 뒤지지 않게 전문가적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며(안소영, 2001: 32), 특히 일제시대나 1960~70년대 이전에 조산사를 자신의 직업으로 삼았던 여성들에게 있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흔하게 발견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안소영, 2001: 34).

다.

B는 “20리, 30리” 길을 이동하면서 아이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그녀의 활동 범위가 넓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전거, 택시라는 근대적 교통수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앞서 A가 언급한 ‘오희순’도 자전거를 타고 왕진을 다녔다고 했는데, 1950년대에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일은 매우 드물었을 거라는 사실을 추측해 본다면, ‘자전거’라는 것이 가지는 상징은 신여성이었을 것 같기도 하다. 공적 영역에서 활동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당시 여성들에게 의료계에서 활동한 조산사는 전문적 신여성의 상징으로 인식된 것이다.

## 2) 1960~70년대: 국가의 의료적 개입

### ① 가족계획지도원 활동: 체험적 이야기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조산사 분만이 점차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출산문화의 변화에는 1960~70년대의 조산사들이 가족계획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로부터 일정 부분 기인한다.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A의 체험적 이야기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가족계획사업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 이후 심각한 빈곤과 식량 문제로 고민한 한국 정부(박정희 정권)는 1961년부터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산아제한정책, 이른바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1960~70년대 가족계획사업은 거의 전적으로 농촌 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1960년대 만해도 농촌에는 근대적 의료시설이 절대 부족했고 이에 따라 여성 대부분이 인위적으로 임신을 조절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촌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조절 보급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가족계획사업은 조산사와 간호사를 시·군 보건소 요원으로 배치

하였다. 그리고 마을단위에는 가족계획어머니회가 조직되었는데, 어머니회장은 보건소 요원과 함께 피임을 보급하고 목표량을 달성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때 A가 어떤 체험을 했는지, A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한다. A는 1964년 교육청 공무원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있다. 1965년 장녀를 출산한 이후 줄곧 3년과 2년 터울로 자녀를 가졌다. 한편 그녀는 결혼을 하면서 전남대학교병원을 그만두었다. 당시엔 결혼을 하고도 간호사 일을 하는 여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정 일에만 몰두하기에는 그녀의 열정이 넘쳤던 모양이다.

A: 제가 간호사는 결혼하면은 그만두게 되어 있잖아요, 64년도, 64년도 그만두고 그때는 광주시가 전라남도 광주 직할시였어.

\*: 네 직할시.

A: 직할시일 때 전라남도에서 가족계획요원 모집이 있었어요. 왜냐면 결혼을 하면 전남대학교병원을 나와야 되니까 그다음 직장을 어디를 가느냐 해서 그거 해가지고 1등을 냈어.

\*: 선생님이 시험 보실 때?

A: 응 전라남도 시험 봐가지고 1등 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 그래서 내가 광주시로 간 거죠.

\*: 가족계획요원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무원이셨네요? 보건소 공무원.

A: 보건소죠, 보건소. 그때는 가족계획 셋 낳기 운동하고 할 때.

\*: 1등하시고 보건소 공무원으로 배치가 되시고, 첫 배치지가...

A: 그때는 나라가 그 정규직보다는 그냥 계약직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1년 살이지. 1년 살이. 1년 계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지 저런지도 모르고 하여튼 갔는데 그렇게 되어 있었어. 그리고 티오 공무원이 별로 많지가 않았고. 양성화가 안 된 상황이었어.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지? 그랬잖아요? 새마을운동 하고 막 그럴 때 그러니까 그때로 해서 그걸 가가지고 결혼하고, 그때 이제 결혼 하면서 나왔으니까.

A는 1964년부터 1980년까지 16년간 광주지역 보건소 가족계획지도원으로 일했다. 당시 그녀는 가족계획을 홍보하고 피임시술 희망자를 모집했다. 남성에게는 정관수술을, 여성에게는 루프<sup>6)</sup>시술, 난관수술, 중절수술을 권장했다. 그러나 많은 남성들이 정관수술을 선호하지 않아 여성들이 피임의 절대적인 책임자로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특히 루프는 초창기 가족계획사업이 가장 열심히 보급했던 출산조절 방법이<sup>7)</sup>였다. 가족계획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60~70년대에는 피임 목표량을 달성하는 것이 그리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A는 전라남도에서 루프시술 실적 “1등” 요원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A: 루프시술도 저기 아조 제가 많이 했죠.

\*: 아, 그러세요.

A: 랭킹1위일 거여, 전국으로 봐도. 왜 그나면 가족계획요원들을 데리고 앰블런스에다 딱 실어요. 제가, 선임지도원이었어, 내가.

\*: 아 선임지도원이요.

A: 그래가지고 거그 가서 마을에다가 요원들을 풀어. 그러면 나는 방을 하나 채려봐. 그래갖고 소독해진 루프 있잖아요. 그놈 갖고 가서 방을 하나 채려. 그러면 뭐 요즘 같으면 침대 진찰대가 아니고 땅에다가 하고 히프에다 베개 하나 인자 델 정도로 해갖고 다 갖고 가서 하죠. 그래서 실적을, 가족계획요원으로서 전라남도 1등을 했어. 부락 부락을 가서 물이를 해. 그면 거그 요원들을 전부 풀어. 하고 집집이 가서 인자 시술 할 사람 데리고.

\*: 그때 밀가루 줬다고 그러던데요.

A: 밀가루 주든(주지는) 않았어.

- 
- 6) 자궁내 피임기구(리페스루프). 특수한 화학제를 입혀 특수한 모양으로 고안된 장치. 병원에서 자궁내에 삽입하는 시술을 받는 피임법.
  - 7) 수많은 여성들의 몸속에 장착되어 그녀들로 하여금 어려운 적응 과정을 겪게 했던 루프가 안전성에 대한 그 어떤 기초적 보장도 없이, 실물생산에 대한 기술 지도 한번 못 받아본 사람들에 의해 얼렁뚱땅 생산되고 보급된 과정에 대한 논의는 배은경(2004: 230-234)을 참고할 것.

\* : 아, 그랬어요? 선생님 그때 혹시 그 기구 혹시 어떤 것 갖고 출장  
가셨어요? 가족계획 그거 하실 때?

A: 지도?

\* : 네, 지도 나가셨을 때.

A: 응, 루프.

\* : 루프하고 그 시술기 뭐 그렇게 또.

A: 시술기가 인자 루프여. 루프 삽입기가, 루프 삽입기가 있어요. 루프  
를 넣어가지고 하는, 그 삽입기, 코엘로 해가지고 루프를 넣어. 그러면  
루프가 라면같이 생겼어, 꼬불꼬불. 실달린 놈을 인자 자궁에다 딱 넣으  
면 그 자리에 가서 꼬불꼬불 대지. 그 실습교육을 가족계획연구원에서  
받았지.

\* : 아, 선생님도 이수하시고, 선생님이 직접 하시고. 그때는 뭐 공의<sup>8)</sup>  
나 공중의가 따라 붙지는 않나요? 선생님이 직접 다 하시고?

A: 응?

\* : 공중보건의가 같이.

A: 안 따라붙어. 시술요원 자격이 있는데?

\* : 아, 시술요원 자격.

A: 나 혼자 가도 괜찮아. 시술 실적은 랭킹1위였다니까. 왜냐면 일일이  
그냥 오도록 만들고, 보건소에서 하면서 오도록 만드는 것보다는 현지  
에서 그냥 풀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한 사람을 현지에서 해주면  
더 실적을 많이 해. 그래갖고 지금 전라남도 도청 과장이 박○○ 씨였는  
데 A 하시면 1등으로 예뻐했잖아요, 1등 하니까. 광주시가. 광주시가  
직할시일 때여. 전라남도 26개 시군에서 1등을 했다고.

A는 “루프시술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녀는 시술요원  
자격이 있었고, 마을 여성들을 보건소로 인솔해서 데리고 가서 시술하  
는 것보다 자신이 현지에서 직접 시술하는 것이 피임 실적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배은경(2004: 232)의 표현을 빌려서 말

---

8) 지금의 공중보건의사.

하자면, 당시의 A에게 루프는 실적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사실 A의 이런 이야기는 가족계획사업이 실시된 시기의 사회 전체에 유통하고 있던 지배적 담론이다. 즉 가족계획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되고 본격적으로 추진된 1960~70년대에는 소자녀 중심의 핵가족 규범과 출산조절의 의미가 제도적 강압을 통해 보급되었기 때문에, 논쟁과 경합을 읽어낼 만한 담론지형 자체가 형성될 수 없었다(배은경, 2004: 19).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 발간된 잡지나 신문에서 피임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담론을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경향신문』 1968년도 2월 26일자 사회 5면에는 당시 가족계획지도원의 활동상을 엿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 양은 64년 봄 경기도청에서 강습을 받고 이 마을 가족계획 계몽원으로 나섰다. 우물가에 모여든 아낙네들에게 차근차근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설명해주고 또 약제와 루프시술을 전했다. 일손에 바쁜 주부들은 집으로 찾아가 일을 도와주며 낫을 익히는 가운데 가족계획계몽을 펴기 시작, 하루 평균 25가구를 방문 설복하자면 10여Km를 걷기가 보통이다. 피약별 아래서도 가가호호를 찾기까지 가벼운 발걸음은 무안을 당하고 되돌아올 때에는 더욱 무거워져 몸살을 앓기도 했다는 것. 그러나 쉽게 단념하지 않고 두세번씩 계속 찾아오는 강 양의 열성과 인내심에 “아기 못 낳게 하는 여자가 지나간다”고 손가락질을 하며 놀려대던 부락민들은 차차 변하기 시작했다. “시집도 안 가본 처녀가 어떻게 아느냐”고 극구 반대하던 아낙네들은 차차 강 양을 신임하고 남편들의 협조로 약제와 루프시술에 응하게 되었다. 그래서 먼민 3만명의 팽성면은 62년 34.3%의 인구성장율에서 67년 29%로 5.3%가 급감, 평택군에서 모범부락이 되었다.

A의 이야기에서 당시 루프의 안정성에 대한 그 어떤 심각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화자의 이야기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이지연(2018: 115-116)에 따르면, 생애사, 생애이야기 등은 개인의 경험에 대한 서술

이라는 점에서 모두 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이 처한 사회적 공간속에서의 제도적, 혹은 집합적 모드(mode)의 이야기 방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적 모드의 이야기만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는 없다. 가령 가족계획사업 당시 가족계획지도원 활동을 한 조산사의 경험적 이야기에는 화자 개인의 경험에 대한 개인적 모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조산사의 생각과, 개발 국가 시기의 여성들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이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지 설명하는 집합적 모드의 이야기, 서적이거나 공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제도적 모드의 이야기가 잠입해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화자가 누구인지, 어떤 생활사적 경험을 축적해왔는지,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A의 이야기에는 가족계획사업에 참여했던 과거의 체험과 함께, 그러한 체험을 말하고 있는 현재의 체험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그녀는 가족계획사업 이후에도 가족계획사업을 통해 만난 동료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 속에서 2000년대 시의원, 여성단체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과거의 체험을 회상하고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B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내용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 ② 루프시술: 경험적 이야기

B는 왕진을 나갈 때 왕진가방을 들고 갔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인터뷰 도중에 왕진가방 속을 현장에서 공개하였다. 가방에는 내진기계, 가위, 장갑, 주사약, 지혈제, 자궁수축제가 들어 있었다. 신생아에게 사용하는 안연고<sup>9)</sup>와 석션<sup>10)</sup>도 있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루프가 있었다는 것이다. 루프를 챙겨 다닌 이유는 가족계획지도

9) 테라마이신 안과용 항생물질 연고.

10) 분비물 흡입(suction).

원 일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B는 가족계획사업이 추진된 시기에는 가족계획지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산업무를 병행했다고 한다.

\*: (루프시술) 직접 꺼줬어요?

B: 루프시술도 그때 했지.

\*: 여기 와서 받았어요? 집에서 해줬어요?

B딸: 루프시술 집에서 했어, 아니면 가서 하셨어?

B: 가서 해줬어.

\*: 가서 직접?

B: 가서 직접 내가 했냐면 그때는 공의가 있었거든. 공의.

\*: 공의.

B딸: 보건의? 공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B: 공의라고 하는 것은 여그에 거시기 담당하는 의사. 의사가 여그 와서 있었어. 나하고, 출장일지가 나와. 그러면 나하고 같이 가서 여그서 그 동네 회장 하나, 내가 회장을, 각 동네에 회장을 만들었거든. 회장을 만들었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루프나 어린애 많이 낳는 사람 보내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같이 가서, 동네 가서 루프 끼워 주고, 루프는 공의가 가서 많이 꺼줬어. 나하고 출장 갈 때는.

이 녹취록에는 화자의 표정, 동작, 침묵, 말의 멈춤, 발화 속도 등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B의 감정이나 가치관을 정확히 판단하긴 어렵지만 인터뷰의 흐름을 통해 그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인터뷰어와 인터뷰이 사이의 흐름을 따라가보자. 먼저 B는 인터뷰어가 루프시술을 직접 했는지에 대해 묻자, “루프시술도 그때 했지”라고 한다. 이는 당시의 지배서사에 잘 들어맞는 구술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인터뷰어가 조산소에서 시술을 했는지를 물었는데, B가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던 것 같다. B의 딸이 “루프시술 집에서 했어, 아니면 가서 하셨어?”라고 나서서 말한다. 그러자 B는 마을에 “가서 해줬다”고 했다. 이어서 인터뷰어가 시술은 본인이 직접 진행했는지 확인하자, B

는 ‘공의’, ‘출장일지’, ‘마을 회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루프는 공의가 가서 많이 꺼졌다”고 말했다. “공의가 많이 꺼졌다”는 그녀의 말은 주로 의사에 의해 루프시술이 진행되었으나 B도 루프시술을 하였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B가 루프시술 당시의 경험을 말하는데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B가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침묵을 하는 이유로는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다. 먼저 무엇보다 인터뷰 과정에서 인터뷰어와 B 간의 권력관계가 압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확률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인터뷰어와의 만남에서, 인터뷰의 상호작용에서 마치 경찰로부터 심문을 받는 느낌이 들 정도로 권력의 비대칭성이 발생했다면 B가 말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B의 침묵과 사회적 맥락은 서로 떼어서 볼 수 없는 반영적 관계에 있다.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 사이에 간극이 큰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을 말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B는 자신의 구술이 어떠한 유형의 형태로 공개되는지, 어떠한 독자를 상정한 연구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인식에 따라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생각했는지 모른다(이지연, 2019: 82-83).

결국 화자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침묵하는 상황은 인터뷰어와 인터뷰이 사이의 상호작용, 즉 청자에게 말하고 있는 행위와의 얽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루프시술 당시의 경험은 이미 끝나버린 과거의 일이지만, 말하는 행위를 생각하면 현재도 시야에 들어온다고 할 수 있다. 현재를 고려한다면,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화자가 현재 조산사로서 어떠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위의 B의 말이 1960~70년대 경험이나 가치관의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즉 제도적 혹은 집합적 모드의 이야기를 따르고 있는 A의 말과는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 3) 1980~90년대: 조산원의 성행과 쇠퇴

## ① 조산원 개업: 체험적 이야기

1977년 실시된 의료보험은 한국 출산 문화를 뒤바꾼 사건이었다. 비록 보험 적용의 혜택은 중산층 여성에게 치중되어 있었지만,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의료보험은 복지의 향상을 의미했다. 하지만 조산사들에게는 일종의 ‘재앙’이었다(박윤재, 2008: 43). 무안에서 조산원을 운영한 B는 1970년대 말부터 조산업무가 감소했다고 언급한바 있다. 이는 객관적 수치로도 확인된다. 통계조사에 의하면, 1982년 전체 분만 중 조산사에 의한 분만은 6.4%이었으나 1991년 5.1%, 2000년에는 0.3%로 떨어진 반면, 의사의 경우 1982년 55.8%, 1991년 91%, 2000년 99.2%로 증가했다(조영미, 2003: 50). 즉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많은 조산사와 조산원은 쇠락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광주의 상황은 달랐던 것 같다. A가 자신의 조산경험을 말하는 때는 1980년대인데, 당시는 “광주에서 1등이라고는 못하지만 으뜸가는 조산사로서 출장분만 건수가 많았다”고 한다. 그녀가 이 시기에 어떤 체험을 했는지,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A는 1980년 광주 I동에서 개업을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산부인과에 얽힌 일화 한 토막을 전해 주었다.

A: 인자 에피소드는 그만큼 조산사가 안전하고 사람들을 인기가 좋았던 얘기에요. 내가 지금 얘기를 하네요. 우리 옆에 모 산부인과가 있었어. 궁께 인자 아이 그 I동, 그 사람들이 상호를 딱 기억을 안 하잖아요. 말한 사람하고 들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여. 궁께 엄마가 아이 그 그 I동 그 저 산부인과로 가그라 그랬어. 그래서 I동에 산부인과가 있는 게 거기 가 있었어. 근데 딸이 인자 엄마가 왔는데 아이 안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핸드폰도 없으니까 헐레벌떡 뛰어오지. 와갖고 인자 산부인과 가서 앉았는디 애날까지 해서 딱 한 거야, 관장. 관장까지 딱 해서 산모 인자 거그는 분만 받을라고 준비를 다 했잖아요. 아니 여가 아니

야. 그래갖고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 근데 내가 그 원장한테 얼마나 미안해요, 내가.

A의 조산원은 광주에서 지역 공동체에 기반 하여 운영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A를 찾아오는 여성들과 그녀는 의료적 관계뿐 아니라 지역주민으로서의 관계도 가지고 있었다. 1973년 이후 조산원은 의료기관이 되고 조산사에게도 왕진이 더 이상 의무사항이 아니게 되었지만, A는 줄곧 아이 낳는 여성들이 원하면 그녀가 살고 있는 집에 가서 아이를 받아주고, 또 1주일간 산후 관리를 해주기도 했다. 그래서 A에 대한 신뢰도는 선전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곳을 다녀간 여성들의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고 있었다. A는 한 달 산건이 100건 정도 되서 보조간호사를 고용해 조산원을 운영할 정도로 일이 많았다고 한다.

A: 하루 몇 건 그렇게 보다는 한 달에 한 100여 건 정도는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쁘죠. 밤에는 잠 못 자고 애기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 에 힘들어서 다른 조산사 하나를 보조를 후배를 데려다 왔는데 밤에 산모가 오잖아요. 원장 얼굴을 봐야지. 그 사람이 받으면 그냥 난리가 나고 그냥 아주 이만큼 입이 붙어가지고 아침에 와갖고 보면 이렇게 되어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A는 인터뷰하는 동안 B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꽤 오랫동안 했다. 그녀의 구술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B마을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가 조산원을 개설한 광주 I동은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공장이 있었던 곳이다. I동과 강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산동네가 있었다. 이곳은 1950년대에 강변에 사람들이 움막을 짓고 살면서 형성된 B마을인데, 1960~70년대 전남방직, 일신방직이 호황을 이루면서 전국에서 찾아온 여공들의 주된 주거지 역할을 했다. 여공들이 그곳으로 흘러든 이유는

방값이 짚기 때문이다. 농촌에 사는 가족들의 생활비와 남자 형제들의 학비를 대야 했던 이들에게는 한 푼이라도 아끼는 선택을 마다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덕분에 주민들은 여공들을 상대로 하숙을 하며 살림을 넓혔고, 주위에 식당이나 세탁소, 유흥가와 옷가게 등 다양한 가게들도 차례로 문을 열게 되면서 당시 마을은 활기를 맞았다. 하지만 B마을의 활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호황을 누리던 방직공장은 주 생산원인 무명천 광목이 퇴조하면서 급격히 불황을 맞았다. 이에 여공들은 하나둘씩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 뒤로 마을은 계속 어려워졌고, 결국 B마을은 달동네가 되었다. 이곳 여성들이 조산사에게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난산인 경우이나 가능한 일이었다.

A: 옛날에 응, B(마을). 그래갖고 그때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산게 그것을 우리 임동에서 다리 건너서 갈라든 혈떡거리고 그냥 가갖고 허고. 제가 80년도 개업을 했을 때는, 가정분만이 많았어요. 가정에, 5.18,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5.18, 광주 5.18사태 그때 아 이이는 언제 나온다는 예측이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진통이 오면 그땐, 어 5.18 때 차가, 자동차도 뭐고 그때는 다닐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 산모의 남편의 자전거를 저거, 자전거 타고 갔다고 하는데 짐자전거 있어요. 짐 실은 자전거. 뒷이 이렇게 넓어가지고. 그 자전거를 타고 델리발리(출장분만)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밤에 아이가 막 가면 낳는 것은 아니잖아요. 밤을 새고, 거기에서 하고 그런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리고 또 그때 5.18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집에서 분만을 했어. 본인이 그냥 분만을 했는데 태반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데리러 왔어. 근데 그때 당시 산모가 태반이 안 나오면은 출혈이 많거든요. 근데 출혈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산모를 이렇게 인자 자기 집에서 안 되니까 의사를 자기네들 가정 형편이 그렇게, 병원에도 신고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나를 이렇게 해서 가보니까 혈압이 쇼크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야. 90도 못될 정도로, BP(Blood Pressure)가, (중략) 우리가 꼭 벌기 위한 목적보다는 그래도 우리 내가 아는 인자 기술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렵지만은, 조

산사로서의 행위는 가장 먼저 선의. 도움을 주는 거 아니에요. 조산이지. 후가 우리가 경제적인 거고. 그래서 그때는 분만을 지금 보면은 광주가 가장 동네가 어디냐면 Y동이었어요. Y3동. 광주 Y시장 건너편에 있는데 지금은 인자 많이 개발돼서 아파트도 짓고 그러는데 가장 거기가 인자 빈곤층이었어.

A는 B마을 여성들이 가계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A: 저 Y동 아까 말했죠. 거기 가면 도라지 까잖아요. 도라지 까는 것을 굉장히 많이 했어. 도라지 까서 하면 수입이 얼마 안 되지만 그것으로 약간 반찬가게라도 벌고 그랬고. 또 뭘 하나면 지금 기억에는 전남방직이나 일신방직이 가까워. 그러니까 우리가 실타래라고 해야지 실, 실을 여기서 걸고 저까지 걸어가지고 이렇게 실을 감대. 타래를. 그렇게 인자 한 번 하면 얼마 이렇게 있겠제. 나는 값을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벌었어. 그래갖고 인자 인형 같은 거 만든 것은. 곰인형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건 것은 소수가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Y동을 내가 많이 갔으니까 근디 B에, B라고 해, B. B 부락이라고 그때는 인자 그랬거든.

## ② 광주조산협회 활동: 체험적 이야기

여기서는 광주조산협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광주조산협회의 뿌리는 1946년 창설된 대한산파협회이고, 1952년 대한조산원회로 개칭되는 과정에서 1955년 전라남도지부도 창설되었는데, 초대회장은 오희순이었다. 1963년 대한조산협회 전남지부로 개칭되었으며 1988년 광주직할시 승격으로 전남지부하고 광주지부가 분리되었다(오창민·임선주, 2016: 3). A는 1992년 광주조산협회 회장을 맡았다고 한다.

A: 저 조산협회 회장을, 조산사 회장이 아니라 그때는 조산협회 회장이

었어. 그렇게 인자 지금은 조산사협회 그러는데 그때 92년에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인자 여성단체나 이렇게 나가서 하잖아요. A가 똑똑하게 보였어, 말하자면. 그렇게 하니까 주부클럽, 대한 주부클럽 회장을 하라고 나한테 자꾸 권유를 한 것이, 6개월 동안 나한테 인자 콜이 들어왔어. 근데 인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조산사는 라이선스 있는 사람이니까 수가 적잖아요. 30명을 못 모아. 수에 대한 가난이 있었어.

A가 광주조산협회 회장이 된 시점에는 회원 수가 30명도 채 안되었다고 한다. “수에 대한 가난이 있었다”고 그녀는 수적 열세를 토로했다. 만약 그렇다면 왜일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광주의 간호역사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시작에 의해 약 100여년이 되었고, 간호교육은 1912년 광주자혜의원 간호부양성소, 1950년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간호고등기술학교, 1960년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간호전문학교, 2000년대 간호대학 순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에 반해 조산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으며, 산파양성소나 검정고시를 거쳐 조산사가 되었다. 해방 이후 조산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간호학교 졸업자가 일정한 시간 동안 조산교육을 받으면 간호사와 조산사 면허를 동시에 받을 수 있었다. 둘째는 자격시험(검정고시) 합격이다. 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문교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가 조산에 관하여 3년 이상 수련을 받았거나 간호원으로서 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면 조산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조산사 자격시험은 1962년을 계기로 폐지되었다. 현재 조산사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1년간의 임상을 실습을 한 경우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조산사의 감소를 초래한 제도적인 장치가 되었다. 참고로 전국의 조산사 수는 1969년 6,103명에서 1980년에는 4,833명으로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1963년 이후 간호사 자격소지자가 추가로 1년간의 조산수습을 받도록 한 규정 때문이라는 것이 많은 조산사들의 공통된

견해이다(박윤재, 2008: 36-39). 한편 광주조산협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보면 인맥이나 지연, 학연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A: 공계 제가, 제 자량이 아니고 인정을 받아서 이○자 씨가 회장 안했는가? 부회장 박○자, A 있지. 이○자 씨가 손들고 나는 A가 부회장 안하면 나는 회장 안할란다 그랬어, 그때.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무투표 부회장 당선이 됐어. 그래 갖고 박○옥 씨하고 박○자 씨하고 둘이만 선출을 했어. 근디 인자 팔이 안으로 굽지. 우리학교 출신인게 박○자를 찍지 박○옥을 찍었나? 공계 박○자 씨가 근디 순서는 ○자언니가 나이가 선배인게 이거한다 했지만은, 그래갖고 이○자 씨가 인자, 회장을 또 A가 해야 한다고 해갖고는.

1988년은 광주조산협회의 리더를 선출하던 해였다. 투표에서 1대 회장은 이○자로, 부회장은 A와 박○자가 당선되었다. 한편 당시 부회장 후보는 총 3명이 출마하였는데 A는 이○자의 추천으로 무투표 당선이었다. 그리고 부회장 후보로 출마한 박○자와 박○옥은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였는데, 이때 A는 박○자에게 투표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같은 학교 출신이기 때문이었다. 즉 박○자는 간호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A의 후배이다. 광주에서 간호고등기술학교 출신들은 특히 조산사로서의 자부심을 강하게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박○자는 광주조산협회 6대 회장, 광주 여성단체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리고 A는 광주조산협회 3, 4대 회장, 광주주부클럽 회장 등을 지냈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하기도 했다.

A: 주부클럽을 활성화시켜서 내가 여성단체에서 1등 단체를 만든 거야. 무에서 유를 창조를 했지. (중략) 그래가지고 시의원이 된 거야. 주부클럽을 해갖고 시의원이 됐제, 조산사협회 해갖고는 시의원이 못 돼. 주부

클럽이 왕성하니 내가 그냥 사업이고 교육이고 해서 그냥 교육을 열심히 하고 사임당 학당 만들어서 그때 광주에서 남바 원으로 내가 했어.

### ③ 조산원의 의료화: 경험적 이야기

1990년대 들면서 A의 조산원도 이전에 비해 조산업무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A: (80년대 후반) 그때 되면은 전 국민이 의료보험이 되잖아요. 그러면 산부인과에서도 의료보험 적용하니까 몇 만 원 안내고 그냥 산부인과에서 그냥 애기 낳을 수가 있어. 그리고 조산사가 가장 애로가 있는 것은 지도의사제도가 있거든요. 조산사 오픈을 하려면 산부인과 지도의사가 있어요, 산부인과. 일반 의원이 아니고 산부인과 지도의사. 그면 산부인과 지도의사를 두고 우리가 약을 쓰게 되면 지도의사 처방전을 받아야 돼. 후결을 하더라도 하여튼 지도의사 처방전을 받아서 해야 하니까 조산사 애로가 그거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광주시 회장을 했을 때하고 그 전에도 부회장 할 때 제가 오래 했거든요. 중앙에 가서 하면은 지도의사 폐지를 주장을 해도 그게 관철이 안됐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조산사가 많이 배출이 될라면은 조산사 수당을 줘야 돼. 병원을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조산사들이 병원 근무하면 지금 분만실에 지금 조산사가 없다고 아까 얘기하는데, 조산사에 대한 월급을 왜 간호사 수당 주듯이 수당을 줘야 한단 얘기야. 그러면 자기 수당을 받기 때문에 조산협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져. 근데 내가 조산사 면허증이 있으나 마나 아무 저 이득이 없어, 이득이 없단 얘기야. 그러니까 조산사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A는 조산업무가 줄어든 원인으로 다음 3가지를 꼽고 있다. 첫째,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의 실시로 병원 문턱이 낮아져 산모들이 더 이상 조산사를 찾지 않게 되었다. 둘째, 우리나라의 조산사

경우, 간호사와 조산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진 경우가 많은데 간호사 한 가지 면허를 가진 경우보다 더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셋째, 지도의사 제도는 조산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부정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조산협회가 지도의사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지도의사의 지도라는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A는 광주조산협회 회장을 역임할 당시 조산사들이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지도의사 폐지를 주장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약물이란 진통제나 촉진제를 말한다. 이는 다시 말해 현재 많은 조산사들이 촉진제를 사용하고, 회음절개를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A: 제가 한 것이, 산모 케어를 잘 했어요. 텔리바리(출장분만) 하고 나면 1주일간 산후 관리를 해줬어. 방문. 여기서 2박3일하고 퇴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인자 1주일. 왜 그냐면 저 에피조토미(episiotomy) 하면, 에피조토미 알까, 모르제? (중략) 그걸 케어를 해줘야 하니까.

\*: 아, 선생님 저희가 1차 1세대 이야기 들었을 때 B 선생님은 회음절개를 안하셨다고 그랬었거든요? (중략)

A: 공계 절개를 하는 것보다는 자연히 찢어져요. 파열이라고 하잖아요. 파열하면 시추(suture, 봉합)를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우리가 회음절개를 하고 해야 제대로 예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지그재그로 찢어. 공계 그렇게 한디 조산사가 시추를 하게 되어 있냐 하면 못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어떻게든지 회음을 늘여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아이가 찢간한 애기도 옛날에는 애기를 몸고생 하니까 찢간한 애기를 낳지만 그렇게 안하고 크게 낳으면 하기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 옛날하고 차이가 의료기술이 더 발달했으니까.

A: 그러지 않고도 우리가 유도랄지, 아이 목욕시키죠. 그걸 1주일까지 봐줬어요. 제가 그래서 광주 시내를 차 한 대 놔두고 응급 그 구급차가 아니고 승용차로 해서 제가 돌아.

\*: 방문 케어도 계속 하셨고.

A: 그래서 광주에서는 그래도 히트 치게 산과를 많이 했어요.

\*: 그니까 지금 정말 중요한 게 방문케어하고 아까 회음절개해서 관리  
까지 다 해주시고.

A: 그냥 회음절개라고 그러지 말고 회음관리 그래. 절개까지 하면 영역  
을 오바 한거야.

A가 자신을 설명하는 주요한 내용 중 하나는 산모의 산후관리를 1주  
일간 직접 했다는 것이다. 인터뷰에서 A는 에피조토미(episiotomy)라는  
전문 의료용어를 사용하며 회음부 절개 부위의 관리도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뒤 인터뷰어가 “B 선생님은 회음절개를 안하셨다”고 하니,  
A는 옛날에 비해 요즘은 아기가 커서 의례적으로 회음절개술을 한다며,  
그러나 “영역 오바”라고 오인되지 않도록 “회음절개라고 하지 말고 회  
음관리”라고 해달라고 요청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A는 한참 전성기이던 1980년대에는 한 달 산건이  
100명 정도 되서 보조간호사도 고용할 만큼 일이 많았다. 하지만 조산  
사는 자연분만을 지향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산모의 진통  
과정에 참여하여 함께 기다려 주어야 하는 직업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  
어 보아 엄청나게 밀려드는 산모들을 놓치지 않고 처리하기 위해 병원  
과 똑같이 현대적 약품들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는 인터뷰 과정에서 지도의사와 한결같이  
잘 지냈다고 했다. 그녀는 분만과정에서 회음부 절개 같은 수술을 하지  
않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그래서 지도의사도 그녀에게 호의적  
이었다. 그것은 B 자신이 알아서 약물처치 같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하지 않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산모들을 모두 지도의사에게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와 비교해보면 B는 조산사로서의 긍지를 상  
대적으로 덜 내보였던 여성이다. B는 1990년대 전남조산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지만 협회의 조직, 운영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던

모습은 아니다. B는 인터뷰에서 “지금은 회장 얼굴도 나 모르고 연락도 없고 궁게 몰라”라고 언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뷰 과정에서 A는 조산사 일뿐만 아니라 광주조산협회 회장, 광주주부클럽 회장, 시의원, 여성단체회장 등을 역임하며 대내외적으로 활발히 활동해왔던 경험을 말하고 있었다. 다만 면담자인 오창민·임선주(2016: 7)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주제로 전환해보려고도 했지만, 5·18민주화 운동 당시 여성들의 출산상황을 포함한 당시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는 웬지 이야기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A는 자신의 정체성을 광주 여권신장에 기여한 공적 활동에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공적 활동이 자기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험인 여성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1980년대 이후 많은 조산원들이 쇠퇴하고 있을 때 그녀의 조산원은 보조간호사를 고용해 운영할 정도로 상당히 성행했다. 그녀에게서는 남성중심적인 의료시장에서 남성 못지않게, 아니 남성 이상으로 일해 온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그녀가 공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조산사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여성에 기반을 둔 활동을 해왔기 때문일 수도 있다. 즉 그녀의 이야기가 언제나 여성 조산사들이 남성의료인에 대한 의존적 이야기를 강요당해온 것에 대한 암묵적인 항의일 가능성도 있다. 인터뷰 과정에서 그녀는 조산사들의 조산활동에 현대적 의료기술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A: 조산사를 단독으로 해서 지금 쓸 수가 없다는 얘기가, 초음파를. 그런 핸디캡이 있는게 조산사가 활성화가 안 된단 얘기에. 한말로 얘기하면 수당이 있어야지. 뭘 기구도 요즘 의료기구가 발달 했는디 그런 기구도 놓고 쓸 수 있어야 말인디 그것도 없고, 그런게 위험이 따라. 위험이 따라서 얘기가 속에서 진통 오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어. 내가 그런 애를 봤는데 산전 진찰을 쪽 왔었어. 왔는디 인자 풀팁이여. 되어가지고 2주

남겨놨어, 예정일을. 근데 왔는데 안 들리는 거야. 그때는 초음파가 없는 시절인게. 내가 볼 때 애기가 숨소리가 안들리요. 그러니 낯디까, 안 낯디까? 한게 안 논다고 그래, 초산인디. 그럼 병원 가보시오 한게 죽었어. 그런게 그런 위험도도 따를 수가 있다.

#### 4. 나가며

이 글은 개인 구술사를 통해서 한국전쟁 이후 출산을 둘러싼 사회사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과거 전남광주에서 조산사로 활동하였던 A의 이야기 형식을 파악하기 위해, 화자가 실제로 체험한 것에 대한 ‘체험적’ 이야기와 그 이후의 다양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통해 재구성해온 ‘경험적’ 이야기를 구분해, 그것을 어떻게 청자에게 말하고자 하는지, 왜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A와 B는 분만과정에서의 회음부 절개 수술에 대한 이야기 형식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A의 이야기는 ‘체험적’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광주조산협회 회장, 광주주부클럽 회장, 시의원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과거를 회고하고 재구성해온 ‘경험적’ 이야기를 청자에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B의 이야기는 지도의사와 호의적 관계를 유지했던 조산사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경험적’ 이야기를 청자에게 들려주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들의 구술이 한편으로는 ‘체험’의 고유한 실재가 존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타자에게 들려줄 수 있는 보편적 의미를 지닌 이야기로서 인터뷰 장에서 산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A의 삶은 결코 한 개인의 특수한 경험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다. 각 국면에서 그녀의 곁에는 같은 길을 갔던 동료나 친구가 있었으며 그녀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그녀의 생각과 행위에

영향을 준 ‘오희순’ 같은 조산사가 존재하였다. 이들은 광주전남에서 출산문화를 바꾸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던 근대화의 주체들이었다. 조산사 면허를 가지고 1940~50년대에 광주전남에 등장하여 1960~70년대까지 아이를 받으러 왕진을 다녔으며, 면허가 없는 산파를 대신하여 지역 산모의 아이를 받고 학교에서 배운 의학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출산, 조산 방법을 크게 바꾸고 위생관념을 보급하였다. 또한 1960년대 초 이후 강력하게 추진해온 한국의 산아제한정책에서 조산사들은 출산을 억제하는 가족계획지도원이 되어 활약하였다. 그 결과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사회에서 소산소사(小産小死)의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실시되면서 1990년대를 경계로 개업 조산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가고 있다.

근대 조산사 활동의 큰 특징은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관계이다. 인구, 의료에 관한 국가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도 당시 조산활동의 장은 지역사회에 있었다. 아이 낳는 여성들이 원하면 그녀가 살고 있는 집에 가서 아이를 받아주고 지역과 밀착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는 등 주민들에게 친숙한 존재였다. 조산사는 의료전문가, 분만 도우미일 뿐 아니라 고객과 그 가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하면 고객의 집에 들러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의 출산 문화의 변화에 직접 그리고 깊이 관여해왔다. 이러한 근대 조산사의 형태는 현대의 조산업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을까? 이 연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통로로 많이 활용되면 좋겠다.

■ 참고문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통계연감. 1961(제8호)』, 1961.
- 김은경, 『산업화 이전 시기 한국 여성의 모성 경험과 정체성: 1940년대 중반~1960년대 초반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21, 2014, 149~181면.
- 김은실, 『출산문화와 여성』, 『한국여성학』 21(2), 1996, 119~153면.
- 김효진, 『일신부인병원의 조산교육: 1952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 『연세의학』 11(2), 2008, 62~73면.
- 박윤재, 『해방 후 한국 조산제도의 성립과 변화: 원로 조산사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연세의사학』 11(2), 2008, 34~48면.
- 배은경, 『한국사회 출산조절의 역사적 과정과 젠더: 1970년대까지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 안소영, 『출산조력자로서의 조산사에 대한 사회적 의미변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 이꽃매, 『한국근대간호사』, 한울, 2002.
- 이임화, 『출산에서의 여성전문직 조산사의 기능과 쇠퇴에 관한 연구』, 『구술사연구』 6(1), 2015, 121~161면.
- 이지연, 『한 마을 노인회 여성들의 새마을운동 기억: 생애이야기 연구에서의 대화적구축주의 접근방법을 통해서』, 『문화와 사회』 26(2), 2018, 105~159면.
- 이지연, 『질적 연구과정에서의 문제 상황,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민간방법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7(3), 2019, 49~94면.
-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39(3), 2005, 120~148면.
- 이희영, 『여성주의 연구에서의 구술자료 재구성: 탈성매매 여성의 생애체험과 서사구조에 대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1(5), 2007, 98~133면.
- 윤성민·강한주·정우석·장명준, 『전통적 출산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

- 한의료기공학회지』 11(1), 2009, 117~143면.
- 오선정, 『조산사 제도의 국가간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학전공 석사학위논문, 1998.
- 오창민·임선주, 『조산사의 체험과 출산문화: 1950-1990년대 광주전남 조산사』, 국사편찬위원회, 2016.
- 오희순, 『빛과 어둠 사이에서: 조산원 생활로 보낸 반편생』, 수문사, 1985.
- 조영미, 『출산의 의료화 과정과 여성의 재생산권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 최혜련, 『우리나라 조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5.
- 桜井厚, 『インタビューの社会学: ライフストーリーの聞き方』, せりか書房, 2002.
- Gubrium, J. F. & Holstein, J. A. *The Active Interview*. 1995.
- Schutz, Alfred. *Der Sinnhafte Aufbau Der Sozialen Welt*. 1932.
- Schutz, Alfred. *On Phenomenology and Social Relation*. 1970.

■ Abstract

## Telling Others Her Own Experience of Midwife

Lee, Ji Ye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ocial history regarding childbirth after the Korean War, through personal oral history. Specifically,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ory told by A, who were active as midwife in Gwangju Jeonnam in the past, their statement based on 'life as lived' which they actually experienced and their 'life as experienced' statement based on their experience reorganized by various ways of thinking and values were divided to see how and why they want to tell their stories to the listeners. And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A and B in the form of their stories about perineal incision surgery during childbirth. In other words, A's story is based on 'life as lived', telling the listeners the 'life as experienced' that she has recollected and reorganized from her experience as the president of the Gwangju Midwifery Association and of the Gwangju Housewives Club, and a city council member. Therefore her story can be seen as stories that have a unique reality of 'life as lived' on one hand, and a universal meaning that can be told to others on the other hand, both of which came out of interviews.

Key words: oral history, life as experienced, life as lived, midwife, the culture of childbirth

이 논문은 2023년 6월 13일 투고되어 2023년 7월 13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3년 7월 14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

##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회와 학교의 역할 탐구

김덕삼\* · 이정자\*\*

###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지역공동체와 학교
  - 1) 지역공동체를 위한 교육
  - 2) 학교와 지역사회의 문제
3. 공존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역할
  - 1) 지역의 역할
  - 2) 학교의 역할
  - 3) 효과와 한계
4. 나오는 말

###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존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지역사회와 학교의 역할에 대한 탐구다. 한국의 교육개혁에서, 기존의 학교 중심 교육개혁을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지역사회와 학교 교육이 어떻게 공존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지에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공동체와 학교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안의 문제를 파악했다. 특히

\* 대진대학교 교수(제1저자).

\*\* 경상국립대학교 교수(교신저자).

공존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교육의 필요, 학교와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알아보고, 이어서 공존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역할을 고찰했다. 지역사회의 역할과 학교의 역할을 먼저 알아보고, 효과와 한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존 현황 및 대책,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활성화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긴밀하고 상호협조적인 관계를 이루어 공존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든다면, 이는 확장되어 공교육의 내실화, 지역사회의 발전,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의 소외 현상을 막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학교, 지역사회, 지역공동체, 교육, 공존, 협력

## 1. 들어가는 말

카프카(Franz Kafka)의 『변신』에서 변신은 주인공이 벌레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친절했던 식구들이 무정한 모습으로 변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상호적이다. 이는 가정뿐만 아니라 단체도 사회도 다른 공동체도 마찬가지이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관계된 둘 이상의 사이에서 모두를 아우르는 상호적 변화는 공동체에서 연결, 관계, 지속, 공존의 가치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한다.

지역공동체에서 바람직한 공동체의 추구,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속 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가치의 발굴과 실천에는 교육의 힘이 있다. 그리고 그 교육은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담당할 중요한 역할이다. 교육과 사회의 상호작용과 변화에서는 사회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그러나 교육에 의해 구성원과 사회가 변하기에, 교육과 사회는 상호 영향을 미치며 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도 지역사회와 상

호작용한다. 그러므로 공존 가능한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라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적 발전을 기초한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조 속에 공존 가능한 공동체가 자리 잡고, 그 속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존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지역사회와 학교의 역할 탐구다. 이를 위해 지역공동체와 학교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어서 공존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교육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서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혹은 ‘마을학습공동체’라는 명명도 가능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교육만 의도적으로 강조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힘을 모아 만드는 포괄적 의미의 지역공동체를 염두에 두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처럼, 특정 지역이나 지엽적 문제를 미시적으로 접근하기보다,<sup>1)</sup>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만들 이상적 지역공동체에 초점을 두었다.

주지하다시피, 지역사회에서 학교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한국의 높은 교육적 관심과 사회에 미치는 학교의 영향은 남다르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공간을 기초로 중요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둘은 공존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협력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 지역공동체는 지역사회가 나아갈 방향이자 목표다. 이러한 도정에서 지역사회와 학교의 협조가 필요하고,

1) 그렇다보니 미시적 측면에서의 구체성과 명료함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미시적 접근의 한계와 결을 달리한 연구로서, 본고의 의의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연구는 교육공동체, 지역공동체, 지역사회, 교육, 학교 등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또한 접근하는 방법과 연구 대상도 다양하다. 『지역교육공동체 창조를 위한 학교와 지역의 협동』(양병찬·전광수, 서울: 교육아카데미, 2016); 『지역교육공동체 성장을 위한 퇴직 교직원의 역할 제고 방안』(정재엽·박형민·박형성, 경기도교육연구원, 2021); 『중국과 일본의 교육공동체 운영실태 연구』(서희·박창언·사이오노 아카네, 『교육공동체연구와실천』 3.1, 2021). 본 연구는 앞의 연구와 다르게, 지역사회와 학교 교육이 협조하여 만드는 지역공동체에 특히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보다 이상적인 지역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한다.

## 2. 지역공동체와 학교

### 1) 지역공동체를 위한 교육

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그 중 하나는 함께 서로 봉사한다는 것이다. 공동체를 뜻하는 영어 community는 라틴어 *communitas*에 어원을 두고 있다. *communitas*는 ‘함께’를 의미하는 ‘con’과 ‘서로 봉사한다.’는 ‘munis’의 합성어이다.

공동체 개념을 정의하는 경향도 다양하다. 이를 보면, 첫째, 공동체를 동질성을 가진 소집단과 동일한 것으로 개념화하는 경향, 둘째, 공동체를 타인과 일체가 되어 협동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심성적·정신적 현상과 관계의 개념으로 정의하려는 경향, 셋째, 공동체를 ‘지역’과 결부된 조직체의 단위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정의하려는 경향 등이다.<sup>2)</sup>

여기서 학교와 지역공동체의 공존은 세 번째 정의에 가깝다. 그러나 단순히 공간의 공유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교통수단의 발달과 잦은 이동이라는 변화로, 공동체 의미를 공간에만 국한시켜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지역사회는 공간을 위주로 하지만, 지역공동체는 정신과 문화의 공감 등을 통해 확장될 수 있고, 공동체 의식을 통해 공간을 넘어설 수도 있다.<sup>3)</sup>

본고에서 ‘지역사회’와 구분하여 ‘지역공동체’라고 명명한 것은 의도

---

2) 신용하 편, 『공동체 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5, 14~15면.

3) 대표적인 것이 폴리네시아인들의 공동체 의식이다. 태평양에 넓게 분포하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 의식은 수많은 섬으로 갈라진 공간을 뛰어 넘는다. 물론 디아스포라의 경우에서도 발견된다. 김덕삼, 『신화와 장소: 단군 신화는 장소 이야기다.』, 김성환 외 7인, 『장소철학 I』, 파주, 서광사, 2020, 257-276면.

적으로 지역에서의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공동체라는 호칭을 통해, 학교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대상들을 조화롭게 담으며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때 지역사회와 지역의 학교가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며 공존 가능한 공동체라는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함께 서로 봉사한다.”는 공동체의 정의에 기초해도, 공동체의 특징은 협력에 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힘과 체력이 약하고 왜소한 인류는 협력과 협동을 통해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크 뷰캐넌(Mark Buchanan)의 다음과 같은 지적에 동의할 수 있다.

인간이 특별히 탐욕스러운 것은 혼자서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을 협력과 조직적 노력으로 해결하는 능력 때문이다. …… 우리는 거의 언제나 학습하고 적응하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를 푼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문제를 푸는 재주이다.<sup>4)</sup>

인류가 다른 생명보다 뛰어난 장점은 공동체의 의미처럼 협력하여 “함께 서로 봉사하는” 데 있다. 이는 인간 공동체의 주요 특징이자 장점이다. 이는 확장되어 다음과 같은 주장이 될 수 있다. “부정적인 의미의 귀속도 포함해서, 실로 어떤 공동체 혹은 집단에 완전히 귀속하고 있지 않은 개인은 있을 수 없다.”<sup>5)</sup> 물론 이 말에서 공동체는 광의적으로 사용됐다. 이를 통해 인간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집단이나 공동체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다.

함께하는 운명의 존재라면, “함께 잘 사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투거나 싸우는 것이 아닌 협조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만드

4) 마크 뷰캐넌, 『사회적 원자 The Social Atom』, 김희봉 옮김, 사이언스북스, 2014, 247-251면.

5) 나카무라 유지로, 『토포스: 장소의 철학』, 박철은 옮김, 서울, 그린비, 2021, 85면.

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할 때 비로소 ‘지향적 가치’에서 벗어나 ‘의도적’ 공동체로, 현실적 실천방향을 추구하는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sup>6)</sup> 이러한 측면에서 바람직한 공동체를 본고에서는 지속 가능한, 혹은 공존 가능한 공동체로 표현했다. 공동체와 구성원의 지속가능한 공존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공존 가능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이론이나 덕목은 예로부터 강조되고,<sup>7)</sup> 이는 교육을 통해 전달되었다. 교육, 특히 학교를 통해 전달되는 교육은 보다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공존 가능한 공동체 정신을 다룬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교육과 사회는 나름의 장점을 지닌다. 사회구성 이론의 핵심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이다. 그런데 한국의 유학 사상은 유기체론의 입장을 견지하며 공동체주의를 강조했다. 이는 “개인의 이익을 공동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양 근대의 인간관과 대비된다.”<sup>8)</sup> 같은 맥락에서, 한국과 동양 문화의 핵심 원리는 ‘조화’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자(孔子)의 주장에서도 공존 가능한 공동체를 향한 조화를 찾아볼 수 있다. 화이부동(和而不同)과 동이불화(同而不和)를 군자와 소인으로 구분하여 논했지만,<sup>9)</sup> 이는 공동체와 직결된다. 즉

- 
- 6) “공동체의 실천적 방향에서 그동안 강조되어 온 ‘지향적 가치’로서의 공동체에서 탈피하여 ‘의도적’ 공동체로 현실적 실천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한국 도시연구소 엮음, 『도시공동체론』, 파주: 한울, 2003, 86-87면).
  - 7) 논의의 스펙트럼은 넓고 다양하다. 예를 들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과 이를 잇는 백태웅 교수의 ‘아시아 인권공동체’, 중국 시진핑 정권에서의 ‘인류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 서양 고대 로마의 ‘만민법(jus gentium)’, 칸트의 『영구 평화론』과 롤스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만민법(Law of Peoples)’, 나아가 ‘탈영토적 공동체’, ‘범세계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 등이 있다.
  - 8) 프랑수아 줄리앙, 『전략, 고대 그리스에서 현대 중국까지』, 이근세 옮김, 교유서가, 2019, 134면.
  - 9) 『논어(論語)·자로(子路)』에 나오는 말이다. “君子, 和而不同. 小人, 同而不和.” 직역하여 군자와 소인의 자세로 풀이하지만, 이는 대동사회의 이상과도 맞물려 공존 가능한 사회의 상태로 논하기도 한다.

이상적 공동체는 구성원 각자가 개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반대로 같기만 하고 조화롭지 못한 동이 불화는 경계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국가, 사회, 조직, 단체의 어그러진 모습이기도 하다. 결국 이들은 그렇다가 멀하였음을 알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어떤 공동체가 가치적 ‘무엇’(재산·국적·인종·종교·이데올로기)의 공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을 때, 그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sup>10)</sup> 지적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다양성을 훼손하면 곤란하다는 경고이다. 그럼, 이제 조선을 뒤덮었던 성리학의 폐해와 공자의 화이부동을 함께 되새길 필요가 있겠다.

공동체가 “함께 서로 봉사하며 잘 살기 위해서”는 다양성, 각자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화이부동’의 상태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조화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노르웨이의 극작가 입센(Henrik Ibsen)이 말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책임이 있다.”는 말과 동시에, 법의 사회적 실용성을 중시한 독일의 법학자 예링(Rudolf von Jhering)의 “권리를 위한 투쟁은 권리자 자신에 대한 의무다.……권리의 주장은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라는 지적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sup>11)</sup>

그동안 학교는 공존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연계, 협력, 인적·물적·정보의 교류, 사업 네트워크 형성, 교수학습 및 교육과정 등의 향상을 위한 자료 제공은 물론 학생의 정신건강 및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고민하며 실천해 왔다. 최근 들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 공존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증대되면서,

10) 모리스 블랑쇼·장 록 낭시, 『밝힐 수 없는 공동체 / 마주한 공동체』, 박준상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5, 140면.

11) 이는 예링이 지적한 것처럼 “목적 개념으로서의 법은 바른 길을 발견하기 위해 끊임없이 모색하며 탐구해야”하기 때문이다.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윤철홍 옮김, 책세상, 2023, 49면, 64~111면.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 협력은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 되었다.<sup>12)</sup>

대부분의 국가가 그런 것처럼, 국가는 학교 교육을 관리하고 지원한다. 초중등 교육은 물론, 대학교육과 평생교육도 마찬가지이다. 학교 교육은 한국의 교육기본법 제 1장 제 2조에서 밝히는 교육 목적을 따른다.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

한국의 교육기본법에서 지향하는 교육목적은 공동체 존립에 필수적이다. 교육은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공동체의 발전과 이상 실현을 가르치고 제시한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하여 만들 공존 가능한 지역 공동체는 공동 사회의 전통과 닮은 면이 많다. 페르디난트 톤니에스(Ferdinand Tonnies)는 공동 사회를 전통적이고 끈끈한 유대감, 이웃과 친구 사이의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그리고 개인의 의무와 참여 등의 특성으로 파악했다.<sup>13)</sup> 물론 이것을 현대의 지역공동체가 모두 실현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더구나 지역공동체라도 도시와 농촌의 성격은 다르다. 하지만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업을 통한 공존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 이러한 희망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들어가서, 공존 가능한 공동체를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조 속에, 교육을 통해 배우고 실천하며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를 할 때 ‘교육공동체’, ‘학교 교육의 공간적 범위를 지역으로 확장한 교

12) 예를 들어, 미국 석유회학분야에 최고인 텍사스A&M주립대, 지리학 1위인 펜실베이니아대학, 농경학에 우수한 아이오와주립대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유전이 많은, 기상학이 발전한, 농경이 발달한 지역사회의 특징을 학교와 연계하여 발전시킨 모범 사례들이다.

13) 앤서니 기든스·필립 서튼, 『현대 사회학』, 김미숙·김용학 외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2018, 238면.

육’, ‘학교와 지역이 함께 만든 지역공동체’ 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지금 한국의 교육개혁에서는 기존의 학교 중심 교육개혁을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관계를 통해 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교육의 쇠락, 지역사회의 쇠퇴,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의 소외 현상 등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동시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긴밀하고 상호협조적인 관계로 이루어져야 함은 교육의 중심인 학생 교육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 2) 학교와 지역사회의 문제

2023년 현재 한국의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는 적지 않다. 이는 단순히 지역사회만의 문제도 아니고, 학교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비로소 지역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 지금 학교와 지역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공존 가능한 공동체의 걸림돌이 될 문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학교의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학령인구 추이(6-17세) 즉, 초등학교(만6-11세), 중학교(만12-14세), 고등학교(만15-17세)의 변화를 보면, 2000년 남자 4,276,557명 여자 3,831,856명에서 2020년 남자 2,814,721명 여자 2,642,491명, 2030년 남자 2,184,189명 여자 2,076,818명으로 줄어든다. 반면에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 이래 증가하고 있다.<sup>14)</sup>

14) <http://www.ypec.re.kr/board?menuId=MENU00327>(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정책분석평가센터, 23년 6월 3일 검색) 1970년 한국의 초등학교 학생 수는 574만9천301명이었다. 이후 2000년에는 401만9천991명으로 70여만 명이 감소했고, 2010년 329만9천94명, 2015년에는 271만4천610명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이후 2019년 274만7천219명에서 2020년 269만3천716명으로 잠시 늘어났지만, 2021년 267만2천340명으로 감소했다. 1970년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 학령인구 감소는 폐교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의 사라짐은 결국 지역사회의 붕괴로 이어지기에, 여러 공동체가 협심하여 경계하고 대비해야할 문제이다.

둘째, 인구 분포의 편중화이다. 즉, 대도시 같은 특정 지역으로의 인구와 인재 집중이다. 이로 인해 대도시는 교통난, 주택난, 학급 과밀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반면에 지방의 지역사회는 인재 유출로 공동화현상이 나타나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고 15년간 50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도권은 오히려 인구가 늘었고, 지방은 감소했다.

인구의 대도시 집중은 대도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적으로 우수한 기관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지역인재육성,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 등을 추진했지만 약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2020년 6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이동 전망’ 자료를 보면, 2020년 수도권의 인구는 1970년 913만 명에서 2020년 2,596만 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국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러한 인구 편중은 지방의 노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의 존립 자체를 흔들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 발전의 불균형과 부조화 문제이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 증가 문제에 집중된다. 1970·80년대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이후 격차가 가속화되었다. 과거 각 지방의 거점국립대학에 우수한 인재가 입학했다면, 지금은 수도권으로 인재가 몰리고, 지방 거점대학은 그 위상이 하락했다.<sup>15)</sup> 한국에서의 이

15) 1960년대 이전에는 국립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다.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이 수도권의 사립대 보다 인기가 많았다. 1970년대의 산업발전, 1990

러한 격차는 빠르고 전면적으로 일어났다. 현재까지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교육과 취업을 비롯하여 문화, 의료, 생활 편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에 반응하여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계속되고 있다.

대학의 경우, 1990년 33%였던 대학진학률은 2000년에 68%가 되었고, 2020년 전국 일반고 기준 대학진학률이 79.4%가 되었다.<sup>16)</sup> 상위권에 속하는 대학은 꾸준한 자기개발과 투자를 통해 발전을 이루었다. 대학 정원에서 수도권 대학은 규제로 인하여 정원 확대가 제한됐지만, 지방은 대학 정원을 확대했다. 특히 1996년 이후 대학 정원 자율화,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시행되면서 1997년부터 대학과 학생 수가 지방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방의 부실 교육과 연결되어 지역사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제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그동안 방만하게 늘어난 학교와 학생 수를 조정하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변해야 한다. 이밖에도 각 지역사회의 발전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균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공존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 3. 공존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역할

지역의 학교는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존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학교의 역할은 막중하

---

년대의 수도권 인구 집중, 경제 수준의 향상 등이 원인이 되어 지방 국립대가 하락하고 수도권 국공립과 사립대의 인기가 높아졌다. 현재 수도권에만 전국 4년제 종합대학의 35%가 편중되어 있다. 평가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 상위권 대학 20곳 가운데 과학기술원을 제외한 19곳이 수도권에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1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에 따르면 2020년 1-2월 일반고 졸업생 35만 9885명 중 28만 5888명(79.4%)이 국내외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진학했다(2023년 6월 3일 검색).

다. 물론 공존 가능한 지역공동체라는 이상을 위해 지역사회가 기여할 바도 적지 않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교와 지역사회가 보다 나은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지역사회와 학교의 역할로 구분하여 알아보겠다.

### 1) 지역사회의 역할

지역사회의 역할을 단적으로 말하면, 행정적 지원에 모아진다. 이는 결국 근본 역할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한국의 학교 문제에 있어 많은 학교들은 지역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는 현대 한국 학교의 역사와 관련 깊다. 한국 정부는 1950년 지주를 대상으로 2차 농지개혁을 실행하는데 당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땅을 가진 지주가 사학재단을 설립해 토지를 재단 명의로 등록하면 농지개혁 대상에서 제외해 주었다. (농지개혁) 유인책은 큰 효과를 발휘했다. 토지개혁으로 재산을 잃을까 걱정하던 대지주들이 너도나도 사립학교를 세우기 시작했다. 이는 박정희 정권에서도 이어졌다. 공장이나 목장 등의 생산시설을 학교재단의 재산으로 등록하면 면세 혜택을 주었다.<sup>17)</sup>

정부의 빈약한 재정을 민간에 기대어 보충하면서, 국가 인재 양성과 국민의 교육열을 흡수할 수 있었다. 현대 한국사의 아픔이지만, 차선책으로 지역사회와 학교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의 재정은 좋아졌고, 국민의 교육열은 높아졌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 대학의 87%인 사학은 재정적으로 여전히 취약하다. 중앙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학교의 행정적 지원을 보조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지역사회 인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교육과 취업에 우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실제로 대학입시에서 지역 인재 선발

17)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대한민국 교육 40년』, 한스미디어, 2007, 56면.

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확대하여 의과대학 학생 모집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sup>18)</sup> 또한 인적자원개발(HRD: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기본법도 있다. 이것은 2003년부터 시행되었는데, ‘고등학교-대학교-지역 산업체’ 간의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sup>19)</sup> 2011년도부터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통합되어 교육부 주도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으로 변화되어 교육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여했다. 2014년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sup>20)</sup>

한국은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지방자치제를 실시했다. 이어서 지방으로 행정기관을 이전하고,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등을 건설하면서 지방의 발전을 모색했다. 물론 기득권의 반발과 경로의존성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도권 기능의 지방으로의 이전은 조금씩 시행되었다. 행정도시 세종시도 조금씩 변하고,<sup>21)</sup> 혁신도시(革新都市) 사업도 시행됐다. 이 사업은 2005년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을 11개 광역시·도에

18) 현재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근거하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의학·약학·간호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상향하고, 2028년부터는 중학교도 지방에서 졸업해야하는 식으로 자격요건이 강화되었다.

19) RHRD는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업 등의 주체가 인적자원을 양성, 배분, 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행하는 제반 활동”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http://www.law.go.kr), 2023. 6. 1. 검색).

20)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http://www.law.go.kr), 2023. 6. 1. 검색.

21) 2021년 9월 28일에 국회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빠르면 2026년 하반기에 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이 개원될 수 있다.

이전하여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협력할 여건과 주거·교육·문화 등이 잘 구비된 정주환경을 구비한 미래형 도시를 완성하고자 했다. 물론 결과는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않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피드백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역할 속에 공존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평균 수명과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변화가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이 강조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의 변화에 따른 평생교육의 실시는 학교의 의지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이에 학교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의 문제를 교과과정에 도입하고, 지역사회는 학교를 학습의 장으로 이용하며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울산은 경제사정이 예전 같지 않지만, 1997년 울산광역시로 된 이후, 21년 동안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1위를 유지했다.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산업이 한국 최대의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했다. 이러한 장점에도, 울산은 문화적·교육적 환경이 열악하고, 산업 구조의 변화로 조선 산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 지역사회가 학교와 힘을 합하여 발전을 도모한다면, 공존 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모범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지역사회의 공존 가능한 발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지금 울산은 이차전지산업 특화도시로의 성장을 실천하고 있다. 여기에는 울산과학기술원을 비롯한 울산지역의 대학과 지역사회가 힘을 합하여 변화를 이끌고 있다.<sup>22)</sup> 여기서 더 나아가, 좋은 교육 환경

22) 현대자동차, 고려아연, 삼성SDI를 비롯하여, 20여개의 관련 소재 및 부품 기업,

과 취업 기회가 많아지도록 지역사회의 역할을 확대해야할 것이다.

## 2) 학교의 역할

### ① 지역공동체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역할

교육의 기능을 갖는 학교는 지역공동체를 일깨우는 역할에 기여할 바가 크다. 특히 공존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공동체 의식을 교육하고 함양시키는 데 학교의 역할은 중요하다. “우리가 개인주의적 생각과 원자론적 생각에 갇히면 끔찍한 결과가 발생하는 만큼 이는 정말 시급한 문제”라는 지적처럼<sup>23)</sup>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은 필수다. 특히 얼마 전 세상을 놀라게 했던 코로나19는 사람들에게 인류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임을, 많은 문제가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해결할 문제임을,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였다. 지금 인류가 마주한 전염병, 대기오염, 이상기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과학기술, 소행성과의 충돌 등에서 공동체 모두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국가, 대륙, 세계 등 공통의 규모에 관계없이 우리가 집단주의라는 공통의 이면으로 기울 때 공동에 초래되는 위협에 저항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정한 문턱을 넘어서고 공동체로의 통합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동을 이루는 공유는 그 대립물로 변하면서 해체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확인하기 때문이다.<sup>24)</sup>

이러한 일깨움 속에 공동체의 가치와 실천을 교육하는 것이 지역공동체를 위한 학교의 중요한 역할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달랐다.

---

UNIST를 비롯하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융합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포진해있다.

23) 톰 울리버,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권은현 옮김, 로크미디어, 2022, 17면.

24) 프랑수아 줄리앙, 『문화적 정체성은 없다』, 이근세 옮김, 교유서가, 2020, 55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일도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기 때문이다.

아파트 입주민 대표, 타 단지 아이들에 ‘도둑놈 될 것’ 폭언. 누리꾼 반응 ‘각박한 처사’ vs ‘단지 내 안전 문제’, 단지 내 통행 관련 입주민.외 부인 갈등 불거지기도, 전문가 ‘내 아이만 좋으면 된다는 이기적 마음가짐 비롯……시민의식 높아져야’<sup>25)</sup>

이뿐만이 아니었다. 2018년 한국에 예멘(Yemen) 난민이 입국할 때, 이들을 송환하라는 여론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들 난민은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8개월 정도의 비정상적 생활을 겪었다.

교육의 역할은 여기에 있다. 지역사회를 위하고, 공존 가능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지만, 여기에는 이기적 자세, 나만 생각하는 협소한 생각이 횡방을 놓는다. 교육은 보다 큰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성의 눈을 키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원인의 원인을 생각하고, 너와 나를 아우른 한 차원 높은 공동체를 생각하도록 교육은 지역사회를 이끌어야 한다. 공동체를 위한 ‘정의’도 마찬가지이다.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해선 곤란하다. 이런 면에서 롤즈(John Rawls)는 다음처럼 주장했다.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됨을 거부한다.<sup>26)</sup>

이처럼 롤즈는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위해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사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도 쉽지 않다. 각각의 단체나 공동체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25) “‘남의 놀이터서 놀면 도둑’...‘입주민 이기주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https://www.asiae.co.kr/article/2021111011163507595. 아시아경제, 2021. 11. 12.)

26) J. 롤즈, 『사회정의론』, 황경식 옮김, 서광사, 1985, 25~26면.

하지만 우리는 교육을 통해 공동체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우고 확인하면서 이를 실천할 수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은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외부와의 공조를 유도한다.

코로나19를 통해 확인했지만 인류는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과거 누구 하나만 혹은 어느 특정 국가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는 줄어들고, 인류 전체와 연결된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 그만큼 지구 공동체의 중요성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의거하여 덴마크어 위원회는 ‘공동체 의식’이나 ‘사회적 사고’를 뜻하는 ‘삼퐁신드(samfundssind)’를 2020년의 단어로 선정했다.

우리가 현실과 동떨어져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가상현실의 세계에도 컴퓨터, 스마트폰, 모뎀을 비롯하여 해저케이블, 데이터센터와 이를 만들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물리적 실체들이 존재한다.<sup>27)</sup> 알고 보면 가상현실도 실체들과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 공동체는 연결되고, 관계 맺고, 중첩된 상태에 존재한다.<sup>28)</sup>

칸트는 『영구적 평화론』에서 “지구의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차원으로 이 우주적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말하며,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했다. 이는 몸과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까지 확장된다.<sup>29)</sup> 그래서 인류만이 아니라 지구의 자연과 생명을 생각하며, 인류에게 닥친 이상기후와 환경문제의 해결을 모색할

27) 기욤 피트롱, 『‘좋아요’는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는가』, 양영란 옮김, 갈라파고스, 2023.

28) 김덕삼, 『변화와 장의 탐구: 중국의 사람·사회·문화를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 2022, 107면.

29) 톰 올리버,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권은현 옮김, 로크미디어, 2022. 2017년 천문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우리 몸속의 절반이 넘는 원자들이 우주 저 멀리서 이동해 왔다고 했다. 그렇다면 물리학자 프리츠오프 카프카의 말처럼 우리의 몸은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고 또 사는 것인지 모른다(37~38면). 인간은 평생 35톤의 음식을 섭취하고 3만 1,000리터의 수분을 마시면, 약 3억 리터의 공기를 들이 마신다(48면).

수 있다.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Richard David Precht)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규율, 정의감, 공정성, 절제력,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sup>30)</sup> 나 혼자만 혹은 어느 집단 하나만 뚝 떨어져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공존을 넘어 상생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존은 그 효과도 크지만 한계도 명확하다.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도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만의 역할과 책임에 모든 것을 전과할 수 없다. 서로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요청되는 것이다. 학교의 변화가 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반대로 지역의 발전이 학교의 변화를 이끄는 것처럼 학교와 지역사회는 상호 협조가 필요한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만드는 유기적 공동체는 학교 교육과정, 행정, 재정을 비롯하여 학생에 대한 직접적 교육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지역사회는 우수한 학교를 통해 양질의 인재를 공급받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공간과 시설물의 활용을 비롯하여 학교를 통해 평생 교육의 혜택을 직접 맛볼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많은 사례를 언급하였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만든 공동체는 지역의 문제와 한계를 넘어, 지역공동체의 인적자원과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앞장 설 수 있는 생산적 일을 할 수 있다.

이러할 때, 지금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수도권으로의 쏠림, 지방의 도태를 막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다. 나아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작게는 도시의 밀집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시인에게도 선사하고, 넓게는 삶의 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공존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추진할 수 있다.

## ② 지역공동체를 위한 하드웨어적 역할

30)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 『의무란 무엇인가』, 박종대 옮김, 열린책들, 2021.

공존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학교의 하드웨어적인 역할에는 대표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 시설의 활용이 있다. 물론 학교가 지닌 인프라는 도시와 지방에 따라 다르다. 도시에서는 학교의 운동장을 비롯한 기타시설을 공유할 수 있고, 지방에서는 부족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학교 시설과 교육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학교의 상호 발전과 유대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매우 중요하고, 그 효과도 크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비롯하여, 건강과 교양을 양양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학교행사와 학교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학교 밖 학생들의 안전과 생활지도를 비롯하여 장학금과 교육기자재의 기부 등으로 이어져 상호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나아가 학교 개방은 학교 시설과 같은 물리적인 것에 국한하지 말고,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행사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외연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분리된 두 개체가 아닌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음을 이해하고, 이러한 기초 위에 지속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아이돌봄과 방과후 학교를 통한 교육의 확장을 언급할 수 있다. 방과후 학교에서는 누구나 다양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공교육과 사교육의 빈틈을 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학처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경기포천교육청은 관내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이야기한국사, 한국무용, 전통민속놀이 등 우리 역사와 문화교육 실시했고, 전북장계공업고등학교는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운전기능사자격증 취득반을 무료로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참

여 유도했다. 울산 신언중학교는 중학교 교사들이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 읽기와 쓰기 멘토링, 생활에 필요한 각종 한국 인터넷 사이트 활용 방법 등을 지도했고, 충북전산기계공업고등학교는 학부모, 노인 등 지역주민 희망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와 인터넷 프로그램 등을 연중 실시했다.

대학교를 이용한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도 생각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의 시행으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이 협력해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학교부설 평생교육원이 활성화 되었다. 이를 통해 컴퓨터, 영어회화, 요리 꽃꽂이, 예절교육, 국악 등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행중이다. 예를 들어 경남의 동서대학교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서는 16명의 여성 과학 방과후 강사를 지원, 초등학교에서 무료 방과후 과학교실을 운영했다.

더불어 대학의 연구 기능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모색할 수도 있다. 대학과 연계한 지역 기업과 더불어 연구와 생산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취업을 확대할 방향을 찾아야 한다. 한국의 많은 대학이 지역사회와 협력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의 대기업 중심의 연구개발도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기업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을 시행하고도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포천의 대진대학교는 지역사회의 주력산업인 가구와 전통주인 막걸리 제조와 관련하여 지역과 대학이 연구개발을 체결하여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대학과 연구소 등이 보유한 자원을 집적화한 산업기술단지인 테크노파크(Techno Park) 사업으로 활성화 되었다. 2023년 기준으로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 20곳의 지역에 지역사회와 학교를 기반으로 한 테크노파크가 운영되고 있다.<sup>31)</sup> 이와 같이 지역사회와 학교의 협력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1) <http://www.technopark.kr>(2023년 6월 3일 검색)

### 3) 효과와 한계

학교와 지역사회가 만드는 지역공동체에는 장점도 있지만 한계와 문제도 있다. 공존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검토할 것으로 자기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의 객관적인 성찰, 이상적 공동체와 현실의 공동체가 다르다는 인식과 그 간극을 인정하는 것, 욕망의 제어, 이분법적 편견에서 벗어난 인간다운 논의의 진행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sup>32)</sup> 공존 가능한 공동체의 삶은 쉽지 않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때에는 사랑하는 능력이 절대로 부족하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철저히 부정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공동체 생활은 우리의 한계와 약점과 무지를 뼈저리게 들추어 낸다.<sup>33)</sup>

인간은 무리를 이루며 함께 사는 존재이기에,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올바른 공동체 의식을 갖춰야 한다.<sup>34)</sup> 그리고 그 도정에서 교육의 역할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벨 훅스(bell hooks)의 말처럼 “교육은 항상 희망에 뿌리를 두는 일”이기 때문이다.<sup>35)</sup>

공존 가능한 공동체의 실천에서 지역사회와 학교의 역할을 놓고 볼 때, 거시적 문제는 특정 지역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로서, 이를 방치하다가는 자칫 회색 코뿔소(gray rhino)나 검은 백조(Black Swan)의 문제가 될 수 있다.<sup>36)</sup> 예를 들어 수도권으로의 쏠림이나 지역 불균등 발전

32) 김덕삼, 『공동체의 추구하고 실현에 대한 성찰- 중국 사회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66, 2022. 188~196면.

33) 장 바니에, 『공동체와 성장』, 성찬성 옮김, 성바오로, 2015, 13-14면.

34) 최병대, 『도시공동체의 민낯: 갈등도시에서 공생도시로』, 아이에스, 2021, 서문.

35) 벨 훅스, 『벨 훅스, 당신과 나의 공동체』, 김동진 옮김, 학이시습, 2022, XXV면.

으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지역사회와 학교의 힘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다른 요인들과의 유기적 협조와 구체적 방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생활의 효율과 편리의 추구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고하며 삶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의식의 전환이 요청된다. 아직 멀지만 가야할 길이다. 과거 수십 년 간 한국에서 진행된 지역사회와 학교의 변화를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지닌 문제 역시 변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연구하고 검토하며, 지역사회와 학교가 만드는 공존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역사회와 학교의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고려도 필요하다. 한국은 그리 넓지 않다. 북쪽의 중심지 서울에서 남쪽의 중심지 부산까지 고속열차로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하지만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다. 이제 공간을 넓게 골고루 쓸 수 있도록 구체적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활동을 적극 활용하여 공간을 넓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현실적 방안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거시적 문제처럼, 학교와 지역사회가 만들 지역공동체의 미시적 문제 역시 곳곳에 산재해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조하여 해결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거시적 문제 해결로 이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과 달리 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학교 개방과 활용이 요청된다. 학교는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에게 학교 시설물을 최대한 개방하여 지역사회

---

36) 회색 코뿔소는 지속적인 경고로 예상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하다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검은 백조는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일어날 경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을 말한다. 지금 직면한 문제는 지속적인 경고가 있지만 공동체로부터 간과되고,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 파괴력이 매우 큰 문제이기에,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관심과 대책이 요청된다.

회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학교의 시설물 훼손, 도난 등이 발생하여 학교로서는 지역사회에 적극적 개방이 어려울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주민 모두가 ‘우리학교’라는 인식을 갖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사이의 경계를 조금씩 제거하면서 공존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도 요청된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득이 될 때만 남을 돕는다는 것이 표준적인 설명이다”<sup>37)</sup> 인간의 단점을 지적한 말이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공존 가능한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 때문이다. 연결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다.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교육하는 학교의 교육은 지역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동력이다. 그런 면에서 “과학기술과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인공적 재앙을 피하기 어렵다.”<sup>38)</sup> 지적에 공존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학교 교육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아르투로 에스코바르(Arturo Escobar)가 지적한 것처럼 공동체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이상적 방향의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다.<sup>39)</sup>

학교에서의 교육은 지역공동체 모두의 일이라 여기며 협력하고 협동해야 할 것이다. 지역 공동체에는 지역의 기업이 참여할 수도 있다. 그것도 학교의 교육에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대신하는 역할을 통해서 말이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신안안좌초등학교는 한국전력 신안지점 직원들이 초등학교 학생에게 영어와 수학 등을 정기지도하고, 관련 비

37) 마크 뷰캐넌, 『사회적 원자』, 김희봉 옮김, 사이언스북스, 2014, 153면.

38) 미치오 카쿠, 『초공간』, 박병철 옮김, 김영사, 2019, 458면.

39) 아르투로 에스코바르, 『플루리버스: 자치와 공동성의 세계 디자인하기』, 박정원·엄경용 옮김, 알렙, 2016.

용은 한국전력 사회봉사단 기금으로 전액 지원했다. 또한 경상남도 거제의 삼성중공업은 거제조선소의 각종 동호회(밴드부, 수지침, 연구회, 스포츠댄스, 일본어 교육 등)에서 협력을 받아 방과후 학교 지원을 했다. 보다 많은 사례가 생기고, 이러한 일이 우리가 사는 지역에 자연스러운 일이 될 때, 학교와 지역사회가 만드는 공존 가능한 지역공동체는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 있을 것이다.

#### 4. 나오는 말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지역사회와 학교가 만드는 공존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희망하며, 지역공동체와 학교가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할지 고찰하였다. 물론 공존 가능한 공동체를 논하면서,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호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과거의 역사와 우리 주변의 일을 되돌아보면, 다음과 같은 지적에 수긍할 수 있다.

현실의 공동체는 문제와 한계가 있다. 우리가 만든 공동체에는 문제가 늘 있어왔다. 관건은 문제에만 있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간극을 이용한 선동에 있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공동체를 이용한 것은 ‘(불가능한) 이데아’와 이에 근거한 ‘(선동) 정치’와 ‘희망(고문)’을 통한 자기 이익의 편취(騙取)였기 때문이다.……불평등, 그 자체도 비난 받을 것은 아니다. 경제적 평등,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도덕적 이상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구호가 되고 정치적 연사가 되어, 본질이 왜곡되고 호도(糊塗)되는 일들을 예의 주시하며 경계해야 할 것이다.<sup>40)</sup>

공존 가능한 지역공동체의 실현은 쉽지 않다. 이는 구성원의 의견이

40) 김덕삼, 「공동체의 추구하고 실현에 대한 성찰: 중국 사회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66, 2022, 193~195면.

합의되는 지난한 과정 속에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이 우선적이다. 이를 위해 의심하고, 질문하며 객관적인 성찰을 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파농(Frantz Fanon)은 말한다. “내 최후의 기도는 이것이다: 오 나의 몸이여, 내가 언제나 질문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를!”<sup>41)</sup> 벨 훅스의 주장도 같은 선상에 있다. 권력에 순응하는 것보다 ‘열린 마음’과 ‘비판적 사고’를 고수하라고 종용한다.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떠한 형태로든 지배(domination)를 실현하는 장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sup>42)</sup> 주장한다.

벨 훅스는 다소 추상적이지만 섬김과 사랑의 실천으로 모든 형태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sup>43)</sup> 동시에 학교와 관련하여 “사랑이 있는 강의실에서는 누구의 영혼을 해치지 않으면서 비판적인 의견 교환을 할 수 있고, 건설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sup>44)</sup> 그렇다면, 지역사회와 학교의 협조로 공존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는 일은 가능성 높은 중요한 일이다.

궁극적으로 지역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규합하여 지역의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학교와 지역의 발전을 돕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문에서는 지역사회와 구분하여 지역공동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공존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였다. 물론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학교가 상호 분리된 것이 아닌 상보적 관계에 있음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41) 프란츠 파농, 『검은 피부, 하얀 가면』, 노서경 옮김, 파주, 문학동네, 2022, 227면.

42) 벨 훅스, 『벨 훅스, 당신과 나의 공동체』, 김동진 옮김, 학이시습, 2022, XXiii면.

43) 이는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담론으로 제안한 ‘행성적 사랑(planetary love)’과 연관시켜 생각해볼 수도 있겠다. 스피박은 동질화되고 획일화된 의미의 ‘지구’가 아닌 각각의 고유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함께 공존한다는 의미로 ‘행성’을 사용하였다(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이란 무엇인가』, 동녘, 2022, 35면).

44) 벨 훅스, 『벨 훅스, 당신과 나의 공동체』, 김동진 옮김, 학이시습, 2022, 209면.

지역사회와 학교의 발전 가능성은 크다. 게다가 들이 힘을 모을 때 그 효과가 더욱 커짐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세한 일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의 체계성 제고,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의 수준 제고, 학교-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관리, 프로그램 종료 이후 성과 평가와 피드백 실시 등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넘어 확장된다. 이제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책임을 나누고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학교를 아우르는 공존 가능한 지역공동체로 성숙되어가는 길을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이란 무엇인가』, 동녘, 2022, 35면.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대한민국 교육 40년』, 한스미디어, 2007, 56면.  
 기욤 피트롱, 『‘좋아요’는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는가』, 양영란 옮김, 갈라파고스, 2023.  
 김덕삼, 『변화와 장의 탐구: 중국의 사람·사회·문화를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 2022, 107면.  
 나카무라 유지로, 『토포스: 장소의 철학』, 박철은 옮김, 서울, 그린비, 2021, 85면.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윤철홍 옮김, 책세상, 2023, 49면, 64~111면.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 『의무란 무엇인가』, 박종대 옮김, 열린책들, 2021.  
 마크 뷰캐넌, 『사회적 원자 The Social Atom』, 김희봉 옮김, 사이언스북스,

2014, 247-251면.

모리스 블랑쇼·장 퓌앵 낭시, 『밝힐 수 없는 공동체 / 마주한 공동체』, 박준상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5, 140면.

미치오 카쿠, 『초공간』, 박병철 옮김, 김영사, 2019, 458면.

벨 훅스, 『벨 훅스, 당신과 나의 공동체』, 김동진 옮김, 학이시습, 2022, X XV면.

신용하 편, 『공동체 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5, 14~15면.

아르투로 에스코바르, 『플루리버스: 자치와 공동성의 세계 디자인하기』, 박정원·엄경용 옮김, 알렙, 2016.

양병찬·전광수, 『(지역교육공동체 창조를 위한) 학교와 지역의 협동』, 서울: 교육아카데미, 2016.

앤서니 기든스·필립 서튼, 『현대 사회학』, 김미숙·김용학 외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2018, 238면.

장 바니에, 『공동체와 성장』, 성찬성 옮김, 성바오로, 2015, 13-14면.

정재엽·박형민·박형성, 『지역교육공동체 성장을 위한 퇴직 교직원의 역할 제고 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2021.

J. 롤즈, 『사회정의론』, 황경식 옮김, 서광사, 1985, 25~26면.

최병대, 『도시공동체의 민낯: 갈등도시에서 공생도시로』, 아이에스, 2021, 서문.

톰 올리버,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권은현 옮김, 로크미디어, 2022, 17면.

프란츠 파농, 『검은 피부, 하얀 가면』, 노서경 옮김, 파주, 문학동네, 2022, 227면.

프랑수아 줄리앙, 『문화적 정체성은 없다』, 이근세 옮김, 교유서가, 2020, 55면.

프랑수아 줄리앙, 『전략, 고대 그리스에서 현대 중국까지』, 이근세 옮김, 교유서가, 2019, 134면.

한국도시연구소 엮음, 『도시공동체론』, 파주: 한울, 2003, 86-87면.

김덕삼, 『공동체의 추구하고 실현에 대한 성찰: 중국 사회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66, 2022. 188~196면.

김덕삼, 『신화와 장소: 단군 신화는 장소 이야기다』, 김성환 외 7인, 『장소 철학 I』, 파주, 서광사, 2020, 257-276면.  
서희·박창언·사이오노 아카네, 『중국과 일본의 교육공동체 운영실태 연구』, 『교육공동체연구와실천』 3.1, 2021, 69-92면.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http://www.law.go.kr)(2023.06.01. 검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http://www.ypec.re.kr>(2023. 06. 03. 검색)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index>(2023. 06. 03. 검색)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http://www.technopark.kr>(2023.06.03. 검색)

“남의 놀이터서 놀면 도둑’...‘입주민 이기주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https://www.asiae.co.kr/article/2021111011163507595. 아시아경제, 2021. 11. 12.)

■ Abstract

## Exploring the role of society and schools for local communities

Kim, Dug Sam · Lee, Kyung J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ole of community and school for coexisting communities. In Korea's education reform, there is a growing consensus that education reform should go beyond the existing school-centered reform and be transformed through cooperation between schools and communities. This article focuses on how community and school education should coexist to create a community that is compatible with the changing society. To do so, we first examined the community and school and identified the problems within them, especially the educational needs for coexisting communities, the problems faced by schools and communities, and the roles of coexisting communities. The role of the community and the role of the school were first examined, and the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Specifically, we discussed the current status and measures of school-community coexistence,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is, and the promotion of school-community cooperation. If schools and communities can establish a close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through this process and create a coexistent community, it will be able to expand and contribute to the intern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and the prevention of the concentration of metropolitan areas and the marginalization of non-metropolitan areas.

Key words: School, community, local community, education, coexistence, cooperation

이 논문은 2023년 6월 27일 투고되어 2023년 7월 13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3년 7월 14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



## 가족의 약속으로부터 돌봄을 구하기

정미선\*

살만한 삶(livable life)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살 수 없는 삶(unlivable life)을 사회적으로 애도하는 문제는 오늘날 돌봄, 취약성, 상호의존성이라는 개념을 따라 삶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버틀러와 보름스의 지적 대화를 기록한 *The Livable and The Unlivable*(2023)에서 그들은 살만한 삶과 살 수 없는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면서, 애도 가능성이 수용소, 강제 이주와 난민, 팬데믹, 기후위기 등에 관통당한 몸들, 즉 살 수 없는 삶이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생명들,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살 수가 없다는 것’으로부터 반복되는 산 자를 규정하는 투쟁에 개입하는 정치임을 말한다. 살 수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이 대화는 살아있는 생명에 관해서 ‘정도’가 아닌 ‘질적’ 상태로서 죽음과 파괴의 가능성과 긴장을 이루는 살 수 없는 삶의 문제를 정치의 중심에 놓고 돌봄을 중심으로 급진적으로 재조직하여, 살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생명을 살만하게 하라는 다양한 요구들과 만난다.

이처럼 살 수 없는 삶의 문제가 돌봄을 중심으로 한 정치의 급진적인 재조직을 필요로 한다고 말할 때, 이때의 돌봄이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이 제기된다. 버틀러는 돌봄에 대한 미국적 모델, 돌봄이 작동하는 방식으로서 제도적 폐해를 보완하는 기

---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독고 정신의 일환으로서의 돌봄에 대해 우려하면서, 더 중요하게는 사회·경제·정치적인 것과 같은 광범위한 질문의 모델에 대해 탐색할 때에 우리가 왜 유아 돌봄의 심리적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질문한다. 이들의 대화는 모든 형태의 돌봄이 박탈되면 삶은 살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처럼 ‘나’라는 주체는 일생 동안 돌봄에 의지하고 있다는 상호 의존성의 조건에서 출발하여, 돌봄이 공공의 의무로 취급되고 그러한 방식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이때의 돌봄이란 살만한 삶을 위한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행한다. 즉 돌봄을 살 수 없는 삶의 문제와 함께 정치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돌봄이 사적인 실천이나 개인의 행위자성에 기반한 윤리의 방식으로 제도를 뺄절하는 회로로 작동하거나, 돌봄을 순수한 어린 시절의 신화 내지는 부모의 사랑 같은 가족적인 것과 연루시키는 회로와의 결별을 우선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문화에서 돌봄은 이러한 방식으로 상상될 수 있는가? 경험적 지평에서 돌봄은 매우 강력하게 공/사 이분법의 경계 분할과 함께 사적인 영역의 지정학 속에서 사고되기 십상이다. 이는 보름스가 베르그송과 칸길렘, 길리건으로부터 돌봄을 정치적 사고의 중추로 삼는 비판적 생기론을 주장하고, 버틀러가 체현된 삶의 근본적인 사회성으로부터 이미 타인에게로 이양되어 있는 박탈의 양상으로서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의 구성에서 돌봄의 개념을 지적 기획의 일환으로 소환하면서 기대하는 바를 맹렬하게 거절한다. 오히려 살 수 없는 삶과 살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우리가 손쉽게 느끼는 외면, 부정, 혐오감 등의 감정은 견딜 수 없는 것에 대한 우리의 대면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이 견딜 수 없는 것을 증명하는 모순 속에서,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으로 돌봄의 약속, 더 나아가 돌봄을 사상하는 가족의 약속으로 다시금 정향한다.

소피 루이스의 『가족을 폐지하라』에 주목할 만한 까닭은, 이처럼 버

틀러와 보름스의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오늘날 살 수 없는 삶들과 돌봄의 테제가 정치적인 것의 화두로서 무엇보다 부상하게 된 시대에, 오랜 망령처럼 따라붙는 ‘가족’이라는 제도와 은유 양자를 모조리 폐지하고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책이라는 점에 있다. 선언문의 형식을 채택하는 책인 만큼 저자의 주장은 매우 간결하고 명료하다. 돌봄을 위해서 가족을 폐지하라는 것이다.

저자는 “가족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돌봄을 사적인 문제로 치부한다는 것을 내포한 단어”(15면)라고 말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페미니즘의 학적 전통에서 돌봄은 거개가 가족이라는 제도와 심각하게 불화한다. 그 예 중 하나로 근래에 한국에 번역되어 많이 읽힌 프레이저의 『좌파의 길』에서 제시되는 식인 자본주의의 개념 또한 돌봄을 주요한 화두 중 하나로 삼고 있다. 프레이저에 따르면, 오늘날 ‘돌봄 긴장’ 내지는 ‘돌봄 위기’라는 표현을 통해 표출되는 감각이란 금융화된 자본주의의 현 사회 질서에 구조적으로 깊이 뿌리 내린 사회-재생산 모순의 침예한 표현에 다름 아니다. 자본의 식인성에 말미암아 지속적인 자본 축적과 무한히 축적하려는 자본의 충동 자체가 이 축적의 필수적 배경이 되는 사회적 재생산 활동들을, 돌봄을 폭식하면서 생기는 이 모순을 위기의 담론을 통해 은폐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가족을 폐지하라』의 첫 장인 ‘그치만 난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구!’는 가족에 대한 기존의 지적 여정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특히 제도로서의 가족이 갖는 문제들을 정리한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를 고립시키고, 그의 생활 세계를 사유화하고, 그의 거주지와 계급과 법적 정체성을 임의로 지정하고, 친밀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의 영역을 철저히 제한하는 사회적 기술을 승인하는 건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일이다”(11~12면)라는 문장은 요약적으로 제도로서의 가족이 사랑의 종착점이라는 생각이 터무니없다는 점을 위트 있게 이야기해준다. 또

한 국민국가 체제에서 “가족의 기능은 복지를 대신 수행하고 채무자의 보증을 서는 것이다”(19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족이 “노동력 재생산을 저렴하게 관장”(19면)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통치 수단으로서의 가족[은] 돌봄을 조직하는 비참한 방식”(27면)이기도 하다. “부모 역할을 터무니없이 부당한 노동의 분배로, 어린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과 권한의 폭력적인 분배로”(17면) 조직하는 가족 내 돌봄의 회로는 저자에 따르면 그럼에도 변화가 가능한 분배의 방식으로 여겨지기 보다는 본성에 따른 아름다운 일로 그려진다. 또한 가족 제도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가족이라는 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부적응자라는 딱지를 붙”(22면)이다. 이는 규범적 이성애 가부장제를 질서, 자연, 보편성으로 상정함과 동시에 이를 인간의 인종화된 본질이자 사회성과 주체성의 기준으로 간주하고,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변화에 대한 불안을 인종화된 노동계급에 투사함으로써 가족 제도가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계급, 국가, 자본의 대립-공모-구성이라는 복잡한 관계와 연루되어 온 미국의 역사를 유색 퀴어 비평의 관점에서 지적하는 퍼거슨의 *Aberrations in Black*(2004)과 같이 다양한 가족 제도 비판과 술하게 겹쳐진다.

그러니 이에 따르면 돌봄의 위기가 아니라, 돌봄으로부터의 위기가 문제이다. 하지만 돌봄을 다르게 상상해야 한다고 할 때, 돌봄을 위해서 가족을 폐지하자고 제안할 때 우리는 부담을 느낀다. 보름스는 돌봄을 삶과 죽음, 애착과 폭력, 보살핌과 권력 사이의 긴장에 의해 양극화되는 삶을 관계적으로 탐색하게 하는 이미 매개된 어떤 것으로 정의한다. 루이스가 지적하듯이 가족이라는 은유는 “상호 돌봄, 상호 의존, 소속감 [이라는] 일상생활에서는 느끼기 힘든 이런 이상적인 버전의 가족적 가치”(147면)와 맞닿아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매개된 돌봄의 회로로서의 가족 제도를 “돌봄, 나눔, 사랑”(155면)의 모호한 약속 사이를 서성거리는 가족이라는 은유가 보충한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돌봄이라는

개념을 서사화하는 동시대 한국의 다양한 사례들에서도 돌봄은 애착과 폭력, 보살핌과 권력 같은 양가적인 속성 사이에서 진동하면서, 여전히 끈질기게 돌봄의 가능성을 규범적인 가족 관계 안에서 내지는 조금 더 나아가 확대 가족이나 대안 가족 같은 범주 내에서 찾고자 한다. 그러나 가족을 제도로서도 은유로서도 더 이상 상호 돌봄, 상호 의존, 소속감, 나눔, 사랑 같은 가치의 처소로, 죽음과 삶 사이에서 살 수 없는 삶을 구원하는 사적 약속으로, 살 수 없는 삶을 살만한 삶으로 끌어올리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으로 간주하지 않고자 하는 저자의 관점은 가족을 은유로서조차도 구원하려 하지 않는다.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가족 폐지를 이야기할 때 백인, 이성애, 가부장, 식민주의적 핵가족을 말하는 거라고 구구절절 덧붙이는 것이다. 이는 더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모든 비백인, 혼종, 게이, 선주민 가정의 정치적 성격을 낭만화하거나 용인하는 한편, 대다수 사람들에게 적용될 가족 폐지의 필요를 등한시하고 이들을 가족 폐지의 정치에서 배제할 더 큰 위험이 있을지 모를 일이다!

또 다른 방법은 완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러 역사적인 이유로 이 가족, 즉 강요된 제도로서의 가족the family 말고는 다른 어떤 가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비백인 가정이 지구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 분명하다. 이성애자가 아니고, 심지어 타고난 성과 성정체성이 일치하지 않고, 식민지 정착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닌 가족도 많다. 하지만 백인성, 제국, 이성애가 제도로서의 가족과 많은 부분 관련되어 있다 해도, 가족의 가장 근원적인 특징은 돌봄을 사적 영역에 가둔다는 것이다. 이 인클로저 과정에는 모든 종류의 가족이 의도치 않게 참여한다. ...(중략)... 이쯤에서 감이 오겠지만 나는 두 번째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이다.(60-61면, 인용자 밑줄)

특정한 종류의 가족은 폐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 “폐지

론자들은 폐지를 원한다”(144면)라고 응수하는 저자의 관점은 2장의 ‘어떤 가족을 폐지한다는 거야?’를 지나 3장의 ‘가족 폐지론의 간략한 역사’를 통해 샤를 푸리에, 퀴어적인 선주민과 도망노예 공동체 (marronage)의 19세기, 공산주의 선언의 시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초기 볼셰비키 유포피아주의, 파이어스톤과 『반사회적 가족』을 아우르는 페미니즘, 동성애규범성 개념 이전 시대의 게이해방운동과 아동해방운동, 전국복지권기구와 맑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의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가 21세기 트랜스 마르크스주의라고 이름 붙인 2015년부터 시작되어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가족폐지론자들의 흐름을 한 데 엮어 보여준다. 이 계보들은 여전히 “다른 모든 게 무너져내렸을 때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있는 핵심적인 관계는 가족이라는 입장”(33면)이 배치하는 돌봄의 특정한 회로를 사적인 것으로부터 개방하여 공적인 돌봄의 상상력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제도로서의 가족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살만한 삶의 환상이라면, 가족은 돌봄을 구획하고 먹어치우며 돌봄의 공공적 개방을 상상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문화적 은유인 셈이다.

내가 비판하는 것은 집단 차원의 돌봄 욕구가 아니라, 이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149면)

우리는 더 날카로운 개념, “동지적 관계”나 “공모자” 같은 개념이 필요하다. 혹은 뭔가 중간적인 걸 원한다면 아직 친숙하게 사용되는 고영어 표현 “근족과 혈연kith and kin”에서 폐어가 된 앞단어를 되살리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근족”이라는 개념은 존재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 “혈연”과 비슷한 유대를 지칭하지만, 그 근거는 인종, 혈통, 정체성보다는 지식, 실천, 장소이다.(154면)

『가족과 커뮤니티』 8집

다시 버틀러와 보름스의 대화로 되돌아오면, 살 수 없는 삶들에 대한 질문은 가족의 약속으로부터 돌봄을 구해야 하는 가장 실제적이고 긴급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가 『가족을 폐지하라』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안하는 지식, 실천, 장소를 근거로 하는 근족의 개념으로부터, 우리가 돌봄에 의지하고 있다는 상호의존성의 조건이 확장하는 돌봄의 지리에 근거한 살만한 삶의 다른 방식들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족이라는 범주에서 해방된 삶의 살아감에 충분히 열려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Judith Butler & Frédéric Worms, *The Livable and The Unlivable*, Fordham UP., 2023.

Nancy Fraser, *Cannibal Capitalism*, Verso, 2022; 장석준 옮김, 『좌파의 길—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서해문집, 2023.

Sophie Lewis, *Abolish The Family*, Verso, 2022; 성원 옮김, 『가족을 폐지하라』, 서해문집, 2023.



## 『가족과 커뮤니티』 발간 및 투고 규정

### 1. 공통 사항

- 가. 본 규정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기관지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자격과 절차, 원고 작성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 나. 『가족과 커뮤니티』는 가족, 커뮤니티, 미래 공동체와 관련된 인문학 등 전 학문 영역을 중심으로 논문을 수록하되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나 번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를 결정한다.
- 1) 학위논문 및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본 연구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우선적으로 게재하되, 질의 토론 시간에 제기된 문제가 반영되어 수정된 논문으로써 심의를 통과한 것이어야 한다.
- 다. 원칙적으로 인문학, 사회학 등 전 학문 영역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혹은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투고할 수 있다. 단, 석사과정생 이상 학위 미소지자의 경우 교신저자를 두어 투고가 가능하다.
- 라.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소유한다. 이에 대하여 투고자는 ‘저작권재산권 이양 동의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 마. 투고자는 동일 호수에 논문을 2편 이상 투고할 수 없다.

### 2. 발간 횟수 및 시기

- 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기관지 『가족과 커뮤니티』는 매년 2회 발간한다.
- 나. 발행일은 1월 31일, 7월 31일로 한다.

### 3. 접수 시기

- 가. 원고의 접수는 11월 30일, 5월 31일에 각각 마감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고 마감일이 연기될 수 있다.
- 나.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원고는 다음 호로 넘긴다.

### 4. 투고 방법

- 가. 투고 원고는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전자우편주소(familycommunity@naver.com)로 제출해야 한다.
- 나. 투고 논문에는 투고자의 개인 정보나 투고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내용도 담지 않는다.
- 다.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https://check.kci.go.kr>)를 이용하여 투고 논문에 대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라. 연구 윤리 규정 준수 서약 및 저작권재산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5. 논문 구성 형식

- 가. 원고 분량은 원고지(200자) 120매 내외로 하되 150매가 넘지 않도록 한다. 150매가 넘는 경우에는 출판비의 일부를 투고자가 부담해야 한다.
- 나. 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다. 각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논문제목
  - 2) 저자명
  - 3) 목차
  - 4) 국문초록
  - 5) 본문
  - 6) 참고문헌
  - 7) 영문초록
- 라. 국문초록은 A4 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한다. 초록 아래에는 논문의 주제와 대표할 만한 단어를 선택하여 주제어(5~10개 정도)를 첨부한다. 영문초록은 제목, 필자명, 주제어(5~10개 정도)등도 첨부하여야 한다.

**6. 논문 작성 양식**

가. 모든 원고의 작성은 다음의 방식에 의거하여 투고한다.

- 1) 한글 2005이상으로 작성한다.
- 2) 논문의 장, 절, 항의 부호는 1, 1), ①로 표시한다.
- 3) 저자의 이름은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소속과 직위를 각주로 표시한다[예: 한국대학교 교수]. 대학 소속의 경우 ‘교수, 강사, 대학원생, 학부생,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학교 소속의 경우 ‘교사, 학생’, 연구원 소속의 경우 ‘연구원, 연구사’ 등으로 표시한다. 현재 소속이 없는 경우 최종 소속과 직위를 표시한다. 논문의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 제1저자를 앞에 표시한다. [예: 홍길동(제1저자)·김국중(제2저자)]
- 4) 각주의 표기 형식은 아래의 예를 따른다.

구분	표기 방법
인용한 경우	필자명, 년도, ?면.
참조한 경우	필자명, 년도, ?~?면, 참조.
단행본	필자명, 『書名』, 출판사, 발행년도, ?~?면.
문집류	저자명, <작품명>, 『서명 내지 문집명』, 출판사, 발행년도, ?~?면.
논문류	필자명, 「논문명」, 『단행본 또는 학회지명』, 출판사, 발행년도, ?~?면.

- 5) 참고문헌 목록의 표기 형식은 아래의 예를 따른다.

구분	표기 방법
단행본	필자명, 『서명』, 출판사, 발행년도.
문집류	저자명, <작품명>, 『서명 내지 문집명』, 출판사, 발행년도.
논문류	필자명, 「논문명」, 『단행본 또는 학회지명』, 출판사, 발행년도, ?~?면

(단행본 또는 학회지 속의 특정 논문을 참고한 경우 그 논문이 수록된 도서의 해당 면수를 밝혀야 한다.)

- 6) 기호는 아래의 예를 따른다.

구분	표기 방법	구분	표기 방법
저서, 단행본, 학회지명	『 』	강조, 간접 인용	‘ ’
논문	「 」	직접 인용	“ ”
작품	< >		

- 7)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술 논저의 일반적인 표기 형식을 따른다.

**[부칙]**

가.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규정은 2022년 3월 14일 수정되어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 이 규정은 2023년 3월 15일 수정되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가족과 커뮤니티』 논문 심사 규정

### 1. 편집위원회 구성 및 의무

- 가. 편집위원회는 임원의 추천과 원장의 결정에 의해 각 전공별로 약간 명을 위촉하여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나. 편집위원회는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투고 논문의 심사와 학술 논문집 발간을 주관하고,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다.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해당 호의 논문 심사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다.
- 라. 학회 임원의 투고 논문에 대해서도 일반 논문과 동일한 심사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 2. 심사위원 위촉

- 가. 편집위원회의 1차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 해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며, 필요시 편집위원 이외의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나. 심사위원은 각 전공 분야별로 연구 업적과 학술 활동이 탁월한 분들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결정한다. 단, 투고자와 연고가 없는 학자 가운데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3. 논문 심사 절차 및 기준

- 가. 투고기간 종료 후 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논문심사를 실시한다. 1차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전공별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나.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대상 논문, 심사 의뢰서, 논문심사표, 심사료 등을 동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다.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 지표	방법론 및 문제의식의 참신성	상(20)	중(17)	하(14)
	연구 내용 및 결과의 독창성	상(20)	중(17)	하(14)
	연구사적 의의 및 활용도	상(20)	중(17)	하(14)
	용어 개념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상(20)	중(17)	하(14)
	자료 검증의 충실성	상(20)	중(17)	하(14)

- 라. 논문심사표는 논문명, 심사 기준, 심사 결과, 심사자 인적사항 및 확인 등으로 구성하고, 논문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마. 심사위원은 소정 기간 내에 심사 결과를 4등급으로 점수화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장은 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를 사정한다.
- 바.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의 판정은 다음에 따른다. 각 심사위원의 판정은 게재가(2점), 수정 후 게재(1점), 게재불가(0점)로 심사위원 3인 판정 점수 합계 3점 이상의 논문은 수록한다.

0-1점	게재불가
2점	수정 후 재심
3-5점	수정 후 게재
6점	게재

\* 편집위원회 결정

- 사. 수정 후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가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 여부를 재심한다.
- 아. 게재불가로 평가된 논문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필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자.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후 수정한 논문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이때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통보를 한 후 해당 논문을 심사가 완료된 게재불가 논문으로 재판정한다.

#### 4. 재심사의 절차 및 기준

- 가. 논문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 요구를 받은 논문으로서 부분 수정이 가능

한 경우에는 수정된 논문을 재심사한 후에 게재한다. 단 수정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 나. 논문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사후 수정 보완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단 새로 투고한 논문도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 다.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수정 논문이 재투고 되었을 경우에는 최초에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단, 심사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새로운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라.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재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하여 해당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수정 논문이 재투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게재 불가'로 결정한다.

#### 5.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 가.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나.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한 날부터 1주일 내에 심의한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6. 심사 철회 요청 절차

- 가. 투고자는 심사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타 학회지에 중복 투고되었다는 이유로 심사 철회를 요청할 수 없다.
- 나. 편집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심사 철회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통보한다.

#### 7. 게재 기준

- 가. 게재 확정된 논문들이 본 학술지의 발간 예정 지면을 초과할 경우에는 게재 횟수가 적은 필자의 논문-최근호에 게재되지 않은 필자의 논문 순으로 우선 게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게재가 보류된 논문은 다음 호 학술지에 우선 수록한다.
- 나. 공동 논문의 경우에는 학제간 연구의 특성상 2인 공동 집필 논문은 주집필자와 부집필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3인 이상일 경

우에는 첫 번째 명기된 집필자를 주집필자로 인정한다.

다. 게재자는 3회 연속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3회 연속 심사 결과 ‘게재/수정 후 게재’를 받은 경우 세 번째 ‘게재가’ 논문을 다음 호 게재로 이월한다.

## 8. 논문집의 발행과 배포

가. 소정의 심사 절차를 통과한 논문은 본 연구원의 학술지인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한다.

나. 학술지는 연 2회(1월 31일, 7월 31일)씩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 6. 부칙

가. ‘편집위원회’, ‘논문투고’, ‘논문심사’ 등에 관한 규정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제반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이 규정의 효력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다. 이 규정은 2022년 3월 14일 수정되어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5일 수정되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연구 윤리 규정

### 제1장 필자의 연구 윤리

제1조(책임) 본 연구원 회원은 학술 연구자로서 연구 수행상의 윤리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2조(표절 금지) 『가족과 커뮤니티』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논문 투고 시 KCI 문헌유사도검사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인용 또는 참고 표시) 논문의 필자는 다른 사람의 글이나 주장 또는 이전에 공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경우 반드시 인용 또는 참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

### 제2장 윤리 규범 준수에 대한 사후 심사

제4조(사후 심사) 본 연구원 학술지 『가족과 커뮤니티』에 실린 논문에 대해서 윤리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에 대한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후 심사 요건) 사후 심사는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를 검토한 뒤, 대상 논문이 윤리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고 뚜렷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사후 심사 접수) 실린 논문의 사후 심사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를 밀봉하고 겉에 ‘사후심사요청’임을 밝히되, 발신자의 신원을 겉에 드러내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후 심사 개최)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이 연다.

**제8조(사후심사요청서 내용)**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 게재, 윤리 규범 미준수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9조(사후 심사 심의 및 윤리위원회의 소집)** 게재 논문의 사후심사 요청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 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3장 연구 윤리위원회**

**제10조(구성)** 윤리위원회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실무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11조(역할)**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학술 연구상의 윤리 의무 위반 행위를 심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회부 사항)**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비의 부정한 집행으로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위반한 경우.
2. 대상 논문이 그것이 실린 본 학회지 발행일자 이전에 나온 간행물 또는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시킬 만한 연구 성과를 뚜렷하게 표절·중복 게재·변조하거나, 자신의 연구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 타인의 것을 의도적으로 폄하·은폐하여,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경우.
3. 연구자가 특수관계인, 곧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제13조(심사 절차)**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심사는 편집위원장 또는 원장의 심사 요청에 의해 개시하고, 위원장은 심사 요청이 접수되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본 연구원 윤리위원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외부 심사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나,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사위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윤리 규정 위반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윤리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 집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4. 위 질의서 우송에 대해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뒤 30일 안에 윤리위원회 또는 윤리위원회장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없을 경우엔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된 것으로 판단한다.
  5. 윤리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마감 기한으로부터 15일 안에 사후 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6. 윤리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결정에 앞서 필요하다면 해당 연구자에게 구두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소명은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인적사항이나 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8.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인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이나 부당한 전제에 의해 결정하지 아니 한다.
  9.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과 결과의 정직성·효율성·객관성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제14조(심사 통보)** 윤리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 위촉 내용
2. 심사 대상 부정행위 내용
3.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자료
5. 심사 대상자의 소명과 처리 내용
6. 심사 결정 내용

**제15조(징계 내용)** 윤리위원회는 심사를 끝낸 뒤 다음 중에서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며, 징계는 중복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
2. 논문의 취소와 인용 금지
3. 연구소 공개 사과
4. 회원 자격 정지
5. 향후 5년간 투고 불가
6.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

**제16조(심사 결과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의 결정문이 도착하는 즉시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연구원장에게 바로 통보하고, 원장은 통보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과 관련 기관에 알린다.
2.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후 심사 결과를 7일 안에 심사 요청자와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학술지에서 해당 논문이 삭제되었음을 공지한다.
4.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재심을 요구받은 소장은 기존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새로 윤리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 **제4장 비밀 유지**

**제17조(익명성 보장)** 논문 게재와 연구자 윤리 규범에 관한 의의 또는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 심사를 요청한 이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 시 조치)** 위 1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조치는 위 14조에 따라 시행한다.

## 제5장 이해관계에 대한 연구 윤리

제19조(이해충돌 방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학술지에 투고 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부 심사위원이 논문을 심사하도록 한다.

1. 위원회 위원이 학술지에 투고 시 해당 위원을 꺾어서킨 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연구자는 논문의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제20조(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

1.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2.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투고를 금지한다.
3. 사후에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기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4. 제재 사항은 6조의 조항에 의거한다.
5. 기타 사항은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2020.04.10. 개정판)을 준수한다.

###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과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의 수정은 운영 규정 개정 절차에 따른다.
3. 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4.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지침은 2022년 3월 14일 수정되어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가족과 커뮤니티』 임원 명단

### ▪ 편집위원

위원장	류도향(전남대)
편집위원	강의혁(전남대), 김청우(부경대), 박미선(전남대), 박 범(공주대), 정희원(서울시립대), 최대희(전남대), 추주희(전남대), 한의송(전남대)
편집간사	전영선(전남대)

### ▪ 연구윤리위원

위원장	김병인(전남대)
연구윤리위원	김양현(전남대), 엄태식(조선대), 오세인(울산대), 정병호(경북대), 조정순(전남대), 함형석(전남대)

### ▪ 운영위원

위원장	정미라(전남대)
운영위원	박상철(전남대), 백승주(전남대), 류도향(전남대), 신해진(전남대), 양순자(전남대), 이성원(전남대), 이주리(전남대), 한의송(전남대)

## 『가족과 커뮤니티』 투고 신청서

아래 양식을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주소[familycommunity@naver.com]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투고자	성 명			소속 기관		
				직 위		
	연락처	자택 전화	(    )		E-mail	
		직장 전화			(우편물 수령) 주소	
휴대 전화						
논문 제목	(국 문)					
	(영 문)					
기타 사항	투고 일자					
	원고 매수	매 (200자)		연구비 수혜여부		
<p>위 본인은 상기논문을 귀 연구원 기관지 논문투고규정에 의거하여 『가족과 커뮤니티』 제〇〇집에 논문의 게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_____</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b>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귀하</b></p>						

## 저작권 위임 및 연구윤리 서약서

논문 제목	(국문)
	(영문)

위의 논문을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 요청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서명으로서 동의합니다.

1. 본 논문은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합니다.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 등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4. 저자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본 논문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불이익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5.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저자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6. 본 논문이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권한 행사(복사·전송권 포함) 등을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 위임합니다.
7. 공동 저자 또한 상기 내용을 숙지하였고,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저자	이름	소속 및 직함	이메일	전화번호	서명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1					
공동저자2					
공동저자3					

년 월 일

대표 저자 : 성명 \_\_\_\_\_ (인)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귀중

이 학술지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간행됨(NRF-2018S1A6A3A04042721)

## 가족과 커뮤니티 (8집) Family and Community

---

발행인 : 정미라  
발행처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jnuinmun.org/>  
연락처 :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학협력관 312호  
          전화 : 062-530-5218  
          E-mail : familycommunity@naver.com

---

발행일 : 2023년 7월 31일  
인쇄처 : 한국문화사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49, 404호  
          (성수동1가,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3차)  
          전화 : 02-464-7708  
          팩스 : 02-499-0846  
          홈페이지 : <http://hph.co.kr>

---

# 『가족과 커뮤니티』 수록 목록

---

## 가족과 커뮤니티 1집 (2020. 03.)

---

### 창간호 발간사

정미라 | 『가족과 커뮤니티』를 창간하며

### 일반논문

류명옥 | 시어머니와 며느리 설화에 나타난 가족관계 형성과 ‘길들이기’의 의미

Adam F. Braun | “Everyone Deserves a Family”: The Triple Bind of Family in Ari Aster’s Horror

이순구 | 소론 구성에 보이는 조선 가족관계의 특성

김소영 | 19세기 말~20세기 초 한(韓).중(中) 서화가들의 교류와 오세창(吳世昌)의 전각(篆刻)

박주희 | 마틴 부버의 ‘나와 너’에 나타난 교육적 세계관

안용주 | 기혼남녀의 성만족 관련변인 연구

### 서평

강의혁 | 자본으로 구획화된 도시에서 윤리적 공간의 창출은 가능한가라는 질문

---

## 가족과 커뮤니티 2집 (2020. 09)

---

### 일반논문

권영희 | 여주인공의 가족 갈등에 나타나는 조력자들의 충(忠)과 그 의미 -<정을선전>을 중심으로-

전설련 | 백하 김대락의 한시에 구현된 가족애와 그 의미

진건화 | <오후강전>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가족 구성 욕망과 실천의 의미

류재한 | 모파상의 작품 속에 나타난 ‘가족의 비정상성’에 관한 고찰 : 가족의례를 중심으로

김중수 | 함인재(含忍齋) 정국채(鄭國采)의 가계와 예학세계

### 서평

류도향 | 연대하는 신체들의 커뮤니티 -위태로운 삶의 정치적, 윤리적, 생태적 가능성에 대하여

---

---

### 가족과 커뮤니티 3집 (2021. 03.)

---

#### 일반논문

정지아 | 『고계정실기(古溪亭實記)』를 통해 살펴본 효자 정려의 의미  
한의승 | 조선후기 필기집에 수록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록과 서술 방식 -  
『골동록(汨董錄)』을 중심으로 -

최은주 | 19세기 향촌 지식인의 일기에 나타난 일상과 그 의미 -  
『김병황일록』을 중심으로 -

박일우 | 재만조선인문학에 나타난 가족 해체 양상 연구  
- 1930년대 일제의 아편정책과 매매혼 서사를 중심으로-

김중수 | 조선후기 역병(疫病) 감염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대응 양상

#### 서평

엄태식 | 이념과 사랑으로 읽은 17세기 장편소설

---

### 가족과 커뮤니티 4집 (2021. 09.)

---

#### 특별기고

이정옥 | 가족 정책의 분절과 재통합의 전망  
: 공동체와 개인화의 융합

#### 일반논문

김소연 | 『쇄미록』에 나타난 오희문의 전란 체험과 가족애

김종구 | 경당 장흥효의 가족애 및 가문 형성과 그 의미  
- 『경당일기』를 중심으로 -

김미라·홍은실 |  
맞벌이 여성의 가족자원과 결혼만족도

#### 서평

김기성 | 가족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읽다

---

### 가족과 커뮤니티 5집 (2022. 03.)

---

#### 일반논문

류명옥 | 설화에 나타난 경쟁-공감의 구조와 가족 서사의 확장성

구태운 | <세경본풀이>, <차사본풀이>에 나타나는  
노현자(老賢者)의 역할과 의미

노연숙 | 공동체의 허상과 사랑의 이상  
: 토마스 빈터베르그의

<사랑의 시대(The Commune)>(2016)에 대하여

김중수 | 화산(華山) 정규한(鄭奎漢)의 효제(孝悌) 철학

---

---

**서평**

박선아 | 기꺼이 고통의 장소들 속으로

---

**가족과 커뮤니티 6집 (2022. 09.)**

**일반논문**

윤정안 | 계모형소설의 ‘친밀’한 이복남매  
- <황월선전>의 월선과 월생

한양하 | 구비 설화에 나타난 돌봄정서의 아버지

성민경 | 유교 가부장제 가족의 인척 관계에 대한 남녀의 시각차에 대하여

이재숙 | 덕수 이씨의 면천 세거(世居)와 문학적 전승

신호식 | 재미(在美) 아시아계 가족의 스테레오타입의 변화

박건우 | 제주지역 여성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실증 분석

문창배 · 최영진 |

성별, 학년별, 환경별 요인이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서평**

윤수진 | 위기의 시대, 돌봄의 정치학이 갖는 저항의 의미

---

**가족과 커뮤니티 7집 (2023. 03.)**

**특별기고**

김미경 |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성평등정책의 과제

**일반논문**

황명환 | 성호 이익 한시에 나타난 친족 교류의 양상 연구

김중수 | 청풍승평계(淸風昇平稷)의 형식적 특징과 기금 운용

이원석 | 북송대의 입양 습속에 대한 구양수의 견해 - 그의 복의(濮議)를  
중심으로

위민호 · 류도향 | 커뮤니티를 통한 체계와 생활세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 -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이론의 현재성

박건우 | 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장애아동 사례를  
중심으로

홍성효 | 가족의 분거와 삶에 대한 만족

문창배 · 최영진 | 일반계고등학생의 가정경제 정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정서적 지지 매개효과

**현장 & Issue**

장화선 | 광합성 광주를 꿈꾸며

**서평**

추주희 | ‘가족’을 폐기할 것인가, 구원할 것인가?

---

# 『가족과 커뮤니티』 발간 저서 목록

## 1. 연구총서

---

박미선 외, [연구총서01] 가족주의와 가족의 경계들, 한국문화사, 2020. 2. 29.

---

추주희·나영정 외, [국가전략총서1] 가족커뮤니티 인문사회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가족실천 및 가족상황 차별 실태조사,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 29.

---

류도향·추주희 외, [국가전략총서2] 가족커뮤니티 인문지표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 29.

---

고광이·허진원, [국가전략총서3]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별 가족만족 종합지수 분석,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 29.

---

Elsa Dolin 외, [연구총서02] 가족의 재의미화 커뮤니티의 도전, 한국문화사, 2021. 1. 30.

---

Brett Nielson 외, [연구총서03] 역동하는 관계와 가족커뮤니티, 한국문화사, 2023. 1. 27.

---

## 2. 번역총서

---

박성원 지음, 양순자·조우진·정영수 옮김, [번역총서02] 돈효록: 조선 선비의 효경 집대성, 한국문화사, 2019. 5. 31.

---

Tony Blackshew 지음, 강의혁 외 옮김, [번역총서01] 커뮤니티 연구란 무엇인가?, 한국문화사, 2021. 1. 30.

---

Lodger Pries 지음, 최대회·장영숙 옮김, [번역총서03], 초국화: 경계를 넘는 사회화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2023. 2. 28.

---

---

Avishai Margalit 지음, 박의연·오창환·추주희 옮김, [번역총서04] 기억의 윤리, 한구문화사, 2023. 6. 19.

---

### **3. 시민문화총서**

---

강의혁 외, [시민문화총서01] 안과 밖의 경계 가족과 공동체의 풍경,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2. 28.

정미라 외, [시민문화총서02] 가족인문학: 나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드림미디어, 2021. 1. 29.

류도향 외, [시민문화총서04] 우리 시대의 가족을 묻다: 인문학과 종교의 대화,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2. 28.

김석봉 외, [시민문화총서03] 평화와 연대의 인문학,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2. 28.

---

### **4. 인문지표총서**

---

류도향 외, [인문지표총서01] 가족커뮤니티의 개념들: 관계편. 가까운 사이,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2. 28.

---